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한부모이주여성 삶의 성장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A Life-historical Narrative Study on the Growth
Experiences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2021년 0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이 춘 양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한부모이주여성 삶의 성장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A Life-historical Narrative Study on the Growth
Experiences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2021년 02월

지도교수 김영순·신명선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이춘양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1년 02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이론을 중심으로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그리고 그러한 생애 경험에서의 성장 변화한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장을 위한 방안 제시함과 동시에, 추후의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연구 방향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2019년 12월에 연구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까지 문헌고찰과 함께 자료수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 순서지를 구성했다. 지인 소개 및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의 소개를 받아 눈덩이 표집방법과 함께 25명의 연구참여자를 섭외해, 집단면담, 개인면담 및 전화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했다. 수집한 녹음 및 녹화 자료를 전사 및 정리하여 현장 기록 관찰 일지와 함께 연구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함에 따라 전화로 추가 자료수집 단계를 거쳤다. 최종 연구에서는 25사례 중의 대표적인 14사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그리고 생애 경험 속 성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했다.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는 생애사연구를 토대로 하며 핵심은 ‘내러티브’(Rosenthal, 2006)에 있다. 한부모이주여성 집단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이자 한국사회에서 힘없는 소외 계층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그들의 경험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을 통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많은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생애 경험 속 성장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재구성을 통해 연구참여자별 생애 경험을 기술적 내러티브 분석하였고, 반복비교적 분석법 아래 김영천(2017)에서 제시한 실용적 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이후의 생애 경험에 중점을 두고 설명적 내러티브를 통해 성장 변화 경험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변화하는 1차 직접적 경험의 기술적 내러티브에서 Cloninger(1994)이 제시한 개인의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기초월의 측면을 반영하는 세 가지 성품 중의 하나인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과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되기 과정에서 개인이 주도적 행동 (Crant, 2000; 2007)을 했느냐에 따라, 14명의 연구참여자를 자기주도형 및 비주도형, 그리고 그 중간에 속하는 기관의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별 기술적 내러티브한 결과, 첫째, 결혼부터 가정해체를 경험해 한부모가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때, 자기의지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갈등-우울-고민-결심-이혼-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했고, 기관의지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위기-탈출-고민-결

심-이혼-우울-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비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사별/이혼-당황/분노-우울-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트레스 및 우울, 슬픔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시기는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한부모되기 전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에 우울에 빠진 경우가 많다.

둘째, 한부모가 되기 과정에서 개인의 주도적 행동에 주된 작용요인으로 언어소통 능력, 입국 전·후의 사회 경험 유무, 결혼 전·후의 경제 활동 유무, 결혼 후 가정 경제 공동 부담 여부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높은 언어소통 능력이 있으며, 입국 전·후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 경험도 비교적 많고, 결혼 후에 가정 생계를 전 배우자와 함께 부담한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기관의지형과 비주도형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거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경험 없이 학교 다녔을 때나 졸업하자마자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 이주하여, 결혼 후에도 가정의 생계는 전 배우자가 주로 부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보여 현재 사회 활동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한부모 가정 지원, 노동부 지원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신체적 심리적 문제도 많았으나, 한부모가 된 이후 회복됐거나 회복 중인 것으로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되찾아 매우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구체적인 성장 변화 경험을 설명적 내러티브를 통해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 '신체적 측면', '지역사회 참여적 측면', 그리고 '미래대비 측면'에서 변화 및 성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서 '되찾은 경제적 주도권', '채무에서 벗어난 삶' 등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고, 심리적 측면의 변화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 '죽음을 맞이한 뒤의 깨달음', '감사와 용서' 등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사회 참여적 측면의 변화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동', '몸으로 봉사활동 실천', '이주민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역 활동 참가' 등의 경험을 확인되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자격증을 따', '평생 직업 탐색'을 해, 언젠가 '이루어지고 싶은 진학의 꿈'을 안고, 저금, 연금 및 보험 등을 가입해, 위기 및 사고를 대비해, 운동 꾸준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생애 경험에서 변화 및 성장하는 과정 중 '종교적 믿음', '사회적 지지', '개인적 노력'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첫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편견의 문제이다. 둘째, 관련 정보 획득의 신속성 문제이다. 셋째, 직업교육 및 자기계발 후의 취업 연계 문제이다. 넷째, 가사 및 가정 돌봄 시간 부족의 문제이다. 다섯째, 위기 및 사고 후 자녀의 생존 문제이다.

연구 결과와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이주여성의 바른 성장 및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연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경제, 봉사, 지역 활동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전파하기 위해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공·사적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시 및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이주여성들이 가정해체를 경험 후 시기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보전 교육 및 심리상담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원 등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교육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후의 취업 연계 서비스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한부모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부모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여성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위기 상황이나 사고 대비 자녀 생존 문제를 관련하여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한부모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짐으로 연구 분야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 이야기, 문학 등을 활용한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발과 연구가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아홉째,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국적 취득 요건의 완화 및 특별 귀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이론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이주여성 결혼과 해체 현황, 한부모이주여성의 현황을 검토하여,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속 긍정적인 변화 성장된 모습을 탐색해 보았다. 이는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들의 생애 경험 속의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는 시도에 의미가 있다. 몇몇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을 통해, 일반인이자 한국사회 일원으로서의 한부모이주여성들이 문제 상황을 직면할 때의 상태와 변화,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본 모습과 경험이 한부모이주여성을 포함한 모든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부모이주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 및 기여도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오늘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과 함께, 연구자는 한부모이주여성 관련하여 자녀 양육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심리적 변화,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제로 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주제어: 한부모이주여성, 문제 상황, 경험, 성장, 변화, 생애사적 내러티브

목 차

국문 초록	i
목차	v
표·그림 목차	viii
I. 서론	00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001
2.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006
II. 이론적 고찰	008
1. 이주여성의 결혼과 해체	008
2. 한부모이주여성	028
3. 듀이의 경험이론과 성장	036
4. 소결	043
III. 연구방법	047
1.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047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054
2.1. 연구자	054
2.2. 연구참여자	058
3. 자료수집 및 분석	066
3.1. 자료수집	066
3.2. 분석 방법	069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072
4.1. 연구의 윤리성	072
4.2. 연구의 신뢰성	074

IV.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075
1. 자기주도형	076
1.1. 연구참여자 1: 죽음에서 벗어나 희망갖고 삶	076
1.2. 연구참여자 2: 미움에서 벗어나 용서하고 삶	082
1.3. 연구참여자 3: 사랑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삶	089
1.4. 연구참여자 4: 환상에서 벗어나 자아를 되찾아 삶	095
2. 기관의지형	100
2.1. 연구참여자 5: 갈등에서 벗어나 봉사하며 삶	100
2.2. 연구참여자 6: 미련에서 벗어나 씩씩하게 삶	106
2.3. 연구참여자 7: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삶	113
2.4. 연구참여자 8: 폭력에서 벗어나 열정적으로 삶	119
2.5. 연구참여자 9: 실망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삶	124
3. 비주도형	130
3.1. 연구참여자 10: 한에서 벗어나 공감하며 삶	130
3.2. 연구참여자 11: 기대에서 벗어나 수용하고 삶	139
3.3. 연구참여자 12: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삶	146
3.4. 연구참여자 13: 우울에서 벗어나 자신있게 삶	151
3.5. 연구참여자 14: 원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삶	158
4. 소결	164
V. 한부모이주여성의 성장 변화 경험의 의미	169
1. 경제적 측면	170
1.1. 경제적 측면 성장 변화	170
1.1.1. 되찾은 경제적 주도권	170
1.1.2. 부채 및 빈곤에서 벗어난 삶	170
1.2. 경제적 성장 변화의 의미	172
2. 심리적 측면	175
2.1. 심리적 측면 성장 변화	180
2.1.1.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180
2.1.2.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	183

2.1.3. 죽음을 맞이한 뒤 탄탄해진 마음	185
2.1.4. 감사와 용서	188
2.2. 심리적 성장 변화의 의미	191
3. 신체적 측면	201
3.1. 신체적 측면 성장 변화	201
3.1.1. 건강해진 몸	201
3.1.2. 암 수술과 치료	202
3.2. 신체적 성장 변화의 의미	205
4. 지역사회참여 측면	207
4.1. 지역사회참여 측면 성장 변화	207
4.1.1.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동	207
4.1.2. 공감하며 몸으로 봉사활동 실천	209
4.1.3. 이주민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역 활동 참여	212
4.2. 지역사회 참여 성장 변화의 의미	214
5. 미래대비 측면	216
5.1. 미래대비 측면 성장 변화	216
5.1.1. 틈틈이 딴 자격증들	216
5.1.2. 미래를 생각해 평생 직업 탐색	219
5.1.3. 이루어지고 싶은 진학의 꿈	220
5.2. 미래대비 성장 변화의 의미	223
6. 소결	225
VI. 결론 및 제언	230
1. 결론	230
2. 제언	236
참고문헌	239
ABSTRACT	252
부록	257

표 목차

[표 II-01]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해체 현황-통계청(2008-2019)	019
[표 II-02] 결혼이주여성 피해 사망 보도 자료 통계	022
[표 II-03]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혼인 현황-통계청(2020)	028
[표 II-04]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이혼 현황-통계청(2020)	029
[표 II-05] 한부모이주여성 연구(2011-2019)	030
[표 III-01] 생애사 연구의 주요 구성범주와 특징	049
[표 III-02]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1	059
[표 III-03]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2	060
[표 III-04] 연구참여자 특성	064
[표 III-05] 면담 질문 순서지	067
[표 III-06] 자료 분석 절차	070
[표 IV-01] 연구참여자 1의 생애 경험 요약	076
[표 IV-02] 연구참여자 2의 생애 경험 요약	082
[표 IV-03] 연구참여자 3의 생애 경험 요약	089
[표 IV-04] 연구참여자 4의 생애 경험 요약	095
[표 IV-05] 연구참여자 5의 생애 경험 요약	100
[표 IV-06] 연구참여자 6의 생애 경험 요약	106
[표 IV-07] 연구참여자 7의 생애 경험 요약	113
[표 IV-08] 연구참여자 8의 생애 경험 요약	119
[표 IV-09] 연구참여자 9의 생애 경험 요약	124
[표 IV-10] 연구참여자 10의 생애 경험 요약	130
[표 IV-11] 연구참여자 11의 생애 경험 요약	139
[표 IV-12] 연구참여자 12의 생애 경험 요약	146
[표 IV-13] 연구참여자 13의 생애 경험 요약	151
[표 IV-14] 연구참여자 14의 생애 경험 요약	158
[표 VI-01] 한부모이주여성 경험 속 성장 변화의 의미	233

그림 목차

[그림 II-01]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도-행정안전부(2019)	009
[그림 II-02] 외국인 주민 성별 비율도-행정안전부(2019)	009
[그림 II-03] 국제결혼 추세 및 성별 비율도-통계청(2020)	010
[그림 II-04] 선행연구 선별 절차	011
[그림 II-05] 연도별 연구 동향	012
[그림 II-06]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	014
[그림 II-07] 출신국가별 연구 동향	015
[그림 II-08] 연구주제별 연구 동향	016
[그림 II-09] 국제결혼가정해체 추세도-여성가족부(2019)	020
[그림 II-10]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별 이혼 비율도-통계청(2020)	021
[그림 II-11]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별 이혼 비율도-통계청(2020)	021
[그림 II-12] 결혼 지속기간 비율대조도-통계청(2020)	023
[그림 II-13] 국제결혼 해체 연도별 연구 동향	024
[그림 II-14] 국제결혼 해체 연구 출신 나라별 연구 동향	024
[그림 II-15] 국제결혼 해체 방법별 연구 동향	025
[그림 II-16] 국제결혼 해체 주제별 연구 동향	025
[그림 II-17] 국제결혼 해체가정 이혼·별거 사유-여성가족부(2019)	026
[그림 II-18] 해체가정 이주여성이 경험한 주요 문제 상황	045
[그림 III-01] 연구 설계	052
[그림 V-01]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속 변화와 성장	225
[그림 V-02] 한부모이주여성 경험 속 변화와 성장 작용요인	22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결혼이 사회적인 화두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남·여 간의 결혼이 음양의 조화이며 결혼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내 여성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 농촌의 여성들이 도시로의 이동, 경제적으로 더 발달한 해외 국가로의 이주를 선택하거나, 그리고 가부장제를 대항하여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도 많았다. 이는 결국 일부 한국 남성들의 결혼 난(難) 문제가 뒤따르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정책을 도입했다.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동포로 시작해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결혼 가정 안에 80% 이상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다. 서로 알지 못하고 교집도 없었던 이 여성들의 공통점으로 낯선 한국이라는 땅에 와 생활하고 노력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결혼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아름다운 꿈을 안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 젊고 활기차며 근면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이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고 한부모 가정의 일원이 되고 말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중 이혼·별거(16.4%) 및 배우자 사망(4.8%) 가정의 비율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21.2%에 달했으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혼 외의 사별, 별거, 미혼모 등으로 인한 한부모이주여성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해체 후 이주여성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94.9%로 2015년의 65.3%보다 크게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은 이혼, 가출, 사별 등에 의해 해체된다. 이중 사별

은 질병이나 사고 등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비의도적인 가족 해체인 데 반해, 이혼은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과정이 다르다. 또 배우자의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므로 의도적 해체라 할 수 있다(한미현, 2005; 이춘양·김영순, 2020). 조수연(2012)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들과 강한 유대를 맺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들과 헤어지거나 사별하여 유대가 깨어지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조수연, 2012). 가족의 유대가 깨어지는 가정해체는 넓게는 통합, 합의, 가족 단위 기능의 붕괴 등과 같은 가족결속의 파괴를 의미하며, 좁게는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어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전재인·조운희, 1990; 강진희, 2004; 정희정, 2004; 이시연, 2005; 김진미, 2006; 김재훈, 2007; 조수연, 2012)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 현상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2007년 이후의 일이다. 2007년부터(박재규, 2007; 이민영·김현경, 2007) 2019년까지(김태량, 2019; 고미숙, 2019)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중 이혼가정(문경연, 2011; 안윤지, 2016)을 중심으로, 가정해체 경험, 해체 원인, 해체 과정, 해체 후 적응 및 자립(김희주, 2018; 오혜정, 2017; 금민아, 2017; 김강남, 2016; 주정, 2015) 등의 연구들이 지속하여 발표되었다.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인하여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을 기존연구에서 한부모이주여성이라고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사회문화 적응의 생활적 어려움, 폭력에 시달렸던 경험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취업난 및 양육비를 받지 못하므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사회적 편견 등을 지적하였다(정지윤, 2011; 심인선, 2013; 최승인, 2014). 그렇지만, 한부모이주여성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 한국에서 주체적인 삶을 열어가려고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박영신, 2014; 김희주, 2018; 김영순 외, 2019). 문제는 현재까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중점은 여전히 ‘어려움, 문제, 폭력, 우울, 스트레스, 차별’ 등의 문제 상황의 탐색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일찍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꼭 경험이라 보고, 모든 삶의 현장을

계속되는 문제 상황이라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겪은 선행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주변의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고 갱신해간다. 인간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작용-반작용의 결합으로 상호작용해 간다. 이 결합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이 발생하며, 이렇게 형성된 경험은 경험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경험 상황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 경험의 연속성 덕분에 인간의 경험은 끊임없는 갱신과 재구성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서 경험에는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성장이라고 한다 (이재실, 2009; 송도선, 2014). 듀이 외에도 많은 학자와 위인들이 문제 상황이 성장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루고 있다. 심리학자 John Redo는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하고, 고통은 성장에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은 영속적이다. 신은 잠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영원히 지속될 성장의 박탈이다.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큰 고통의 결과는 성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Maxine Schnal은 ‘어떤 고통이나 비극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위기의 날이 끝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Tolstoy는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난 많은 문제 상황은 때로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화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는 시련이 되기도 한다. [맹자]는 문제 상황에 처 있으면서도 이름을 잘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순임금께서는 밭두둑 가운데에서 농사짓다가 떨어져 일어나셨고, 부열은 성벽 쌓는 일을 하다가 등용되었고, 고격은 어물과 소금을 팔다가 등용되었고, 관중은 옥에

간쳐 있다가 등용되었고, 손숙오는 바닷가에서 살다가 등용되었고, 백리해는 시장
장에서 등용되었다...(중략)...그런 뒤에야 사람은 우환 가운데에서 살아나고 안
락함 가운데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¹⁾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
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로마서 8:18).

듀이가 ‘문제 상황’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함(doing)’을 통해 ‘학습
(learning)’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 상
호작용을 하며 좋고 좋지 않은 경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된다. 이주민으
로의 삶이 특히 더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우
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또 성장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난 5년 동안 다문화 및 이주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연구자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집단을 만나보았다. 이 중에서 한부모이주여성 집단이
그 어느 집단보다도 많은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매우 긍정적인 모습
으로 자녀 양육하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특히
한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기존연구는 대부분 한부모이주여성들의 딱한 사정
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발견해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문
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일반 국제결혼가
정의 해체 예방 및 한부모이주여성의 상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가정해체를 부정적
인 시각에서 출발해, 문제 상황에 처한 그들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들을 불쌍한 존재, 지원의 대상,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로 고정해 버렸다는
아쉬움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회의 일원인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마치 ‘불쌍
한 존재’, ‘지원의 대상’, ‘사회적 약자’ ‘문제 덩어리’라는 인식을 할 수 밖에

1)https://hm.cyberseodang.or.kr/verbalTrans/classic_List3.asp?bookNo=11&chapterNo=12&listLevel=2&isPage=Y

없을 것이다.

한부모이주여성은 이주자로서 유입국 사회에 적응함과 동시에 자녀 돌봄과 생계부담자로서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삼중고에 놓이는 특성이 있다(이정은, 2013). 많은 연구에서 한부모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로서 경제적 문제 및 자녀 양육 문제, 언어적 문제, 심리 및 정서적 문제, 정체성의 문제, 사회적 지지 및 네트워크 미약의 문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심인선, 2013; 박영신, 2014; 최승인, 2014; 장명선, 2015). 이와 동시에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무력함을 겪었음에도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터득하면서 아이를 위해 견디며 긍정을 품어 두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가족부양이나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결혼 이주를 선택할 정도로 독립적이고 의지적이었으나, 결혼 이주 이후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분위기와 문화적 차이, 한국어능력의 부족으로 소수자적 존재로 생활하게 된다(임춘희, 2014). 가정해체 후 힘든 한국생활 속에 한부모로서 홀로서기 위해 고향 가족과 친구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생존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아냈다(이현주, 2013; 임춘희, 2014; 박미정, 2015; 오혜정, 2016; 금민아, 2017).

가정해체를 경험한 ‘선배’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그리고 경험 속 성장 사례에는 많은 지혜와 노하우가 숨어 있다. 이와 같은 지혜와 노하우는 ‘후배’ 한부모이주여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을 대체하고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해체 현상 예방 및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새로운 연구과제의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고정 관념 전환, 그리고 향후 한부모이주여성의 적응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구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더 많은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문제 상황과 싸우고, 그리고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한국에서 삶을 꾸려가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속의 성장 변화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속의 변화 성장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한부모이주여성들이 문제 상황에서 빠져 나와 성장하도록 한 방법을 탐색하고, 한부모이주여성의 바른 성장 및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추후 연구 방향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중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기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가정해체 이주여성 및 한부모이주여성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집단면담과 개인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 사례를 수집하여, 그들의 전체적인 생애 경험을 살펴본 다음, 그러한 경험 속의 변화 및 성장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 문제 1.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이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경험 속 성장 변화가 어떠한가.

연구 문제와 관련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은 자기주도성과 주도적 행동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연구참여자별 생애 기술을 통해 살아온 생애 경험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듀이의 경험이론을 바탕으로 그동안 살아온 삶,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한 1차 직접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부모이주여성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집단면담과 개인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 바탕으로 이야기 재구성하여 개인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2는 그동안의 문제 상황을 만나면서 특히 한부모가 된 이후 연구참여자들의 변화와 성장한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수집한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에서 나타난 성장 변화 경험의 의미를 범주화하고자 한다.

I 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II 장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먼저 이주여성의 결혼과 해체, 한부모이주여성의 현황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한 다음, 본 연구에 적용할 핵심 패러다임인 듀이의 경험이론과 성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I 장의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할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연구절차,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소개와 함께,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와 연구의 윤리적 고찰 과정 등을 자세히 제시할 것이다.

IV 장은 연구참여자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을 성장배경, 이주 과정, 결혼 해체 경험, 한부모 경험, 그리고 현재의 삶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별 생애 경험 내러티브 기술을 통해 그들의 전반적인 생애 경험에서 나타난 1차 직접적 경험 변화의 흐름을 탐색하고자 한다.

V 장에서는 IV 장에서 기술한 한부모이주여성로서의 생애 경험 속의 주된 성장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삶에서의 변화 및 성장 경험의 의미를 범주화할 계획이다.

VI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긍정적인 성장 및 자립을 위한 제언 및 추후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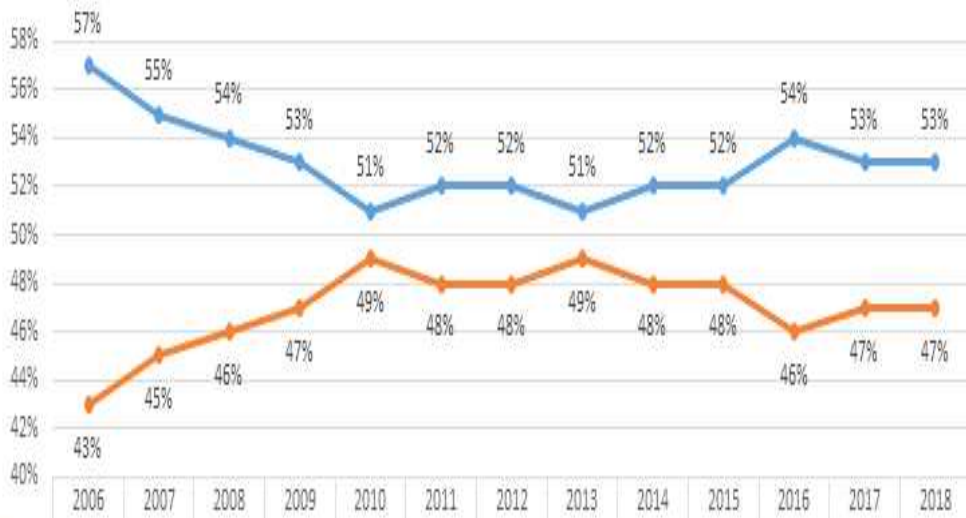
1. 이주여성의 결혼과 해체

이주의 양상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최근 이주의 여성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현상으로 인지되고 있다(윤혜옥, 2015; 송형주, 2014). 이주의 여성화 개념은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 노동이동 중 다수가 여성 이주자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남편을 따라 이주하는 ‘동반 이주자’(tied movers)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그러나 실제로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주자 개인의 동기나 배경, 가족 단위의 생존 전략, 국민국가 수준의 정책, 그리고 아시아 지역 경제나 지구화의 흐름 등이 복잡다기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이주 흐름에서 성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수용국의 이민 법률, 성별에 따라 선택적인 외국인 노동 수요, 그리고 출신국에서의 젠더 관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황정미, 2009; 2011; 류경혜, 2018). 그렇다면 이주의 여성화는 글로벌한 보편성을 갖는 동시에 송출국과 수용국의 개별적인 맥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이주 노동력의 여성화, 특히 전형적인 ‘여성의 일’로 취급되던 돌봄 노동, 즉 아동 및 노인 수발과 가사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증가를 주목해 왔다.

황정미(2009)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주자의 상당한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담론 지형에서도 여성 이주노동의 문제는 주변화되고 결혼 이주만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여성의 양적 증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주의 여성화는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95만 6,486명으로 국내 체류 이주민의 46.6%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 및 남·여 성별 비율은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다음 [그림 Ⅱ-01] 및 [그림 Ⅱ-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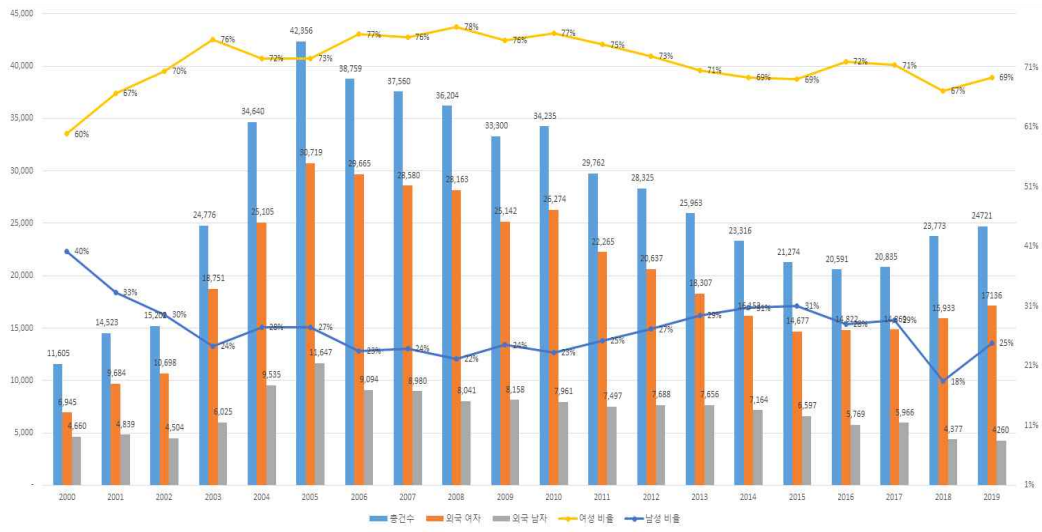


[그림 II-01]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도-행정안전부(2019)



[그림 II-02] 외국인 주민 성별 비율도-행정안전부(2019)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에 이르게 된 최근의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주로 노동 이주를 통해 유입되는 반면 여성 이주자는 이와 달리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가 동시에 늘어나며 특히 결혼 이주에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해 2000년 이후의 국제결혼 추세 및 남·여 성별 비율을 재구성하여 다음 [그림 II-03]과 같다.



[그림 II-03] 국제결혼 추세 및 성별 비율도-통계청(2000-2019)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이주민 수가 2,054,621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달했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은 47% 정도이다. 이는 199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현상은 고대 사회로 거슬러 볼 수 있지만, 근·현대 사회의 국제결혼은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때의 ‘내선융화’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던 ‘내선결혼’(김석란, 2007)이 근·현대 국제결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42년까지 국제결혼은 이미 5,000건 그 이상이었다. 6.25 전쟁 이후 미국 군대의 주둔으로 한국 여성과 미국 남성의 결합은 그다음이었다. 미국은 국제결혼 법이 완화된 후, 미군의 빠른 시간 내의 철수를 기대했기 때문에 1973년에 그 추세가 급증하였다고 한다(송성자, 1974). 1974년에 한미 국제결혼의 수만으로도 3,000건을 넘었다. 1992년에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 남성과 조선족 여성으로 이룬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여, 연간 6,000쌍에 이른다고 하였다(강유진, 1999). 그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한 해 42,356에 달하여 국제결혼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6년부터 그 추세가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24,721건으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 이와 대조되는 것은 국제결혼 대상국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프랑스, 영국, 호주 등 매우 다양해졌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집단이 사회, 경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의 결혼이주여성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다음 [그림 II-04]와 같은 절차를 걸쳐 논문은 선택하여 분석했다.



[그림 II-04] 선행연구 선별 절차

1단계: 먼저 ‘결혼이주여성’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모두 포함해 총 5,172건으로 확인되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주여성,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2단계: 분석 논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키워드별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원본 파일을 확인한 한국어로 된 KCI 등재지 이상 등의 조건을 넣어 검색 논문의 범위를 좁힌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1차 분석 논문을 선별하여 목록을 정리한다.

3단계: 1차 분석 논문 목록을 중심으로, 제목이 같은 논문, 제목이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일부 연구내용이 불성실한 논문, 등재후보지 논문을 제외하는 2차 선별 작업을 통해 최종 분석 논문 목록을 확정한다.

4단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별한 1376편의 논문을 Excel에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학회, 학술지,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 중심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 및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도별 연구 동향은 다음 [그림 II-05]와 같다.



[그림 II-05] 연도별 연구 동향

[그림 II-05]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2년(이지석 외, 2002)부터 2006년(양순미, 2006; 이인경, 2005)까지는 16편(1%), 2007년(박주희, 정진경, 2007; 임현지, 2007)에는 35편(3%), 2008년(김근아, 2008; 박홍순, 2008)에는 48편(4%), 2009년(김한곤, 2009; 최송식·김현숙, 2009)에는 81편(6%), 2010년(김정선, 2010; 이진규, 2010)에는 114편(8%), 2011년(남인숙·안숙희, 2011; 민가영, 2011)에는 121편(9%), 2012년(김현미, 2012; 정영애·최우길, 2012)에는 159편(12%), 2013년(김경원·정금희, 2013; 이혜경·전혜인, 2013)에는 145편(11%),

2014년(김경원·백성희·정금희, 2014; 오종진, 2014)에는 125편(9%), 2015년(김서형, 2015; 조윤주, 2015)에는 138편(10%), 2016년(석영미·이병준, 2016; 이영균, 2016)에는 99편(7%), 2017(서선숙·백진아, 2017; 전오열·이희중, 2017)에는 112편(8%), 2018년(황해영·김영순·이춘양, 2018; 김두섭, 2018)에는 109편(8%), 그리고 2019년(김재은, 2019; 이춘양·조지형, 2019)에는 73편(5%)의 관련 연구가 있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주여성 연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2005년까지 급속도로 증가한 국제결혼이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지만, 그 동안 쌓인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함께 국제결혼가정 2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생활 및 문화적응, 사회적응 및 네트워크 형성, 실태 및 정책, 법규 및 인권, 교육 및 학습, 진로 및 상담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159편의 연구가 나온 정도로 연구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2009년 이전의 180편의 연구는 이주여성의 개인 및 가정생활, 문화적응(양점도, 김춘택, 2006; 김한곤, 2009) 24%,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 형성(채옥희, 홍달아기, 2006; 최송식, 김현숙, 2009) 17%, 언어·교육(이성순, 2006; 고은미, 2009) 15%, 심리 정서·상담 치료(신민자, 2006; 문선숙·김창희·심미경, 2009) 12%, 법규·제도·정책·인권(이인경, 2005; 표명환, 2009) 11%로 주로 관심을 두었으며, 전체 연구 중의 79%를 차지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664편의 연구가 있었으며, 연구의 범위는 건강·보건·위생(윤영옥·문인옥, 2010; 유정균, 2014) 9% 및 자녀·양육 및 교육(마미정·윤서연, 2010; 남혜경·이미정, 2014) 8%로 확장되었으며, 경제 활동·진로취업(이경은, 장덕희, 김도희, 2010; 이지은 외, 2014) 6% 및 여가 활동·취미 생활(김우석·한광령, 2010; 김재학·박진경, 2014) 4%, 가정 폭력·피해 및 이혼·해체(장은정·박진윤, 2010; 임춘희, 2014) 4%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의 범위가 고루고루 이루어져 있었으나, 언어·교육(김서형, 2015; 홍영숙, 2019) 9% 및 법규·제도·정책·인권(박미숙·김영순·이진영, 2015; 서승현, 2019) 4% 관련 연구가 전체 연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건강·보건·위생(이연옥·장덕현, 2015; 고원식, 2019) 12%, 자녀·양육 및 교육(박희숙, 2015; 이승숙, 2019) 11% 및 경제 활동·진로 취업(김현숙, 2015;

황해영·김영순, 2019) 9%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기 적응 교육이 필요한 5년 미만 이주여성보다 5년 이상 장기 체류 이주여성이 전체 이주여성 중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 따라, 언어 및 문화 교육보다 관심 분야가 이주여성의 신체·정신적 건강, 진로 및 자기계발, 그리고 2세 인 자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 II-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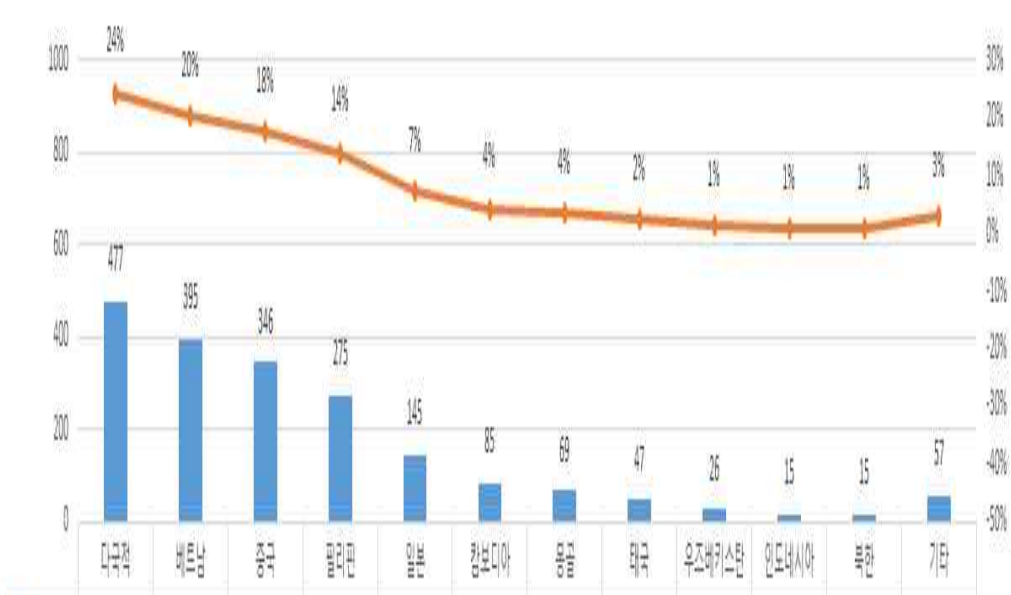


[그림 II-6]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 분야에서의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및 문헌연구 등의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그림 II-6]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적 연구(양점도·김춘택, 2006; 정금희·김경원·백성희, 2019)가 566편(41%)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이금연, 2006; 최은경·이정애·강미옥, 2019)는 455편(33%)으로 그다음이다. 문헌연구(이인경, 2005; 강신희, 2019)는 328편(24%)을 차지했다. 혼합연구(김연수, 2010; 송채수, 2018)의 경우 27편으로 2%에 불과하다. 양적 연구에서는 조사연구(김오남, 2006; 문소현·김미옥·나현, 2019, 실험연구(신민자, 2006; 김주연, 2019), 비교연구(김진희·박옥임, 2008; 정금희·김경원, 백성희, 2019), 실증연구(박행모·문승태, 2008; 이정·김홍범, 2019)등이 있었으며, 질적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이금연, 2006; 김윤경·이부미, 2019), 현상학(송민애, 2008; 고미숙, 2019), 근거이론(정경운, 2007; 박미숙, 2019), 생애사(박신

규, 2008; 최은경·이정애·강미옥, 2019), 문화기술지(김우석·한광령, 2010; 박진경, 2019)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헌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미디어 자료 분석, 통계자료 및 보고서를 활용한 2차 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주여성 실태·정책·법률·인권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선행연구 문헌분석과 더불어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를 동시에 사용한 혼합연구방법으로 수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연구참여자 출신 국적별 연구 동향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 II-0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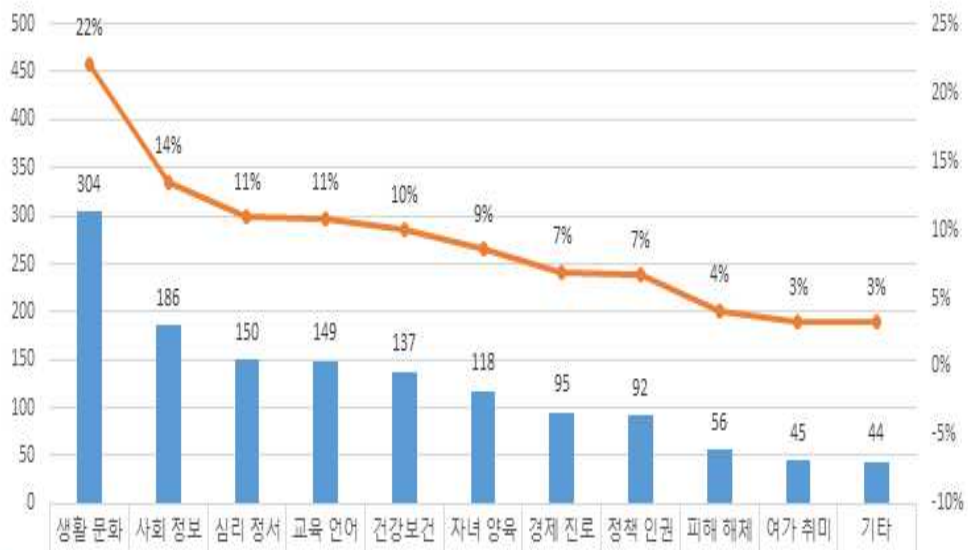


[그림 II-07] 출신국가별 연구 동향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그 외 동남아시아, 남부 아시아, 몽골, 러시아의 순이다(여성가족부, 2019). 그동안의 연구대상의 출신 나라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또한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6개 이상의 나라를 같이 언급한 다국적 연구(김오남, 2006; 김성호, 2019)는 477편(24%)이 있었다. 이 중에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출신 나라별로 베트남을 언급한 연구(김진욱, 2007; 오세경 외, 2019)는 395편(20%)이 가장 많았고, 중국(서운석, 2009; 김윤경·이부미, 2019)은 346편(18%)에서 언급하였다. 일본(이

지선·천혜정, 2008; 오덕열, 2018)은 145회(7%)로 3번째로 많이 연구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캄보디아(김정선·김재원, 2010; 최승은, 2019)를 85회(4%), 몽골(반즈락츠 난딩쨌쨌그, 2010; 서승현, 2019)은 69회(4%), 태국(성향숙, 2010; 김정희, 2019)은 47회(2%), 우즈베키스탄(이은정, 2015; 권이정, 2018)은 26회(1%)와 인도네시아(박신규, 2008; 안정국, 2009) 그리고 북한(이금순, 2006; 신난희, 2019)은 각각 15회(1%)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네팔(김영주, 2009; 김경학·윤밀알, 2017), 라오스(장승심, 2009; 이정숙, 2019), 러시아(문석우, 2010; 서승현, 2019), 카자흐스탄(이해웅, 2014; 전대근, 2015) 등을 언급했다. 연구 대상의 출신 나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의 주제별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 [그림 II-08]과 같다.



[그림 II-08] 연구주제별 연구 동향

기존연구에서는 이주여성 주제별 연구 동향은 생활·문화 304편(22%), 사회·정보 186편(14%), 심리·정서 150편(11%), 교육·언어 149편(11%), 건강·보건 137(10%), 자녀·양육 118(9%), 경제·진로 95(7%), 정책·인권 92(7%), 피해·해체 56(4%), 여가·취미 45(3%)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문화 분야에는 개인 및 가정 중심의 생활·문화적응 경험(김연수·박지영, 2010; 윙티탄프영·김영순, 2018), 부부관계(김연수, 2010; 덩징야·진미정, 2018), 가족 관계(서종남, 2010; 최승은, 2019), 결혼만족도(안옥희 외, 2010; 박현식·최미영·이옥진, 2018) 차별 경험(윤승주·원재연, 2016; 기준성·김민수·최민지, 2019), 식생활(한윤희·신원선·김지나, 2011; 김혜원·김민화·김지명, 2018), 종교(유기쁨, 2011; 박종수, 2016; 석창훈, 2018)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사회·정보 분야에는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적응(성향숙, 2011; MIRANDA DE DIOS INES·이춘호, 2017), 사회 활동 참여(이형하, 2010; 양순미, 2014), 사회 통합(조화성, 2010; 박철민, 2012; 조희원, 2016), 사회적 지지(이영희·심영미·강갑원, 2015; 서재복·임명희, 2018), 네트워크 구성(이소영, 2014; 김혜선, 2019) 미디어·정보 이용(이연옥·박병현·장덕현, 2012; 임양준, 2017), 정치참여(이용승·이용재, 2013; 오태곤, 2018) 등에 관한 연구 들이 있었다.

심리·정서 연구에서는 적응 스트레스(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 박지영·이창식, 2012; 김소희·노윤구, 2018), 우울(김도희, 2010; 최현미·고미경·윤명숙, 2013; 조혜경·임현숙, 2019), 정서 상태(이경혜·김경원, 2011; 주소희·이경은, 2014; 이미경·방기혁, 2018), 심리(이민아, 2010; 방기혁, 2013) 및 이에 관한 상담·치료(주은선·조병주·이현정, 2012; 문정화, 2017), 프로그램(김지현, 2011; 조운주·최연실, 2016; 정의용·문지영, 2019) 등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언어 부분에는 주로 한국어 교육(문석우, 2010; 함옥·김주영 2011; 홍종명, 2013), 교재 개발(서경숙, 2015; 심혜령·조옥이, 2017), 어휘교육(전영옥, 2010; 박현주·정윤나, 2013; 주월량, 2018), 방언 교육(우창현, 2011; 한지현, 2013; 권화숙, 2017), 다문화 교육(서덕희, 2011; 김효선, 2015; 임혜정, 2018), 문학교육(양민정, 2010; 신영지, 2013; 윤대석, 2014), 의사소통(유수연, 2010; 오미경, 2012), 교육프로그램 개발(이주연·박성옥, 2012; 김선정, 2018; 이춘양·조지형, 2019), 평생 교육(김진희, 2011; 권정숙, 2012)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다.

건강·보건에 관련하여 임신·출산(김경원, 2010; 김선희, 2015; 백지현·박정숙, 2018), 건강실태(전미양 외, 2012; 문가을 외, 2015), 사회복지(성향숙,

2010; 김기화·김영순, 2018), 의료서비스(김춘미·박명숙·김은만, 2011; 박지경, 2014; 황민철·정익현, 2017), 월경·자궁(김현진·정경아·정혜원, 2009; 김소영·최소영, 2010; 김혜자·심미정·오호숙, 2012; 최나연, 이병숙, 2015)구강 건강(최미숙, 2013; 조민정·강재민·송근배, 2016; 임재란·한양금·김한홍, 2017) 생식·피임(김태임 외, 2012; 박명남·최소영, 2014; 안나원·한영란, 2018)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자녀·양육에서는 양육 행동(박희숙, 2015; 류다형·이순형, 2016), 양육 효능감(박소은·이채원, 2012; 이아민·이채원, 2017; 오은정·오미정, 2018), 양육 스트레스(박명숙, 2014; 황해영·이미정, 2015), 자녀 언어 지도와 이중언어 교육(유향선·봉진영·윤재희, 2011; 김광수, 2016; 박봉수·김영순, 2018), 부모 역할(남부현·김옥남, 2012; 나영아·홍용희, 2016)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경제·진로 연구에는 경제 활동(양인숙 외, 2010; 고수정, 2017; 이해자·김병록, 2018), 직업·직무(라희문·최재민, 2017; 이현주·여영훈, 2017), 취·창업 경험(박미은·신희정·이미림, 2012; 박재규, 2013; 황해영·김영순, 2019) 진로 교육 및 지원(손기영, 2010; 박미숙·김영순·홍유나, 2014) 등이 있었다.

정책·인권 연구에는 지원·통합 정책및 인권 실태(한국염, 2008; 김정선, 2011; 이경희, 2012; 김영순·이미정·최승은, 2014), 법률·제도 및 교육(이승우, 2008; 정상우·최보선, 2014), 국적·비자 취득 및 체류(이재홍, 2012; 김두년, 2013; 김이선, 2015)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피해·해체에 관련하여 가정 폭력(김옥연, 2009; 황정미, 2015; 황해영, 김영순, 이춘양, 2018), 범죄 피해(윤경희, 박상주, 2011; 조상현, 정육상, 2015), 이혼·사별(박재규, 2009; 이해경, 2015), 한부모(정지윤, 2011; 이성순, 2018) 등의 해체가정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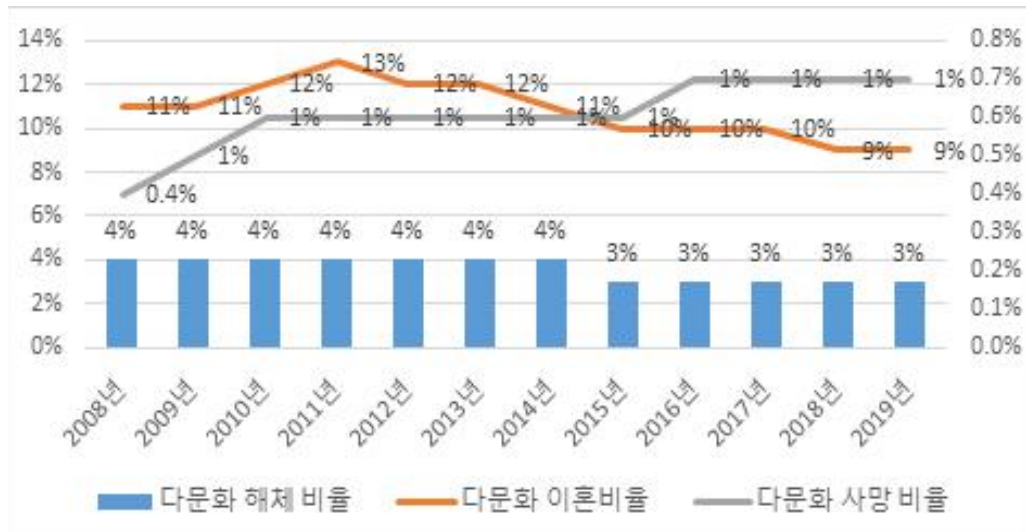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해체 누적 167,947건에 달했다. 2019년까지의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해체 현황은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²⁾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 II-01]과 같다.

2)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표 II-01]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해체 현황-통계청(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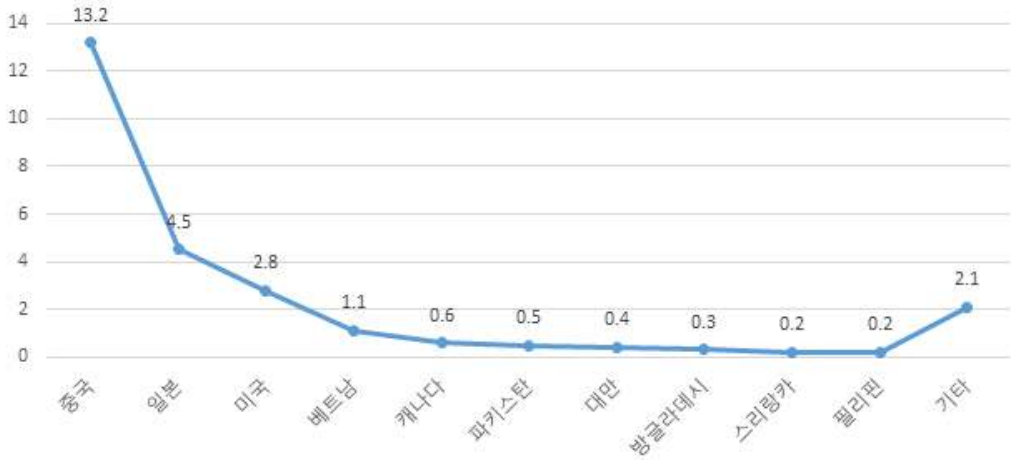
구분 \ 연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해체	32,734	37,032	37,351	37,787	38,668	38,688	38,934	38,512	38,804	39,175	40,632	46,145
다문화 해체	13,473	14,991	15,825	16,007	15,306	15,040	14,500	13,031	12,497	12,309	12,455	12,512
전체 이혼	11,655	12,999	11,658	11,424	11,436	11,522	11,510	10,153	10,738	10,602	10,884	11,081
한국인 간 이혼	10,105	11,036	10,559	99,834	10,615	10,180	10,438	97,866	96,697	95,725	98,430	110,63
다문화 이혼	1,240	13,653	14,319	14,450	13,701	13,482	12,902	11,287	10,631	10,307	10,254	9,868
다문화 이혼비율	11%	11%	12%	13%	12%	12%	11%	10%	10%	10%	9%	9%
전체 사망	26,199	27,033	25,513	25,533	25,732	26,336	25,894	27,609	28,976	28,683	28,978	25,314
다문화 사망	1,043	1,338	1,506	1,557	1,605	1,558	1,598	1,744	1,866	2,002	2,202	2,644
다문화사망비율	0.4	0.5	0.6	0.6	0.6	0.6	0.6	0.6	0.7	0.7	0.7	0.9
남성	790	980	1,125	1,154	1,196	1,131	1,189	1,220	1,331	1,424	1,528	1,758
비율	76%	73%	75%	74%	75%	73%	74%	70%	71%	71%	69%	66%
여성	205	312	351	348	353	360	346	466	476	524	632	810
비율	20%	23%	23%	22%	22%	23%	22%	27%	26%	26%	29%	31%
기타	48	46	30	55	56	67	63	58	59	54	42	76
비율	5%	3%	2%	4%	3%	4%	4%	3%	3%	3%	2%	3%

국제결혼 해체가정 현황은 2014년까지 전체 해체 가정의 4%를 차지했다가 3%로 줄어졌다. 이 통계 수치는 국제결혼 가정 이혼 및 사망만 들어있어, 그 외의 별거나 배우자 가출 유형의 해체가정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표 II-01]에서 나타난 듯이, 국제결혼 이혼 가정은 점차 줄어졌지만, 다문화가정 사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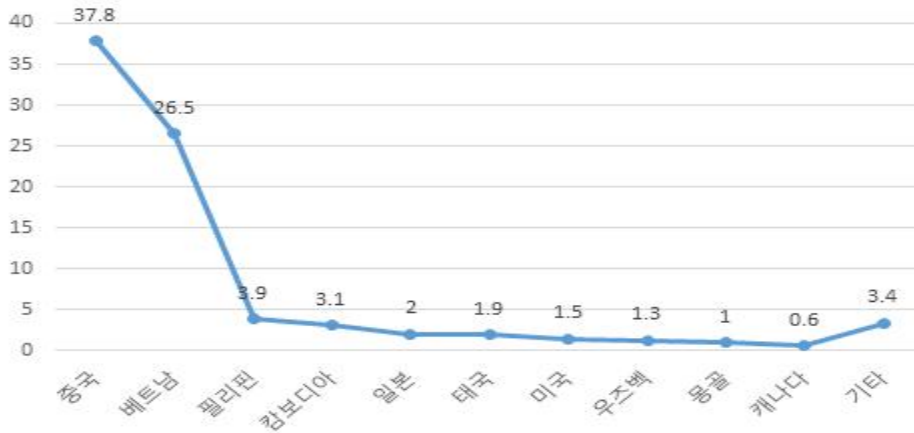


[그림 II-09] 국제결혼 가정해체 추세도-여성가족부(2019)

[그림 II-09]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문화 가정 이혼의 비율은 전체 이혼 중의 11%에서 9%로 줄어졌지만, 사망 비율은 0.4%에서 0.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사망 중 남성의 경우 70% 정도 차지하였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사별 가정 이주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국제결혼 이혼·별거 가정의 수가 다소 줄어졌지만 국제결혼 배우자 사망 가정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의 1%에 달했다. 2008년의 1,043 가정에서 2019년에 2,644가정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혼·별거(16.4%)·배우자 사망(4.8%) 유형의 국제결혼 해체가정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21.2%에 달했다. 국제결혼 해체 가정의 증가함에 반해 이에 관한 연구는 앞에 [그림 II-8]에 나타난 것처럼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출신 국적별 이혼 비중 중 외국인 남편과 아내의 출신 국적은 다음 [그림 II-10] 및 [그림 II-11]과 같다.



[그림 II-10]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별 이혼 비율도-통계청(2020)



[그림 II-11]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별 이혼 비율도-통계청(2020)

[그림 II-10] 및 [그림 II-11]과 같이 국제결혼 해체가정 중 외국인 남편의 출신 나라는 중국 13.2%, 일본 4.5%, 미국 2.8%, 베트남 1.1%, 그 다음 파키스탄(0.5%) 및 대만(0.4%) 및 기타의 순이며, 외국인 아내의 경우 중국 37.8%, 베트남 26.5%, 필리핀 3.9%, 캄보디아 3.1%, 일본 2%, 태국 1.9%, 미국 1.5%, 우즈베키스탄 1.3% 및 기타의 순이었다. 이는 기존연구의 연구 대상자 출신 나라와 대조된다. 2020년 6월까지 국제결혼가정해체 관련 89편의 연구에서 베트남(38편), 필리핀(23편), 중국(22편), 캄보디아(6편), 몽골(5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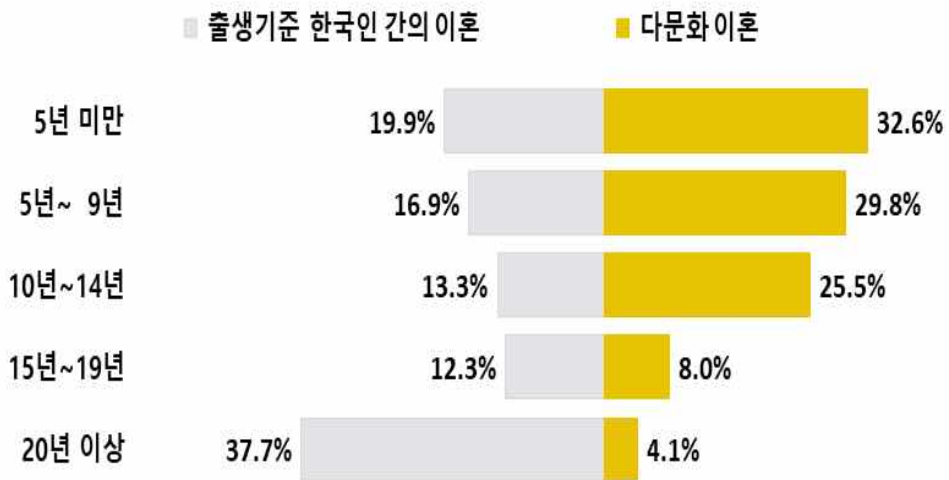
순이며, 아시아 주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관련 연구가 특히 많다는 것은 한·베 국제결혼 및 이혼 가정의 증가와 함께, 그 동안 가정 폭력 등으로 피해 사망 이주여성 중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표 II-02] 결혼이주여성 피해 사망 보도 자료 통계

사례	사건 연도	출신국	사건 지역	사건내용
1	2007. 03	베트남	대구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2	2007. 06	베트남	천안	입국한 달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망
3	2008. 03	베트남	경산	입국 일주일만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4	2008.04	몽골	광주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5	2010. 03	캄보디아	춘천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방화해 사망
6	2010. 07	베트남	부산	입국 일주일만에 조현병 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7	2010. 09	몽골	전남	가정폭력 피해 몽골여성 E씨를 보호하려다 E씨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8	2011. 05	베트남	청도	출산한 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 당해 사망
9	2012. 03	베트남	정선	조현병 남편에 의해 사망
10	2012. 07	중국	서울	평소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에 의해 칼레 찔려 사망
11	2012. 07	중국	강원	남편의 폭력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
12	2013. 01	베트남	칠곡	가족 불화로 농약을 마셔 사망, 남편 그 후 자살
13	2014. 01	베트남	홍천	남편이 목졸라 살해
14	2014. 01	베트남	양산	남편이 목졸라 살해
15	2014. 07	베트남	곡성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16	2014. 08	캄보디아	천안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
17	2014. 11	중국	수원	동거남이 살해
18	2014. 12	베트남	청도	남편이 살해
19	2015. 12	베트남	진주	이혼 후 자녀 면접권을 가진 전 남편이 아이와 함께 살해
20	2017. 06	베트남	서울	시아버지가 살해
21	2018. 11	필리핀	양산	남편이 살해
22	2019. 11	베트남	경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려 사망 후 시신 유기
23	2020.01	베트남	김해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자녀 동반
24	2020. 06	베트남	강원	폭력으로 이혼 후 남편이 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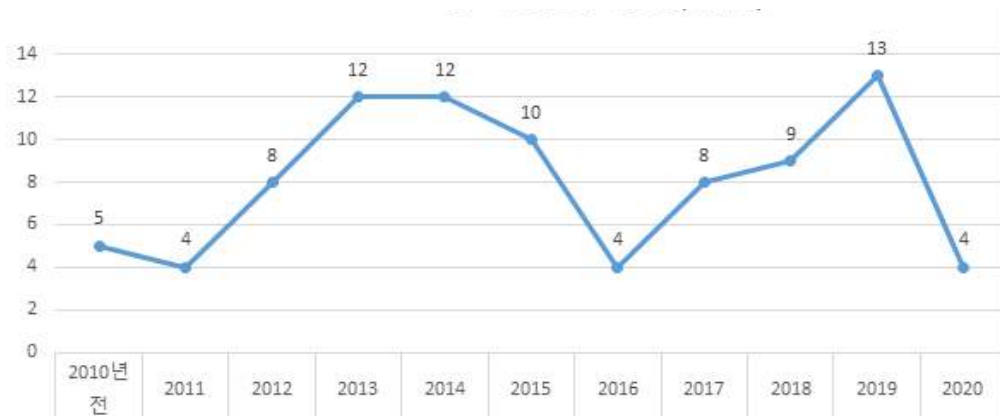
여상가족부(2019)에 따르면, 학대·폭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태국(26.8%), 베트남(19.5%), 필리핀(17.4%), 일본(16.0%) 출신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동안 이주여성들의 피해 사망 사건의 증가와도 다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2020년까지 미디어에 보도된 이주여성 피해 사망 사건은 앞에 [표 II-02]와 같아 피해 사망 사건 중에서도 베트남 이주여성이 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지속기간은 다음 [그림 II-12]와 같이 5년 미만의 경우 32.6%,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29.8%로, 10년 이상 15년 이하 25.5%, 그리고 15년 이상 12.1%의 순이다.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이 주로 20년 이상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국제결혼 가정 이혼 현상은 주로 15년 미만인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II-12] 결혼 지속기간 비율 대조도-통계청(2020)

국제결혼 이주여성 해체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앞에 [그림 II-4]와 같은 절차를 걸쳐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국제결혼 해체 관련 연구를 검색해 보았다. 2020년 6월까지 총 89편의 연구가 있었음을 RISS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89편의 연구에서 학술지 논문은 57편, 석사 논문은 21편, 박사 논문은 11편이 있었으며, 연도별 연구 동향은 다음 [그림 II-13]과 같다.



[그림 II-13] 국제결혼 해체 연도별 연구 동향

연구 분야에서 국제결혼 해체가정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이다. 2010년까지는 5편의 연구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4편, 2012년에는 8편, 2013년에는 12편, 2014년에도 12편, 2015년에는 10편, 2016년에는 4편, 2017년에는 8편, 2018년에는 9편, 2019년에는 13편, 그리고 2020년 6월까지 4편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출신 나라별 연구 동향은 위의 [그림 II-14]와 같다. 89편의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 38편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언급하였고, 23편에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중국 출신 이주여성이 연구 참여자로 한 연구는 22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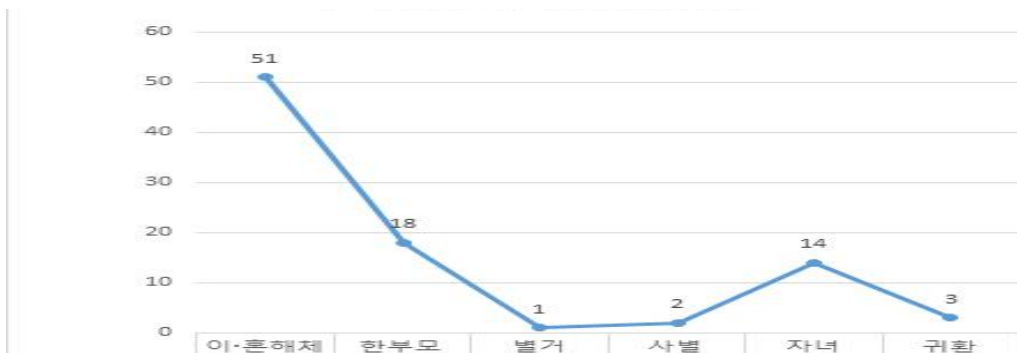
[그림 II-14] 국제결혼 해체 연구 출신 나라별 연구 동향

이처럼, 가정해체 이주여성의 연구대상은 주로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3개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 나라 출신 이주여성도 언급했지만, 그 연구의 수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향후의 다문화 해체가정 연구의 방향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만 국한하는 것보다 출신 나라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II-15] 국제결혼 해체 방법별 연구 동향

[그림 II-15]의 89편의 가정 해체 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 사례연구, 현상학, 생애사, 근거이론, 문화 기술지 등의 질적연구는 54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헌분석을 활용한 동향연구, 기존 통계자료나 보고서를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적 문헌연구가 22편이 있었다. 이에 비해, 양적 연구는 7편, 그리고 혼합연구는 6편에 불과해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그림 II-16] 국제결혼 해체 주제별 연구 동향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그림 II-16]과 같이 이혼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혼 원인 및 이혼 의사 영향 요인(주미연, 2010; 김정순, 2012; 윤희희·서은숙, 2014), 이혼 경험을 포함한 이혼 과정(김순남, 2014; 박미정·엄영용, 2015; 김태량, 2019), 이혼 후 적응(최미경, 2013; 이해경, 2015), 그리고 이혼, 별거 및 사별 가정 등 모두 포함한 가정해체 경험, 해체 과정 및 해체 전·후의 적응 자립(박재규, 2011; 주정, 2015)에 관한 연구는 총 51편의 연구가 있었다. 한부모 가정(정지윤, 2011; 이성순, 2018)을 주제로 한 연구는 18편으로 그 다음이었다. 가정해체를 경험한 다문화 자녀(이효민·구효송 2012; 이춘양·김영순, 2020)에 관한 연구도 14편이 있었다. 이는 이혼·별거 후 직접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의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 별도로 진행한 사별 가정(송재현, 2018; 김하영, 2019) 연구 2편, 모국의 귀환(김현미, 2012; 부티짱, 2017)에 관한 연구 3편 및 별거 가정(윤갑정·정계숙, 2007) 연구 1편 정도 있었다.



[그림 II-17] 국제결혼 해체가정 이혼·별거 사유-여성가족부(2019)

여성가족부(2019)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이혼·별거 사유 및 의사 결정 영향 요인으로 위의 [그림 II-17]과 같이 성격 차이(52%), 경제적 문제(12.6%),

학대·폭력(8.6%), 외도 등 애정문제(8.4%), 음주·도박 문제(7.0%) 가족갈등 문제(5.3) 등의 순이며 기존연구(김정순, 2012; 윤향희, 서은숙, 2014)와 비슷하다. 학대·폭력을 이혼·별거 사유로 지목한 응답이 주로 20대 응답자 사이에 많이 나타났으며 24.8%로 매우 높았다. 체류 기간에 따라 이혼·별거 사유도 크게 달라진다. 5년 미만 체류자는 성격 차이(37.6%)와 더불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24.7%)이 이혼·별거 사유라고 응답하였다. 결혼 초기에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부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문제(11.9%)라는 응답도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응답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국내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학대·폭력 때문에 이혼·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는 응답이 14.9%로 매우 높은 편이다.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성격 차이가 이혼·별거의 이유라는 응답이 높아진다. 또한, 출신 국가별로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이혼·별거 사유라는 응답이 캄보디아(25.3%), 몽골(20.5%) 출신자에게서 높은 편이었다(여성가족부, 2019).

2. 한부모이주여성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다문화가정 중 이혼·별거(16.4%) 및 배우자 사망(4.8%) 가정의 비율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21.2%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94.9% 정도는 가정해체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통계청(2020)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제결혼 및 이혼 국적별 현황은 통계청에 따르면 아래의 [표 II-03]와 [표 II-04]와 같다.

[표 II-03] 국제 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혼인 현황-통계청(2020)

년도	총건수	여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미국	기타
2000	11605	6945	3566	77	1174	819	1	240	231	837
2001	14523	9684	6977	134	502	701	2	182	262	924
2002	15202	10698	7023	474	838	690	2	327	267	1077
2003	24776	18751	13347	1402	928	844	19	345	322	1544
2004	34640	25105	18489	2461	947	809	72	324	341	1662
2005	42356	30719	20582	5822	980	883	157	266	285	1744
2006	38759	29665	14566	10128	1117	1045	394	271	331	1813
2007	37560	28580	14484	6610	1497	1206	1804	524	376	2079
2008	36204	28163	13203	8282	1857	1162	659	633	344	2023
2009	33300	25142	11364	7249	1643	1440	851	496	416	1983
2010	34235	26274	9623	9623	1906	1193	1205	438	428	1858
2011	29762	22265	7549	7636	2072	1124	961	354	507	2062
2012	28325	20637	7036	6586	2216	1309	525	323	526	1899
2013	25963	18307	6058	5770	1692	1218	735	291	637	1640
2014	23316	16152	5485	4743	1130	1345	564	439	636	1810
2015	21274	14677	4545	4651	1006	1030	524	543	577	1801
2016	20591	14822	4198	5377	846	838	466	720	570	1789
2017	20835	14869	3880	5364	842	843	480	1017	541	1902
2018	22698	16608	3671	6338	852	987	455	1,560	567	2,178
2019	23643	17687	3649	6712	816	903	432	2,050	597	2,528

[표 II-04] 결혼이주여성 국적변 이혼 현황-통계청(2020)

년도	총건수	외국 여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미국	기타
2000	11,605	6,945	3,566	77	1,174	819	1	240	231	837
2001	14,523	9,684	6,977	134	502	701	2	182	262	924
2002	15,202	10,698	7,023	474	838	690	2	327	267	1,077
2003	24,776	18,751	13,347	1,402	928	844	19	345	322	1,544
2004	34,640	25,105	18,489	2,461	947	809	72	324	341	1,662
2005	42,356	30,719	20,582	5,822	980	883	157	266	285	1,744
2006	38,759	29,665	14,566	10,128	1,117	1,045	394	271	331	1,813
2007	37,560	28,580	14,484	6,610	1,497	1,206	1,804	524	376	2,079
2008	36,204	28,163	13,203	8,282	1,857	1,162	659	633	344	2,023
2009	33,300	25,142	11,364	7,249	1,643	1,440	851	496	416	1,983
2010	34,235	26,274	9,623	9,623	1,906	1,193	1,205	438	428	1,858
2011	29,762	22,265	7,549	7,636	2,072	1,124	961	354	507	2,062
2012	28,325	20,637	7,036	6,586	2,216	1,309	525	323	526	1,899
2013	25,963	18,307	6,058	5,770	1,692	1,218	735	291	637	1,640
2014	23,316	16,152	5,485	4,743	1,130	1,345	564	439	636	1,810
2015	21,274	14,677	4,545	4,651	1,006	1,030	524	543	577	1,801
2016	20,591	14,822	4,198	5,377	846	838	466	720	570	1,789
2017	20,835	14,869	3,880	5,364	842	843	480	1,017	541	1,902
2018	22,698	16,608	3,671	6,338	852	987	455	1,560	567	2,178
2019	23,643	17,687	3,649	6,712	816	903	432	2,050	597	2,528
2017	20,835	14,869	3,880	5,364	842	843	480	1,017	541	1,902
2018	22,698	16,608	3,671	6,338	852	987	455	1,560	567	2,178
2019	23,643	17,687	3,649	6,712	816	903	432	2,050	597	2,528

[표 II-3]과 [표 II-4]에서 나타났 듯이 국제결혼의 경우, 2009년 이전까지 중국이 가장 많았으나, 2010년에 동 건수를 기점으로 베트남의 혼인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한·베 국제 결혼은 한·중 국제 결혼의 2배 가까이였다. 국제결혼 이혼 중 외국인 아내의 경우 중국 39.9%, 베트남 26.1%, 필리핀 3.9%으로 전체의 60%정도였다. 그동안의 한부모 이주여성 연구의 대상은 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 한부모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 결혼 및 해체 가정 중에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가장 많다는 사실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05] 한부모이주여성 연구(2011-2019)

저자	연도	유형	제목	연구방법
정지윤	2011	학술지	국제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정에 관한 고찰	문헌연구
김남옥	2012	학술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법적 과제	문헌연구
최미경	2013	서평문	베트남 해체 가족 이주여성의 '어머니됨'의 체험 연구: 해석학적 연구방법론 적용	현상학
이정은	2013	석사	이주여성 모자가족의 자녀 돌봄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A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사례연구
이현주	2013	학술지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
심인선	2013	학술지	경남 한부모 다문화가정 실태와 과제	문헌연구
최승인	2014	학술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발생 전후의 삶의 과정 연구	사례연구
박영신	2014	서평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가정의 자녀 양육 어려움과 지원 사례연구	사례연구
임춘희	2014	학술지	한부모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연구	사례연구
장명선	2015	학술지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	문헌연구
박미정	2015	학술지	이혼으로 한부모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연구 "행위의 주체에서 권리의주체로 거듭나기"	생애사
김강남	2016	학술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
금민아	2017	서평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현상학
오혜정	2017	학술지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연구: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현상학
이숙경 김민	2018	학술지	색채심리치료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실행연구
김희주	2018	학술지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사례연구
이성순	2018	학술지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한부모이주여성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RISS를 활용해 ‘한부모이주여성’을 주제로 2019년까지 한 연구를 검색하여 앞에 [표 II-05]에 제시한 17편 정도의 대표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가정해체 후, 이주여성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한부모이주여성’(이현주, 2013; 오혜정, 2017), ‘한부모 결혼이주여성’(김강남, 2016; 이숙경·김민, 2018), ‘해체가족 이주여성’(최미경, 2013), ‘이주여성 모자가족’(이정은, 2013), ‘한부모 결혼이민자 여성’(김희주, 2018),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나 ‘한부모 다문화가정’ 그리고 ‘한부모 다문화 가족’(김남욱, 2012; 심인선, 2013; 최승인, 2014)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표 II-5]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연구에서도 ‘한부모이주여성’과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결혼한 가정 형태에서 벗어난 점을 고려하여, 가정의 가장이며 주체로서 이주여성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밝힌다.

그동안 한부모이주여성 연구는 지원 및 정책, 인권 관련 문헌연구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는 질적연구 중의 사례연구 및 현상학 연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연구의 대상의 이혼 한부모이주여성 이었다. 그 외의 사별 가정 유형은 이정은(2013), 이현주(2013), 김희주(2018)에서는 각 1명, 김강남(2016)에서는 2명, 그리고 금민아(2017)에서는 3명의 연구참여자가 있었지만, 사별 가정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기술 및 분석이 깊이 기술하지 않았다. 사별 가정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이 있으며, 이혼 가정과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 했다.

또한, 기존연구의 대상자의 출신 나라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과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베트남 출신 한부모이주여성만 참여하는 연구가 3편이 있고,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한 편이 있다. 중국 출신 한부모이주여성을 언급한 연구도 있었지만, 역시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연구참여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고, 연구참여자도 다수를 차지했다.

한부모이주여성은 한부모 경험을 통해 더욱 독립적이고 강한 생활력과 정신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혼 후 이성 교체나 동거, 재혼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전환점을 갖게 되기도 한다(임춘희,

2014). 문제는 한부모이주여성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만 강조하고 자녀양육과 연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한부모 되기 과정 및 한부모가 된 후의 겪은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한부모이주여성은 이주자로서 유입국 사회에 적응함과 동시에 자녀 돌봄과 생계부담자로서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삼중고에 놓이는 특성이 있다(이정은, 2013). 많은 연구에서 한부모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로서 경제적 문제 및 자녀 양육 문제, 언어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 정체성의 문제, 사회적 지지 및 네트워크 미약의 문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심인선, 2013; 박영신, 2014; 최승인, 2014).

한부모가 된 후의 적응 및 자립에 있어서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무력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터득하면서 아이를 위해 견디며 긍정을 품어 두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든 한국생활 속에 한부모로서 홀로서기 위해 고향 가족과 친구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생존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아내기도 한다(이현주, 2013; 박미정, 2015; 오혜정, 2016; 금민아, 2017).

기존연구들을 통해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진로·취업, 정보 활용, 생활 적응 및 사회 통합 등이 국적 취득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이주여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생계를 위한 바쁜 일상으로 현행하는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적 취득 불가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강남(2016)에 따르면,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비자 연장으로 인한 체류 불안정에서 벗어나고, 자녀 양육과 각종 행정절차나 사회적 편의 및 본국 가족들의 합법적 초청을 위해 국적 취득 필요하지만,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을 위한 과중한 노동과 자녀 양육, 취약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이중, 삼중고에 처해있다고 했다. 한국 국적의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이주여성은 재정 요건에 있어서는 간이 귀화 수준과 같은 반

면, 이 땅에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 귀화의 다른 대상자들과 같이 필기와 면접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최승인(2012) 및 김희주(2018)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최승인(2012)에 따르면, 한부모이주여성 중에서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한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국적 취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희주(2018)에서는 국적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귀화 조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이주여성에게는 신청 자격도 맞추기 힘들만큼 어려운 조건이었고, 신청과정에서의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 외에 시험과 면접의 난이도도 높아서, 일부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도전 자체가 막막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 양육 및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바쁜 경제 활동으로 국적 취득 관련 지원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적취득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미경(2013)에 따르면,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못해 초과 체류 상태가 되면 비자 연장을 놓쳐 불법체류자가 되기 쉽다. 불안정한 삶 속에서 국적이 취득하기 전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순(2018)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운데는 귀국 후 생활의 불확실성, 모국에서의 적응 문제 등으로 귀국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모국으로 귀환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김현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은 한국의 부계중심의 가족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미등록 신분이 되어 '추방'을 당하는 존재이며,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귀환하기도 한다. 이혼한 후에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여성들에게 혈육인 아이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몰래, 또는 일방적 통보를 한 채 귀환하기도 했다. 그의 연구에서 2007년에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귀환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를 베트남 대사관에 신고하고, 남편 몰래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간 사례이다. 사례자

는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아이를 베트남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그녀에게 아이와 함께 살 유일한 길은 아이를 베트남에 데려가는 것뿐이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최근에 진행한 이성순(201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들이 귀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귀국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한부모 대상 출국 지원 상담이 요청되고 국내외 NGO와 연계하여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의 귀국에 따른 재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청된다.

둘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이 수용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용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습득 부재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이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입국 초기의 조기적응교육 및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안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용국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적차별과 왜곡된 선입견 등 사회적 차별과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하는 일환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내국인 대상 평등 의식 및 상호문화교육,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교육이 확대 실시되어야 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수용국에서의 초기 정착 지원,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입국 초기에 한국생활을 안내하고 정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체계화하여 보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 사회 자원개발, 자원봉사단 발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멘토-멘티결연 맺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선배 결혼이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요청된다.

넷째, 결혼이민자 대상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으로서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발굴,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창업연계 방안,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 등을 통한 경제적 통합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녀교육 및 양육비 청구지원 확대,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주거 실태 파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주거적 통합, 건강·심리적 안정지원 및 건강증진교육, 정신보건센터 등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문화적 역량 강화 교육, 통·번역 연계를 통한 진료 확대 등의 보건 의료적 통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사회 통합에 있어서는 각 영역별 지원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유기적·총체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민자 대상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중앙부처)별 특화된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연계기관의 특성을 제고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실효적인 이주민 사회 통합정책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이민 관련 기구의 설립 하에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일원화와 심의조정, 실행 등 중장기적 한국형 사회통합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3. 듀이의 경험이론과 성장

경험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경험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얻는 것과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은 물리적 개념의 의미에서부터 추상적 개념의 의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경험의 의미적 확장을 통해 인간 생활의 연속성과 상호교환적 삶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 이론적 의미는 인식 또는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입장 및 경향으로 초경험적 존재나 선천적인 능력보다 감각과 내성을 통하여 얻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여 전자도 후자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경험이론은 시대적으로 근대와 현대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 상호작용성을 의미하는 인터랙션(Interaction)이란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용어는 경험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이론 중 경험의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한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 핵심은 경험이다. 듀이의 경험 개념은 인간의 존재 양태, 즉 삶의 본질적인 특성과 조건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과 환경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환경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 환경이 없는 혹은 환경을 떠난 생명체는 오로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 즉 인간은 환경속에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고 생존을 영위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상호작용이 존재의 일차적인 사실이며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듀이는 상호작용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말하고자 한다(권윤경·이찬, 2015).

변화란 곧 경험 주체로서의 인간과 대상으로서의 환경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확립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장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는 경험은 삶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를 듀이의 계속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이 계속성의 원리는 듀이가 제시한 경험 이론적 특성 중 일원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같은 계속성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되고 새롭게 창조되

는 듀이의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험을 발생시키는 전체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닌다. 이러한 역동적 경험은 단절되지 않은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내면과 외면의 가치가 생성되는 공유성을 가진다. 듀이는 경험의 변화와 성장을 표현하기 위해 상호작용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교변 작용(Transaction)으로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상호작용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교변 작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경험을 일원성, 역동성, 공유성의 세 가지 특성으로 말하고 있다. 일원성은 경험을 실체와 양분하지 않고 물질, 정신, 이성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으며 연속적으로 존재함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역동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이 변화하고 상호작용 구조가 변형되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성은 경험이 세계 속 각종 유기체에 의해 공유되며 경험 공유를 통해 개인의 내적 외적 가치가 생성됨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권윤경·이찬, 2015).

경험적으로 볼 때 듀이가 진정으로 관심을 쏟는 것은 현실적인 인간 생존 차원의 의제이다. 경험은 인간의 경력 일상의 실천에 직결되는 존재 과정으로서 사회 전반의 생존과 교류 속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기초적인 내면의 측면에서 경험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체계를 반영한다. 그래서 듀이에게 있어 경험은 실제로 지극히 중요한 현실적인 이해의 차원이 되었고, 경험은 이것으로 귀결되는 이지적인 길의 표식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Huang Jianhua, 2020).

1차원 경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단순히 얻는 직접적인 경험이며, 2차원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이 앞으로의 경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과정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집중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현재의 경험에서 연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ewey, John, 1983). 그리고,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 변화는 경험의 주체인 인간과 대상의 환경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종래와는 다른 의미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은 경험이 끊임없이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수반하는 경험은 삶이 지속하게 될수록 꾸준히 일어난다(황건화·임선화·김주연, 2019).

송도선(2018)에 따르면, 듀이는 전통적인 경험관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근세의 영국 경험론으로 나누어서 비판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주를 정신계와 물질계, 이성계와 경험계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이성은 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찬양하고, 경험은 물질과 신체, 현실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참된 지식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 반면에 로크 등의 영국 경험론에서는 경험 개념을 지식 습득의 방법, 인지적인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경험 개념을 중시하긴 하였지만, 경험의 능동성과 활동성을 경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듀이는 전통적인 경험이론에서는 경험 개념을 편협하게 이해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경험은 능동과 수동, 행함과 앎, 행위와 사고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적 경험론’ 혹은 ‘자연주의적 경험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험이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거기에 포함된 경험 개념은 희랍 시대의 경험관이나 근세의 경험론에서 의미하는 단순하고 좁은 의미가 아니라, 실험과학의 복잡한 과정이나 결과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백인중, 2009; 이재실, 2011; 송도선, 1998:2018; 김성락, 2019).

경험이란 이성과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지성과 사고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인식에도 관계되지만 일차적으로는 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일원론적 논점을 전개하게 되었다. 듀이는 종래의 철학에 존재했던 이원론과 분리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것을 일원론, 혹은 연속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정신계와 물질계, 이성계와 경험계,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 마음과 신체, 앎과 행함, 이론과 실제, 수단과 목적, 내용과 방법, 과정과 결과, 행위와 사고, 지성과 정서, 지식과 인격, 지적 교과와 실용적 교과,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인식과 생활, 특수와 보편 등, 모든 것이 그의 철학에서는 일원적·연속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continuity’의 개념을 내포한 다른 표현으로는 ‘통일성’, ‘통합’, ‘전체’ 등의 있으며, 그것과 대립되는 것으로는 ‘균열’, ‘괴리’, ‘이원성’, ‘단편성’ 등으로 나타난다. 듀이의 이 일원론적사고는 세 사람의 사상가, 즉 과정과 발전을 중심 사상으로 했던 Hegel, 변화와 과정의 유기적 세계를 강조한 진화론자 Darwin, 의식의 흐름을 주장하면서 경험의 연속성을 중시했던 James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새로운 경험이론은 ‘실험적 경험론’ 혹은 ‘자연주의적 경험론’이라고 말한다(송도선, 2018).

듀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계속되는 문제 상황(problem situation)이라고 보고 있다. 크고 작은 경험 상황에서 눈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앞서 경험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과정, 즉 당면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과정 자체가 바로 사고의 활동 과정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 사태에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서 사고가 활발하게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다(송도선, 2009; 윤정윤, 2014).

듀이에 있어서 경험은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그 활동 속에는 외적·신체적 활동으로서의 행위와 내적·정신적 활동으로서의 사고가 통합된 상태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활동 과정, 즉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 작용과정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험 내용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경험 내용은 또 다시 경험 활동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고라는 모습을 띠고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듀이는 전통 철학에서는 경험의 개념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험이란 생활과 인식, 행위와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실험적 경험론을 내세웠다(송도선, 1998; 이은실, 2007; 하태호, 2012; 이향은, 2013).

경험은 생물체가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문제’이다. 경험은 우선 인간이 행함과 당함을 겪고 그 결과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모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생생한 경험은 원래 실험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미 주어진 것을 변형하려는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특성, 즉 미지의 것을 탐구하려는 ‘미래 지향적 특성’을 갖는다. 환경에 영향 받는 것과 환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제해 가려는 노력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다. 경험은 처음부터 그 속에 사고와 추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송도선, 1998; 이희용, 2015; 하태호, 2012; 이은실, 2007).

듀이는 맥락, 상황, 조건과 무관한 독립적, 초월적인 경험을 부정하고 경험과 삶의 불가분리성을 주장하면서 경험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듀이에 따르면 경험은 인식이나 지각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기체와 자연이 연속성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능동적 활동이다. 듀이의 경험은 유기체인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세계 이해 방식이다. 경험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리를 파악하는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상투성을 뛰어넘어 삶의 세계를 새롭게 만남으로써 질적으로 층위가 달라지고 더 성숙해지는 활동이다. ‘질성적 사고’를 통해 삶의 세계를 질적으로 만나고 심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경험, 더 고양된 경험, 더 완결적인 경험, 결과적으로 성장으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을 사변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것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어떤 국면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감각, 지각, 관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선이, 2017).

우리는 몸을 가진 유기체적 존재이며, 그 몸을 통해 이 세계와 단절이 없는 교호작용을 한다. 의식에 포착되기 전에, 의미화되기 전에 이미 무수한 양의 교호작용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끊임없이 경험을 한다. 교호작용의 종결은 유기체 자체의 종결을 의미한다(이선이, 2017).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거나, 자연으로부터 배운다거나, 가르치면서 배운다거나 하여 다양한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가르침’과 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배움, 즉 ‘학습(learning)’이란 ‘깨달음(awareness)’과 ‘앎(knowing)’이 동시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야말로 ‘앎(knowing)’ 과정은 바로 ‘학습(learning)’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듀이는 경험을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보면서, 그것은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 어떤 변화를 겪음으로써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의 특정한 능동적 행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환경의 특정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준 영향, 이 두 가지의 관계 또는 관련성이 그 사람에 의해 파악될 때 비로소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은 인간과 환경이 공동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인간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자연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의 환경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욕구, 목적, 능력, 동과 작용함으로써 창조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며, 사람도 그 환경의 구체적 대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환경인 것이다.

경험의 본질에 관한 듀이의 입장은 ‘경험’이 ‘어떤 작용 또는 기능’이라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

의 변화를 기술함으로써 그 작용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듀이는 ‘앎이 곧 행이다(knowing is doing)’라고 하여, 인간의 행위 발달은 유기체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추천적인 경험이 바로 그 출발이자 원천으로 보고 있다(Dewey, 1922). 생득적이고 선천적이라 볼 수 있는 생리적 욕구나 충동은 시간적으로 앞선다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 발달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2차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추천적 경험이 보다 더 원천적이라는 것이다.

듀이는 말한다. 이제 경험은 단순히 과거에 이리저리 해보던 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니다. 이제 경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사물에 대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한 암시를 가지도록, 또 그 암시의 타당성을 시험해 보는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듀이는 존재의 일반적 특성으로 ‘변화’를 들면서, 모든 존재를 ‘사태들’로 규정한다. 이때, ‘사태’라는 말은 존재라는 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급격히, 때로는 서서히 변화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김재건, 1992; 류명길, 2002; 최은경, 2003; 이승현, 2004).

인간의 행동이 진정한 경험이 되려면 무의식적 또는 시행 착오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사고라는 지적 측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듀이는 지력(intelligence) 또는 사고(thinking), 즉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라고 부르고, ‘앎(knowing)’이란 ‘행동의 과정(doing)’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작용(thinking)’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노진호, 1994; 나미영, 2009; 김효일, 이현주, 2013). 그에 의하면, 지식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되, 그 경험은 반드시 최선의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반성적 사고’라는 것이다. 즉 반성적 사고는 인간과 환경이 효율적으로 통제된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지식 획득의 방식이요, 가장 지적인 경험의 방식이라는 것이다(김재건, 2002).

기존연구를 통해 존 듀이의 경험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경험, 행, 앎, 배움, 1차적 경험, 2차적 경험, 자연, 상호작용, 일원성, 역동성, 공유성, 능동성, 계속성, 반성적 사고 작용, 하나의 경험, 경험에 따른 경험, 변화, 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험은 곧 삶이고, 삶은 곧 환경의 적응이다. 경험은 살아있

는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며, 상호작용의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살아가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1차 직접적 경험은 경험하면서 2차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어,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자기 가치를 드러내며,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함을 통해 배우게 되고, 변화하게 되어, 성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속 성장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결혼부터 한부모 되기까지의 1차 직접적 경험을 살펴 봄으로써 그들의 생애 경험을 깊이 이해하여, 한부모 되기 전과 비교할 때 한부모가 된 후의 2차 성장 변화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4. 소결

낮을 곳에서 살아 본 후에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두움 곳에 이써 본 후에야 밝은 빛이 눈부신 줄 아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 착함 속에 악함이 있고, 악함 속에 착함이 있다. 진실 속에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진실이 있다’. 이 말은 중국 주나라 때 대성된 유교의 경전 [주역]의 [이중률]에 나온 말이다. ‘행복은 불행을 겪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이탈리아의 철학자 Pietro Verii(1728-779)가 남긴 말이다. ‘큰 슬픔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흥겨운 삼바춤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브라질의 음악가이자 시인인 Viniciusde Moraes(1913-1980)의 좌우명이다. 이 말들은 모두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경험에는 두 가지 기능이 항상 공존한다(이현수, 2009).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인생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그 사람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며,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닫고, 어떤 메시지를 얻느냐에 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한 현세적인 고뇌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인생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정인석, 2018).

문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와 동기, 삶의 우선 순위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 결과, 오래된 방식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가치와 동기, 우선 순위를 받아들인다. 문제 상황을 겪어 낸 사람이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다. 이는 고난은 그들에게 인생의 큰 교훈을 준다는 불교의 교리를 연상시킨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Stephen Joseph, 2018).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을 수없이 만나고 또 만나게 될 것이다. 문제 상황을 경험할 때, 당사자들은 고통, 힘듦,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도 성장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과거에는 문제 상황이 당사자의 심신 건강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 많이 주목했다. 성장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의 흥기에 따라 문제 상황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긍정심리학(Martin Seligman, 2014)의 부상으로 ‘Post-traumatic Growth’에 관련하여 지난 30년 동안 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Tedeschi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생활 속의 부적 사건에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측정에서 처음으로 ‘Post-traumatic Growth’ (PTG)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Tedeschi & Calhoun, 1996). ‘외상’(trauma)은 한 개인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 혹은 정서적으로 겪는 고통을 의미한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각한 공포, 두려움, 무력감, 고통의 후유증을 경험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신체적 문제로 인해 기존의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양귀화, 2014;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이웅택, 2016 재인용). Linley & Joseph(2004)는 ‘trauma’와 함께 ‘advers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트라우마와 역경 후의 긍정적인 변화(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를 연구하였다. Fazio와 Fazio(2005)는 2002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의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과 회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족들의 역설적인 성장 현상을 관찰하였고 이를 ‘growth through loss and adversity’로 명명하였다(임선영, 2013). 송승훈 외(2009), 이웅택(2016)에 의하면, 외상 후, 역경 후 성장으로 새로운 가능성 발견, 대인관계의 깊이 변화, 자기 지각의 변화,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말한 ‘외상’이나 ‘역경’은 듀이가 말한 인간이 삶의 현장인 ‘문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불쾌한 경험’(John Dewey, 2020)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송승훈 외, 2009; 이웅택, 2016).

듀이의 이론인 경험이란 인간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의 신념과 그가 속한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듀이의 경험성장이론은 우리의 삶은 경험의 과정이며 경험을 통한 성장 과정이다(권수경, 김주연, 2019).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같은 문제 상황이 정성적인 변화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착안했

다. 그렇기 위하여 먼저 기존 선행연구, 공적 기관 통계자료, 정부 보고서 등의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속에서 경험한 주요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그림 II-19] 한부모이주여성이 경험한 주요 문제 상황

문헌 고찰을 통해 [그림 II-19]와 같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주요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는 이주여성들은 크게 생활·문화 적응의 문제, 사회·적응 및 진출의 문제, 취업 진로 및 경제 활동 문제, 심리·정서의 문제, 건강·보건의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정책·인권 등의 문제 상황의 탐색 및 해결 대처 방안으로서의 복지 지원 제언 등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부모이주여성들과 만나 보면, 그들의 삶의 경험, 결혼-해체-한부모로의 변화 과정에서, 즐거운 경험 및 불쾌한 경험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당시의 환경을 적응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왜’하고 ‘어떻게’의 질문이 나온다. 누구보다도 더 많고 복잡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면서 ‘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 ‘어떻게’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삶을 꾸려 가고 있는가. 1차적 경험에서 반성을 통해 어떤 2차적 경험을 하게 됐고,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고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의 문제 상황 처한 경험 및 경험 속 변화 및 성장된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몇몇 한부모이주여성의 경험을 통해, 일반인으로서의 한부모이주여성들이 문제 상황을 겪은 후의 변화,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본 모습을 탐색해하고, 이들의 경험은 한부모이주여성을 포함한 모든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에 모델이 되어,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부모이주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발 더 나아가 한부모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 및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오늘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를 바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전환 과정 및 삶의 성장 변화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질적연구 중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기법으로 탐색하였다. 문헌연구는 주제와 관련한 신문기사, 웹사이트,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헌연구는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원에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문헌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의 결혼 및 해체 현황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한부모이주여성의 적응, 해체, 자립 과정에서 겪은 문제 상황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심층 면담 통해 수집한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을 내러티브 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생애사를 내러티브 기법으로 분석하는 내러티브-생애사 분석방법은 Rosenthal(2008)에 의해 정교하게 구조화된 연구 접근이다. 생애사 연구의 세 가지 특징인 주관성(subjectivity), 시간성(temporality), 이야기성(narrativity) 중 이야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구체적인 현실에서 수집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기초로 수행하는 실증 연구는 사회과학의 전통에서 시도하는 대표적인 접근방식이다. 실증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을 검증하려는 양적 연구방법과 언어적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해석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유기웅 외, 2016). 양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자 연구가 기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후기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질적연구가 출현하게 되었다(성태제·시기자, 2016). 질적연구는 어느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사건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이나 침묵 속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려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질적연구는 현실의 삶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덧붙여 질적연구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소외 계

층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김영순 외, 2018).

질적연구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통일된 견해나 합의된 입장을 바탕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학자들마다 질적연구의 이론적 전통과 역사적 맥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방법론의 범주를 구성하는 태도 역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덴진과 링컨에 따르면, 질적연구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및 분석 대상에 접근하고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Denzin & Lincoln, 2005). 즉, 질적연구라는 조작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물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에 기초하며, 특정한 현상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분야인 것이다(강진숙, 2016).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해방식을 수집하여 이를 연구자가 가정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연구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학문 활동이다. 어느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사건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이나 침묵 속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려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성태제, 시기자, 2016; 유기웅 외, 2016; 김영순 외, 2018). 질적연구의 자료들을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와 구술면담의 자료들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이나 문제되는 순간들, 혹은 의미를 기술하는 다양한 ‘경험적 자료’로 확장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경험적 자료’란 연구를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 개인적 경험, 내적 성찰, 삶의 이야기, 면담, 관찰, 역사적·상호작용적·시청각 텍스트(Denzin & Lincoln, 1994) 등을 말하는 개인 및 집단의 사회문화적 산물들을 포함한다(강진숙, 2016).

질적연구 중의 생애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삶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여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 생애사는 고전적인 의미로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기술’을 말하는 데,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을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정의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생애사는 나 개인이 사적인 삶의 이야기를 알아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생애사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행동과 경험을 행위자의 관점 내지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관점 형성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Denzin, 1989). 김영순 외(2018)에 따르면, 생애사는 한 개인의 역사적 삶을 연구참여자의 관점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생애사는 자기 몰입적인 특징이 강한 자서전이나 전기와는 달리 자료수집, 분석과 해석,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연구과정의 엄격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생애사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주관성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진실성을 검증하는 연구자와 독자들의 주관성도 중시한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연구자의 탐구 과정에서 문화적·역사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재구성하게 된다. 강진숙(2016)에 따르면 생애사 연구의 주요 구성범주와 특징은 다음 [표 III-01]과 같다.

[표 III-01] 생애사 연구의 주요 구성 범주와 특징

구성범주	특징
시간성	개인, 집단, 사회의 시간적 경험들과 역사성
맥락성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서 개인의 생애 경험들에 접근
상호주관성	생활세계 속의 체험과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의미의 공유
내러티브	이야기의 구성, 알레고리의 형성, 비감각적 유사성과 의미 해석
기억하기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서 체험한 사건과 트라우마, 생의 체험들을 기억,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하기
정동의 발견	체험과 기억들을 통해 정체성과 정서의 변이 과정들을 발견하고 의미화하기
생애사 정의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시간성 속에서 형성된 삶과 기억, 정서의 체험에 상호주관적으로 관계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정서 변이의 가능성과 의미들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

요컨대, 생애사 연구란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시간성 속에서 형성된 삶과 기억, 그리고 정서의 체험에 상호주관적으로 관계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정서 변이의 가능성과 의미들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시간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체험한 사건과 기억들을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근거해 대화나 이야기체로 기술하고 해석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정체성과 정서의 변이를 성찰적으로 의미화하는 연구방법이다(강진숙, 2016).

시카고학파의 Thomas와 Znaniecki가 1918년부터 1921년까지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라는 폴란드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총 5권으로 출판한 이후, 생애사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요한

사회연구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Breckner, 2009; Rosenthal, 2011). 그러나 국내의 생애사 연구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역사학과 인류학, 사회학 등의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학문 분야 간 연구 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태동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양영자, 2013).

내러티브 방법은 국내 질적연구에 등장한 시기는 생애사 연구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RISS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생애사 연구는 1,000 여 편에 불과하지만, 내러티브로 수행한 연구는 이의 3배에 달했다.

Clandinin & Connelly에 따르면, 내러티브 탐구란 내러티브하게 사고하는 과정이고 내러티브하게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는 과정이며, 3차원적 탐구 공간을 토대로 탐구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며 그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하고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김영순 외, 2018).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이 ‘이야기(story)’ 형식을 빌려 언어를 매개로 일상적이거나 특별한 경험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소통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실존주의자인 Jean-Paul Sartre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꾼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산다.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되새기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가려한다.’라고 했다. 이야기는 사회과학 연구의 수단이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자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가 연구의 중심이 된다. 내러티브란 개인의 주고나적인 직간접적인 경험 세계를 타인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모든 이야기 형식의 전달 수단을 말한다. 또한 내러티브는 주관적 해석이 담겨 있는 모든 유형의 경험이 압축된 표현의 발로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수집한 내러티브 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인 제보자의 독특한 체험과 그 안에 녹아 있는 특정한 삶의 방식, 세계관 그리고 내부자적 논리를 파악해 나가는 일련의 연구 과정이다. 또한, 면담과정에서 제보자 자신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도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즉, 어떠한 흐름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fact)을 어떻게 편집하여 제시함, 경험에 대해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도 연구자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이 경험한 이야기들에서 비록된다. 묘사된 이야기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인간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풍부한 틀을 제공한다(Leonard Webste & Patricie Mertova, 2017).

내러티브 탐구에서 3차원적 탐구 공간이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interaction),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그리고 상황과 관련된 장소(place)를 의미하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내러티브 탐구가 진행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에 대한 연구로써 삶과 이야기 사이의 순환적이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글쓰기의 시간성(temporality)과 상황성(situatedness)을 강조한다. 내러티브는 하나의 경험이며, 경험은 시간적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특정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간의 협동연구이다. 인간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인간의 삶을 숫자로 객관화시키는 양적연구보다는 개인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방식으로 매우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김영순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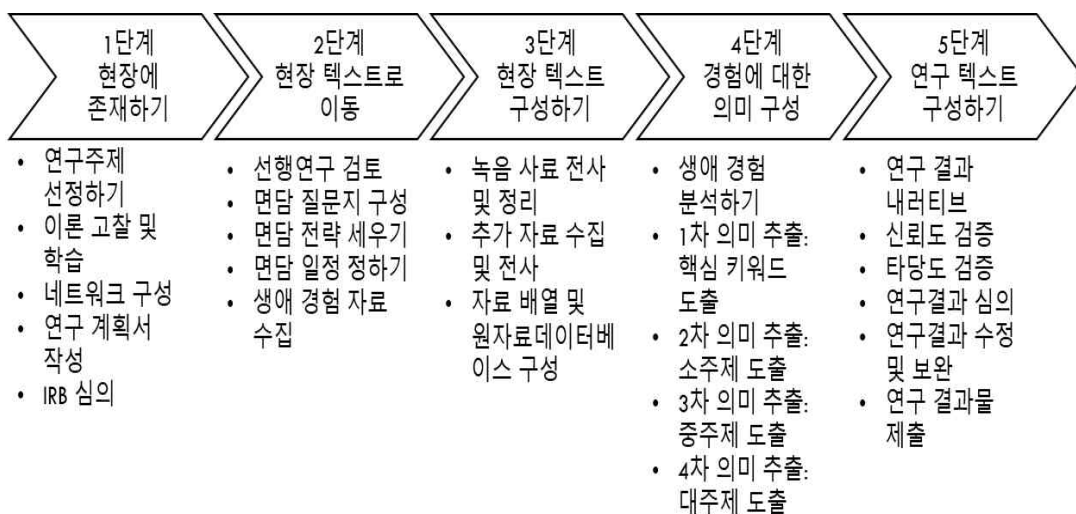
내러티브와 스토리에 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으나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를 탐구의 방법(method)이자 스토리를 탐구하는 현상으로서 특징짓는다.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사용하고, 탐구방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연구 대상이면서 또한 연구방법이기도 하다(김기홍, 2017; 황해영, 2018).

내러티브-생애사(Rosenthal, 2008) 분석 방법은 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된 생애사 및 과거 관점에서 체험된 생애사가 어떻게 하여 다른 아닌 바로 그러한 구조와 주제적 영역들로 생성된 것인지, 그 발생 기원을 전 생애사적 관련 속에서 해독하고 설명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이를 위해 생애사를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로 구분하여 재구성적 절차와 연속적 절차에 따라 귀추적으로 접근하는 분석 방법이다(김영숙·이근무·윤재영, 2012; 양영자, 2013; 강영미, 2015).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는 생애사 연구를 토대로 하며 핵심은 ‘내러티브’(Rosenthal,

2006)에 있다(최승은, 2020). 본 연구는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및 성장 변화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어 14명의 한부모이주여성의 인생 여정의 내러티브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전환 맥락 및 성장 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주로 내러티브 기법으로 분석하고 하여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설계를 했다.

내러티브 연구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유기용외 (2016)에서는 연구주제 선정하기, 연구자료수집하기 및 해석 하기의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Clandinin & Connelly(2000)에 따르면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 텍스트로 이동,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라는 5단계로 구성된다(김영순 외 2018).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절차를 다음과 [그림 III-01]과 같이 설계한다.



[그림 III-01] 연구 설계

먼저 1단계의 현장에 존재하기 단계이며 연구 주제 선정 단계이다,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한부모이주여성과의 만남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이주여성과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관련 이론을 학습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예비 질문지 등 IRB 심의 관련 서류를 2019년 11월에 인하대학교 기

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9년 12월에 승인을 받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단계의 현장 텍스트로 이동 단계이며 자료수집 단계이다. 2019년 12월 말에 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0년 6월까지 문헌고찰과 함께 자료수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 순서지를 만들었다. 2020년 9월까지 지인 소개 및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들의 소개로 눈덩이 수집방법과 함께 연구참여자를 섭외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면담 및 인터뷰 가능한 일정까지 확보해 연구를 위한 음성자료를 수집했다.

3단계는 현장 텍스트 구성 단계이며 연구에 사용할 원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성 단계이다. 이 단계의 작업은 자료 수집과 함께 수행하여 2020년 9월말까지 마무리를 했다. 직접 연구 현장에 들어가 집단면담, 개인면담 및 전화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녹음 자료를 바로바로 전사 및 정리하여 자료원으로 사용했다. 전사 과정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화로 추가 자료수집 단계를 거쳤다.

4단계는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단계이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이다. 배열한 자료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경험에 대한 의미 분석 기준 및 전략을 세웠다. 1차 핵심 키워드 도출, 2차 소주제 도출, 3차 중주제 도출 및 4차 대주제 도출 등의 의미 추출 과정을 2020년 11월 중순까지 반복했다.

5단계의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도출한 의미 단위를 내러티브하여 결과물을 작성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다음, 연구심의 단계에 들어가,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연구물을 수정 보완 단계를 걸쳐 최종 결과물을 작성 및 제출했다.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2.1. 연구자

질적연구에 있어서 연구자 자신이 주요 연구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연구 현장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참여자 개인이나 집단 상호 간의 행동 관찰, 참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스스로 분석과 해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구자 자신이 수집한 실제 자료를 자신의 관점과 유의미한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구 결과의 정확성 및 타당성에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 즉 연구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말하기, 다시 말하기,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가 중요하다. 내러티브 탐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연구자가 자신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현장텍스트를 만들 때, 연구자는 자신과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시간적·공간적·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들어가기 전에 15년 동안 이주여성으로 살아온 연구자의 삶과 성장 변화를 성찰하면서 펜을 들어 생애 첫 시를 써 보았다.

가로 가도 세로 가도 나의 선택일 뿐이다. 다 함께 가도 홀로 가도 나(라)의 선택일 뿐이다. 마음에 따라 바로 간다. 사는 것은 복잡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일이다. 자세히 음미하고 즐긴다. 차갑고 쓴 따뜻하고 달콤한 카페라떼 같은 삶. 타향에서 파란색 하늘 아래.

(타향에서 파란색 하늘 아래)

한국 땅에 발을 처음 내디뎠을 때, 할 수 있는 한국말은 단 한 마디, ‘안녕하세요.’ 뿐이었다. 시댁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절하는 방식도 어색했다. 한 동안 2층 안방에서 컴퓨터를 안고 살았다. 의사소통이 안 돼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가 두려워 1층 거실에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러 가신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빨리 와, 밥 먹어’라고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한 달 후에 2007년의 설이 되었다. 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

고,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물같이 터졌다. 여기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식구가 될 수 없다. 이 집의 식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힘을 보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다녔던 어르신을 위한 한글 교실이었다. 복지관 교실 한구석에 젊은 여성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그 여성은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아직도 입을 열지 못한 채 듣기만 했다. 한글 교실에서 사용한 첫 한국어 교재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재이었다.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몰랐지만, 받아쓰기는 항상 100점이어서 칭찬도 받았다.

그 뒤에 1년이 지나 2008년이 되어 대구로 이사 가게 됐다. 그해에 나는 TOPIK 시험 3급을 받아 계명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국제학대학 일본학과를 전공하였다.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한국문화정보학을 복수전공을 했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었다.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다. 당시에는 많이 당황했었지만, 그 덕분에 나중에 나는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입학 첫날에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렸다. 대학교 강당에 수십 명의 대학생들 앞에서 말이다. 낯선 나라에서 공부만은 열심히 그리고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글씨를 예쁘게 써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쁘게 써달라는 거야, 알아보게 써달라는 거야?’ 이 한 마디에 뭐가 그렇게 속상했는지 또 한 번 눈물이 터졌다. 눈물 덕분에 그런지, 한국인 친구 한 명 생겼다. 수업 때마다 필기를 깔끔하게 해서 빌려주었다. 그 학기에 우리 둘 모두 A+를 받았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가사에, 육아에, 아르바이트까지, 매일 매일 충실했는데, 몸은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둘째가 출생한 2009년 말에 친정 부모님을 초대해 육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앞날이 희미하게 보이는 순간 맑은 날에 벼락이 떨어졌다. 아빠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장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빠를 치료해주는 것이다. 다행히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4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휴학을 했지만,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새 2013년이 되었다. 아빠의 암 치료는 마무리가 되어 다시 고향에 들어가게 되었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둘째는 유치원을 다녔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나는 졸업과 동시에 한국어 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하여 한국어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제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유치원 원장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 둘째가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에 온몸의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다. 그 후의 3년은 꾸준히 언어치료를 받았다.

한국어 교사로 3년 동안 중도입국청소년들과 함께 했다. 그 과정 중 나의 전공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동국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다. 졸업논문을 준비하면서 연구참여자를 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활동을 직접 참여했다. 그동안 바쁘게 살다가 다시 중국인 친구도 만났고, 여가 활동도 했고 봉사활동도 같이 해 보았다. 특히 나의 장점을 살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안내해 주었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생겨 2017년에 다문화 교육 박사과정을 진학하게 되어 공부와 연구의 길을 지속해 왔다. 지난 3년 동안 14편의 연구 성과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 깊이 공감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큰 무력감에 빠져 장장 1년 반 가까이 연구의 길을 멈춰보기도 했다.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만난 연구참여자들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내 말을 들어 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십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찾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내 삶의 의미기도 하다.

1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늘 열 중 여덟, 아홉이다.’라는 말을 떠올렸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제58장에는 ‘禍兮福所倚, 福兮禍所伏’의 말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안에 화가 숨어 있다. 화복은 서로 의존하는 것이며 바뀌어 달라질 수도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고 좋지 않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맨 앞에 자작시에 말하는 ‘따뜻하고 달콤한’ 경험이 좋은 경험에 해당하며, ‘차갑고 쓴’ 경험은 바로 그동안 겪은 고생, 고통, 불행, 힘듦, 슬픔, 우울과 같은 문제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동안,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타향에서 파란 하늘 아래 차갑고 쓴 경험들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따뜻하고 달콤한 감동적인 시간도 무척 많았다. 이 많은 것을 맛보고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일 뿐 후회할 일이 아니다. 15년 동안의 타국에서의 삶 속에 많은 문제 상황을 경험하면서 배움을 통해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

오리지널 한족 출신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다른 이주여성과 같이 언어적, 문화적, 생활적, 경제적 및 심리적인 등의 문제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이주여성이기에 생활 및 연구 활동 과정 중,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집단을 만날 수 있었고 접근하기 힘든 한부모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할 수 있었다. 비슷한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하는 과정 중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 그들의 마음을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비슷하게 경험한 차갑고 쓴, 따뜻하고 달콤한 경험들 덕분에 지난 5년동안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연구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IRB 심의 받은 시점인 2019년 12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0년 12월까지 연구 종료 시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 전에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학습 등을 먼저 진행했다.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속 성장 변화를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2019년에 네트워크로 구성한 50여 명의 미혼모, 별거, 이혼, 사별 유형의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그 중의 40여 명과 직접적인 만남이나 온라인 연락 등을 통해 다수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24명을 대상으로 집단면담, 개인 면담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자는 2016년부터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 자녀, 이주여성 등 이주배경 가정을 대상으로 4년 넘게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를 계기로 여러 나라 출신의 몇 명의 가정해체 이주여성 및 관련 단체의 담당자와 만나게 되었다. 이들의 소개를 받아, 연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2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둘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섭외를 했다.

셋째, 원활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넷째,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적별, 나이별, 가정 유형별, 체류 기간별로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섭외한 24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했다. 자료수집 과정 중 성장 변화 경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경험이 매우 유사한 경우 일부를 제외했으며, 연구참여자 중 중국 국적 참여자가 특히 많아, 연구참여자의 국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명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제외시킨 결과 14명의 연구참여자 사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기본 정보는 다음 [표 III-02]와 [표 III-03]과 같다.

[표 III-02]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1

연구참여자	유형	출신국	나이	출생 연도	종교	학력	한국어 능력	이주연도	결혼연도	결혼나이	자녀
연구참여자 1	이혼	중국 조선족	45	1976	기독교	전문대	최상	2002	2002	26	2명
연구참여자 2	이혼	중국 조선족	50	1971	기독교	고등학교	최상	2006	2009	38	1명
연구참여자 3	이혼	중국 조선족	43	1978	기독교	초등학교	최상	2000	2007	29	1명
연구참여자 4	이혼	필리핀	52	1969	기독교	대학교	상	2000	2000	31	3명
연구참여자 5	이혼	우즈베키스탄	41	1980	이슬람	대학원	중	2011	2011	31	2명
연구참여자 6	이혼	중국 한족	38	1983	없음	중학교	하	2013	2013	30	1명
연구참여자 7	이혼	필리핀	44	1977	천주교/기독교	고등학교	하	1999	1997	20	1명
연구참여자 8	이혼	베트남	33	1988	기독교	대학교	중	2013	2013	25	1명
연구참여자 9	이혼	러시아	40	1981	불교	대학 중퇴	중	2001	2007	26	1명
연구참여자 10	이혼	우즈베키스탄	31	1990	이슬람	대학교	중	2007	2007	17	1명
연구참여자 11	이혼	러시아	35	1986	이슬람	대학교	중	2009	2011	25	1명
연구참여자 12	사별	일본	41	1980	통일교	전문학교	중하	1995	1995	16	1명
연구참여자 13	사별	캄보디아	36	1985	불교	대학 중퇴	중	2008	2008	23	1명
연구참여자 14	사별	베트남	34	1987	기독교	대학 중퇴	중	2008	2008	21	1명

[표 III-03]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2

연구참여자	가정해체 연도	한부모 된 나이	결혼 지속 기간	한부모 된기간	결혼 후 가정 경제 부담 여부	결혼 전 사회 경험 유무	결혼 후 사회 활동 경험 유무	기타
연구참여자 1	2011	35	9	10	부담	있음	있음	아버지 사별
연구참여자 2	2016	45	7	5	부담	있음	있음	부모 사별, 첫 아이 사산
연구참여자 3	2017	39	10	4	부담	있음	있음	친아빠 사별
연구참여자 4	2013	44	13	8	부담	있음	있음	언니 남동생 사별
연구참여자 5	2016	36	5	5	다소 부담	있음	있음	어머니는 주부 아버지는 택시 트럭운전사
연구참여자 6	2015	32	2	6	미부담	있음	없음	첫째 아이 사산
연구참여자 7	2015	38	18	6	부담	없음	있음	동생 둘 사별
연구참여자 8	2016	28	3	5	미부담	없음	없음	아버지는 군인
연구참여자 9	2010	29	3	11	미부담	있음	없음	아버지 사별
연구참여자 10	2014	24	7	7	미부담	없음	있음	어머니는 주부 아버지는 택시 트럭운전사
연구참여자 11	2012	26	1	9	미부담	없음	없음	어머니는 교사 아버지는 사업자
연구참여자 12	2010	30	14	11	미부담	없음	없음	아버지 사별
연구참여자 13	2010	25	2	11	미부담	없음	없음	어머니는 의사 아버지는 군인
연구참여자 14	2009	22	1	12	미부담	없음	없음	아버지 사별

연구참여자 1은 중국 출신 45세 조선족 이주여성이다. 2002년에 결혼이주하여 2011년에 이혼해 1남(15세) 1녀(18세)를 혼자 키우고 있다. 전문대학교 졸업했으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 외에도 영어, 일어 등을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다. 결혼 전에 영어 강사 및 무역 회사 통·번역 경험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가정 경제 부담을 함께 했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친정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친정 어머니는 한국에서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2는 연구참여자 1과 같은 중국 출신 50세의 조선족 이주여성이다. 2006년에 근로이주하여, 2009년에 결혼을 해 2016년에 이혼하여 아들(9세)을 혼자 키우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다. 결혼 전에 식당 및 무역 회사 통·번역 경험이 20년 정도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식당을 운영해 가정 경제를 주로 부담했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부모 모두 돌아가셨고 첫 아이가 사산 등의 사별 경험이 많은 한부모 이주여성이다.

연구참여자 3 또한 중국 출신 43세의 중국 출신 조선족 이주여성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친아버지가 사명했다. 2000년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2009년에 결혼을 했다. 사회 경제 활동 경험이 풍부하여, 결혼 후에 전 배우자와 함께 가정 경제를 부담했다. 초등학교만 다녔으며,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아들(14세)과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필리핀 출신 52세의 이주여성이다.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한국어 실력은 우수한 편이다. 결혼 전에 친정 가족 중 언니는 질병으로 남동생은 사고로 가정해체 경험이 있었다. 2000년에 결혼하여 2013년에 이혼하게 되었다. 결혼 전에 보험설계사와 기타 회사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영어 강사로 활동을 했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쌍둥이 아들 둘(13세)과 9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41세 이주여성이다. 2011년에 결혼 이주하여 2016년에 이혼해 1남(12세) 1녀(11세)를 키우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이며 대학원을 졸업했다. 결혼 전에 본국에서 검사로 경찰청에서 활동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한국 경찰서 등 공적 기관에서 통·번역 알르바이트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중국 출신 38세의 한족 이주여성이다. 중학교까지만 다녔으며, 결혼 전에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2013년에 결혼 이주하여 2015년에 이혼

을 했다. 결혼 후에 사회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경제 활동 경험도 없었다. 면담 당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었다. 6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임신 3개월 때 사산됐다.

연구참여자 7은 필리핀 출신 44세의 이주여성이다. 1997년에 전 배우자와 동거를 해 1999년에 결혼이주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출을 한 후 이혼을 했다. 어릴 적 동생 둘을 잃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천주교 및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결혼 전에 짧은 회사 경험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언어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미싱 회사를 15년 가까이 다녔다. 가정 경제 부담을 함께 했으나, 직접 받아 쓰지는 못했다. 지금 20세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면담 당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으나 원활하지 못한 편이었다.

연구참여자 8은 베트남 출신 33세의 이주여성이다. 대학교를 다녔으나, 결혼으로 인해 중퇴했다. 친정 아버지는 군인이어서 연구참여자 중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다. 결혼 후 가정 폭력에 시달려다가 벗어나 6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2013년에 결혼이주하여 2016년에 이혼을 했다. 결혼 전·후 사회 경험이나 경제 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 동안 친정 어머니가 한·베 양국 간 오가며 자년 양육에 도움을 주었으나, 2019년에 귀국 후 코로나로 인해 재입국 하지 못해 지금은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9는 러시아 출신 40세 이주여성이다. 불교 신자이며 대학교를 중퇴했다. 1살 어린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2001년에 한국에 들어와 유학생으로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2007년에 결혼을 해 2010년에 이혼을 했다. 사업했을 때 한국인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회사를 빼앗 간 경험도 있었다. 이혼 후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해 딸(12세)와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10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31세 이주여성이며 연구참여자 5의 동생이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슬람 종교 신도이다. 2007년에 대학 졸업 전에 결혼을 했다. 여권 유효 기간 만료되어 고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전 배우자가 연구참여자 10을 상대로 고소를 해 이혼 신고를 했다. 재입국 후 재판에 이겨 아이 양육권을 되찾아 2014년에 이혼을 했다. 결혼 전에는 사회 경제 활동 경험이 없었으나, 결혼 후 한국어를 배워 통·번역 활동 등을 했었으며, 이혼 후 다문화 강사로 경제 활동을 했다. 면담 당시 한국어 소통 능력은 원활했으며, 1남(10세) 1녀

(8세)를 혼자 키우고 있다.

연구참여자 11은 러시아 출신 35세 이주여성이다. 종교는 연구참여자 5와 연구참여자 10과 같은 이슬람이며 대학교를 졸업했다. 친정어머니는 교사이고,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였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대학교 졸업 후 한·러에 오가는 삶을 살았다. 2009년에 결혼을 해 2011년에 이혼을 했다. 결혼 전에 한국 회사를 다녔으나, 결혼 후에는 의사소통 어려움이 많았다. 임신 후 고향에 있는 동안 전 배우자가 몰래 이혼 소송을 걸었다. 재입국 후 기관의 도움으로 법적 이혼을 했지만, 전 배우자의 고소로 이혼을 했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되었다. 지금은 9살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12는 일본 출신 41세 이주여성이다. 1995년에 16살에 통일교를 통해 결혼 이주해 2010년에 배우자가 간암 말기로 사별하게 되었다. 몇 년 전에 친정아버지도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결혼 전·후 사회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다. 배우자와 사별 후 일본어 및 일본 문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17살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의사소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연구참여자 13은 캄보디아 출신 36세 이주여성이다. 종교는 불교이며 대학을 중퇴했다. 어머니는 의사였고, 아버지는 군인인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2008년에 전 배우자와 결혼 신고를 했다. 2010년에 배우자가 간암으로 사별하게 돼, 그 후 1년 친정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셔서 연이어 2번의 가정해체 경험이 있었다. 배우자와 사별 전까지 사회 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다. 지금은 12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통·번역 아르바이트도 했다.

연구참여자 14는 베트남 출신 34세 이주여성이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2009년에 대학교를 중퇴하고 결혼을 했다. 10개월 후 임신 8개월 때 배우자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또 다시 가족과의 사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혼 전·후 사회 활동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다가, 전 배우자와 사별 당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 아이 출산 후 5개월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 경제 활동을 했다. 지금은 12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14명의 연구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 III-04]와 같다.

[표 III-04]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인원	비율
유형	이혼	11명	79%
	사별	3명	21%
국적	중국	4명	29%
	베트남	2명	14%
	필리핀	2명	14%
	러시아	2명	14%
	우즈베키스탄	2명	14%
	캄보디아	1명	7%
	일본	1명	7%
	중학교 이하	2명	21%
학력	고등학교	6명	36%
	대학교	5명	36%
	대학원	1명	7%
	상	4명	29%
한국어	중	7명	50%
	하	3명	21%
	기독교	7명	50%
종교	이슬람	3명	21%
	불교	2명	14%
	통일교	1명	7%
	없음	1명	7%
	30대	6명	43%
나이	40대	6명	43%
	50대	2명	14%
	10대 후반	2명	14%
결혼 나이	20대	8명	57%
	30대	4명	29%
	20대	6명	43%
한부모 된 나이	30대	6명	43%
	40대	2명	14%
	5년 미만	6명	43%
결혼 기간	5-10년	5명	36%
	10년 이상	3명	21%
	5년 미만	1명	7%
한부모 된 기간	5-10년	10명	72%
	10년 이상	3명	21%
	결혼 전	없음	7명
사회 활동 경험	없음	7명	50%
결혼 후	있음	7명	50%
사회 활동 경험	없음	7명	50%
결혼 후	부담	5명	36%
가정 경제 부담 여부	미부담	9명	64%

먼저 면담과 인터뷰 당시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의사소통 과정 중 나타난 말하기 표현 능력을 고려해 상 중 하로 구분해 보았다. 이 중에 조선족 출신 이주여성 3명은 어릴 적부터 가정과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를 배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상으로 분류했다. 그 외에 한국 체류 13년의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없었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급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가 7명으로 전체 연구참여자의 반을 차지했다. 그 외에 기본적인 회화 소통이 가능하지만, 같은 시간에 면담 과정 중 다른 연구참여자의 추가 설명이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연구참여자가 3명이 있어 하에 분류했다.

연구참여자 중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은 12명, 사별 가정 이주여성은 3명이다. 나이별로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속한다. 그중 30대와 40대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각 6명, 그리고 50대 2명이 있다.

출신 국적별로는 재중 동포 3명, 한족 1명, 필리핀 2명, 베트남 2명, 러시아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그리고 일본과 캄보디아 각각 1명이 참여했다.

종교별로는 한 명을 제외해 기독교가 7명으로 가장 많으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 문화권 출신 이슬람 종교를 가진 연구참여자가 3명이 있고, 그 외에 불교 2명과 통일교 1명이 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 2명, 대학교 중퇴를 포함한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연구참여자가 5명, 전문대학교와 대학교 졸업 6명, 그 외에 대학원 졸업 연구참여자도 1명이 있다.

결혼 당시 나이로는 10대 후반에 2명, 20대에 8명, 그리고 30대 4명이 있다. 결혼 지속 기간으로는 5년 미만 6명, 5-10년 5명, 그리고 10년 이상 3명이 있다.

가정해체를 경험해 한부모가 된 당시 나이에 따라 20대 6명, 30대 6명, 그리고 40대 2명이 있다. 가정해체 후 한부모로 살아온 기간은 5년 이하 1명, 5-10년 10명, 그리고 10년 이상 3명이 있다.

결혼 전·후 사회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7명으로 이 중에서 5명은 결혼 후에 전 배우자와 같이 가정 경제를 함께 부담했거나 주로 부담한 연구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자료수집 준비단계를 걸쳐, 2020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구체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수행했다. 수집한 음성 자료 들을 전사 과정을 통해 연구에 사용할 원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분석 작업을 시작해, 연구가 종료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구체적인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3.1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현장에 들어가 연구참여자와 만나기 전에 먼저 자료수집 준비단계는 거쳤다. 2019년부터 연구참여자 집단을 확보한 후, 12월에 21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한 후 2020년 7월까지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 학습과 함께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순서지를 수정하여 구성했다. 지인 소개 및 한부모 이주여성 관련 단체의 담당자들의 소개로 눈덩이 수집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했으며, 2020년 7월에 연구참여자들이 면담 및 인터뷰 가능한 일정까지 확보해 본격적인 자료수집을 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집단면담을 중심으로 구상하였으나, 연구참여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개인 면담과 전화인터뷰의 방법도 고려했다. IRB 심의 승인 받은 연구 동기, 연구목적, 연구 기간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을 포함해 작성한 연구참여동의서, 사회인구학적관점에서 구성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기본 정보지, 그리고 듀이의 경험 이론 중의 변화와 성장을 중심으로, 생애사 연구의 시간성 특성을 고려해,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순서지 및 현장을 기록할 현장 기록지를 세트로 30부 정도 미리 출력해 보관하였다. 실제 면담에서 참고한 면담 질문 순서지는 다음 [표 III-05]와 같다.

[표 III-05] 면담 질문 순서지

면담 질문 순서지 (3시간)	
구분	생애 경험
면담 준비 15분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기록지, 면담 질문 순서지 나누기 및 작성, 연구 목적 설명, 답소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성장배경. 결혼경험, 5*6=30분	성장배경, 자기소개, 고향 소개, 직업 근로 경험, 사회참여 경험, 결혼 경험, 첫만남, 즐거운 경험, 기타 1차 직접적 경험,
문제 상황 위기 경험 5*8=40분	문제 상황, 위기 경험, 질병, 갈등, 폭력, 우울, 스트레스, 극단적 선택, 기타 1차 직접적 경험
한부모되기 경험 5*8=40분	문제 상황 대처 경험, 위기 탈출 및 변화 경험, 감동적 경험, 기타 1차 직접적 경험 ⇨ 2차 반성적 사고 경험
변화 및 성장 경험 5*8=40분	문제 상황 경험 후 변화 및 성장, 경험의 공유 - 2차적 반성적 사고 ⇨ 변화 및 성장 경험 경험의 공유, 생각의 변화, 성장 경험, 신체·심리적 변화, 사회활동 참여, 지역 활동, 경제 활동, 봉사활동, 기타
기타 15분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기계발, 노후, 걱정, 기타

자료수집 준비단계에서 자료수집 현장에 들어갈 때 사용할 도구로 핸드폰 녹음 녹화 앱, 노트북 녹화 앱, 그리고 녹음기를 준비했다. 2019년 말에 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 및 분석을 한 다음 면담 질문 순서지를 수정하였다. 본격적인 자료수집 작업은 2020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했다. 이에 모든 자료수집은 총 4회의 집단면담과 2회의 개인 면담 및 2회의 전화인터뷰로 진행했다.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결혼 경험, 생활 경험, 문제 상황(위기) 경험, 문제 상황 및 위기 경험, 생애 경험 속의 감동적 경험 및 그동안의 변화 및 성장 등을 중심으로 2-3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면담 진행 장소 및 시간은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찾아갔으며, 연구참여자의 직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 주말이나 저녁에 진행했다. 면담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는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보상을 증정했다. 집단 면담에 참여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와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1:1의 개인 면담이나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녹음과 함께 일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화를 해 전사해 파일로 저장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발송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은 표시 후 분석내용에서 제외시켰다.

3.2 자료 분석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는 한 개인이 삶에서 경험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는 전기 연구, 자서전, 생애사, 구술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의 생애사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단일한 혹은 복잡한 에피소드, 사적인 상황들, 또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는 개인의 사적 경험으로서 연구하는 동시에 개인의 전체적인 인생을 그리는 연구다(김아영 외, 2016).

Polkinghorne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는 기술적 내러티브 탐구와 설명적 내러티브 탐구의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이 두 가지 탐구 형식은 인터뷰와 문서 분석과 같은 수단에 의해 수집된 동일한 종류의 내러티브 에이터를 사용한다. 기술적 내러티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이나 조직에서 일어난 사건의 계열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해석적인 내러티브 설명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명적 내러티브에서는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인과적 의미로 설명하고, 그 관계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내러티브 설명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다(D. Jean Clandinin & F. Michael Connelly, 2016).

본 연구에서의 내러티브는 분석 방법이고, 분석의 대상은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과정 변화 경험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성장 변화 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하고 연구참여자 생애 경험 속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연구참여자들을 주도적 행동(Crant, 2000; Grant & Ashford, 2008)과 자기주도성(권석만, 2017)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연구참여자별 생애경험을 기술적 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하고, 경험과 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성장 변화 경험을 설명적 내러티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수집한 원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귀납 분석 과정은 김영천(2017)이 제시한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를 참고했다.

Cloninger는 개인의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기초월의 측면을 반영하는 세 가지 성품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첫째로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을 제시했다. 자기주도성으로서 책임감, 목적성, 재치, 자기 수용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자기

주체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고 책임감 있게 일하며 명료한 목표의식을 지니는 반면, 이러한 성품이 결여된 사람은 무책임하고 자기폐배적이며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간다(권석만, 2017). 유매, 강영순(2014)은 주도적 행동(proactive behavior)은 현재의 환경 개선 및 새로운 환경 형성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행동(Crant, 2000; Grant & Ashford, 2008)이라 했다. 주도적 행동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인 특징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현재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을 보인다(Fress, et al, 1996). 이동섭, 최용득, 조예슬(2017)에 따르면 주도적 행동의 본질적 특성은 주로 두 가지로, 하나는 미리 행동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의도된 영향력이라는 점이다(Grant & Ashford, 2008). 즉, 개인의 주도적 행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행동하는 능동성과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화 중심성을 모두 지닌다(Crant, 2000; Grant, 2007).

수집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영천(2017) 제시한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 절차를 다음과 [표 III-06]과 같이 설계했다.

[표 III-06] 자료 분석 절차

단계	분석 절차	세부 내용	본 연구의 절차별 세부 내용
1단계	자료 읽기/정리	자료의 반복적 읽기와 자료 정리	음성 자료 전사, 자료 배열 및 정리, 현장 기록지 정리, 원자료 구성
2단계	분석적 메모 쓰기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원자료 반복 읽기, 메모쓰기. 세부적 키워드 도출.
3단계	1차 코딩	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1차 범주화 및 소주제 도출
4단계	2차 코딩	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 파악	2차 범주화 및 중주제 도출
5단계	3차 코딩	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3차 범주화 및 대주제 도출
6단계	연구 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 제시, 명제 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	기술적 내러티브, 설명적 내러티브, 연구 결과 제시

수집한 자료의 정리 및 분석은 모두 컴퓨터를 사용해 처리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현장 기록지의 정리, 수집한 음성 자료의 전사, 전사 자료의 배열 등을 통해 연구에 사용할 원자료를 정리한다. 이 작업을 통해 기초 연구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2단계에서는 전사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중용한 부분 및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진하게 표시함과 동시에 메모 넣기를 한다. 3단계에서는 전사한 원자료를 다시 읽으며 메모한 내용의 핵심을 도출해 1차 코딩 및 범주화를 통해 소주제를 제시한다. 4단계에서는 도출한 소주제를 원자료와 비교하여 공동된 부분을 찾아 2차 코딩 및 범주화를 통해 중주제를 도출한다. 5단계에서는 소주제 및 중주제를 통합해 귀납적 방법으로 대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도출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시한 자기주도성, 주도적 행동 및 경험과 성장을 바탕으로 학위논문 형식에 맞추어 기술적 내러티브와 설명적 내러티브를 통해 연구 결과물을 작성한다.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4.1 연구의 윤리성

질적연구는 현장에서 참여관찰, 면담 등을 통해서 언어 혹은 사진 등의 행태로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김영순 외, 2018)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의 일상적 삶의 세밀한 부분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보장, 상호신뢰의 약속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성 보장 등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본격적인 연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번호는 191119-1A이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과 면접 과정에 집중하여 연구 과정 동안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면담내용의 녹취,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서로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참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에 대해서 첫째, 연구참여자의 삶의 전반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가질 수 있어 불편감을 느끼는 이야기는 중지할 권리를 보장한다. 둘째, 면담의 진행 중 또는 면담을 마친 후에라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을 요청하면 연구자와 협의 후 삭제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다. 셋째, 시간적 할애가 필요하므로 연구진과 면담 일정을 만들 때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실행했다. 넷째,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례는 개개인별로 시간 당 2만 원 정도 최대 5만 원의 사례를 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면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이 수집하게 된다.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측면에서 관련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익명으로 보호된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오프라인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온라인 자료는 암호화된 컴퓨터 및 휴대용 외장 디스크에 보관했다. 연구 결과가 출판할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면

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

4.2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기웅 외(2013)에서 설명하고 있는 Merriam(1998)이 제시한 7가지 전략 중의 일부를 사용했다.

첫째,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다. 삼각검증법은 Denzin(1970)이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의 자료원, 연구참여자, 이론 등을 다원화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자료원의 다양화는 집단면담, 개인 면담 및 전화인터뷰와 함께, 관찰 및 현장 기록 등을 통해 확보했다. 연구참여자의 다원화는 연구참여자의 출신 나라, 나이, 결혼 생활 기간, 체류 기간, 가정해체 기간 등의 다양화를 통해 확보했다. 이론의 다양화는 본 연구에서 경험성장이론에 기초하여, 역경 후 성장, 자기주도성, 주체적 행동 등의 다양한 이론적 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이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혹은 연구를 수행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전사한 다음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 해당 내용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원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셋째, 동료검토법(peer examination)이다.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제, 질적연구방법론, 그리고 관련 분야에 식견이 있고 연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료 3-5명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연구 세미나에 참여해 연구 계획 보고, 연구 중간보고 및 연구 최종 보고를 통해 다문화 분야 연구 동료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했다.

넷째, 외부 감사법이다. 연구자에 의해서 섭외된 감사자 혹은 전문가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외부 감사(audit)를 통한 방법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관련 연구 분야의 슈퍼바이저의 확인 및 심의를 걸쳐 전체적인 연구의 정확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확보한다.

IV. 한부모이주여성의 삶

본 연구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고자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별 생애 경험의 기술적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그들 삶에서 보고, 느끼고, 변화한 것 등의 1차 직접적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Cloninger(1994)는 개인의 자기 관리, 대인관계 자기 초월의 측면을 반영하는 세 가지 성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의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으로서 책임감, 목적성, 재치, 자기 수용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자기 주체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고 책임감 있게 일하며 명료한 목표의식을 지니는 반면, 이러한 성품이 결여된 사람은 무책임하고 자기패배적이며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간다(권석만, 2017).

또한, 유매, 강영순(2014)에서 주도적 행동(proactive behavior)은 현재의 환경 개선 및 새로운 환경 형성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행동(Grant 2000; Grant & Ashford, 2008)이라 했다. 주도적 행동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인 특징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현재 상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을 보인다(Fress, et al, 1996). 이동섭, 최용득, 조예슬(2017)에 따르면 주도적 행동의 본질적 특성은 주로 두 가지로, 하나는 미리 행동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의도된 영향력이라는 점이다(Grant & Ashford, 2008). 즉, 개인의 주도적 행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행동하는 능동성과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화 중심성을 모두 지닌다(Crant, 2000; Grant, 2007).

이에 이장에서는 Cloninger이 제시한 개인의 자기주도성과 한부모이주여성들의 한부모 되기 과정에서 개인이 주도적 행동(Crant, 2000; Grant, 2007)을 했느냐에 따라 14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자기주도형 및 비주도형, 그리고 그 중간에 속하는 기관의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살아온 과거 및 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생애 경험을 이야기 재구성하여 개인별 내러티브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개인별 성장배경, 결혼 해체 경험, 한부모 경험과 현재의 삶 등의 기술적 내러티브를 통해 두이의 경험론에서 말한 1차 직접적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1. 자기주도형

1.1. 연구참여자 1: 죽음에서 벗어나 희망 안고 삶

연구참여자 1은 2020년 8월 중순 1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중국 출신 45세의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02년에 결혼 이주를 통해 입국하게 되어 2011년에 이혼을 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을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1] 연구참여자 1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중국 조선족 기독교 / 두 자매 중 막내 / 조선족 학교 다녔음 / 대학교 졸업 / 가족 사랑 많이 받았음 / 한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구사 가능 / 영어 강사, 무역회사 통·번역 근무 경력 있음 /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음 / 어머니는 한국 언니 집에서 삶.
결혼 해체 경험	일본 유학 준비 중 / 통역 업무로 만남 / 업무 끝난 후 전 배우자가 적극적 나섰음 / 전 배우자가 고아며 3남매 중 막내 / 사업을 망하고 빚이 있다고 고백했음 / 입국 후 무역회사 통·번역 근무해 가정 생계 함께 부담했음 / 임신 후 퇴사 / 생활 능력 저하, 무책임,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경험 2번 / 아이를 위해 이혼 선택.
한부모 경험	주거: 임대 주택 / 경제: 구청에 도움을 요청, 수급자, 자활 근로, 중국어 강의 및 기타 아르바이트 / 심리: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음, 심리적으로 편해 짐. 아이들도 정서적 안정 찾게 됨, 환상을 보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음. / 복지 정보 많아짐 / 시댁과 연락 거의 없음
현재의 삶	1남(15) 1녀(18)와 함께 삶 / 규칙적인 일과 / 한부모 모임 리더 / 지역 사회 봉사 / 평생 직업 탐색 / 자기계발 지속 / 보육교사 공부 중 / 통역, 가이드 및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꿈

연구참여자 1은 중국 연변 조선족 출신이며, 언니보다 4살 어린 막내로 태어나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다. 조선족 학교를 다녔으며 어릴 적부터 조선어를 잘했다. 전문대학교에서 영어전공을함과 동시에 일본어를 공부하였다. 아버지는 4남매 중의 장남이며, 명절 때마다 30여 명의 대식구가 함께 모여 가족 행사를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이 25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현재 어머니는 한국에 와 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저 45세예요. 2002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고향에는 외가 친척들만 있어요. 그냥 친척들만 있어요. 엄마는 여기 모셔왔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20년도 전에 돌아가셨어요...간암으로...언니가 있어요. 여기 한국에 있어요. 저도 연변이에요. 고향 자랑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고생만 했지. 저희 집은 딸 둘만 있어요. 남들은 아들 낳려고 딸 줄줄이 낳는데...제가 언니보다 4살 어린 막내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든 사랑을 받고...진짜 부족한 게 없이 살다가, 여기 와 갖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두 크게 웃고...) 모든 것은 부모님하고 언니가 다 하고, 저는 그냥 사랑만 받고 걱정없이 잘았어요, 우리 언니도 저 엄청 이뻐했어요. 지금도 언니 집에 가면 막내라서 그냥 앉아서 놀다가 챙겨주는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엄마하고 이야기만 나누다가 그냥 집에 가요.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1은 조선족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어 및 조선어의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며,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으며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했다. 대학교 졸업하고 4개국 언어 구사가 가능하며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광저우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서 통·번역 근무를 맡았다. 무역회사에서 통·번역 일을 하는 과정 중 전 배우자와 만나게 되었다. 업무적인 만남만 생각해 크게 관심도 없었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얼굴을 보러 중국에 자주 찾아오기도 했다. 감동을 받아 계획했던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결혼하기 결심했다.

일을 하다가...광저우에 가서 무역 회사에 들어가서 통역 일을 하다가...어릴 때부터 (조선족 말) 같이 했었어요. 3년...여기 와서도 계속 무역 회사 같은 데 하고 있어요. 네. 그 때는 일본어 좀 해요. 영어도 좀 할 수 있어요. 영어교육 학과 졸업했어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하도 안 써 먹었가지고, 90%는 선생님한테 다 돌려줬어요.(하하하) 썼으면... 4개 국어를 계속 꾸준히 썼으면 지금 능력자가 됐을 건데, 쓸 일이 없으니까...연하있어요.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저는요. 일하다가 만났어요. 통역을 하다가...중국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일 끝나면 자기는 귀국해야 되는 거잖아요. 헤어졌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저는 일적으로만 만난 건데 나이도 궁금하지 않았고, 사람도 사실 마음에 안 드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일이 없는데도 계속 비행기 타고 와다...한 번씩 얼굴보러 왔다...꼬시는 거예요 저를...저는 그 때 광저우에서 일을 좀 하다가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만날 때는요...일본 가려다가 일본 유학을 접고 여기로 온 거예요.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입국 전, 전 배우자가 중국에서 했던 사업이 망했고 빚도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둘이 같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여 2002년에 입국하게 되었다. 전 배우자는 8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고아로 살았다. 3남매 중의 막내며 남매 모두 눈칫밥 먹고 자라서 남을 챙길 줄 모른다는 성격이었다. 형제도 연구참여자의 전 배우자처럼 생활 능력이 없으며 형제 간의 왕래가 거의 없이 살았다. 그 모습이 매우 안쓰러워했다. 입국 후, 반지하 방의 주거 형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3개월의 부부 생활에서 나타난 전 배우자의 생활 능력 저하, 무책임 등으로 헤어지려 했지만, 그 무렵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공항까지 쫓아온 전 배우자와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하고 이혼 전까지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다.

근데 오기 전에 애기 아빠가 중국에서 했던 사업도 다 망했고, 빚도 얼마 있고. 돈이 없는 데 그래도 괜찮겠냐. 그 때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뭐 어때, 없으면 같이 모으면 되지...살면서 같이 모으면 되니까...열심히 살면 더 뭐가 필요하냐고, 방금 언니도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만 하면 돼.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는 거지. 그랬는 데...허허...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자기 집이라고 데려갔는데,..창고 같은 집이 아닌데, 반지하 집이야. 우리 중국에서는 집은 거의 다 땅 위에 있잖아요. 여기 집은 지하에 있는 거야...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하하하하) 반 지하의 집에 방이 2칸 자린데, 낮에도 어두워요. 그런 집에,..내가 이제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지상에서 집 한 채 사자. 그렇고 했는데...(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애기 아빠가 8살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갖고, 고아예요. 형하고 누나 있는데, 다 어릴 때부터 부모 없어 눈칫밥 먹고 자라서 자기밖에 몰라요. 누구 챙기고 그런 줄 몰라요. 맨날 눈칫 보면서 밥이라도 한끼 먹으려고 하고,...식구를 챙길 줄 몰라요. 가족들이 다 그래요...형제 간의 왕래도 없어요. 제삿날, 부모님 제삿날만 가서 잠깐 모여서 얼굴보고...그 때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안쓰러워요.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봤

구나...마음이 되게...되게 불쌍하고... 측은하고...안쓰러웠갖고...(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애기가 있는데... 원래는 3개월만... 내가 짐 샀어요. 못 살겠다. 짐 샀고, 공항까지 쫓아왔가지고, 니가 살고 싶은 대로 다 해 줄가 하고..간다는 애를 잡을 때는 먼저 할 못 해...그래도 마음이 약했갖고 애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안 바뀌어. 맨날...나도 그래서 맞벌이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맞벌이하다가 출산 휴가 받았갖고 애를...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없고, 누구 옆에. 우리 엄마도 없고,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1은 결혼 후에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여 경제 활동을 해 가정 생계를 함께 부담했다. 아이 출산 및 양육 때문에 과장 승진을 앞두고 퇴직하게 되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자녀 양육과 더불어 가정에 대한 생계유지 책임을 져야 할 전 배우자의 논의 없는 사업 투자 실패의 반복에 큰 빚을 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사업 투자 실패 후의 무책임한 가출 등에 지쳐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심한 연구참여자 1은 결국 해서 안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부모없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정말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와서...애기...오자마자 임신을 해버렸어. 또 바보같이...애 낳고, 애기 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일 그만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걸도 못 해.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일하다가도... 뭐가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상의를 하고, 빚을 짓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다 했갖고, 다 망하고 나서 나한테 와요...접고, 또 벌렀다가 또 망하고 또 접고...그래서 망하면 또 빚덩이 액이 생길 걸, 또 같이 벌어서 그걸 겨우 갚고 나면 또 일을 하나 저질러버려요...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맨날 일 저지르고 나서 와, 그 과정을 알면, 아 그래,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네 어쩔 수 없어. 전혀 몰라요. 이렇다가, 어느 날 갑자기...자기가 힘들면 1달 2달씩 어디 시골에 갔갖고. 가족하고 또 연락도 똑 끊고 살아요. 난 어떻게 살아요. 어헤헤헤...(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그래서 이런 책임 없는 사람하고 살면 애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갖고 죽으려고 했어요...죽고 싶어도 안 죽더라고요. 저도 해 봤는데...사람이 목숨이 끈질기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죽지 않아. 눈에 현관이 다 터져서 빨갱게 되는 데 안 죽어.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살아지더라고(어하하하), 그 순간이야. 그때 죽어버렸으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애들 아빠가 애들 키울 수 있나. 만약에 키울 수 있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

이 내가 없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살아야 되겠구나...어허 하하...(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극단적 선택을 두 번이나 시도 후 얻은 깨달음은 사람의 목숨이 끈질기다는 거와 엄마로서 저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 지쳐 아이라도 바르게 잘아야 한다고 하여 이혼을 선택해 2011년에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한부모로 삶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점점 커 가는데, 책임감 변하는 것 하나 없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애들이라도 바르게 키우려면, 헤어질 수 밖에 없다..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그래서 이것 아니야,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1의 경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및 심리적 고통은 종교를 통해 많이 완화하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 환상을 보는 등 신비스러운 경험도 했다.

저는 교회에 많이 갔어요. 거기서 기도방이 있어,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 진짜 사랑하면 도와주라고(하하하하)...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으하하하) 응, 너무 편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뭔가 이렇게 훗 펼쳐내는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울면...하하하...환상을 봤어요...되게 평온한 초원에서 양대들이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되게 평온한 세상...되게 힘들었을 때 교회에 갔는데, 설경 말씀 중에 설교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이렇게 초원이 쪽~펼쳐지면서, 되게 평온하게 양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평온한 환상을 보면서 나는 되게 편해졌는데...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편안을 주려고, 마음의 평화를 주려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라고...남들은 안 믿어요. 하하하하.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한부모가 된 후에 공적 기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혼 후 한부모이주 여성으로서 살기가 힘들어 먼저 동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며 구청에서 자활 근로를 지난 몇 년 계속해 왔다. 주거 문제는 구청의 도움으로 LH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제적 문제는 구청에서 재할 근로와 더불어 중국어 과외 및 기타 아르바이트를 해 수입을 늘리려

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과정 중, 복지 정보 외에도 다양한 학습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자기계발로 관광통역가이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노후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을 탐색하다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보육교사 공부를 2019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300만 원 자금이 부족하여, 다녔던 교회 분들이 조건 없이 도와주었음에 무척 감동했다.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가 생긴 연구참여자 1은 **복지원의 한부모이주여성 모임에서 다른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자녀 양육 및 생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상담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 한부모 가정 보호 정책, 공적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자녀교육 시스템 등이 연구참여자 1이 한국 체류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자녀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육교사의 꿈을 안고 한국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

1.2. 연구참여자 2: 미움에서 벗어나 용서하고 삶

연구참여자 2는 연구참여자 1과 같이 2020년 8월 중순 1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중국 출신 50세의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05년에 노동 이주를 통해 입국하게 되어 2010년에 결혼하고 2014년쯤 이혼을 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2] 연구참여자 2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중국 조선족 기독교 / 3남매 중 둘째 / 조선족 학교 다녔음 / 고등학교 졸업 부모님은 모두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음 / 식당 근무 10년 / 회사 경험 10년
결혼 해체 경험	식당 운영했음 / 사업자 비자 때문에 유치장에 들어감 / 교회 목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음 / 마음공부 프로그램 참가했음 / 수련원 총무가 되어줌 / 전 배우자는 5남매 중 유일한 남자임 / 전 배우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독차지하여 시누이들의 미움과 시어머니의 통제를 받았음(원본: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점령했음에 시누이들의 미움과 시어머니의 통제를 받았음) / 전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강행함으로 유산하게 됨 / 가족 생계 무책임, 도박, 알코올 중독과 함께 힘든 시집살이 / 무로 문제, 백내장, 불면증, 갑상선 암 / 임신하기 전까지 식당 운영으로 가정 생계 주로 부담했음 / 스트레스 및 우울로 삶이 지옥 같고 죽을 만큼 힘들었음 / 살아남기 위해 이혼을 선택
한부모 경험	주거: 모자원에서 임대주택으로 / 경제: 수급자, 아르바이트 / 신체: 매우 호전됨. 걸을 수 있음. 갑상선암 수술 받았음 / 심리: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음, 용서할 마음이 생김, 전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함 / 복지 정보 많아짐 / 시댁과 연락 끊고 삶
현재의 삶	9살 아들과 함께 삶 임대주택에서 삶 / 외국인주민 대표로 활동 중 / 한부모 모임 리더 / 지역 사회 봉사 / 양육비보다 건강이 더 중요함 / 매일 매일 감사일지를 씀 / 노후준비로 식당 운영했을 때 가입한 연금을 받고 있음

연구참여자 2는 중국 하얼빈 오상 출신 조선족 이주여성이다. 3자매 중 둘째로 어릴 적 조선족 학교에 다녔다. 표준어로서의 한어보다 조선어가 더 익숙했으며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아버지는 1997년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수발해 준 어머니는 3년 후의 2000년도에 같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 당시에는 고혈압은 치료하기 힘든 병이었으며 두 분 모두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병간호는 그때 당시 이미 결혼한 언니 혼자 다 했다.

중국 오상이라는 때 있잖아요. 할얼빈을 지나서, 할얼빈 옆에 오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상 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그 쪽에 쌀이 좀 유해요. 아주 좋은 곳이 이에요...동생이 먼저 시집 오고,...동생이 먼저 시집 왔고, 그 다음에 저를 초청해 왔고요. 이 다음에 언니가 오고, 부모님은 97년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2000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두분 모두...50대 초반에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그 당시에는 고혈압...그 때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20 몇 년 전에...지금 2020년도이까. 그 때 중국에서 큰 병원에서 치료 안된다고 해서...한의원에도 데리고 갔는데...아버지 때는 엄마가 다 수발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3년 정도 아팠어요. 그 때는 저하고 동생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언니는 애기를 키우면서 엄마 같이 뒤 수습하고, 엄마 보내고...(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고등학교 졸업한 연구참여자 2는 고향에서 6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식당 일을 했다. 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방에서 연탄불로 채소를 볶고 요리를 했다. 습기가 찬 작은 공간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먹고 자고 한 나머지, 손목, 허리, 어깨 등 아픈 곳이 없이 몸이 망가졌다. 그 후에는 광주의 한 가구회사에서 사무직을 10년 정도 하다가 여동생의 초대로 2005년에 입국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식당일을 한 10년 동안 일하다가 저도 광주에 가서 가구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사무 일 보는 일을 또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여기 한국에 왔어요...식당 일을 한 10년 동안 함에, 맛있게 하더라면...옛날에 그 2000년 이전에... 그 때는 시설이 아주 안 좋았어요. 주방이 진짜가 이런 창문 같은 데도 바람이 잘 들어와서...잘 때도 없어갓고, 주방에다가 주방에 연탄 불 같은 데 야채를 볶고 요리를 해요...옆에 침대를 놓고, 쇠 침대 같은 거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조립한 것...거기서 자고 주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도 주방에서 자고, 아니면 그 책상 의자가 많잖아요. 이런 것 다 모아놔서 모아서 두 사람이 같이 책상 위에서 자요...그 일을 한 10년 동안 하더라면 습기에 몸이 젖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게 아파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서...(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2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요리한 솜씨로 식당을 차려 운영했다. 40대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나, 마음의 허전함은 금전으로 다 채울 수 없었다. 마음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 친구의 추천으로 수련원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동참해 보았다.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총무가 남편과의 인연을 엮어주었다. 7개월의 만남 끝에 결혼하게 되었다.

어떻게 만났다면...는 그 수련원 같이...종교가...특정한 종교가 정해지지 않는...그래서 무교였거든,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서 나보고 그런데 가보라고 했어...가서 수련을 하니깐 말을 못 알아들어요. 듣기만 하지,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했는데, 그런데 왔는데 있잖아요. 정말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 있죠. 뭐라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없어, 그냥 편해요. 그냥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속이 시원한 것 있지,...그래서 그다음 회가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 총무가 있어요. 총무가 나이 그 때 나는 한 39살 됐거든. 거기 애기 아빠도 거기 수련회에 왔더라고요. 거기다 총무가 엮어준 거예요. 둘이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하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수련원에서 만났을 때, 전 배우자는 암전하고 술 담배 및 도박 등 일절 안 하는 신사였다. 하지만, 제주도에 신혼 여행을 갔을 때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동안 계속 참아서 안 마셨던 술을 밤늦도록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연구참여자 2의 임신 및 피곤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부부관계를 강행함으로 안타깝게 첫 아이를 유산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 딱 하고 신혼여행 가니까 그날부터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 너무너무 놀란 거야. 임신해서 제주고 가니까 몸도 힘들고, 게다가 임신까지 했는데, 제주도까지 가니까, 또 차 타고 가야 하니깐 너무 힘들더라, 그랬는데 딱 술을 마시더라고, 그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그동안 참았던 것 딱 결혼했던 날, 그날, 제주도 갔는 날부터 그렇게 다시 마시게 되더라고, 너무 놀랐가지고...그래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럴다 치고, 또 너무 피곤하니깐 그냥 자는 거예요. 갔다가 딱 오니까 유산이 된 거야...너무 힘들고, 너무 충격 먹고,...응, 그렇니까, 술에 취해서 제정신도 없이 잠자리를 하는 게 아니야...딱 3일 지나고 집에 가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안 똥터래, 애기가...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어휴, 거기까지 만 하자...(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결혼 당시 시부모님은 이미 모두 80대가 다 되었다. 전 배우자는 5남매 중 유일한 대를 이을 남자이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독차지하였다. 그러므로 가족 사랑을 받기는커녕, 시누이들의 미움과 시어머니의 통제를 받고 살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골에서 함께 살았으며, 시댁에서의 삶은 가족보다 종업원 같은 느낌이었다.

옛날 사람이라서 아들아들하다 딸...딸 놓고 딸 놓고 딸놓고, 드디어 아들 하나 나왔어. 그렇다가 또 아들을 놓고 싶었는데, 또 딸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나...그렇니까 이 딸들이 이 아들을...입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이 형제들한테 밥 한 씨 못 얻어 먹었어요...그랬는데 이제 막 결혼하고 나니까 그 화가... 그 엄마가 딸한테 다 얻어가지고 아들한테 주던 그 화가...딸들의 그 화가 다 내한테 그냥 오는 게야. 나한테 다 푸는 게야...그런데도 내가 가면 시누들은 항상 시집에 오면 다 손님이야. 손 까닥 안 해...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종처럼 왔가지고,..애기 아빠가... 남편도 남이야. 시누도 남이야. 다 남의 편이야. 다 상관없어. 하지만은 애기 아빠는 내 편이 되어야지. 되어 돼지 않겠나 싶어. 그런데 이것도 남 편이야...그래도 그 힘들 때는 한 번은 그래도 내 편이 돼 주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 편이 아니더라고...너무 화가 나고 열 받는 거야.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힘든 시집살이에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대라면 남편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편이 돼 주고 곁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남편도 내편이 아닌 남의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이 작은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실망이 매우 컸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에 화병, 항진증까지, 40대의 나이에 무릎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백내장이 심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눈이 백내장이 심했는데,..가서 수술을 꼭 받으라고...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그 약까지 먹으면 하루에 약만 20-30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무릎에다가, 우릎에다가, 여기 협심에다가 여기 갑상선에다가 진짜라니까. 갑상선저하니까 이렇게 뚱뚱한 게지.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상선저하는 호르몬 분비이가 안 되니까...아무리 조금 먹어도 그것...배출이 안 되잖아, 그래서 뚱뚱해져...그래서 문제는, 2년 전에 그때 건강검진했을 때는 신체 나이는 60으로 나왔어. 10년이나 더 나왔어요. 그때는 40대인데 6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 해. 그래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해 어디 가서.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전 배우자의 무책임, 도박, 알코올 중독과 함께 힘든 시집살이가 겹쳐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힘든 지옥 같은 삶이었다. 스트레스를 풀 때가 없어 우울이 심해져 연구참여자 1과 같이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기도 했다.

그렇게 갈아질 수 밖에...내가 살고 싶...내가 살아야 될...살 길이 갈아지는 길이 밖에 없어요. 그 때 당시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아주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는 아주 많은데...그 이야기는 다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너무나 힘들었어. 살 수...살...살아야 할 길은 나오는 방법은 그 길 밖에 없어서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 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어요. 내가 살...살아야 되잖아. 애기도 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애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에 먼저 살아야 열심히, 맞아. 나 그동안 진짜 두 번이나 죽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열심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살고 봐야 돼.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며, 일단은 살아야 돼...그렇지. 열심히는 두 번째 단계야. 첫 단계는 살아야 돼.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내가 그 사랑하고 갈아지는 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갈아진 게야...완전 꼭 막혔가지고, 풀 때가 없어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집에서 나오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안 그랬으면 내가 정신병자 됐었을 지도 몰라. 진짜 안 갈라지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 용기를 내서 가정에서 이혼을 결심했다. 결국, 연구참여자 2는 2014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5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의 점을 찍었다.

한부모가 된 이후, 연구참여자 2는 혼자 아이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관 등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주거 문제는 모자원에서 살다가 LH 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수급자 지원을 받고 몸건강을 되찾기 위한 통원 치료를 계속해 왔다. 얼마 전에 갑상선 암 수술까지 받았다.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무릎도 매우 호전됐다. 한부모가 된 초기에 건강검진을 해 신체 나이가 60대로 나왔다. 올해 건강검진 했을 때는 실제 나이보다 3년 더 나와 12년이나 좋아진 상황이다. 그 전에 무릎 통증 때문에 통원 치료했을 때 백내장 수술도 받아야 한다고 진단도 받았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약을 20알-30알 정도 먹어야 하는 부담감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올해 재검사한 결과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없었다.

아픈 몸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하여, 수급자를 신청해 모자원에서 몇 년 살다가 현재 9살 아들과 함께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갔다. 그동안, 자립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 후, 컴퓨터, 피부관리, 운전 등 시간이 날 때마다 기술한 가지씩 배웠다. 현재 이주여성 한부모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2020년 현재 제6기 외국인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 센터 등 공적 기관에서 통역 봉사도 자주 했다.

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 어디에 가고, 사천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그런 것 있어요. 거기 단체도 자원봉사단체도 가입됐갖고, 계속했어요...그리고 여기 단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 봉사도 봉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와서 총무로 있지만은...봉사를 하는 단체이까. 뭐...모든 것이 봉사로 돌아가는 것...그런 단체이니까...여름에는...그...저기...외국인 주민 대표 6기로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활약이 못 하지만은...하다나면...또 좋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에 이게...동사무소에서 통역으로도 일을 했는데, 올해는 좀 아파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실제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베푼다고 했지만은,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얻는 게. 나는 그런것 너무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 진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진짜 조금 밖에 안 되거든요...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럴는데,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2는 그동안 통·번역, 한부모 이주여성 모임의 리더 및 외국인 주민 대리로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는 베푼다고 하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단체 활동에서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다. 삶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연구참여자 2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을 참가해 기도도 많이 해 용서할 마음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용서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면 본인이 좋아요...좀 전에 이야기 하듯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미움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에너지가 애한테 간데요...미워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부터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항상...생각해보니까...그 기도는 그 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기도라기 보다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런 미움을 조금 털어놔서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도 한도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죠. 마음에...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더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나도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못 받아요...(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언제부터인가 헤어진 전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었다. 미워하면 미운 에너지가 애한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힘들어짐을 깨닫게 되어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식당을 오래 운영하였으며 연금을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참여자 2는 용서하려 하는 마음으로 미움에서 벗어나 매일 매일 감사 일지를 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1.3. 연구참여자 3: 사랑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삶

연구참여자 3은 8월 중순 2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중국 출신 43세의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00년대 초반에 산업 연구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2007년에 초등학교 동창과 연애 및 동거 후 아들을 낳아 미혼모가 되었다. 그 후 친구의 소개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2017년에 성격 차이로 헤어짐을 선택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3] 연구참여자 3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중국 조선족 기독교 / 조선족 학교 다녔음 / 중학교 중퇴 / 선달배기로 양아버지 밑에 잘았음 / 눈치 많이 봤음 / 1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 시작 / 2000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 미싱사로 근무 / 전자 회사 근무 / 월급을 고향에 보내 부동산 6채 투자했음 / 아빠 사랑을 받지 못함
결혼 해체 경험	2007에 초등학교 동창과 만남 / 미혼모가 됨 / 2009년 재입국 / 아들 체류 문제로 결혼선택 / 결혼 후 가정 생계 부담은 남편에 의지했음 /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 / 철없는 투자 및 소비 / 아동학대에 가까운 자녀 양육 가치관의 차이 / 이혼을 선택
한부모 경험	주거: 자택 / 경제: 회사원, 속눈썹 연장, 네일아트 / 인테리어 기술자 / 심리: 떳떳한 삶에 마음이 편해짐 / 생활적인 측면에서 많이 챙겨 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음 / 가족관계: 좋아짐. 아들과 양아버지의 관계가 편해짐 / 한국 초등학교 검정고시 봤음
현재의 삶	14살 아들과 함께 삶 / 인테리어 봉사를 함 / 공동체 활동 참가 시작 / 도배 기술 공부 중 /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 중

연구참여자 3은 중국 하얼빈 오상 출신 조선족 이주여성이다. 고향은 농촌지역이며 쌀로 유명한 곳이다. 어릴 때 생부와 이별하게 돼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양아버지 밑에서 눈치 많이 보고 자라서 고생을 무척 했지만, 엄마가 속상할까 봐 이불을 뒤집어쓰고 온 적이 많았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학교 중퇴 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서비스직에 종사했다.

국적은 중국. 조선족이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저기 뭐지 하얼빈 쪽에 오상이라고 했어요. 쌀이 가장 유명해요. 우리 동네도 보면 농사로 위주로 사는 농네예요. 우리는 쌀이 되게 맛있어요. 다른 때보다...부모님은...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가지고, 아빠 얼굴 몰라요. 선달배기라서...그런데 이제...양아빠 밑에서 자라가지고...나도 사회에 일찍 나와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중학교 졸업 못 하고 사회 나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돌아다녔거든요. (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2000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20만 원에 불과한 첫 월급을 받아 그 돈을 택시비로 써 일산으로 갔다. 이모한테 월급 70만 원의 식당 일을 소개를 받았으나 21살의 아가씨로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다시 친구의 소개로 신대방 쪽에 있는 미싱 공장에 취직해 월급도 80만 원을 받았다. 그다음 신대방에서 첫 집을 마련했다. 직장을 바꾼 후 주머니 달기 기술자로 월급도 130만 원으로 올랐다. 결혼하기도 전에 다음 세대가 생기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고향에 보내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다. 2003년 불법체류자가 합법 체류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에 귀국 후 2004년 재입국했다. 전자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월급은 260만으로 올랐다. 2006년까지 중국 고향에 아파트 총 6채를 투자했다. 이주 근로자로서의 고된 삶이 힘들었지만, 어린적 가난하게 살았어 노후까지 생각해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주노동자로서 6년 동안 주말도 거의 없이 일을 했고 생활에도 알뜰했다.

처음에 연수생으로 일했을 때는 20만원 밖에 안 줬어요. 2000년도에 20만원 밖에 안 줬어요...첫달 월급이 20만원이야. 그러가지고 그 월급 받는 즉시 그 돈으로 내가 택시를 타고...그때 구미에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에 올라온 거야...그때 월급이 식당에서 70만원을 준다고 했어...너무 힘든 거야...그 주방 설거지도 다 해야 되고...이것 도저히 아니다. 나 못 한다 해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구미에 왔어요...우리는 언어가 통했으니까. 안 배워도 말이 됐으니까, 미싱 회사에 취직을 했

어...첫 달 월급이 80만원이었어...내가 또 다른 때 바꿔 탔어. 바꿔 타서 신대방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인가 이제 혼자 먹고 잘 수 있는 그냥 방을 얻었어요. 그 전에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그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이 생각 밖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일만 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아가씨 때 돈을 벌어야 내가 나중에 후대를 가져도 나처럼 고생 안 시킨다. 그 생각으로 오로지...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6년 만에 길림에서 집을 6채를 산 거야. 그때 당시에는 집을 샀어. 진짜 샀어. (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30대(2007년쯤)가 되어 어머니의 결혼 재촉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교제를 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 깊은 곳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기대했다. 전부터 자신을 좋아해 온 동창과 결혼까지 생각해 동거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지게 돼 미혼모가 되었다. 고향에서 2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아이 키우기에 힘들어하여 2009년에 재입국했다. 아들은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어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내가 거의 30이 다 됐거든요. 빨리 결혼을 해야 애도 빨리 낳고, 나 돈 밖에 모르고 오로지...그랬는데...중학교 때부터니까 아마 90몇 년도부터 94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나를 좋아했다. 이런 남자 믿을 만 하다 해서 결혼 안 하고 임신해버렸...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도 마음은 한 쪽 구석에 계속 뭐가 허전하고 구멍이 있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 채울 수가 없어. 부모 사랑을 못 받은 거를 누가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원했거든. 그런데 그게 미혼모로 이제 애를 낳게 됐어요...그러면서 내가 길림에서 일을 해 봤는데, 그 벌는 돈이 금방...그래서 2008년도에 애 데리고 중국에서 한국에 나왔어요. 관광으로, 아들 데리고...여행으로 나왔는데, 이제 마음도 불편한 거야. 이것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달라, 우리 아들이 불법으로...아니면 있어야 되니까. 아들 때문에 급하게 수선을 해서 증매로 우리 신랑을 만난 거야...(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3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만큼 매우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성향이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짓고 주도해야 했다. 주도적인 삶에서 남편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어 가치관의 차이, 학대에 가까운 자녀교육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는 종이염을 걸리는 거야. 귀에. 해서 애는 아무리 감기 걸려도...감기도 잘 안 걸리거든요. 이게 몸이 튼튼해...그때 당시에는 그냥 묻쳐서 지나갔어요. 3개월 뒤에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무슨 이야기하다가...여기(귀)에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종이염이 났던 거구나 그 생각했어요. 딱 들은 순간, 이 속이...와....장난 아니라는 거야. 하루는 또 내 눈 앞에서 그걸 봤어요. 왜 그...그...우리 세탁소에서 나오는 옷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부족하고 3개를 접고, 애가 말을 안 들었다 하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애를 때리는 거야...그런데 이제 한 번 손때기 시작하니까, 그 후에 또 한번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 아니구나, 나는 애기 때리는 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아무리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아니다. 너무 아닌 가야...(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내 그 용돈 20만원, 그 80만 원 때문에 묶여서 사는 것도 우습고, 내가 나와서 살면 그보다도 더 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내 살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를 변하기 시작한 거야...그때 나는 생활비를 받아서 썼어. 일주일에 20만원씩, 20만원씩 한달 80만원 가지고 생활 다 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했는데, 그냥 생활비 받는 것 이것 끌랑 이것 다였어. 내가 우리 신랑한테 너무 잘해 준 것이 말한 것 그대로 보면. 근데 애가 그런 부당한...애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그리고 그렇다보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조금씩 바뀌게 된 거예요...(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철없는 투자 및 소비 등에서 오는 갈등도 많았다. 결혼생활 과정 중, 전 배우자의 빚도 일부 갚아주었다. 함께 지방에 물품 배송하고 와, 전 배우자가 집안일로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참여자 3에게 물을 갖다 달라 시켰다. 물통을 갖다 줬는데 컵에 안 따라줬다는 이유로 물통을 연구참여자 앞에 던졌다. 전 배우자의 생활 속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생활 가치관에 오래 고민한 끝에 2017년에 이혼을 제기해 혼자 아이 키우게 되었다.

어느 한순간에는 같이 일하러 같이 춘천에 갔는데, 새벽 배송 나가고 그럴거든요. 저녁에 8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나는 들어와서 빨래를 해야 되고, 밥 차려주고 그래야 되는 데 나보고 물 떠다 달래. 그래서 물통을 냉장고에 넣놔잖아요. 그냥 물통 갖다줬어. 물을 이렇게 따라서 마시라고. 물통을 줬어. 그런데 확 집어던지는 거야...내가 놓고 있었으면 그랬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 데.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와서 빨래 하고 빨래 넣고, 밥 차려가지고 그랬는데, 물은 혼자서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건데,..그냥 물 딸래. 그래서 물통 줬어. 혼자 따라 마시면 돼. 충분히, 그러데 그런 것 아니야.

물통을 확 집어던지다니까 나한테. 와...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을 먹었어. 돌이키려고. (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그리고 우리 신량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빚 졌어요. 돈을 많이 붙이고, 서로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니까, 그 빚을 내가 어느 정도 갚아줬어. **까지 내가 가서. 그랬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것 아니었어. 다 아 나는 무조건 돈이 다 생각한 거야. 그 이틀 날에 가가지고, 불링장에 가가지고 불링 공을 30만 원을 카드를 긁은 거야. 내 걸을. 빚 갚은 이틀 날에. 그게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서로 좀 편하게 살자. 자기도 원하는 대로 살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이혼하자 합의이혼 하자고...(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2017년 한부모가 된 후에 고향에서 투자한 아파트 6채를 모두 정리하여, 한국에서 주택 집을 구입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며 네일아트, 속눈썹 연장 등의 부업을 해 아들을 양육했다. 14살이 된 중학생 아들은 남보다 일찍 철이 들어 엄마를 챙겨주지만, 엄마로서 바쁜 경제 활동에 챙겨 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다.

이혼하고 다 정리했는데,..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도...옛날의 서로 보기 싫은 악연보다 이것 오히려 더 좋다고 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연약한 여자였으면 우리 신량나 뒤도 안 돌아봤을 거야... 그리고 내가 중국에 있는 집을 싹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벼락듯이 또 집을 샀어. 6채 다 정리했죠. 작년 재작년인가 다 정리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집을 샀어...주택 샀어. 그리고 내가 주택...배운 것 뭐냐면 인테리어도 내가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 주택을 샀어 내가 인테리어 풀업션 그런 것 다 해놨어. 인테리어까지 다...신량이 나한테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 뭐냐면, 너무 강해서 싫었던 건데. 그런데 딱딱하게 자기보다 더 잘 사니까 미련이 남는 거야. 그리고 특히도 집까지 사놨잖아 지금. 대출도 있겠지만,..(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3은 전 배우자와 헤어진 후에 인연을 끊고 살고 싶지만, 아들은 그동안 새아빠와 함께 살아온 정이 있어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지속적인 연락을 해 왔다. 오히려 헤어진 후에 아이가 필요한 물품을 싸다 주거나 용돈 및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 지원도 가끔 해 주었다. 전보다 아들과의 관계

도 편해지고 친해졌다. 지금 아들(6살)과 함께 자택에서 살고 있다. 한부모로서 아이 양육에 몸이 힘들지만,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고,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떳떳한 삶이 더 편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한이 있어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탐색하다가 인테리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인테리어 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배 기술도 공부 중이다.

연구참여자 3은 어릴 때부터 매우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다.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남자의 사랑에 대한 집착에 한 동안 전 배우자를 의지하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의지하려는 마음과 사랑을 바라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과 함께 더욱 자신이고 떳떳한 삶을 선택했다.

1.4. 연구참여자 4: 환상에서 벗어나 자아를 되찾아 삶

연구참여자 4는 3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필리핀 출신 52세의 이주여성이다. 2000년에 결혼 이주하여 2013년에 전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선택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4] 연구참여자 4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필리핀 출신 기독교 / 5남매 중 둘째 / 언니는 질병으로 사별 / 남동생은 사고로 사망 / 고향에는 부모님과 여동생 둘 있음 / 대학교 졸업 / 2년 반 정도 보험사로 근무했음 / 2년 반 호주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했음 / 친정에게 경제적 도움을 했음.
결혼 해체 경험	30세가 되어 결혼하고 싶어했음/ 이모 소개로 만나게 됨 / 요리 잘하고 마음도 은 사람 / 시댁식구 잘해 줌 / 술마시면 말이 많음 / 욕하는 버릇 / 아이는 바른 환경에서 잘라야 한다고 해서 이혼을 했음
한부모 경험	주거: 임대주택 / 경제: 수급자, 영어 강사, 이모 도움 / 심리: 환경이 바뀌어 편해짐, 한국에 있는 이모를 의지했음 / 가족 관계: 편해짐, 시댁과 지속적 연락, 전 배우자와도 만남 / 갑상선 암 판정 받은 지 1년 / 수술 두려움에 마음 준비 안 됨
현재의 삶	쌍둥이 아들 둘(13살)과 9살 딸과 함께 삶 / 다문화센터 온라인 수업 진행 중 / 갑상선 암 수술 준비 중 / 적십자 자원봉사 참여 / 영어 재능 기부 봉사의 꿈 / 평생 직업으로 영어 강사의 꿈 / 엄마로서의 책임은 건강으로부터

연구참여자 4는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며 5남매 중의 둘째이었다. 그중의 두 명인 언니는 암으로, 남동생은 사고로 잃었다. 대학교를 다닌 뒤 보험설계사와 외국 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 등으로 필리핀에서 5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다. 월급과 커미션과 함께 수입이 높은 편이었으며 결혼 이주 전까지 친정 부모님을 도우면서 살았다.

필리핀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일하고 있고,..사무실에서 일...대학교 졸업했어요. 인테리어 일 좀 했어요.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형제는 두 명 다 돌아갔어요. 언니, 남동생. 어머니 아버님 다 있어요. 언니 그리고 남동생 두 명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계시고. 네, 아팠어요. 암 걸렸어요. 언니는 암 걸렸고, 그리고 남동생은 사고 났어요...교통사고로...여동생 2명 있어요. (연구참여자 4, 2020년 8월 29일, 토)

제가 2000년 정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20년 정도 한국에서 살아요...제가 졸업하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고, 일했어요. 제일 처음 일하는 것 이제 보험이에요...2년, 한 2년 3개월 정도,..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마케팅에서 볼 회사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엔지니어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소개를 하고, 우리 회사 이런 것...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 회사는 호주 회사인데요. 제가 그대는 제가 한 2년 4개월 정도...일 좋아요. 계속 자부심 있어. 편해요. 보험 회사, 그리고 볼...엔지니어도 만나가지고, 뭐 우리 회사 소개하고, 그리고 부품 이런 것도 다 마케팅하고, 그리고 저기도 merchandiser Manager men. 주문도 해야 돼. 우리 인테리어 회사이기 때문에 다 제가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공장 뭐 필요하는 거, 아마도 사람들이 우리까지 한 150명, (연구참여자 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30대(2000년쯤)가 되어 결혼을 하고 싶어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한 이모의 소개로 전 배우자과 만났다. 착하고 힘이 있어 보여 위험에 빠져도 자신을 구해줄 히어로 같은 느낌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한테도 효도를 잘해서 시댁 사랑을 많이 받았다. 전 배우자도 요리를 잘하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라 했다.

네, 이모...나 소개 했어요. 예, 엄마 동생, 막내. 네, 막내 이모 소개해 가지고, 필리핀에서 만나 가지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제 결혼했어요.예.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이모 남편도 한국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됐어요. 느낌...만나는지...사

람은...느낌이 좋아요. 많이 착한 사람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위험에 빠지면 나한테 또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 생각했어요. 좋은 거는 남편 요리 잘했가지고, 우리 그 마음이 좋아요. 돈도.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자기는 부자가 아니지만, 이것 저것 다 나한테 해 주고, 그것 좋았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이 자기한테...키가 좀 마음에 안 들었가지고, 키가 좀 비슷해요. 그것만 싫고, (연구참여자 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시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 폭력 등 일반 국제결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으나, 전 배우자가 욕을 자주 해 언어적 폭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았다. 특히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져 욕하는 버릇이 있어 기독교인 연구참여자4에게 정서적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 외에 문화 차이로 자녀 양육에도 갈등이 있었다. 13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성격도 안 맞고 아이들은 바른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해서 오래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해 한부모가 되었다.

나도 제일 힘들어는 것. 한국에서 와 가지고, 그때 애기가 없으니까, 남편 우리도 안 좋아가지고, 성격 때문에, 근데 그것 처음에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애기 태어나는데, 그거는 우리 안 맞아요...교육하고 성격...그것 우리 차이야...아마도 문화, 한국 문화, 우리 다문화이기 때문에...우리 다문화는 생각은 좀 차이...그것 때문에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다 전부 좋았는데요. 하나만 안 좋았가지고, 욕, 욕하는 것, 제일 싫었거든요. 말로 욕하는 것. 제일 싫어요. 네, 나머지는 다 좋아. 살다보니까, 자꾸, 잘 못 되면 욕...욕하고 ****그래요. 제일 나는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술 먹으면 말 많고, 말 너무 많아가지고, 욕도 이렇게...내가 이렇게 좀 못 살아요. 계속...저는 그런 것 나는 듣기 싫어요. 내 남편도 그렇게 하니깐, 내가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연구참여자 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한부모가 된 후에 혼자서 쌍둥이 아들과 딸을 키웠다. 생활, 경제,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듣기 싫은 욕을 듣지 않아도 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게 돼 마음도 편안해졌다. 한부모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힘)이라 생각했지만 2019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고, 아직 수술을 받지 않고 있다. 쌍둥이의 중학교 입학 문제, 아이 셋의 생활 문제 등 신경 쓸 일이 많아, 수술 후 수술 결과에 대한 걱정도 있어 아파도 편히 앓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큰 다음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 했다. 집단면담 과정 중 다른 갑상선 암 수술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자신을 돕게다 하는 면담

참여자들의 설득에 내년에 쌍둥이가 중학교 입학 과정 마친 후 바로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했다.

나도 암 있어요...아직 수술 안 했어요.제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언제? 어, 1년 넘었어요...지금 아이들 때문에 막내 때문에 조금...나이가 좀 어리가지고, 왜냐면 수술하면은 애들 먹을 것도 그런 것...돈 문제 아니에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본인이 제가 마음이 제가 수술할 마음이 수술 준비 아직 안 되니까. 수술 괜는 지 안 괜는 지. 그리고 애들도 돌봄 해야 되잖아요. 3명, 또 스트레스 받으면 저 몸에도 안 좋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생각 이런 것도 머리로 가끔 아프고, 다리도 예부터 아팠기 때문에...내년이면 졸업하고 중학생 들어가면은,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년에 수술 들어간다...사이즈 지금 한 10mm인가 1cm...아이들 생각해 가지고, 내가 수술하면은 또...그런 것 보다도 내가 준비하는 것, 마음 준비. 돌봄보다 내가 준비해야 돼. 본인이 1년 지났는데도 아직 준비 안 돼서...(연구참여자 4, 2020년 8월 29일, 토)

결혼생활 과정 중 시댁 시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시부모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 아이를 위해 전 배우자와도 만나고 있다. 생활속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있으면 친구보다 이모한테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모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4의 이모가 연구참여자4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제적 도움도 주었다.

저는 거기 만나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시아머니 시아버지 우리 관계 좋아가지고, 아버님도 삼촌도 우리 관계 좋아요. 다 전부다 좋았는데, 남편만... 우리도 가끔 만나요.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이 좋게 이런 것, 한 번 형님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그렇게...그러면 제가 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어요...어머니 아버님 전화해 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이미 요양원에 누워 있었가지고, (연구참여자 4, 2020년 8월 29일, 토)

저는 이모요. 네. 이모 많이 나한테 도와줘니까. 그래서 선생님 방금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싶어요. 돈도 도와주고. 이야기하고 말 상대해주고, 따름 없어요. 다문화 그런 것 나는 잘 말 안 해요. 여기 친구 없어요. 근데 그냥 친구는 있어요. 필리핀 친구 많아요. 그런데 성격 그런 것 안 맞아서...네, 그런 이야기...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그리고 다문화도 그런 이야기할 거 아니니까. 내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모는...이모는 가족이니까. 이모 이제. 이모 도와주고, 내 마음 이모한테 준 거 같아요.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연구참여자 4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신의 건강과 아이들이란다. 감상선 암을 앓고 있지만 한부모 지원을 받으며 아픈 몸을 이끌어 영어 강사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 임대주택을 신청해 신축빌라로 이사해 20년 정도 살 수 있는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어머니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 전에 자녀들의 보호자로서의 자신의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영어 강사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직업으로의 꿈을 안고, 적십자 봉사단에서 김치 만들기, 빵 만들기 등의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필리핀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이모의 국제 결혼 이주로 한국에 대한 동경 및 환상이 있어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지금은 그 동경과 환상에서 벗어나 성숙해졌고 엄마로서 더욱 강해져 결혼 전과 같은 독립적인 삶으로 되돌아가 자아를 되찾게 되었다.

2. 기관의지형

2.1. 연구참여자 5: 갈등에서 벗어나 봉사하며 삶

연구참여자 5는 8월 중순 2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41세의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11년에 결혼 이주를 통해 입국했고, 2016년쯤 가정 폭력으로 신고해 이혼하게 되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5] 연구참여자 5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슬림 / 4남매 중 장녀 / 어머니는 주부 아버지는 택시 및 트럭 운전 / 대학원 졸업 / 금융, 법 공부했음 / 경찰서 검사로 근무했음 / 3째 여동생이 한국에 결혼이주 먼저 했음 / 우즈베크어, 영어, 한국어 구사 가능
결혼 해체 경험	2007년 중매 결혼 / 3일만에 결혼식을 함 / 첫날 밤에 문신 및 상처인 몸 발견 충격 / 마피아 깡패 의심 / 입국 후 남편 사랑 받았음 / 시어머니 질투함 / 외출금지 용돈 없음 / 문화 차이로 갈등이 많았음 / 이름을 빌려 카드를 만들어 2000만원 빚을 짐 / 공적 기관에서 한국어 공부 후 경찰서 법원 등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음 / 폭력으로 신고 후 경찰의 도움으로 쉼터에 감 / 쉼터의 주도 하에 이혼을 했음
한부모 경험	주거: 쉼터에서 임대주택 / 경제: 수급자, 경찰서 법원 통·번역, 영어 강사 / 자기계발로 7가지 자격증 보유 / 전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국적 취득에 피해를 봄 / 자녀는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 복지 정보 많아짐 / 공적 기관 활용 자립 및 권리 찾기 / 긴급 지원을 받아 담낭 제거 수술 했음
현재의 삶	1남(12) 1녀(11)와 서로 의지해서 삶 / 고향보다 한국의 삶이 더 익숙해짐 / 재혼에 두려움이 있음 / 영어 강사, 경찰서 법원 통·번역을 해 생계유지 / 외사과, 외국인 노동자 통역 봉사 많이 함 / 8번째 보육교사 자격증 도전 중 / 패션디자인 작업실 보유 / 국적을 취득해 경찰서 등 안정적인 직업 갖기의 꿈 / 한부모 모임 리더 되기

우즈베키스탄 출신 연구참여자 5는 4남매 중 첫째로, 친정 아버지는 트럭 운전 및 택시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였다. 셋째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 한국에 들어와 2007년에 결혼하고 2014년에 이혼하게 되었다. 둘째 여동생은 2011년에 우즈베키스탄 남자와 결혼했다. 3일 후 연구참여자 3은 중개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동생 한 명 있다. 어렸을 때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며 대학원까지 공부했다. 대학원에서는 법학, 금융(은행), 법원 관련 공부를 하였으며 경찰서 검사 일을 했다. 영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에 한국어까지 4종 언어를 기본적으로 구사 가능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저는 법학 대학원에 나왔고...저는 3개 했어요. 은행하고 법원하고 법학. 이렇게 3개...나 법학. 경찰서에서 일했어요. 여기도 외사과 있잖아. 외국인 들이 통역 같을 것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찰서 검사, 검사 했어요. 아 빠는 트럭 운전도 했고, 택시 운전도 했고. 엄마는 그냥 애들 많으니까 집안 일만 했지.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좋지...(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셋째 여동생이 한국에 먼저 시집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고향 친구는 대부분 17살-18살 쯤 모두 일찍 시집갔다. 그래서 결혼 중개사무소의 소개로 2명의 한국 남자와 동시에 만났다. 두 남자 모두 연구참여자 3과 결혼을 원했지만, 안경을 쓴 남자를 싫어해 전 배우자를 택하여 만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둘째 여동생이 결혼하고 3일째 고향에서 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하고 호텔에서 첫날밤을 보냈고, 전 배우자의 상처투성인 몸을 발견해 마피아나 강패로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인 고향에서 이혼은 불미스러운 일이며, 결혼 후 바로 이혼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 고생하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2007년에 결혼해서 우리 남편과... 남편 우리나라에 와서 만났고...우즈베키스탄에 옛날에 친구하고 같이 왔잖아요. 둘 다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그러데...한 명 사람은 안경 쓰고. 남편은 안경 안 쓰고...내가 안경 쓰는 사람이 싫어요 원래. 그러데 잘 생긴 남자 누구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내가 이쁜 분들...이쁜 사람도 좋아했고...원래 관심없어서요. 한국사람이라고...그러데 좋아한다고...결혼하자고 그렇니까...그래서 생각해 볼 게 해서 이틀인가 하루 시간을 줬어. 알았다고 했어. 알았다고 했어 알

있다고 해야 되는 데 바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할 때는 내가...사람이 살아 봐야 알잖아요. 알면 우리 이슬람 나라에서 바로 만나서 잘 수 없잖아요. 결혼하기도 전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도 올렸고,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여동생은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남자. 우리는 일주일이나 한 달 걸려, 결혼식은...그런데 한국은 하루 2시간이잖아요. 2시간 만...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식도 올렸고, 다 결혼하고 지났고, 자고 일어나서. 호텔에서...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이제는 다 오픈이잖아요. 몸부터 오픈이잖아요. 몸 보니까 상처고 다 있어...상처가 있어. 우리 남편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갱패나 마피아...그 때 생각했어...저 그게 잘 알아요...그런데...그래서...깜작 놀랐지. 아침에 집에 가는데...우리 무슬림 사람은 한번 잤으면은 이혼하면은 끝...인생이 끝...인생 끝...그런데 이 남자 어떤 사람이...몸만 보면 다 알잖아요. 내가 몸을 봤는데...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됐나...눈물 막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고... 한국 말로 조금 그렇는데...뭘로도 뭘 해도 하죠 눈 감게...뭐라고 그랬죠?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시작은 불안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입국 초기에는 전 배우자가 매우 잘해 주었다. 단 결혼 생활 과정 중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5에 대한 의심과 불신 등으로 입국 초기에는 외출을 금하였으며 용돈도 주기 싫었다. 남편의 통장 또한 시어머니가 관리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 가치관의 차이로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됐다.

그런데 남자 괜찮다고 해서...남자는 진짜 괜찮았어요. 사랑해, 모두 해 줄 수 있는 것 해주고...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잘해주고 좋았는데...알잖아요. 시 엄마는. 어디 나라든...질투...사랑해주면 질투...매날 뭐 하려고 하면 문 열면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죠. 뭐 사려고 해도...처음에는 우리나라는 가족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 줬어. 가족이 있으면 괜찮다 했는데...우리 외국에 가족이 있는 거랑 한국에 가족이 있는 거랑 틀려요. 아니면...뭐지...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힘든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나는 시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이제 5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밖에 못 나가고...그때는 우즈베키스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애기 낳으니까 바쁘니까 그 뒤에는 가는 시간도 없지만, 그냥 집에 들어와다고 해요. 아니면 가면 또 애기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짐에 전 배우자도 스트레스를 받아 잦아진 늦은 귀

가에 가출로 이어졌다. 분가하게 된 이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상의 없는 자동차 구입 문제로 시작한 부부싸움이 폭력으로 이어져 한국에 먼저 결혼 이주한 여동생이 대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당시, 연구참여자 5은 경찰서와 법원 등 공적 기관에서 오랫동안 통역 및 봉사 등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의 사정을 알게 돼 생각보다 많은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내 허락 없이 남편 몰래 BMW 차 샀어. 외제차를 샀어...그런데 돈 없다고 한 사람이 왜 차 사. 새 차...전날 밤에 둘이 술 마시고 와서 전화가 왔어요. 1시 2시, 전화 받으니까 여자 목소리예요. 잘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야...차도 사고, 여자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웠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온 거야. 그런데 내가 핸드폰 잡고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누르는 것 몰랐어...동생 신고하고..경찰...나랑 싸우고 그런 것 들어서... 그래서 경찰 난리 난 거야. 경찰 엄청 많이 왔어...나는 이제 경찰에서 통역도 했고 봉사도 했잖아요. 다들 내가 잘 살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갔어. 다 난리 난 거야 경찰서 사람들은....그래서 그때부터 다 재판하고, 이혼하고 모든...남편 절대 이혼 안 한 다고 1년 동안 계속 재판을 밀렸어요.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는 5는 영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에 한국어 등 4종 언어가 구사 가능하여 공적 기관에서 봉사 및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여동생의 신고로 봉사를 한 경찰서 경찰들이 출동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관의 도움으로 이혼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한부모로서 혼자 자녀를 양육해 왔다. 2년 후에 LH임대주택 집을 얻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여기 와서 거짓 됐어. 지금 생각하면은. 옛전에는 씩씩한 여자인데. 모든 지 할 수 있고, 무섭지 않은 여자인데, 여기 와서 그렇게 되고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다들 너 **** 맞아? 나도 몰라. 애기 나서 순한 거야 힘 들어서 순한 거야...여기 왔어 고생만 했어요. 다들 여기 왜 왔냐. 그런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은 다 똑 같아요. 똑 같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이혼하기 전까지 시댁에서의 삶은 부자로 살다가 한국에 와서 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찰서 검사 일을 했으며, 한국어를 배운 후에 경찰서 및 외사과 통·번역과 영어 과외가 주요 경제 활동이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한식 요리 공부부터 시작해 자기계발을 틈틈이 해 한지공예, 패션디자인 등 총 7가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 지원을 받아 지금 8번째 자격증인 보육 교사를 공부 중이다.

저 어렸을 때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그 꿈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 했고, 한국 와서 귀화가 돼서 내일배움카드에서 패션디자인 학교에서 주로 했어요. 자격증 땀어요...근데 스트레스 있으면 심심하면 옷 만들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지금 작업실 있어요. 옷 만드는 작업실...그리고 패션쇼도 한부모 들이랑 같이 했어요. 한 2번 했어...원래 저는 다문화 강사 선생님이예요. 한지 강사도 하고. 또 한식도 배워서 한식 조리사도...다 작업실에서 7개. 또 지금 보육교사 공부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다문화센터에서 취직...지금 방학이고, 다음 주부터 공부해야 겠어요.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근데 원래는 남편을 위해서, 애기를 위해서 한식을 배웠어요. 왜냐면 자주 맛이 없으면 먹는 사람도 스트레스 잡아요. 그래서 남편 위해서 한식 배웠고, 또 나 능력이 뭐 생키라고 해서 또 다른 것, 한지...애들한테 뭐 만들고, 또 뭐 새로 만들려고 한지 배웠고, 또 뭐 배우다가... 저기 부르니까... 패션디자인도 있었나 봐요. 저걸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원래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처음의 한지는 200만 원 해줬는데 나라에서, 100만원 남았는데, 부르니까 내가 배우는 거는 비싸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다시 추가로 신청했는데 500만 원 해준데, 그래서 부평에 있는 것, 패션디자인너 학교가 있나 봐요. 그쪽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 사람 아니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서 수업을 해주니까 너무 재미 있어요.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고학력자이며, 자기계발을 틈틈이 하여 자격증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힘들었다. 전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현지 경찰청에 사기범으로 등록돼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무범죄사실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해 귀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원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 경찰서에서 나쁜 일 안 했다 그런 것 있잖아. 무범죄사실증명서... 그것 들어와야 지...그래서 그래...엄마가 해 주면 되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아니고, 남편 했는데, 남편 때문에 걸리는 것 있어...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싶잖아. 그런 사람들,..아니요. 불법으로 데리고 안 왔어요. 남편한테 돈 줬다고 그럴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요. 돈이

남편이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데, 남편한테 돈 줬다고, 한국에 데리고 온다고, 도망갔다고...사기...내가 한 것 아닌데, 그쪽에 남편 한국사람이잖아. 한국 사람 찾고 있잖아. 와이프한테 온 거지...(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한부모가 된 이후, 주로 공부와 봉사를 지속해 1남(11살) 1녀(10살)과 함께 살고 있다. 2년 전의 어느 날 쓸개 담석으로 갑자기 쓰러져 긴급 지원을 받아 담낭제거 수술을 받았다. 몸 상태도 호전되어 현재 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8번째 자격증인 보육교사 공부 도전 중이다. 언어적 장점을 발휘해 한국에서 영어 교사, 경찰서나 법원에서 통·번역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8월 만날 당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통역 봉사, 외사과 및 한부모 통역 봉사, 최근에 마스크 봉사 등 많은 기관에서 수없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와 봉사 자격증까지 받았다. 사회복지 및 경찰서 업무를 매우 다양하게 협조해 왔기 때문에, 정책 지원 및 복지 정보통으로 한부모 모임에서 한부모이주여성들을 도와주고 있다. 인천지역 한부모이주여성 모임을 직접 만들어 밴드나 facebook 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패션 작업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향보다 한국의 삶에 더 익숙해졌다. 연구참여자5는 시댁과의 갈등, 전 배우자와의 잦은 싸움에서 벗어나 무엇보다 한국에서 경찰서 같은 공적 기관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어 꾸준한 자기계발과 함께 사회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2. 연구참여자 6: 미련에서 벗어나 씩씩하게 삶

연구참여자 6은 2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중국 출신 38세의 재혼 이주여성이다. 2013년에 결혼 이주를 하였고, 2015년에 가정 폭력으로 신고해 공적 기관의 도움으로 이혼하여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6] 연구참여자 6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중국 한족 / 3남매 중 둘째 / 부모님은 인삼 농사를 함 / 아버지 건강 안 좋음 / 중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 / 식당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음 / 22살 때 첫 결혼 후 이혼 / 아이는 아빠와 함께 삶
결혼 해체 경험	30대 초반에 엄마 되고 싶어 친구 고모의 소개로 전 배우자를 만남 / 세심하고 예의 바른 사람 / 3개월 후 결혼 입국 / 시대 식구의 의심이 많음 /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음 / 임신 3개월 태아가 사산하게 됨 / 두 번째 임신 3개월 때 전 배우자가 술주정이 폭력으로 이어져 경찰에 신고를 함 / 가족 상담했음 / 시택은 아이 유산시키는 것을 강요 / 이혼 결심 후 쉼터에서 모자원으로 감 / 시설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혼함.
한부모 경험	주거: 모자원 3년 간 삶 / 경제: 입주 후 한부모 지원 신청, 수급자, 식당 근무 / 심리: 한부모이주여성 단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음, 아들보고 삶 / 자녀 양육에 아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음 / 퇴소 후의 주거 문제로 도움을 요청해 거절을 당했음/ 연락 끊고 자립 결심
현재의 삶	아들(6살)과 퇴소 후의 주거 마련에 고민 / 아들과의 삶이 행복함 / 양육비보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것 더 좋음 /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학력 취득과 대학교 진학을 희망함 / 작음 음식점을 여는 꿈

연구참여자 6은 중국 길린 출신 한족 이주여성이다. 부모님은 인삼을 심어 가족 생계를 유지해 아이 셋을 키웠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나, 막내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3남매 중 막내로 아버지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반대에도 엄마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 텐진에 가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다. 22살에 첫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은 후 이혼하게 돼 혼자 살았다. 그 후에는 북경과 텐진에서 식당이나 호텔 종업원으로 일을 계속했다. 사회생활이 일찍 시작한 만큼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다.

중국. 한족이에요. 우리 고향은 농사...고향에는 일반 농사 안 했어요. 인삼을 키웠어요.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어요. 그때 오빠하고 둘 다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엄마 혼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포기 했어요...17살 때 텐진에 갔어요. 식당, 호텔 종업원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적응이 좀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도 하고 같이 웃고 놀고 그랬어요. 그때 500-600위안 받았는데, 다 엄마한테 보내줬어요...저는 정책을 어긴 초과 출생아예요. 부모님은 벌금을 내고 저를 나아줬어요. 엄마 말대로는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울었어요. 500위안 벌금이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에요. 엄마는 괜찮다고, 딱 딸을 낳고 싶었다고...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행복했어요. 집에서 온 식구의 사랑을 다 받고 살았어.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부모님 중 아버지는 2015년에 연구참여자 6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원래 좋지 않는 몸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70대 된 어머니는 연구참여자 6의 행복하지 못한 삶의 소식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

지금 고향에는 엄마가 있어요. 70대 인데 우울증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서...잘 못 살았어...아빠는 내가 아들 낳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못 봤어요. 딱 그대 애 태어날 상황이라...엄마는 처음에 아빠한테 말 안 하려다가...나 때문에 불면증에다가 우울증까지...아빠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부터 몸이 다 망가졌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6은 30대가 되면서 첫째 아들과 떨어져 살아 엄마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에 참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구 고모의

소개로 2013년에 한국인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다. 남편과 만났을 때 커피숍에 가면 의자를 땡겨주고, 택시 탈 때 문을 열어주고, 백화점에 가면 옷을 사주고 그랬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예의 바르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만난 지 3개월 재혼하게 되었다.

장백산, 길린성. 남편 처음 만나고, 또 중국 가고, 또 중국 가고...근데 그냥 일주일 한 번 일주일 한번...결혼하기 위해서, 친구 고모가 소개해 줬어요. 저는 친구 고모를 믿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잘해 줬어요. 그런데 살아 봐야 돼...저가 22살 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애기 있어요. 근애 애기 어릴 때 헤어졌어요. 같이 있기 어려워서...혼자 그 다음 북경 천진 계속 일했어요. 30대 초반 결혼하고 싶었어요. 애기 엄마 되고 싶어서...애기 못 만났어요. 못 만나니까...전에 애기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아요. 그 할머니 집에 잘 살고 그래서...33살 친구, 친구 고모 소개 해 줬어요. 애기 아빠를. 만났을 때 커피숍에 가도 의자 땡기고, 택시 타도 문 열어주고. 백화점 가도 옷도 사주고,...사랑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예의 바르고, 그런데 한국 오면 변했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결혼 이주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언어 소통 어려움에서 오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구를 초대해 집 근처에서 한 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었다.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큰소리로 무슨 말을 했다. 아직 의사 소통이 안 되어 다음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생님에게 들었던 단어의 뜻을 물어보더니 안 좋은 말이라고 했다. 나중에야 시어머니가 자기 바람이 났다고 의심을해 욕한다는 말들이었다는 사실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부부 관계도 크게 나빠졌다.

한국에 와서 다문화센터에서 계속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공부하다가 친구...같이 공부하는 다문화센터 중국 친구들...다 여자였는데...어느 날 또 집에 오고...우리 운동장에서 이야기 하고...1시간...5시에 나가다가 6시에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갔고. 나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 이렇게 손가락으로...그때 한국어 못해요. 너 바람, 남자 뺐어. 남자 애인 찾았어?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다음 날에 다문화센터 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누구한테 들었어요...시어머니...그 시어머니 진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그 다음부터 시어머

니 다문화센터 가서 공부해도 싫어했어요...처음 남편 괜찮다가 나중에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또 애기 생겼어요. 이 애기 3개월 때...근데 남편 전에도 일주일 술 한 번 두 번 괜찮아요. 그리고 늦어도 1시 전에 들어오고...그런데 점점 더...일주일 4번, 5번...그 다음 안 들어와요.(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결혼 후 바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임신 초기에 태아가 영양이 필요 없다고 하는 등 시댁에서 관심도 크게 주지 않았다. 남편의 애정 불안과 늦은 귀가, 시댁 식구의 불신과 무관심, 시어머니가 생트집을 잡는 등 생활 속 스트레스에 우울까지 이어져 임신 3개월 되었을 때 아이가 안타깝게 사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와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임신했어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오빠 나 이것 먹고 싶어요. 3개월 전에 영양 필요...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마음 정말 아파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한 달 조금 넘어서 병원 가고 애기 배 속에 죽었어요. 하고 나서 다시 애기 치우고, 3개월 정도 생리 없었어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3개월 계속 약 먹고 치료하고...(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유산한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긴 치료 과정을 걸쳐 힘겹게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 3개월 때 남편의 술주정이 폭력으로 이어져 임신한 연구참여자 6의 배에 발차기까지 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경찰에 신고해서 한 여성 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혼 과정 중 가족 상담 시간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아이를 유산하기를 강요하였고 전 배우자는 유구무언이었다. 그러한 전 배우자의 행동에 상처를 크게 받아, 혼자서 아이를 키울 결심을 하여 2015년 말쯤에 기관의 도움으로 이혼 과정을 거쳐 법적 한부모가 되었다.

집에 안 오면 제가 집에 먼저 자고...시어머니 문을 광...이렇게 손으로 짓고...내 방 들어오고...너 남편 집에 없고 혼자도 잠이 오니...그런 말을 하고...그때 임신 중... 그런데 찾아 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찾냐고...오빠 어디 있는 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 술 먹은 집에서 이렇게 손...땡기고 집에 왔다가...매일 집에 와서 ** 너 오빠 사랑해...너 오빠 눈 보고...너 오빠 사랑해...매날 이런 말...술 마시고 나서...잘 때 등 둘러서 자면 너 오빠 사랑 안 해...이렇게 부부 해도 너 부부 생활 좋아해...이렇게 자면 너 오빠 사랑 안 해...어쩌든 다 안 맞아요. 그냥 진짜 그 사람 포기예요. 생각 안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근데 애기 3개월 전 또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TV도 던지고 깨지고, 청소기도 던지고, 뭐 다 필요없어, **필요없어 애기 필요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밥 던지고...저는 그냥 가만히...휴대폰 들고 도망가고 싶어서...도망가려 할 때는 시어머니는 내 휴대폰 잡고...남편도 나 잡고...그때 집에 마당이 있어요. 대문 열어야 돼. 제가 계속 그렇게...너무 무서워요...돌이 있렇게 날 잡고...그때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도망 가야 돼요. 그때 휴대폰 잡고 신고했어요. 경찰 오고나서 우리 그냥 따로 따로...센터 갔어요...(울것)제가 신고했어요. 그 때 임신 3개월...남편 술 많이 취해서 발도 이렇게 배 찼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두 번째 임신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의 심한 의처증, 시어머니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태도로 연구참여자 6은 무척 힘든 결혼 생활을 경험했다. 한국에 와서 최소한 고향에 있었을 때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결혼 생활과 달리 오히려 더 낭패하고 궁지에 빠지게 됐다. 가정 폭력으로 신고한 후에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족 상담도 시도했지만, 시댁 측에서 아이를 유산시키고 이혼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연구참여자 6은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우리 싸우고 나서 따로따로 했어요. 그 센터 원장님 이렇게 상담 받았어요. 남편. 시어머니 저하고 이렇게 원장님이...제가 그때는...시어머니 80세도 넘은 사람이예요. 저희 중국 할머니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이야기하다가 하다가...빨리 치우라고 빨리 애기 유산...유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원장님도 자기 딸님이라면 유산 시키는 거예요...원 상관 있어, 그냥 유산하면 돼요. 제가 계속 듣다가 듣다가, 30분 정도, 상담했는데 계속 울었어요. 그때 제가 갔어요. 제가 할머니 죽어도 애기 안 죽어요. 애기 엄마 있어요. 남편도 옆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죽어도, 남편 다 죽어도 애기 안 죽어요. 엄마 있어요. 제가 그냥 갔어요...애기 한 달 되고 우리 그냥 합의 이혼...(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가족 상담을 받아봤지만 화해하지 못해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모자원에서 아들과 함께 4년 동안 생활해 왔다. 모자원에 들어가고 나서 모든 일이 순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인 생활 스트레스는 철이 일찍 들어 엄마를 챙겨 주려는 귀여운 아이를 보면 다 풀릴 수 있어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고 했다. 한부모 이주여성 모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수급자로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받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퇴소 후의 주거 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6살이 된 아들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유치원 친구의 아빠를 아빠라 부른 적도 많았다. 그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빠로서 책임지는 것은 양육비 30만 원이 전부였고 그 외 일절 지원이 없었다. 이혼 후 아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모두 해제했다.

연락 안 하고...우리는 상관 없어요. 그런데 애기 아빠잖아요. 애기 무슨 일이 있을 때...우리 외국 여자잖아요. 또 뭐 발급하는 거도 어렵고...그냥 사이 좋게 지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그때 애기 아빠도 원평, 우리 이혼해도 가족...애기 태어났을 때 부터 무슨 보험 몇 십만우너 내고...애기 양육비 30만원 주고, 애기 점점 크면 학원 내가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줄게요. 그냥 그런 말을 들었으면 우리 안 싸우고..싸우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계속 울어요...애기 그때 이것...젓 없어요...애기하고 건강하게...그때는 그냥 합의 이혼하고...근데 이혼하고 나서 바로 보험 해제 다 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냥 30만원만...다른 것 없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그 전에는 남편은 이것...다리 다쳤어요. 다치고 나서** 오빠 지금 다리 다쳤어요. 병원 와서 양육비 줄게. 그래서 제가...다쳐서...그냥 말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사고...병원 갔어. 그냥 갔어. 우리 그 전에는 그냥 전혀 안 만나요. 제가 지금 센터 사는데. 애기 어려서, 나중에 센터 나가면...그때 나라 도와주는 거 몰라요...나중에 우리 센터 나가고 나서 어려워요. 오빠 한 2000원. 3000만원 도와줘라. 오빠는 집 도와주면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벌면 바로 오빠 돈 줄게...값아줄게...소리 지르고...제가 그냥 애기 띠 이렇게 안고 머리 이렇게 돌아서 많이 울었어요...버스 타도 울어...계속 울어 계속 울어...그 다음 날 나도 독감. 애기도 독감. 우리 다입원했어요. 입원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마음이 꼭 강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그때 그 사람이 보면, 남편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보여 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아빠라는 생각에 기대와 미련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전 배우자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문병하러 갔을 때 내년에 시설 퇴소 후의 주거비 보증금을 도움달라고 요청했지만 전 배우자는 매정하게 거절했다. 그 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독립하기로 결심하고 남은 미련까지 모두 버려 연락을 단절해 자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힘든 생활 속에서 착하고 귀여운 아들은 애정 표현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 연구참여자 6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요...착하고 위여워요. **이 너무 착하고, 아침에 제가 9시부터 출근...**아 빨리 일어나 엄마 늦었어 하면 바로 일어나요. 다 말 잘 들어요...6살. 딱 귀여울 때예요. 매일 엄마 사랑해, 엄마 뽀뽀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집에 오고 어이고 우리 엄마 힘들어서 내가 집 정리해줄 게, 진짜 잘해요. 정리 진짜...화장대부터 어디 어디 다 정리해 줘요. 어느 날 내가 한의원 침 맞아서 그때도 엄마 아파, 엄마 느낌어때. 아파, 계속 이렇게 딸이 이렇게 만지고, 엄마 만지고 싶어 어 만져도 돼. 박박박 이렇게 아들이 마사지를...애기는 너무 착해. 내가 지금 애기 데리고 사는 것, 마음이 되게 행복해요. 자유도...(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6은 아들(6살)과 함께 모자원에서 4년 동안 살아왔다. 현재 한국어 공부 및 독립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배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여유가 생기면 칼국수 집이나 만뚝집 같은 작은 음식점 하나 여는 것이 꿈이다. 중국에서 중학교까지만 다녀서 공부의 중요성을 느껴져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받고 대학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언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 노후를 생각해 할 수 있는 평생 직업 탐색을 하여 중국어 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 했다.

2.3. 연구참여자 7: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삶

연구참여자 7은 2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44세의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다. 1999년에 결혼 이주하여 2013년에 전 배우자의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로 딸과 함께 집을 나가 공적 기관의 도움으로 2015년에 이혼을 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7] 연구참여자 7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필리핀 출신 기독교 / 시골에 농사하고 자랐음. 14살부터 이모 및 다른 집안 일을 도왔음 / 고등학교 졸업했음 / 10 남매 중 2명 잃었음 부모는 자녀한테 신경 못 썼음 / 8남매 중 4째, 언니 셋. 여동생 2. 남동생 2. 큰 언니는 일본 국제결혼, 둘째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일하다가 들어감. 셋째는 남편과 사별, 애기가 7명, 막내 동생은 대학교 졸업 후 미혼모가 됨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음. 아버지는 2005년에 돌아가셨음.
결혼 해체 경험	고등학교 졸업 후 19살의 나이에 친구 소개로 만남 / 필리핀 영어 학원을 다녀 고시원에서 살았음 / 부자처럼 꾸몄음 / 부모님께 선물드린다고 해 갑자스런 고백에 엄마가 넘어감 / 결혼 전 필리핀에서 동거해 임신하게 됨 / 전 배우자 혼자 귀국했음. / 1년 후 다시 연락하게 돼 1999년에 함께 입국했음 / 8식구 한집살이 / 길거리 재활용수거해 생활비로 썼음 / 3식구와 시어머니 4명 이사 나감 / 미싱 회사 근무했음 / 월급 통장 남편 관리했음 / 아동학대 및 가정 폭력에 참았음 / 2013년에 딸의 안전을 위해 미싱회사 사장의 도움으로 신고하고 컴퓨터에 감 / 2015년 이혼하게 됨
한부모 경험	주거: 쉼터에서 임대주택으로 / 경제: 수급자, 자활 근로 아르바이트 /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기도를 / 전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친구가 생겼음 / 한부모 단체 활동 참여 모임에서 패션쇼를 함 /
현재의 삶	딸(23)과 함께 임대주택에서 삶. 공적 기관 정보 스스로 찾기 시작. 내일배움카드로 미싱 공부 중. 한부모이주여성 단체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

연구참여자 7은 8남매 중 넷째로 위에 언니 셋이 있고 아래 여동생 두 명과 남동생 두 명이 있다. 그 외에 형제 2명을 어릴 적에 병으로 잃었다. 아버지는 2005년에 돌아가셨고 가정 형편이 무척 어려워했다. 형제가 많아 어머니가 다 챙겨줄 수 없어 연구참여자 7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마닐라에 있는 이모 집에 들어가 가사도우미로 집안일을 도우며 고등학교를 마쳤다. 어머니는 현재 일본인과 결혼한 큰 언니 집에 함께 살고 있다. 둘째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일하다가 고향에 들어갔다. 셋째는 남편과 사별 후 아이 7명을 키우고 있다. 막내 동생은 대학교 졸업 후 미혼모가 돼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40대.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50대예요...사실 나는 좀 어렵게 살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는 시골 농촌에서 농사도 했어요. 그랬가지고 한 14살에 마닐라 가서...우리 이모 집에 도움...형제 자매 총 8명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 옆에서 못 살았어요. 우리 이모한테 가 가지고, 농사하고 이런 것 도와줬어요. 학교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다녔어요. 저기 대학은 못 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18살에서 졸업했어요. 왜냐, 똑바로 안 되니까...우리 엄마가 일본에 일 갔어요. 엄마 나이는 67. 일본에 있어요. 아빠는 2005년에 죽었어요. 마비 됐어요...(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제일 큰 언니는 일본, 그래서 엄마는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둘째는 필리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둘째 언니는 내가 초대해 가지고 여기 와서 불법으로 됐어요. 둘째 언니는 딸 둘만 있어요. 그 다음 셋째 언니는 남편 죽었는데, 애기가 많아요. 7명이에요. 나 넷째예요. 그 다음에 아들. 남동생, 그 다음에 여동생, 또 남동생 여동생. 딱 중간에 있어요. 다 결혼했어요. 막내도 졸업했는데, 애기 낳고 또 남편이 없어. 아들 하나. 근데 일하는 것 잘했어요. 사무실 일.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19살(1997년쯤)의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자 친구의 소개로 전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 전 배우자는 영어를 배우러 필리핀에 있는 한 영어 학원에 다녔다. 친구와 함께 쇼핑하고 선물도 해 주고 부자 같이 다녔다. 한 동안 만난 후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여 초대를 했다. 그 자리에 부모님에게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 결혼까지 청하였다. 그동안 만남에서 드러난 전 배우자의 급한 성격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어머니가 전 배우자의 말을 믿어 청혼을 허락했다. 그 후, 전 배우자는 고시원에서 나와 연구참여자 7의 집에 들어가 둘이 동거하게 됐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누가 소개했어요..그 사람이 영어...영어 배우려고 왔어요...그냥...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 데, 한 며칠, 한 한 달 정도 만나서, 크리스마스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가고 싶대요...그냥 우리 집을 궁금하다고, 우리 엄마도 만나 보고 싶다고...그렇게 말 했는데, 같이 가서 뭐 나는 돈 많고 뭐 자랑...나는 돈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엄마한테 뭐 좀 선물 사줄게...뭐 과일 같은 것 사줄 게 이랬어요...갔는데 우리 엄마 앞에서 나를 좋아한다...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것(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거짓말을 하니깐 엄마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고...한국 사람 같으면 괜찮다고 돈 많다고 그렇게 하니깐...그런데 만났을 때는 97년에 만났어. 그 사람이...그 때 만났을 때 나는 아직 공부하고 있었을 때예요. 19살이었어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1998년에 임신하게 됐는데 전 배우자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 한동안 소식을 끊기기도 했다. 같은 해에 딸이 태어나 미혼모 신세가 돼 버렸다. 아이가 태어난 3개월이 되어, 전 배우자가 필리핀으로 재입국해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교통사고를 내 수감 생활 3개월을 했었고, 나와서 몇 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 자금을 모아 필리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집에 와 가지고 나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도 아니고 임신 났어요. 임신 나더니 3개월...자기는 한국 갔어요...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울고 울고 엄청 울었어요. 내가 임신시키기 위했어나? 왜 나 이렇게 됐나? 연락도 안 되고 도망 간 가 봐 생각했죠. 도망 간 것 같애. 엄마는 이미 일본에 계세요. 우리 그 사랑하고 살게 돼서 임신돼서 엄마가 간 거예요. 남자는 한국에 갔는데...한 8개월 후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한국에 와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이 쳐서 그래서 감옥에 3개월...3개월 동안 있었가지고, 3개월 있다가 또 3개월 일 했나 봐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그래서 나 애기 났어요. 필리핀에서 혼자서. 낫잖아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7은 전 배우자가 임신한 자신을 버리고 도망 간 줄 알고 다시 얼굴 보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아이를 보고 무척 흥분해 평평 우는 전 배우자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돌려 1999년에 한국에 결혼 이주하였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필리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경제적 도움도 많이 받았다.

나 애기 낳어요. 두 달. 애기 낳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마음이...안 보고 싶은데 왔어요. 집에 왔는데...한국말로 우리 애기야 하고 막 울면서...우유 꿀 그런 것 많이 사 왔어. 나도 마음이 바뀌었어요...필리핀에 와 가지고 돈 조금 밖에 없고...비행 기표도 해야 되고...진짜 우리 남편도 많이 고생했어요. 정말 거지같이 살았어요...필리핀 교회 목사님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기가 벌써 먹을 우유도 없고,...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애기가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것 돈 받아 왔어요. 우리 살아보니까...옛날에는 몰랐어요.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이...괜찮아. 한국 사람이 많이 도와줘. 그렇게 살아가지고 서류 같은 것 만들고...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어릴 적에 매우 가난하게 살아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입국했지만, 전 배우자가 집이 없어 형네 집에서 8식구 함께 살았다. 연구참여자 7은 전 배우자와 시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한 방에서 3개월 정도 살았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전 배우자와 시어머니는 필요가 없다고 해 외출을 금지했다. 결혼 후 바깥 활동으로는 시어머니와 함께 소주병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 수거 등을 해 생활비를 마련한 것이 전부였다. 매우 창피해 하였다.

나는 97년에 만나고, 98년에 애기 낳고, 99년에 한국 왔어요. 우리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전 남편이 집 없어요...말도 없이 우리 왔어요. 형도 엄청 놀랐어요. 그날가지고 나도 한국말 못 해요. 왔는데 남편 인사 안녕하세요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고개 끄덕). 우리 시어머니가 애기 있으니까 아야야야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 나중에 남편이 알바하러 갔었는데, 아주머니하고 형님하고 방 있고, 그 다음 시어머니하고 우리 방 있고. 시어머니랑 같이 써요...형 집이에요. 한 3개월 있다가...나가는데 방은 하나, 부엌, 다락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부엌에 세탁기도 없어요. 부엌에 있잖아요. 싱싱...싱크대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그냥 가스 조그만 것. 이것 이것 넣은 것. 휴대용.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그래서 나는 발로 이렇게 해요. 그렇게 걸래는...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닦아...아오...그래가지고 시어머니랑 나가서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그런데 나는 아직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데 나중에 조금...말...시어머니 말할 때는 이것 좀 가져와라...소주...소수...병 있잖아요. 막 지나가는...거기 버리는 것. 신문지. 그거 주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 하니까 술병, 신문지, 박스... 너무 창피했어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7은 1999년에 한국에 들어와 2001년부터 미싱 회사를 계속 다녔 경제 활동을 했다. 그렇지만 월급이 들어간 통장은 전 배우자가 갖고 있어 본인에게 돌아온 거는 매달 용돈 5만 원뿐이었다. 가정 폭력에도 시달렸지만 이혼을 하면 한국에서 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는 십몇 년 동안 계속 참고 살았다.

어떻게 해야 방법도... 자주 나한테 화가 나서 때렸는데도 내가 참자 참자 해서 참았어요. 왜냐면은 불안해요. 집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나 진짜 못 살아요. 내가 필리핀에 가면. 일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나는 그런 생각 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가 먹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깐 일도 있고 하니깐 그래도 참자 참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할 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일했잖아요. 월급도 자기가 다 가져가. 내가 일 한 것 자기가 다 가져가.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돈 다 가져 가요.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된다니깐. 자기 일도 안 하고 매일 집에만 있고... 2001년에서 내가 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 관리해요. 내가 그냥 용돈 한 뭐 사고 싶으면 그냥 5만원만 줘요. 그렇게 2013년까지 살았어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2013년에 전 배우자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자녀 교육에 무서워하는 딸의 신고에 딸과 함께 가출을 했다. 집을 나온 후에 쉼터에 들어가 혼자서 딸을 양육해 기관의 도움으로 이혼 과정을 걸쳐 2015년에 법적 한부모가 되었다. 그동안 위험을 깊게 느껴 벗어나기 위해 저축할 계획이 있었지만 갑자기 심각해진 남편과 딸의 부녀 관계로 갈 곳이 없어 근무했던 미싱 공장 대표님의 도움으로 쉼터에 들어가 딸(당시 16살)과 함께 살았다.

그 다음에는 우리 딸도 때렸잖아요. 나... 나만 안 좋은 것 아니고, 우리 딸이 고소했잖아요. 지금 나이가 16살인데, 막 때렸어요. 때렸어... 우리 딸이 목욕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 계속 하니깐. 삼푸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안 아낀다고, 돈도 없는데, 왜 계속 이렇게 흐르게 나온다고 막 그랬는데... 발로 쳐요. 우리 딸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머리를 감는 동작)하고 있는데, 발로 이렇게 머리를 쳐어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렸어요. 말렸는데 나 여기(목) 주먹으로 때렸어 3번. 이걸로. 이걸로(손 주먹 관절).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것도 참았어요...(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딸이 막 떨어떨 떨어가지고, 엄마 무서워, 안 가고 싶어. 애기 때부터 때렸어. 나는 또 혼자. 도와 줄 사람도 없어요. 가끔씩 큰 엄마(형님)한테 말했는데도 큰 엄마는 그 진짜

그 사람이 성격...그 사람이 그 성격이야. 죽으면 떠나는데 지금 아직 살고 있으니까 안 변한다고 그랬어. 그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그 날. 우리 공장 이사님, 우리 어디 좀 데려다 줘요. 우리 집에 안 가요. 울었어. 전화 해가지고, 12시예요. 지하철도 없어요. 나 돈도 없어요. 그러가지고 뭐 아는 데 있으면 거기 우리...계시는 게 아는 데 있으면 우리 데려다 줘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쉼터에서. 2015년은 이혼했어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딸이 화병에 걸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정신적 장애까지 보였다. 그 때문에 시설에서 오래 있지 못해 퇴소했다. 기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둘만의 공간에도 엄마와 소통을 거부하며 ‘잘 못 살았다. 엄마가 바보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척 원망하고 엄마를 닮았다. 아직도 딸과의 소통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는 딸에게 친구가 생기고, 전 배우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의사소통과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워 수급자로 살다가 동사무소에 재할 근로를 신청한 상태이며 내일배움카드로 미싱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가방이나 옷 만들기에 관심이 많아 한부모 모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작한 의상을 패션쇼를 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가난하고 고된 삶의 경험이 있어 한국에서 가난과 무시,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15년 동안 인내하고 살 수 있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묵묵히 인내하고 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쉼터에 입소 후 한동안 경제적 어려움도 어느 정도 호전돼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한부모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적 기관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노후 및 자립을 위하여 자기계발 수업 과정을 참여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딸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고 있다.

2.4. 연구참여자 8: 폭력에서 벗어나 열정적으로 삶

연구참여자 8은 4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33세 결혼이주여성이다. 2013년에 결혼 이주하여 가정 폭력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했다. 2016년에 이혼하게 되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8] 연구참여자 8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베트남 출신 기독교 / 3남매 중 2째 / 대학교까지 공부했음 / 어머니는 주부 아버지는 군인 / 대학 졸업 후 유학 가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갔음 / 회사원으로 일했음 / 외국에 가 보는 것이 꿈
결혼 해체 경험	베트남에서 근무 중 친구 소개로 전 배우자 만남 / 인터넷으로 연락했음 / 6개월 교제 후 결혼 이주 / 6개월 행복했음 / 전 배우자 사기를 당해 재산 날리고 알콜 중독에서 폭력으로 / 2년 후 1366 신고 후 쉼터에 감 / 2년 후 드림하우스로 이전됨
한부모 경험	주거: 쉼터에서 드림하우스로 / 경제: 구청 자활 근로, 아동센터 보육교사 / 자녀양육: 친정 엄마 도와줌 / 심리: 기도를 많이 했음,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짐, 우울에서 벗어나 / 아이도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되찾은 아이 /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사 공부했음 / 스스로 베트남어를 깨친 아이
현재의 삶	아들(6)과 함께 시설에서 나갈 준비 중 / 용산구 외국인 명예 동장으로 활동 중 / 어린이집 언어 재능 기부 및 봉사 / 노후를 위해 적금, 보험 가입, 운동도 열심히 함 / 대학원 진학의 꿈

베트남 하노이 출신 연구참여자 8은,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3자매 중의 둘째로 언니와 여동생이 있다. 대학교까지 다녔으며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였다. 학교 다녔을 때부터 외국에 가 보는 것이 꿈이라 해서 대학 졸업 후 유학 가고 싶었지만, 경비가 비싸 가지 못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예요...동생 있어요. 아빠도 있고, 아빠는 그냥 집에 있어요. 퇴직했어요. 나이 많아요. 옛전에 군인 하는 것. 지금 퇴직했어요. 엄마는 그냥 주부...아빠는 70대, 엄마는 60대. 거의 다 됐어요. 나이 많아요. 혁혁...엄마는 늦게 결혼했어. 20 몇 살, 20대 후반, 저는 33살이에요. 엄마 지금 60정도. 옛전에 비해서 늦게 낳는 편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는 하노이 쪽에 살았어요...언니하고 동생하고, 여동생, 동생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저 혼자서 한국에 왔어요. 고향에는 자매들이. 3명.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일하다가 남편 만나서...그냥 회사원, 그냥 사무직 했어요. 하하하하. 아니 처음에 그냥...저도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냥 외국 가고 싶었어요. 꿈이. 꿈이. 그냥 꿈이. 외국 가고 싶었어요. 유학...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 비싸다고 해가지고...그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인연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한국에 왔어요... 남편 베트남으로 여행 갔어요. 그 때 친구, 아는 언니 소개해 주셨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계속 연락해 가지고...네. 6개월 정도, 결혼을 했어요. 남편 정말 그 때는 좀 착하고, 관심도 많이 있고. 잘했어요. 잘해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잘했었는데. 그리고 저를, 한국에 왔을 때도, 처음에 많이 잘해줬어요. 여행 어디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주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그런데 6개월 정도만 좋은 추억만 남기고.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2013년에 베트남에서 취업 중이었을 때 아는 친구의 소개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전 배우자와 만났다. 인터넷으로도 연락해 6개월 후 결혼하게 되었다. 처음의 6개월 정도는 매우 잘 해주었지만, 그 후 전 배우자가 사업 투자를 해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 그리고 알콜 중독돼 물건 던지기, 욕하기에 폭력까지 이어졌다.

남편이 장사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 같이 하다가, 그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 다 팔리고 그 때부터는 술 많이 먹었어요. 술 계속 매일 먹고, 술 먹은 다음에는 욕 계속 하고, 물건 던지고. 그리고 폭력도 해요. 폭력 했어요. 그거를 같이 살 때는, 폭력 하는 기간은 2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여러 번 했는데, 신고 안 했고, 마지막

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때는 신고했고. 그 때는 집을 나갔어요...그 때는 경찰서 가고, 경찰서에 여기 뭐 1366에 연락해주고, 서울로 왔어요...쉼터...쉼터에서 제가 2개월만 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쉼터 또 옮겼어요. 모든 쉼터 2년 정도 살았어요... 여기 남편 같이 살았을 때 처음에 좀 괜찮았는데, 점점 남편은 알콜 중독돼서. 자주 가정 폭력 인하여 우리는 이혼 됐고요. 이혼한 지는 4년 됐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 용산구에서 살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결혼생활 3년 중 2년 넘게 폭력에 시달려 살았다. 마지막에 경찰에 신고해 1366에 연결되어 2016년에 한 쉼터에서 들어가 2년 동안 살았다. 기관의 도움으로 4년 전에 이혼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어 혼자 아이 키우기에 걱정이 많았다. 양육권 때문에 법정까지 갔으나 재혼하지 못하도록 할 수단으로 수감 중의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포기했다.

힘들었던 거는 아이 양육권. 처음에 안 줬어요. 근데 가석방 받고 법원에 같이 나갔을 때는 마지막 날에 자기가 저한테는 그냥 아기 키우라고 했어요. 걱정하는 거는, 저는 아이가 없으면 아마 다시 결혼하나 봐요, 결혼할까 봐. 그래서 애기는, 아기 키우면은 결혼하기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그 때는, 저기 판사가 우겼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상관없냐고. 그렇게 말, 아기는 저한테 줬어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연구참여자 8은 지금 드림하우스에 2년 차 살고 있어 2021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추후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혼 후 마음이 매우 편해져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바쁜 일상으로 재혼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6살 된 아들은 아빠의 화풀이 대상에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베트남 방문 등으로 스스로 베트남어를 깨치게 되어 일상 회화는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다. 한부모가 된 후에 군복 회사, 여행사, 판매원 등으로 경제 활동을 했다.

헤어진 다음에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처음에. 나 지금은 혼자 살고, 또는 내가 일해야 돼. 그 때는 한국말 잘하지 않아서 무슨 일 해야 되지? 또는, 많이 걱정했어요. 처음에는 군복 회사를 다니다가...군복 회사, 군복. 군인...옷을 만드는 회사는, 그거 2년 반 정도 다니다가 여행사도 다니고...사무직 하다가 판매원도 가고. 판매원 했다가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 보육교사처럼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혼자 찾았

어요. 혼자 찾았고, 그 다음에 친구 소개해주고. 그룹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룹 많이 가입했어요. 서로,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고.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이혼 후 전 배우자는 경제적 활동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숙제 체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과 기관, 그리고 친정으로부터 따뜻한 손길을 받았다. 특히 친정엄마는 한·베 양국 간 오가며 자녀 양육을 도와주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출국 후 재입국 못 하여 추후 다시 초청할 계획이다.

엄마 예전에 초대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어요. 우리 엄마는 3년 왔어요...우리 엄마는 3년 왔어요...전에 엄마 여기 왔을 때는 F1 연장했을 때는 그냥 1년 2년만 연장 했어요. 4년 10개월 끝나면은 또 다시...또 할 수 있다고 했어요...전에는 3년 정도 와다 가다 했어요. 몇 개월 와다가 가고, 또 와다가 가고, 이렇게 와다 가다했어요. 오래 안 해요. 그냥 3개월...또 가고, 5개월 있다가 또 가고...(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센터, 쉼터? 선생님들이 상담해줬어요. 처음에 애기들이, 지금 이혼한 다음에는 경제 없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해 가지고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은 저기 선생님들이도 물어보고...어려움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친구들이도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같이 나누시고 서로 도와주...(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연구참여자 8의 사정을 알아주고, 조퇴 및 결근 등 이해 및 배려를 해주었다. 기관 및 시설에서 살고 있어 복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권유로 기도를 많이 해 종교를 통해 스트레스 풀기도 했다. 울고 나서 쌓인 것이 많이 사라지게 돼 마음도 평온해져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계속 밤에 울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애기 키웠잖아요. 그 때는 애기는 1살, 9개월부터 혼자 키워 가지고. 우리 애기가 많이 아팠어요. 계속 입원, 1년 3번 정도 입원해가지고, 장염, 폐렴, 그리고 돈도 많지 않아서 그 회사도 어떨 때는 한 번 정도 또 쉬다가 또 회사 가서 일하고. 그리고 회사 다 좋은 사람이라서 저한테도 환경, 사정도 이해해

주니까.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기도할 때마다는 눈물이 나오. 눈물 난 다음에는 내 마음에는, 마음 속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쌓아진 것은...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예전에는 제가 경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경험하니깐 생각 나면 많이 갔어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한부모가 된 후에 연구참여자 8은 자기계발로 아이를 잘 키우며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사 공부 중이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지역 활동으로 용산구 명예 동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마사지를 해주고, 베트남어 가르쳐 주기 등으로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으로 하고 있어요...그냥 애들을 돌보하고. 숙제는 알려주고. 앞으로는 많이...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아들을 잘 키우고. 저 그 때 학교 졸업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경제적 있으면 학원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노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학교만 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 지...네. 저는 여기 사회복지사 학과. 지금, 현재는 저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어요. 2급을 땀어요. 그래서 대학교만 졸업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편입으로 해서 3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3학년 2학기...네. 1년 더 있으면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저는 예전에 사회활동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마사지, 애들한테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은 여기 센터에 애들한테도 베트남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저기 명예동장, 용산구. 용산구 명예 동장으로 하고 있어요...명예동장은 용산구 외국인...여기 용산구 정보, 명예동장...그, 저기 구로구에도 명예동장이라고 해서. 명예 주는 거예요. 명예시장처럼...여기 용산구에 정보가 있으면은 베트남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한테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정보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연구참여자 8의 주변 친구 및 주변 분들의 관심에 아직도 앞날이 막막하지만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노후를 위해 적금, 보험 가입, 운동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며 명예 동장으로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꾸려가고 있다.

2.5. 연구참여자 9: 실망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삶

연구참여자 9는 개인 전화 인터뷰를 한 러시아 출신 이주여성이다. 2001년에 유학생으로 들어와 2007년에 결혼하게 되어 2010년에 가정 폭력으로 신고 후 이혼하게 돼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0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09] 연구참여자 9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러시아 출신 불교 / 한 살 어린 여동생 있음 / 여동생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사별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음 / 전문대 졸업 후 한국 한양대로 유학 / 제빨 기술 배웠음 / 한양대에서 영어교육학과 다녔음 / 연 1회 고향 방문 / 한·러 통·번역 했음 / 무역회사 운영도 했음 / 한국인 친구와 동업 후 회사 뺐졌음.
결혼 해체 경험	영어 연습하기 위해 한 국제사이트 회원 가입 후 전 배우자와 만남 / 결혼 해야 할 나이가 돼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됨 /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모든 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익숙했음 / 시댁은 문제 많은 가정 / 시아버지 3번 이혼, 시어머니 2번 이혼, 시누이 독신주의자, 작은 시누이는 미혼모, 전 배우자도 재혼/ 다문화센터에 다녔음 / 위기 상황 대처 연락처 받아놓음 / 가정 폭력 신고함 / 수배자인 사실 밝혀짐
한부모 경험	주거: 쉼터 입소 후 몇 개월 퇴소, 월셋집에서 임대 주택에 들어감 / 경제: 수급자, 내일배움카드로 미성 기술 배운 후 취업을 못 해서 취미로 함 / 심리: 큰 어려움이 없어 수용하는 태도 / 전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 있음 / 딸이 만남을 거부 / 아이는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현재의 삶	딸(12살)과 함께 삶 / 한국어 시험 및 사법 통역사 시험 준비 중 / 대학교 중퇴해 한이 있어 미래를 생각해 재시작하고 싶다고 함 / 원목 가구 제작이나 과수원 운영이 꿈 / 고향보다 한국 생활이 더 익숙해짐.

러시아 출신 연구참여자 9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1살 어린 남동생과 엄마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으나, 전문대학교까지 다녀 제빵기술을 배웠다. 2001년에 유학생으로 한국어 배우러 한국에 들어왔다.

서른 아홉, 81년생이에요. 네, 81년생. 러시아예요. 제일 처음에는 2001년도에 왔어요. 아빠는 없고요.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남동생, 한 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처음에 한국에 온 것은 공부하러 왔었어요...저 러시아에서는 기술 학교, 제빵기술을 제가 3년동안 배웠었어요. 제빵. 네. 거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는 한양대 2년동안 어학당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에서 영어교육과에 제가 들어갔는데. 3학년까지 공부하고 중퇴했어요.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2003년쯤, 한국어와 러시아어 모두 구사 가능한 언어 장점을 활용해 러시아에서 들어온 바이어들 대상으로 통역 일을 하게 되었다. 많은 인맥을 쌓아 그 후 무역 사업까지 했지만, 한국인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을 뺏겨버렸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 안 좋은 기억을 잊고 사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다.

2003년도 쯤에 이게 통역하기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가 러시아에 살 때 글을 올리니까 여기 오는 바이어들이 통역사를 찾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거의 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바이어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뭔가 이렇게 듣고, ‘오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악세사리부터 시작을 해봤던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뭐 고 무줄 뭐 이런거 있잖아요. 핀 이런 것...조금씩 이렇게 한 거래처를 찾아가지고 EMS로 보내기 시작했어요...다음에 누군가는 또 화장품을 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거예요. 물론 조금씩 그거는 아직은 뭐 무슨 사업을 하기보다는...(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처음에 제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하는거예요...근데 사장님들하고, 공장 사장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이럴 때 아 진짜 한국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케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일단 동업으로 해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그 사업자들. 그래서 이제 거래하기 시작했는데...그래서 계속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의 3년동안...계속 회사가 커지고, 커지고, 커졌는데. 정말 큰 바이어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 우리 모든 이메일, 모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볼 수 있고 그 사람도 다 똑같이...볼 수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아이디를...계약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메일에 들어갈 수가 없는거예요... 원래 다 같이 있었는데, 바이어하고 그 큰 바이어하고...우리 이메일에 제가 못 들어가 는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유학생으로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해 2년 넘게 다녔다. 3학년 때 영어연습을 하기 위해 한 국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 같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전 배우자가 한국어로 자주 말을 걸어와 만나게 되었다. 28살의 나이에 결혼을 스스로 결정했다.

중간에서도 왔다갔다 중간에서도 러시아있다가 또... 아무튼 2001년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왔었고, 남편을 만난 거는 2007년도에 만났었어요...제가 그 때 영어연습 때문에 국제사이트에 가입해서 영어로 영어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한국에서 찾기가 쉽지 않으니깐...제일 처음으로 저하고 연결된 사람은 바로 우리 남편. 근데 영어아니고 한국말. 영어로 말을 걸어도 계속 한국말로 보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영어를 못했어요...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그 때 이제 제가 한국나ירו 스물 여덟살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이, 되게 어린나이 아니잖아요. 완전 어른이고,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나이때 우리 나라에 부모들이 전혀 반대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결혼하기 전에 전 배우자는 부자인 척했지만 결혼식도 없는 결혼을 했다. 결혼 후 빚투성인 신용불량자임을 밝혀졌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러시아 고향 방문하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전 배우자가 재혼인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었다.

그래서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올리기로 했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없었죠. 아무튼 사람은 많이 이렇게 똑같이 사기를 친 거죠. 자기가 강남 사무실에 일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빚투성이고, 신용불량자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엄청 문제 많았고, 그 쪽에서도 아버지가 세 번이나 이혼했고, 어머니는 두 번이나 이혼했고. 또 현재는 누나와 동생이 있는데, 누나는 아예 그냥 독신주의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지금 50살이 넘었을거예요. 결혼은 한 번도 안했어요. 동생은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잘 해주고, 실제로는 나중에 또 제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또 한국여자하고 결혼한 적도 있었어요.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랑, 근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 처음으로 뽑았어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남편 이름으로. 거기에 써 있었어요. 결혼을 했었다고.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이 없었으나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다. 시아버지는 3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다. 큰 시누는 50대의 독신주의자이며 작은 시누는 미혼모였다. 남편이 결혼 후 시댁과 연락이 없었으므로 시댁 시구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정 폭력을 시작해 연구참여자 9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얼굴 돌리는 순간 입술을 물어 피가 무척 많이 흘렸다. 깜짝 놀라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뛰어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전 배우자를 데려갔는데 그때야 전 배우자가 수배자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10년에 이혼해 한부모가 되었다.

너무, 사실은 일단 그 사람은 헤어지는 우리 상황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뺨을 때렸는데, 제가 얼굴이 뚫리는 순간이...어떻게 입술을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피가 엄청 이상할 정도로 많이 흐르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애를 잡고 일층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데려갔지만 제가 때린 것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수배중이였대요.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남편이 어디에 있다고, 남편이 수배중이어서 데려갔다. 의정부 경찰서에 갔다. 사실은 지금도 몰라요. 뭐 때문에 경찰서에 갔었는데...그런데 심하게 싸우고 욕하는 것. 물론 저한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엄청 사람들하고 안 싸울 수가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연구참여자 9는 결혼 초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습 경험이 있었다. 담당자 분이 위기 상황 긴급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가정 폭력을 신고한 후 연락을 해 쉼터에 들어가 3개월 정도 살았다. 쉼터라는 공동생활에 익숙지 않아 불안한 엄마들만 모이는 환경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 것 같아 월셋집을 얻어 살았다.

네. 그 때 제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공동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 때 한 방에 네 명이 있었고, 다 어린 아이들. 저도 아이가 만 나이로 두 살이었어요. 또 누군가는 아예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계속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울고, 심하게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서로 뭔가 다들 불안한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다 뭔가 안 좋은 게 계속 뭐죠? 힘든 그런 분위기인데 또 한 명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한 명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계속 이 환경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었어요. 뭔가 여기는 난 행복하지 않을거다 그런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좋은 환경으로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났지만 그것도 처음에 엄청 엄청 어려웠어요. 물론 다행히 이렇게 힘들게 아마도 몇 개월만 제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연구참여자 9는 2016년에 국적 취득 후 임대주택을 신청해 현재 과주에서 딸과 함께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혼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에 대해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이주여성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종교 경험으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 하며 집수리와 고장 난 보일러 수리 문제 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고장난 보일러를 자기 돈 들어서 수리하라는 등으로 무시를 당한 느낌도 받았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9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한테 요리를 해 줄 만큼 엄마와 같이 독립성이 강한 아이다.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 러시아어는 물론, 영어 스페인어도 노래로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 만들기를 잘하며 공부도 잘하는 편이다. 지금 요리사가 꿈이라고 한다. 면접권 때문에 가정해체 초기에 가끔 아빠와 만났었으나, 아빠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아이가 스스로 만남을 거부했다. 후에 연구참여자 9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해 전 배우자와 연락을 끊고 딸과 함께 둘만의 삶을 살아왔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아예 쉼터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이 데리고 가방 한 개. 처음에 그런 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월세집을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되는 지, ...거기는 계속 있는 게 사실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스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연구참여자 9는 지원을 받아 주거 문제를 해결되었고, 수급자로 지원금을 받는 삶이 편했지만, 사람을 약하게 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거기는 여자들이 강해요, 사실은. 이거 지금 저도 이렇게 이런 도움을 받기 시작하니 까 엄청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부작용도 많아요, 사실은...너무 릴렉스 되는 것 같아요. 뭐 안해도 돈이 들어오니깐...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해야되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 이제, 그 전에는 일이 없으니깐 알바 거의, 거의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일이 안 들어오면 엄청 불안하고. 아 어떻게 해. 이렇게 한 달동안 일이 없으면 또 우리 한달동안 어떻게 살지? 싶어서 잠까지 안 오고...지금은 한꺼번에 이거 월세도 해결되고, 이렇게 수급자도 신청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큰 도움이지만 받는 이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릴렉스되는 그런 거는 또 안 좋은 점이예요, 사실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연구참여자 9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정 폭력을 당해 실망도 있었지만, 안 좋은 추억을 잊으려고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지금은 고향보다 한국의 자녀 양육 복지 정책이 더 잘 돼 있어 한국 체류를 결심해 2016년에 국적을 취득했다. 대학교 공부를 포기했다는 것을 스스로 아깝다고 후회하고 있다. 기회가 있으면 대학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자립하기 위해 자기계발로 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의상 제작을 7개월 과정 공부했다. 그 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사법 통·번역시험을 준비 중이다. 원목 가구 제작이나 과수원의 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전문적인 통·번역사나 무역회사 취직하는 정규직 직업을 원한다. 아이의 가수와 요리사의 꿈을 밀어줄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엄마로서 미안함이 좀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한국에서 살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풍속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스로 헤쳐 나가며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3. 비주도형

3.1. 연구참여자 10: 한에서 벗어나 공감하며 삶

연구참여자 10은 개인 전화 인터뷰를 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31세의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07년에 결혼 이주를 통해 입국하게 되어 2014년쯤 우즈베키스탄 고향 방문 후 재입국 시 이혼을 당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10]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10] 연구참여자 10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슬림 / 4남매 중 셋째 / 아버지는 트럭 운전 택시 운전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 대학교 유아교육전공 졸업 / 연구참여자 6의 동생임 / 우즈베크어, 영어, 아랍어, 한국어 잘함
결혼 해체 경험	2007년 결혼 당시 18살 / 졸업 직전에 전 배우자와 중매결혼 / 전 배우자는 여행사, 폐차장 등에 일을 했음 /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했음 / 전 배우자가 피임약을 몰래 먹여줬음, 시어머니 발견 / 2010년에 아들이 태어남 / 2013년에 딸이 태어남 / 고향 방문 후 재입국 거부 당했음 / 전 배우자가 고소를 해 이혼신고했음 / 종교로 인해 갈등이 많았음 / 재입국 후 신고를 해 컴퓨터에 들어감 / 변호사를 선임해 500만원 지불하고 재판에 승소했음
한부모 경험	주거: 컴퓨터에서 임대주택으로 / 경제: 수급자, 경찰서 통역, 다문화 이해 강사 / 심리: 한국 남자에 대한 믿음이 상실됨 / 공적 기관 적극적 활용 / 엄마와 동생을 챙겨주는 아들 /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자식과 시댁의 혈연 / 복지 정보 많아짐
현재의 삶	아들(10)과 딸(7)과 함께 삶. 이주여성들은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편견을 느낌 /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해야 함 /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 출판 관련 기술, 컴퓨터 일러스트, 포토샵 디자인, 번역 등을 배워 자기계발을 함. 외국인을 위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음 / 힘들지만 언젠가 다시 들어갈 한국 대학 진학의 꿈

우즈베키스탄 출신 연구참여자 10은 4남매 중 셋째로 연구참여자 4의 동생이다. 아버지는 트럭과 택시 운전사이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삶을 살았다. 2007년에 18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89년생의 연구참여자 10은 대학교 다녔을 때 전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 후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졸업했다. 언어 천재에 가까운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와 함께 우즈벡어·영어·아랍어가 능통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 열일곱 살, 열여덟 살 때부터 시집가요. 우리 학교 친구들도 스무 살 되기 전에 다 시집갔어요. 같은 반 학교 친구들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이 빨라서 이렇게 학교를 열여섯 살 때 졸업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교에 바로 들어가고, 전문대학교 년 졸업할 때, 한 학기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 년 있다가 가서 저기...네. 다시 일 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왔었어요...우리 남편이 그때 이제 여행사 일 할 때 거기서 같이 일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한국인 남자...네. 그 남자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여자랑 결혼해서 애기 둘 있고 그래서 남편이 가끔 한국에 올 때 집에 놀러 가면 너도 결혼해라, 나도 결혼했다. 애기 둘 있고 좋다...어, 그래서 남편도 그래 그렇게 하고 우즈베키스탄 가서 여행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새로운 나라도 보고 뭐 좋은 만남 있으면 결혼도 한다. 좋은 여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갔다가...(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졸업하기 전에 친구를 따라 결혼 중개를 통해 소개팅을 참석했다. 전 배우자는 여행사에서 근무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한 친구의 권유로 해외여행도 할 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도 보고 좋은 만남이 있으면 결혼도 한다는 생각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그 과정 중 친구 따라 결혼 중개사무소의 소개팅에 참석한 대학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 10을 보게 되어 무척 좋아했다. 순진한 마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에 전 배우자의 결혼 제안을 동의해 18살의 나이에 시집왔다.

한국어는 다문화 센터에서...2007년에 와서 바로 다문화센터에 가서 배웠어요. 오기 전에는 한국어 못했죠... 전혀 못했어요. 뭐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없었어요...처음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살았어요. 음 그때는 이제 한국에 오고 한 달 있다가 다문화센터에 다니게 됐는데, 이제 남편이 다문화센터를 알아보고 그 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이 안 좋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차 타면 30분 거리였고, 버스타면 두 시간...그래서요...남편이 다 알아보고, 제가 한국오기 전까지는 이런 걸 다 알아보

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때는 한국 그런 거는 안 물어봤지만 저는 또 언어에 관심이 있으니깐...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식, 요리도 배우고. 그때는 자격증보다는 좀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다문화센터에서는 한식 요리교실도 다니고, 또 뭐 만들기, 육아, 또 수영, 재즈댄스 뭐 이런 거? 그냥 그 때는, 제가 18살 때 왔어요.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입국 후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 한국어 공부를 했다. 어린 나이에 시집에 와서 전 배우자가 관련 정보를 알아보아 공부를 시켜주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식 요리도 배웠다. 자격증도 있지만, 자격증보다 모든 것이 신기해하여,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 만들기, 수영, 재즈댄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했다. 그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금방 늘어 일찍부터 경찰서 등 기관에서 통역 봉사를 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주여성에게 공유해 상담해주거나 조언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렇게 어렵게라도 되는 거 보면 자기가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남편이 이혼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이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여러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지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언니 어떻게 했어요?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했어요? 집은 어떻게 얻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은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정말 안 되면 이렇게 좋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보고 안 되면 센터 가서 상담도 많이 해보고, 안되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열심히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여자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질거야. 이혼 안하고 남편이 이해하고 아마 헤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또 남편이랑 서로 너무 멀어져서 마음으로도 많이 멀어져서 좋은 말이 쉽게 안 나온대요. 이렇게 앉아서 서로 예쁘게 말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한 두 명? 세 명? 이 이렇게 노력하고 자기가 구청가서 상담하고 실제로 여자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도움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두 명? 세 명? 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여자가 많았는데 이혼도 다 했고, 월세 집에서 살고 있고 하는 데도 자기가 스스로 월세 내면서. 그래도...정보를 모르니까. 또 모르고, 어렵게 하루종일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는 공장에 나가서 일하거나 식당에 나가서 일하거나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한국어 실력이 늘어 가족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연구참여자 10은 시어머니가 베트남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들었다는 것까지 후에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일하다가 귀국한 전 배우자의 친구한테 아들이 전에 사귀었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안부도 물어보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라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또한, 결혼 전에 남편이 일본 아가씨한테 프로포즈까지 해 결혼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은 전 배우자의 메일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으로 생활 속의 사사한 일로 시대 가족으로부터 배심감을 자주 느껴져 무척 분했다.

그 때 당시 베트남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우리 집에 왔었어요...네. 남편 친구고 남자...시어머니가 안부 인사하고 일 잘하고 있냐고 하고 우리 아들이 근데 베트남에서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아직 잘 있냐고, 우리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걸 다 들었어요...또 우리 남편이 일본에 살았을 때, 호주에서 공부했을 때 일본여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랑 그 때 당시에 계속 일본에서 그 여자 동네에서 일 년 동안 같이 살고, 프로포즈도 하고, 근데 그 여자가 프로포즈를 안 받아들였대요. 근데 그 여자랑 계속 문자하고, 이메일 보내고, 또 그 여자가 한국 온다고 해서 뭐 어디 호텔로 오고, 어. 근데 그거를 다 저한테 속인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연구참여자 10은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부부의 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약 케이스를 발견해 무척 화가 났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계속 먹여준 약은 피임약이었다. 그 사실도 모르고 남편이 매일 매일 챙겨 준 물이랑 약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먹었다.

제가 3년 동안 임신을 안 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너무 어리니깐. 3년, 뭐 기간은 이제는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11년 넘어서 임신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오면 애기 언제 낳아요? 하니까 내가 너무 똥똥해서 애기가 안 생긴다고...그 때 제가 조금 살이 찐 건 있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다른 아줌마들 앞에서 애가 똥똥해서 애기를 안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어느 날 남편이 임신 안 하는 약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먹는 거...어. 저는 그런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런 약이 있고 그런 걸 몰랐었는데 남편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매일 남편이 물이랑 약을 챙겨 줬었어요...근데 남편이 엄마 나 처음 봤다고, 모른다고 그런거예요.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연구참여자 10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댁과 종교에서 오는 갈등이 특히 많았다. 연구참여자 10은 이슬람 종교이지만, 시댁은 기독교이어서 전 배우자가 자기와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려 했고, 집에 목사님이나 집사들 초대해 교회에 나가라는 등의 강요로 마음이 무척 불편했다. 이슬람 종교인 부모님이 한국에 왔을 때 집이 아닌 호텔에 잠자게 했고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속이는 행동에 무척 섭섭해하였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뭐 성격이나 돈 문제도 있지만, 우리 종교가 달라요. 저는 이슬람교 믿고, 남편은 기독교예요. 근데 남편이 얘기 없을 때 이제 교회 데리고 가고 또 집에 목사님들도 오고 집사님들도 오고...우즈베키스탄어로 되어있는 성경책도 읽어보라고 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가 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도 얘기했었고 또 우리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하니깐 나는 이제 서로 종교도 싸우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서로 모르니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모르니까 서로 좀 이해시키자. 난 종교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좀 크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하면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조금씩 이제 서로 마음이 같은 길로 안 나가고 갈라진 거죠. 더 싫어하게 되고,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섭섭했어요. 또 우리 남동생이 올 때도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소고기라고 했어요. 근데 좀 맛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돼지고기래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네. 또 우리 부모님도 어렵게 초대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한국문화 일수도 있지만 우리 그때 주택에서 살았어요. 큰 집에서. 방이 충분히 많았어요. 아파트도 아니었고...우리 부모님이 이제 오시니까 여기 우리랑 같이 있지 않고 호텔에 있으면 안 되냐고...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호텔에 있으면 또 한국말도 모르고..또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손님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불편하다고 호텔에서 있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몇 주밖에 못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연구참여자 10은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어 가족 사랑 및 관심을 무척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로 시댁 및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 와중에 전

배우자가 화를 통제하지 못하여 폭력까지 여러 번 한 적도 있었다. 결혼 전과 후 전 배우자의 태도 변화로 가정에서 소외감을 크게 느꼈다.

어렵게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더 심하게 한 거예요. 남편이. 돈도 안 주고... 돈 우리가 대출했다고 얼른 갚아야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때 또 서로 사이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들이 15개월 때부터 또 일 나가가고, 애기 낳기 4일 전까지 일하고, 그리고 애기 낳아서 15개월 될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일 나가고, 또 둘째도 일주일 전까지 일했어요. 애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하고. 또 애기 낳고 한 한 살도 안 됐을 때부터 또 할 수 없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돈만 달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돈 벌고 남편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게 뭔가 안 됐었어요. 저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돈 안 주고 먹을 것 안 사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제가 하는 거는 제 돈으로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이랑 놀아주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말도 안하고 사는데 약간 그냥 돈 뿐만이 아니라 남처럼...(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연구참여자 10은 이슬람교이었고, 시택 및 전 배우자는 기독교이었다. 결혼 생활 과정 중 종교로 인한 갈등도 많았다. 종교 바꾸기 강요 및 폭력에 연구참여자 10은 집을 나가 쉼터에 들어가기도 했다. 갓 태어난 딸은 시택이 데리고 갔다가 모유 수유를 해야 해 연구참여자 10을 다시 집으로 불렀다. 2013년에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 2달 후 재입국했다. 입국할 때 거부를 당해 상담하러 가는 과정 중 전 배우자가 연구참여자를 고소하고 이혼신고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권 만들기 위해서 (공항에) 갔었어요. 아니면 여권 안 만들었으면 연장도 안되고. 또 가면 아직 이혼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이혼 후에 간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비자 연장 안 하고 갔으니까...우즈베키스탄 여권 만들어올 때까지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두 달이 걸렸어요. 근데 오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다문화 센터 상담도 받아보고, 또 쉼터 상담도 받아보러 갔었어요...근데 거기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러 갈 때, 우리 남편이 이혼소송 건 지 두 달 됐대요...그래서 남편이 제가 가자마자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어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재입국한 연구참여자 10은 한국 체류 및 자녀 양육 문제로 무료 변호사도 상담을 받았지만, 모두 남편의 편만 들어서 믿음이 없어 이용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드려 양육권 친권 싸움에서 이겨 이혼하게 되었다. 재판 싸움 과정 중 일자리를 구해 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혼 재판 과정 중 근무한 변호사 사무소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남편은 고소했어. 신고했어 이혼신고, 공항에서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막았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고 난리 났어. 나 여권, 비자...너, 남편이 재판에 올렸다고, 신고했다고 그랬어. 안 오면은 애들 둘이 있는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소송 준비하고, 엄청 그때 겁나고 무서웠어요. 네, 500만 원, 근데, 그분들은 가봤는데 그분들은 남편 쪽 말만 믿고, 듣고, 제 말은 안 믿었어요. 저기 다문화센터나 쉼터 그런 기관...거기도 쉽게 빨리빨리 안 해 주고, 일 찾고 변호사 그때 카카오스토리에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통역사 구한다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이 잘 해 줬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이혼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이혼하고 한부모가 된 연구참여자 10은 언어적 장점을 활용해 경찰서 통역 및 봉사를 많이 해서 관련 복지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어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같은 이주여성에게 공유해 상담하고 조언을 주기도 했다.

영어하고 우즈베키스탄어...아랍어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공부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어요. 근데 코란을 읽기 위해서 아랍 글씨를 국어처럼 글씨를 배워요. 다른 봉사도 하지만 그래도...그래도 이렇게 도움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해주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죠...저 경찰서에서는 2010년부터 통역 봉사를 했어요...근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있으면, 근데 있으면 가끔 불려서 가는데 없으면 좋겠죠.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안 해요...봉사활동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데 뭐 알림장 번역하는 것 이런것도 하는데 뭐 좋죠. 저도 도움받고 있으니까 돌려주는 느낌?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연구참여자 10은 한부모로 안정적인 체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영주권을 취득해 안전한 직업을 찾고 싶지만, 영주권 취득의 문턱이 높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의 자연스럽지 않은 태도 및 반말의 사용 등으로부터 차별적인 감정을 느낀 적도 많았다고 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건 영주권이에요. 근데 3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데 실제로 3000만 원이 없기도 하고, 뭐 3000만 원을 모았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당장은 수급자에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탈출하지 못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000만 원을 빌려줘서 은행에 넣고 이렇게 서류를 내서 만든다고들 하는데, 뒤에서 이제 하는 말들이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걸리면 제가 다 탈락되니까 애들 교육지원도 못 받고 그렇게 돼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우리 아이도 놀림 당해요. 조금.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달라요. 이게 한국 가족 아이한테 쓰는 신경이랑, 우리 아이한테 보는 신경이랑 달라요...응, 선생님들. 아이엄마들도 그렇고...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매일 데려다줄 때, 아이를 이렇게 받을 때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랑도 얘기하고 이렇게. 근데 저랑 대부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하고,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어 왔어 인사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제 이렇게 했어요, 친구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놀았어요, 싸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잘했어요.’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어 왔어요 하고 들어가고 또 다른 엄마들은 선생님이 얘기를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막 엄마한테도 다르게 웃고 말투도 달라요...이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게 티가 나요. 무의식적으로...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뭔가 웃는 것도...네 자연스럽지 않아요.(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행복하지 못한 결혼 경험으로 연구참여자 10은 남자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한국에서 한국인과의 재혼은 두려워하는 편이다. 아이들을 많이 챙겨 주지 못해 엄마로서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을 끊고 싶지만, 시댁 측에서 면접교섭권이 있어 자녀와 지속적인 만남 중이다. 연구참여자 10은 자녀들의 성장을 위하여 시댁이나 남편에 대해 뒷말하지 않지만, 시댁에서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해 아이들이 조부모 집에 가다 오면 항상 기운이 없어져 자주 엄마를 타하기도 했다.

한부모가 된 후에 연구참여자 10은 1남(10살) 1녀(8살)과 함께 임대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양육비, 수급자 지원을 받으며 다문화 강사 및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의 돼, 경찰서 봉사 경험 및 이혼 재판 경험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른 나라 이주여성의 생활 고민 상담사로 조언을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했다. 자기계발로 컴퓨터 일러스트, 포토샵, 디자인 등 출판 관련 지식을 공부했으며, 번역 기초, 및 특화 심화 과정도 참여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 10은 한국에서 대학교 진학의 꿈을 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지 못한 한에서 벗어나 이주여성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살고 있다.

3.2. 연구참여자 11: 기대에서 벗어나 수용하고 삶

연구참여자 11은 개인 면담을 한 러시아 출신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09년에 단기 비자로 들어와 2011년에 결혼하게 돼 2013년쯤 고향 방문을 하고 한국으로 재입국 후 이혼을 당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11] 연구참여자 11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러시아 출신 불교 / 3남매 중 장녀 / 대학교 졸업 / 러시아어 몽골어 잘함 / 어머니는 교사 /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함 / 부유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 / 사회 경험 없었음
결혼 해체 경험	대학교 졸업하고 캐나다에 갈 준비하다가 사기를 당했음 / 사할린에서 고려인을 만나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짐 / 한국에 있는 이모 집 방문 후 단기 근무 시작 / 2010년에 친구 생일 파티에 만나 2011년에 결혼 / 2012년에 임신을 해 고향 방문 후 재입국 시 이사를 간 상태며 연락이 끊겼음 / 2주후 찾았지만 전 배우자는 이혼 만을 요구했음 / 미용실 손님의 소개로 쉼터에 감 / 기관의 도움으로 이혼을 함
한부모 경험	주거: 쉼터에서 모자원으로 / 경제: 수급자, 아르바이트, 약세사리 공장, 피부과 치과 여행사 등 일을 했음 / 심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게 됨 / 미련과 기대가 있었음 / 체류 자격 변경할 때 고소를 당해 이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음 / 전 배우자가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음 / 아이 양육을 위해 시작한 한국어 공부 / 고향 방문 후 러시아어를 깨친 딸
현재의 삶	딸(9)과 함께 시설에서 나갈 준비 중 / 저축하기 시작 / 사라진 모녀의 의사소통 어려움 / 가계계를 위해 자격증을 따 / 포기할 수 없는 대학 진학의 꿈 / 러시아어 교사 및 통·번역사 시험 준비

34세의 연구참여자 11는 러시아 출신 이주여성이다. 3남매 중의 장녀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교까지 다녔으며 러시아어와 몽골어 모두 가능하다. 엄마는 학교 교사이며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했다. 지금 50대 후반의 나이로 공항에 계시며, 남동생과 여동생 집은 모두 3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저는 러시아 사람이예요...러시아에서 대학교 나왔어요...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제가 아직 전화도 못 하고 있어요. 65년생. 아빠는 63년생. 한국에서 젊잖아요. 러시아에서 벌써 나이가 들고, 엄청...나이가 들은 거죠. 동생들도 다 결혼하고 멀리 멀리 살고 있어요...여동생 남동생. 여동생도 엄마 아빠하고 300KM 떨어진 곳에 있고, 남동생도 300KM 떨어져 있고. 이렇게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살고...좋아요. 좋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 되게 싫어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마음이 막 충전되고...엄마는 선생님. 아빠는 개인 사업. 개인 사업하다가 이제는 아예 안 하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하고, 엄마는 지금도 일해요. 선생님....(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대학교 졸업하고 캐나다에 간 친구의 권유로 캐나다 갈 준비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또 다른 친구를 따라 사할린에 가서 고려인들을 만나게 되어 엄마의 제안으로 바람 쐬 겸 2009년에 한국에 있는 이모 집에서 단기 체류 비자로 처음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에 2년 가까이 한국 및 러시아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았다. 단기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일도 잠깐 잠깐 했다.

처음에 2009년. 대학교 다녔을 때 우리 친한 친구가 캐나다 갔어요. 캐나다. 그래서 거기서 저보고 여행 서류 다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 지 어쩌든 와서 같이 캐나다에서 살자. 그냥 대학교 중간에 가버리려다가 우리 집안 가족들이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 졸업하고 언제든 가라고 했어. 그래서 그건 완전 목표였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시험도 보고, 일하면서...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일도하고. 대학교 졸업 다 했어요. 이미 2번 시험 다 보고, 서류도 다 보내고. 돈 하나...등록금 한 학기 내고, 이제 초대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초대장, 그래더니 올랐어요. 돈이 올랐가지고. 돈을 더 주야 되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근데 그 돈이 2배로 더...첫 번째 년 것보다 2배 더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포기하면서...사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기까.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지. 왜냐면 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니까.(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너무 속상해 가지고,..이럴 때는... 친구가 사할린 쪽에 다닌다고 하니가 여기 사할린 쪽으로 왔어요. 사할린 쪽에서 있다가 거기 한인...고려인...그래서 거기 있다가 엄마가...그때 여기서 이모가 살았거든. 엄마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가서 한 번 봐 봐. 근데 그때는 한국 원지. 어디 있는 지 원 지 아무것도 몰랐어. 캐나다에 가려다가 못 가서 한국이라도 가서 바람 쐬고 오자 해서...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왔는데 와 다른 나라, 완전 왠지 러시아랑 다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비자 받고 3개월, 한 번 왔다가 두 달 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남편 만났어요. 처음에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일을 하고 알바처럼 비행기표 사고...(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연구참여자 11은 2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과정 중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전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 학교를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 경험도 거의 없어 한국에서 친구도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선물을 챙겨주고 비행기표를 사주는 등 사소한 관심에 크게 감동하여 첫사랑을 경험했다. 한·러 양국 사이에 오가는 것이 매우 번거로워 2011년쯤 전 배우자의 제안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그때는 러시아 언니가 있었는데...그 생일 때 만났었어요...보자마자 아니고, 보자마자 그런 아무 관심 없었어요. 아예 관심 없었는데 그냥 특별하게 선물 사주고, 뭐 사탕, 빼빼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인형 사주고. 그때 너무, 너무 좋았었어요. 막 선물, 이런저런 선물 사주고 너무 잘해 주니까 제가 반했었어요...저도, 아니 뭐라고 하지.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없다가 근데 이렇게 선물 주니까 저도 마음이 녹, 녹, 녹은(녹는) 거 보니까...저한테 제가 원래 이렇게 누가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남자친구 사실은 없었어요...그래서 그때는 첫사랑이라는 거는 그때 같아요...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남편 만나서. 남편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2012년에 임신하게 되어 남편이 러시아에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고향에 들어갔다. 그 뒤에는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어디로 이사 가버리고 연락도 끊겼다. 임신한 상태라 아이를 낳아 몸을 어느 정도 회복되고 1년 반의 시간이 금방 지났다. 고향에서는 결혼하고 남편이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매우 곤란하고 어색한 처지에 빠졌다. 친정 엄마의 의

건을 들어 한국에 재입국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간신히 찾은 전 배우자는 이혼만을 요구했다.

결혼하고 나서 임신되고, 임신되고 8개월 때쯤? 우리 남편 러시아 가서 애기 낳으라고. 러시아 가서 애기 낳으라고. 엄마 옆에 낳는 게 낫다고. 그래서 급, 급하게 이렇게 보냈거든요...저도, 저도 좋잖아요...엄마 옆에 가서 애기 낳고...그리고 가고 나서 한 달 후에 남편한테 연락받았어요. 오지 말라고. 여기...응. 여기서 나는 짐 다 뺐으니까. 버릴 거, 집에 있는 거 다 버렸으니까 전화번호도 바꿀 거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그래서 이미 다 끝났다고 1년 반 거기서 애기 낳고, 1년 반 놀다가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이 얘기했어요. 한국에 가봐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원데...근데 1년 반 너무 사실 늦었어요. 지금 후회하는 거는, 제가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을 만나서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나는 애기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혼해 줄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2010년에 만나, 2011년에 결혼하고, 2012년에 이혼을 하려는 전 배우자의 태도 및 행동에 매우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첫사랑이기 때문에 이혼을 당해는데도 기대하고 기다렸다. 전 배우자로부터 들은 이혼 이유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연구참여자 11은 산속에 안 갔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같이 오래 안 살았어요...왜 헤어졌냐고? 하는 말이...내가 임신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 러시아 엄마가 전화 왔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임신. 임신 때문에 절대 가지, 가면 안 된다고...돌아가신 사람...그거는 다 귀신 이야기잖아요...저도 그래서 겁이 먹어 가지고 애기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갔거든요...근데 나중에...아들은 하나.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야 된다는...이혼했을 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꿈에 온다. 꿈에 와서 계속 자기 혼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그것 때문에...믿을 수 있어요...우리 시어머니도 괜챿아 괜챿아 했어. 너가 애기가 걱정되니까. 괜챿아 해줬어...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복잡한 처리 과정에 지쳐 러시아 돌아갈 준비하고 가기 전에 미용실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사정을 알게 된 미용실 손님의 도움으로 쉼터에 가게 되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쉼터에서 살다가 2019년에 모자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에는 시설 담당자분들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뒤늦게 합의가 아닌 고소를 당해 이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부모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한 몸을 러시아에 보낸 후 소송을 했다. 시어머니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인데 고소를 당해 이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자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진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역골하게 이혼을 당해 분하고 답답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습진이 심해 한동안 한약을 복용하고 몸조리를 했다.

첫 번째 보호 시설에 생활했을 때는 컴퓨터, 토퍩, 피부관리사, 통·번역 민간자격증 등을 취득해 자기계발을 위하여 많은 공부를 지속했다. 이와 동시에 종교문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시설 담당자분들의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태도 및 언어의 사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또한, 같은 어려운 처지의 이주여성들의 힘든 이야기로 인해 연구참여자 11은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다.

제가 거기서는 스트레스만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같이, 여러 명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다 여자들 다, 다, 뭐라고...다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고. 부딪히면 더 많고. 그래서 빨리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그**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선생님들. 거기 선생님들 아니고 **님들이었어요. **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못 살게끔 했어요. 거기는. ‘야! 너, 러시아! 너 필리핀 이리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 제가 계속 울었어요... ‘야, 러시아 이리 와. 우리 지금 우리가 기도하잖아. 이리 와 여기서 있어.’ 애기 옆에 제가 재우고 있는데. ‘이리 와!’ 제가 애기 재우고 있는데 선생님 와 가지고 ‘나 오라고!’ 막 이렇게 하고...무슨...에어컨.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 틀었다고 혼내려고. 에어컨 왜 틀었냐고...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연구참여자 11은 처음에 이혼에 대해 창피해하여 그 사실을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행히 곁에 딸이 있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태어나고 나서 아빠나 조부모의 얼굴조차 만나보지 못해 가족애를 받아보지 못한 딸의 한을 해소하고,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2019년 여름에 가정해체 후 처음으로 고향 방문을 하였다.

고향에는 작년 여름에 갔다 왔어요...가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아빠가 없다. 이러 이런 이유로 우리 아빠가 없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 가족이 엄청 많다. 그

래서 러시아 가기로 했어요. 러시아가서 예나 생일 맞이하고, 엄청 크게 생일파티 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120명 정도. 우리 가족만, 친구도 없어. 우리 가족만 레스토랑에서, 평생 처음으로....**한테 우리 둘만이 아니다.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아니다. 아빠 없어도 우리 이런 가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가지고 울고...다 같이 울고...처음 봤으니까 **가 커서 한 번도 몰라 잡아요. 전화로 알지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러시아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보고 알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들 알게 됐거든요.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공항에 가서 120여 명 넘는 대가족들이 모여 딸의 생일 파티를 했다. 화기에 애한 가족 분위기에 매우 밝아진 딸이 겨울에 또 가보고 싶다고 해 같은 해에 다시 공항을 방문을 했다. 뜻 밖의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되었다. 이 과정에 딸이 여권 기간 만료되기 직전에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딸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어서 귀국할 수 있지만, 연구참여자 11은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딸과 함께 입국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모녀가 헤어질 위기도 맞이했다.

그래서 한 달만 있다가 왔는데, 다시 겨울에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겨울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이번에 가서 다 아는 사람들이고. 러시아어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를 하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니까. 전화를 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거기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러시아어 학원 다녔어요. 가기 전에 계속 러시아어 학원 다녔는데, 이해가 되는 데, 말을 못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러시아어 배우는 것처럼 배웠지. 근데 지금 러시아어 학원에 왔가지고 선생님 저 2학년으로 올려주세요. 러시아어로 해요. 저는 이제 컸으니까 러시아어도 잘하니까, 올려달라고. 러시아어로. 선생님이 아예 한국어를 모르니까. 너무 잘 배웠다고...(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딸이 혼자 귀국했다라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결국 딸의 긴급 여권을 만들어 비자도 연장해서 러시아에서 6개월 넘게 체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학년이 된 딸은 상반기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지만, 그 계기로 딸이 러시아어를 저절로 습득하게 되었으며 돌아와서도 엄마랑 러시아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연구참여자 11은 딸과 둘만의 삶이 더 편하게 되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한부모라는 사실도 당당하게 밝힐 수도 있다. 전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미련이 있어 기다려주었지만, 지금은 그 기대를 버리고 과거의 경험도 모두 수용해 딸(9)을 잘 키우고 전 배우자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딸과 함께 모자원에서 살고 있으며 학교 돌봄, 아동센터 등 공적 기관을 활용해 자녀교육을 해 그 시간에 연구참여자 11은 치과에서 근무하고 가정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부터 대학교 진학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대학원을 진학해 통·번역사나 러시아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 한다.

3.3. 연구참여자 12: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삶

연구참여자 12는 4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일본 출신 41세 사별 이주여성이며 1995년에 결혼 이주를 해 2010년에 남편이 질병으로 돌아가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12] 연구참여자 12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일본 요코하마 출신 / 3자매 중 장녀 / 전문학교 졸업 / 영어와 여행을 좋아함 / 친정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 / 어머니는 90세, 아버지는 돌아가셨음 / 가이드로 일했음
결혼 해체 경험	1995년에 통일교를 통해 결혼하게 됨 / 공주보다 여왕 대접받았음 / 의사소통 가능 후 갈등이 생김 / 전 배우자 집안 좋았음 / 아버지는 장교로 6.25 때 북한에 들어갔음 / 미국으로 이민 간 형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뺏어감 / 알콜 중독 후 간암으로 사별하게 됨 / 7개월의 치료 과정 중 화풀이의 대상임
한부모 경험	경제: 친정엄마가 도와줌, 개인, 문화원, 학원 일어 강의 / 심리: 6살 딸과 서로 위로를 해서 삶. 시간이 약 / 주택: 월세 / 인터넷 회원가입 불편해 이름 개명했음 / 공적 사회적 기관에서 도와주었음 / 사별 후 한국어 공부 및 토픽 시험을 했음 / 정보 많아짐
현재의 삶	노후 대비 사망 보험 가입 / 노인정 마사지 봉사 등을 함 / 보호자는 없음 / 건강이 제일 / 자기계발로는 영어 학습 희망 / 가정 생계는 자기가 책임을 지야 함

80년생의 연구참여자 12는 일본 요코하마 출신 이주여성이며, 3자매 중의 첫째로 여동생 두 명이 있다. 가정 형편은 연구참여자 12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전문대학교를 다녔으며 영어와 여행을 좋아한다. 아버지는 4년 전에 10년간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90세가 돼 지금의 가장 큰 걱정이라 한다. 동생들이 교대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돌봄을 하고 있다.

고향은 요코하마. 그...1995년 12월 말에 여기 왔거든요...에, 예. 근데 계속 여기 사니까 거의 25년...지금 어머니가 계시는데 연세가 90세 넘었어요. 근데 다행히 건강하게 사시고. 주변에 여동생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사니까 걱정해서 매일 교대로 동생들이 엄마 같이 자요. 매일 교대로. 그래서 동생들한테는...아버지가 거의 10년간 병을 앓고 있었다가 4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연구참여자 12는 일본에서 관광 가이드로 활동을 했으며, 한국에서 개인이나 학원, 문화원 등의 곳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 강사로 활동 중이다. 1995년에 말 17살도 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통일교의 참가정운동을 통해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목적은 역사적 이유로 좋지 않은 한·일 관계를 좋은 가정을 통해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함에서 출발한 것이다. 처음에는 남자라서 여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해 여왕처럼 잘 해주었다. 자전거 타면 위험, 혼자 나가는 것 위험, 길이 미끄러워서 위험 등 모든 위험 요소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모든 곳에 항상 같이 움직여 남편의 말을 따랐다.

네. 저는 (통일교) 참가정운동을 통하여 결혼했거든요. 가정이 나쁜...네. 그 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만큼 그 부부 사이에서 다른 나라 애들이 전부 두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선생님한테서 소개받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남편은 나를 여왕처럼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자니까 여자를 보호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자전거 타고 싶다고 하면 안 돼, 위험해. 혼자 나가는 것도 위험해. 길 미끄럽다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남편과 같이 했어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말을 못 하니까, 한국말 못 하니까 그냥 남편 따라갔어요.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나도 한국말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판단해서 결정해요. 결정하고 나서 나한테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 나는 아님데. 왜 한 마디라도 나한테 얘기하고 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점점 남편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항상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무조건 나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 타입인데. 나는 아니, 친구처럼 같이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점점 그런 생각 차이가 생기고요. 좋은 건 좋았지만...(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3년 후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한국의 전형적인 유교 관념으로의 가정 문화를 깊이 느끼게 되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부가 친구처럼 같이 논의하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매우 섭섭했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사소통이 가능한 후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 집안은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좋은 집안이지만은, 그 시아버지가 625 때 북한 가셨어요. 통일 장교로 UN군하고 같이 북한에 가서서 거기서 행방불명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 후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나 봐요. 근데 그, 처음에는 사망했는지 어떨지 모르니까 유족 연금도 안 나왔어요, 모르니까. 만약에 거기서 전사했다, 죽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유족 연금이 나올 건데, 그걸 모르니까. 오랫동안 정부에서 지원도 안 받고 어머니가 3명 아들 다 고생하면서 키우셨어요. 근데 그 형님, 우리 남편은 둘째이거든요. 근데 큰 형님이 미국에 이민 가셨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동생인 나한테 맡기겠다고 해서 가셨는데. 그 집안이란 재산 문제 여러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유족 연금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형제 셋을 키웠다. 장남은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아래에는 이복동생이 한 명 있다. 시어머니의 돌봄은 모두 전 배우자의 책임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민 간 형이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 배신감을 크게 느껴진 전 배우자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알코올 중독 돼 암으로 발전됐다. 7개월의 치료를 받아 2010년에 안타깝게 사별하게 되었다. 전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 및 암 치료 과정 연구참여자 12는 그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이민 가서서, 그 쪽으로...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재산은, 그 당시에는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어요. 외국인이라도 재산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동생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는데...근데 그 재산이 다 조카, 미국에 있는 조카한테 넘겼는데...하는 게 다 자기 아들한테. 형님이, 몰래, 몰래 했어요...형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모르게...몰랐어요. 예. 이런, 그 여러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은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근데 시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을 마시면 그 화풀이는 나한테 해요. 결국 때리거나. 그래도 나는 참아야겠다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일본이 옛날에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남편한테 잘 해야겠다. 그래서 참았는데...(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배우자와 사별 후 한부모가 되었지만, 그동안 가입한 고액의 보험이 있어 법적 한부모 인정을 받지 못해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했다. 당시 6살인 딸이 아빠를 그리워 보고 싶다고 할 때 같이 울고 서로 위로해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슬픔도 점점 사라졌다고 했다.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애가 6살이었거든요.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자꾸 아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같이 울어서.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아, 그래, 보고 싶네. 엄마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딸하고, 딸도 아빠 보고 싶다. 나도 신랑 보고 싶다. 서로 울고. 딸은 엄마가 위로해주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보다 그 슬픔이 사라졌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주변에 의지할 친척이 없었다라는 거. 아무도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연구참여자 12는 슬픔에서 빠져 나 올 수 있게 한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 외에도 다문화센터와 복지관 같은 공적 기관에서의 도움이다. 전에는 이용한 적이 없었으나, 남편과 사별 후 한국어 학습 등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친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남편의 암 판정을 받은 후 향후 아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해 국적을 신청했다. 전에 7자의 이름으로 인터넷 회원가입도 어려웠다. 아이의 보호자인 자신에게 보호자가 돼 줄만한 사람이 없어 병원 수술할 때 서명도 혼자 해야만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게 주변에 의지할 친척이 없었다라는 거.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어려울 때는 말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의지할 수 없어서. 결국은 제가 뭔가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혼자 했어요. 그건 좀 힘들거든요. 병원에 갈 때도, 일반 병원은 괜찮은데 수술을 한다거나 입원한다거나 하게 되면 서류도 많이 줘야 하고, 그리고 그 설명, 병에 대한 설명. 한국말을 잘 몰라도 같이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제가 혼자 선생님 설명 듣고 제가 다 사인하고. 다 혼자.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지금의 연구참여자 12는 한부모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이다. 전 배우자가 살아계셨을 때 가입한 고액의 보험이 있어 법적 한부모로 인정받지 못해 관련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건강, 앞으로도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애한테 뭔가 남겨야 하니까 나도 보험 들어가서, 지금은 적금처럼 매달에 하고 있는데. 제가 사망하면 모아둔 것은 애기한테 가려고. 근데 그것도 10년 이상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내는 돈이 크니까 지금 나는 법정 한부모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융? 금융?라고 해요. 그 체크하잖아요, 재산, 재산이나 그런 거. 금융 오버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법정 한부모가 되면 좀 안심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인 책임, 내가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지...(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노후를 생각해 사고 및 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10년 넘게 납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2는 한부모가 된 후의 사회활동으로 주로 자녀의 뒷바라지로 참여하고 있다. 딸이 유명한 합창단의 단원으로 세계박람회, 아리랑 축제 큰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항상 같이 따라다녀 아이를 챙길 겸 합창단을 도왔다. 그동안 교회 활동으로 노인정 어르신에게 마사지하기 및 음식 만들기 등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 처하고 있지만, 자녀와 함께 오래오래 살려면 건강이 먼저라 하여 전 배우자와의 사별한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3.4. 연구참여자 13: 우울에서 벗어나 자신있게 삶

연구참여자 13은 개인 면담을 통해 만난 캄보디아 출신 36세의 사별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08년에 결혼 이주를 해 2010년에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여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13] 연구참여자 13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캄보디아 출신 불교 / 3남매 중 장녀 / 어머니는 의사 2011년에 돌아가셨음, 아버지는 군인 / 대학교 다녔음 / 외국인에 대한 호감이 많았음 / 국제결혼이 꿈
결혼 해체 경험	한국에 시집 온 동네 친구의 영향을 받았음 /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캄보디아에 갔음 / 2008년 대학교 중퇴 결혼 이주 / 부모 몰래 중매결혼 소개팅 참석 / 기독교 천주교 접하게 됨 / 다문화센터 복지관 등 기관에서 한국어 등 문화 학습하게 됨 / 3년 정도 행복하게 살았음/ 2010년에 전 배우자 간암으로 사별 / 1년 후 친정엄마가 유방암으로 사별
한부모 경험	주거: 전세에서 월세, 그리고 임대 주택으로, 시동생의 도움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감 /경제: 구청 도움 요청, 수급자, 일반회사, 화장품 무역회사 근무 / 심리: 사별 후 2년은 지옥 같은 삶. 시택은 캄보디아에 돌아가라고 요구했음 / 남편 친구와 동창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 / 동네 한국인이 온라인에 사연을 올려 도움을 많이 받았음 / 건강: 응급실 자주 갔었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 자녀 양육을 위해 통역 일을 포기
현재의 삶	자기계발 컴퓨터 공부 / 평생 직업 탐색 / 임대주택 신청 / 포기할 수 없는 대학 진학의 꿈 /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 무시를 무시해 당당함 / 모국 친구보다 외국인 친구가 더 편함 / 탓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임

85년생의 연구참여자 13은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랐다. 엄마는 의사고 아빠는 군인이었다. 대학교에 다녔지만, 결혼으로 인해 중퇴했다. 엄마의 직업에서 영향을 받아 외국인에 대해 호감도가 높아 국제결혼이 꿈이었다. 같은 동네 한국으로 시집온 친구의 삶과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캄보디아에서의 종교는 불교였다. 한국 입국 후 프로그램 참여로 기독교와 천주교 등을 접하게 되었다. 남편이 사망한 소식에 쓰러진 어머니는 2011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동안 화장품 무역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 연구자와 만날 당시 동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 저는 대학교 다닌 지 1년 되고, 남편 만나서 바로 한국 시집왔어요...전 아무 데나 다 믿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거기는 불교...근데 여기 와서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뭐더라.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요...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고 어느 종교라도 다 좋은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거 믿고, 저것도 믿고...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우리 부모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키우시니까 저도 뭐, 원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우리는 엄마가 의사니까, 아버지는 군인이예요. 우리 아버지는...되게 잘 살았어요 우리는...네, 우리는 진짜 잘 사는 편이에요...네, 우리 집도 아줌마 와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해 주는 편이었어요. 그때 우리 가, 가사...네, 가정부는 오래부터 쓰는 거 아니고 엄마가 회사,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연구참여자 13은 어머니의 직업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외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국제결혼이 꿈이라 했다.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캄보디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간 사람이 많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결혼이 꿈이며 한류 드라마에 빠져 엄마 몰래 결혼 중개소에 가 소개팅을 참석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 엄마는 간호, 아니 저기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병원에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갈 때마다 제가 되게 외국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여자든 남자든 되게 매력적...네, 키도 크고, 피부 하얗고. 말투가 또 원가를 매력적.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 커서 나 외국인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다... 마음에 먹고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그때, 아, 저 미국에 가고 싶었었어요. 우리...네, 우리. 우리 저 큰 아버지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통해서 미국 남자 소개해서 갈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는 쉽게 가는 편은 아니예요. 꿈만 꿔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한국 드

라마, 한국 영화 되게 우리나라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그렇죠...그때 드라마 보고 되게 한국 사람 사는 모습하고, 뭔가 이런, 한국, 좋은 한국 드라마 나오면 좋은 장소를 찍잖아요. 예쁘다, 멋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네. 되게 그 드라마 보고 폭 빠졌어요.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연구참여자 13은 대학교 1학년 때 결혼 중개에서 소개팅을 참석했다. 전 배우자의 친구 중 국제결혼 가정이 많아 친구의 권유로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전 배우자는 베트남보다 캄보디아 여성이 더 마음에 들어 결혼 중개를 통해 캄보디아에 갔다. 연구참여자 13은 전 배우자와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여 잘생겨서 마음에 들어 한눈에 반했다.

우리 남편 여기 한국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이프가,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이렇게 베트남 여자 데리고 오면 착하다, 잘 살 것 같다고. 우리 남편은 인터넷 들어가서 베트남 여자하고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많이 찾아봤나 봐요...그래서 캄보디아 여자 되게 마음에 들었대...그래서 소개해 주는 그런 회사 통해서 우리나라 가게 된 거죠. 가서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 왔어요...아니, 엄마한테 더욱 얘기 안 했죠. 몰래 갔어요...엄마는 회사에 가서, 병원에서 일하시고. 저는 아침 오전에는 대학 갔다가,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집 와서 동생 돌봐요. 동생 밑에 돌 있는, 있어요, 돌이. 그래서 그때 시간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어떤 곳인지,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직접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가봤죠. 가 봐서 남편이...남편이 만났죠.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연구참여자 13의 결혼 통보에 캄보디아 친정 집안 난리 날 정도였다. 전 배우자와 첫눈에 맞아서 한국에 대한 기대도 커 부모님의 강렬한 반대에도 2008년에 전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만나서, 남편이 저보고 저를 좋아한다고. 저도 남편, 남편 생활, 남편 직업, 남편 가족, 남편 담배 안 핀다, 술 안 먹는다, 자기 집 있다, 이런 직업 있다, 이런 생각 있게 해줬어요. 그 때 ‘음, 괜찮은 남자네.’ 그래도 남편도 되게 잘 생겼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나도, 저도 오케이 했죠. 오케이하고 나서 동생이 엄마한테 전화한 거죠. “엄마, 언니가 남자, 한국 남자 결혼한다고 했대!” 엄마가 난리난 거죠...난리 난 거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오셔서 저한테 야단치고 “너 나이 몇 살인데. 니 맘대로 어찌구, 어째.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이 난리인데...그랬죠... “아이, 안 되겠다.

엄마 난 가야 되겠어. 나 가고 싶다” 이렇게...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엄마한테 얘기하고,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전 배우자는 잘해주는 부드러운 남자이였으나 시댁 식구와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 못했다. 전 배우자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잘 하지 않았으며 명절 때 시댁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결혼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 기관에서 한국어 등 한국 문화를 학습했다. 전 배우자는 잘 해주었으며 시댁과 연락이 없어 시댁과의 갈등도 결혼 생활 동안 별로 없었다.

학부모 그런, 그런 모임 자주 있었어요...그때는 그 부모들은 되게 잘 살아요, 저는 못 사는 거 뻔한 거 알면서도 자꾸 저한테 상처를 줘요...많은 사람 앞에서 물어보는 거. ‘남편 뭐하냐? 남편 몇 살이냐? 너는 몇 살이냐?’ 그런 뭐, 저는 진짜 거짓말 못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해요. 나는 우리 남편은 11살 차이 난다. 아, 외국인들 원래 그래. 어린 사람이 남편 나이 할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그래서 진짜 만날 때마다 너무, 너무, 너무 상처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겪어 봤는데 **이 학교의 학부모, 학부모님들은 10명 만나면은 8명 다 똑같이 무시하고, 2명밖에 없어요, 나한테. 위로해주는 사람, 2명밖에 없어. 그니까 그 10명 중에서는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생각하면은 80% 이렇게 못 사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20%는 좋은 사람이고.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저한테는...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연구참여자 13은 학부모들이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및 고정관념에서 나온 예의 없는 발화,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차별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13은 한국인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이주여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기 싫었다고 했다.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가고 싶지 않지만, 자녀가 엄마의 미참석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 차별 및 무시 당산 분위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도 꾸준히 참석했다.

연구참여자 13은 전 배우자와 함께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2010년 딸이 2살 때 간암으로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었다. 배우자의 사별 소식에 유방암에 걸린 친정엄마가 쓰러지기까지 해서 1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친정에게 쉽게 말을 하지 못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

력하는 성격이 되었다.

혼자서 힘들 때는 울고불고 했죠. 근데 힘들 때도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요, 저. 그냥 혼자서 잠만 자고...그날, 듣자마자 우리 남편. 예를 들어, 이 시간에 우리 남편 돌아가셨다,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쓰러지셨어요...그때 우리 엄마가 유방암, 그때 유방암 그때 걸, 걸리는, 그때 걸리는 시였어요. 자기도 아프고, 저도 걱정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되었고, 더 아프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도 똑같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돌아가신지 1년 됐고, 그 다음 년에 우리 엄마. 이렇게...되게....(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연구참여자 13은 전 배우자와 사별 후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 인천에서 서울로 시동생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크게 불편하여 시동생이 구청에 데려가 도움을 요청해 월세 집을 구해 딸과 함께 살았다. 배우자와 사별 후 시댁 식구들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며 캄보디아에 돌아가기를 강요했다. 결국, 전 배우자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저 그 때 남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시어머니, 시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너는 외국 며느리니까 나는 너를 못, 모, 못 믿다’ 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그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고향이, 고향, 고향에 가라, 고향에 가는 게 더 잘, 여기 사는 것보다 더 편안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그 다음 날에 남편 친구들이 와서 저보고 “지금 당장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애기 돌이켜 살다가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국적 취득한 다음에 가라.” 그래야 애기도 여기 언젠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잖아요. 애기, 이렇게 애기, 말씀하셨어. 남편 친구의 친구가...네. 그래서, ‘그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다시 생각 바꿨죠...(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전 배우자와 사별 후 처음의 2년은 연구참여자 13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고향에서 부유한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한부모가 되어서 한국에서의 삶을 창피하다고 생각했다. 남과의 소통을 거부했으며 우울증에 걸려 건강도 나빠져 쓰러지는 등으로 응급실에 3번이나 실어가기도 했었다.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응급실에 실어가는데도 아이를 데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어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인식하게 되어 건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 당시에 수급자도 됐잖아요...집에 안 나가는 거 아니고. 그때도 다문화 센터나 복지 기관이나 다녔었어요...공부하면서..그래도, 그래도 뭐 공부하고 다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늘 이야기를 좀 뭔가 들어내서 꺼내서 대화해야, 대화해야 하는데...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고향에서 잘 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개·거지처럼 살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되게 찡피(창피)해요, 저. 되게 찡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친구들 연락 안 하고. 난 그냥 혼자서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네, 충격 받아서 우울증 걸렸죠. 우울증...한 2년 동안 병원 다니다가, 응급실 실려 갔다가, 혼자서 쓰러졌다가. 2년 동안 되게 지옥..네, 지옥처럼 살았었어요 저...응, 그 2년 동안에. 되게 맨날 맨날 밤이 되면은 응급실 실려 갔어. 전 그때, 그 당시에 응급실 한 3번 실려 갔었어요...응급실 실려 가는데 애...데리고 갔죠. 무조건...새벽까지 같이 엄마 옆에 있다가 잠 못 자고, 애가. 근데 우리 애는 되게...근데 주변하고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 사람 저는 같이 주변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뭔가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었어. 계속 저 혼자만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연구참여자 13은 그동안 많은 차별 경험을 경험했으나, 이주민으로서 타문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한국민들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먼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주변에 잘 해주는 사람보다 못 해 주는 사람을 더 많아, 잘해 주는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더 깊이 감사하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 배우자를 의지한 삶에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매우 씩씩해졌고 강해졌다.

응, 마음이 넓어요. 외국인은...나는 이제 상처 너무 받아서, 이제 안 받을래...이제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이제 더 이상 힘든 거, 나한테는 힘든 거 없어요. 다, 다...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받아줄 때까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부터 바꿔서 그 사람들 다시 바꾸, 바꾸는 게...양보.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무조건 양보해야 돼. 저는 양보 엄청 잘하는 편이에요...

잘해주는 사람 별로 없고, 못 해주는 사람 많죠. 근데 봐, 잘해주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따뜻한 그런 마음을 주니까 되게 힘이 나고, 그, 뭐, 뭐라고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그렇죠. 저도 남편 없고 나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남편이 지금까지 있으면은 맨날 남편 의지하고, 남편 기대하고

살겠지? 근데 지금 남편 없으니까 나는 되게 아이 위해서 뭔가를 담당하고, 용감하고...씩씩하고, 강해지고. 그러면 나도 나한테는 좋은 점이 있긴 있네.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준비되지 않은 사별에 연구참여자 13은 혼자가 돼 기본적인 언어적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 상황을 직면했다.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파도 마음 편히 아플 수 없었다.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딸을 위해 건강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언어적 장점을 발휘하여 통·번역 일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집을 비울 동안 자녀의 돌봄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 배우자와 사별 후 2년 동안 수급자로, 그 후에는 의료 급여, 한부모 지원 등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했다.

연구참여자 13은 자기계발하기 위해 2018년에 일을 그만뒀다. 내일배움카드로 컴퓨터 공부 등을 했다. 딸과 서로 의지해 친구 같은 모·자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금은 딸(12)과 함께 살고 있어 재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주변에 딸의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울에서 벗어나 대학 진학의 꿈을 안고 무시와 차별을 무시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자신 있게 살고 있다.

3.5. 연구참여자 14: 원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

연구참여자 14는 3회 집단면담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34살의 사별 한부모이주 여성이다. 2008년에 결혼이주를 하여 2009년에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어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온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음 [표 IV-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14] 연구참여자 14의 생애 경험 요약

구분	생애 경험 요약
성장배경	베트남 출신 기독교 / 3남매 중 둘째 / 새우 꽃게 유명함 /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음 / 집안 형편 가난했음 / 대학교 중퇴
결혼 해체 경험	지인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남 첫눈에 반했음 / 3개월 후 대학 중퇴해 결혼 / 인터넷으로 연락했음 / 결혼 후 시댁 생활 2달 / 시댁 갈등이 많아 분가해 인천으로 이사감 / 2009년에 임신 8개월 때 사고로 사별 /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감 / 시댁과 재산 분쟁이 있었음
한부모 경험	주거: 화장실 없는 전셋 방 한 칸에서 반지하 월셋집으로,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경제: 사망배상금, 회사 2년, 식당 아르바이트, 수급자 / 심리: 우울에서 벗어나, 종교를 의지했음 / 자녀 양육: ADHD상담 치료, 언어치료를 함. 시설을 활용한 자녀교육 / 통역 봉사를 함 / 아플 때는 외로움 / 아들의 학습 지도할 수 없어 답답함
현재의 삶	아들(12)과 함께 삶 / 재산 상소 포기함 / 스트레스가 없어 삶을 즐 / 기관 활용 자녀 상담 치료 중 / 다시 만나게 된 모국 친구들 / 교회에서 봉사를 함 / 따고 싶은 통·번역사 자격증 / 대학 진학의 꿈

34세의 연구참여자 14는 베트남 호치민 쪽 출신이며 고향은 새우와 꽃게가 유명한 곳이다. 3남매 중의 둘째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정 생계 부담해 생계를 꾸려 아이 셋을 키웠다. 집안 형편은 가난했으나, 오빠와 남동생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오빠도 가지 못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베트남으로 신부를 찾으러 간 전 배우자와 만나 학업을 포기해 한국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입니다.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뭐 해야 될지...저는 고향에 자주 못 가긴 하는데,..형제는...부모님은 엄마만 계시고, 그리고 오빠 남동생이 고향에 계시고 있었어요. 제 고향 제일 유명한 것은 새우하고 꽃게 양식이요. 저 베트남 남쪽 호치민 쪽 살고 있었어요. 저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저 대학교 중퇴예요. 저 방학 때 집에 가니까 언니가 애 아빠를 소개해 주는 바람에...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대학교에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의 권유로 지인 언니의 소개를 통해 남편과 만나 20대 초반에 결혼하게 되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닌 착한 생김새에 첫눈에 반했다. 첫 만남 후 귀국한 남편과 3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지인 언니가 알려준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간단한 말로 애정표현을 해 연락하기도 했다. 2008년 11월에 모든 입국 절차를 밟고 결혼 이주하게 되었다. 입국 후 남편에 관한 정보가 거짓인 것을 알았음에도, 잘 해주는 남편의 세심한 관심에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우리 엄마가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대학교도 4년을 다녀야 되는데...저 오빠 원래 2명 있는데, 아래는 남동생 한 명 있어요. 딸은 저 하나예요. 오빠들은 대학교 못 보냈고, 저만 일하면서 대학교 보내 줬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저 2008년에 아는 언니가 중매해 주셨고 남편을 만나서, 몇 개월 만나다가 결혼으로 왔어요...그때는 한국말을 몰랐죠. 저는 베트남에 있고. 애 아빠는 한국에 있고. 통화는 하고 싶지만,.. 2-3달 만났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그런 말을. 또 보고 싶어요 라고. 그것만, 3-4개만 알고. (모두 큰 웃음) 언니가 알려줬어요...처음에는 무섭긴 한데...언니만 믿고...그래서 첫 만남 보니까 애 아빠도 착한 편이고, 또 이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저하고 18살 차이에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입국 후 소개받았던 정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결혼을 했

고, 전 배우자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함께 남아 살기로 했다. 결혼 초기에는 시골에서 시부모 댁에 같이 살았는데 문화 차이로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아 시댁과의 갈등이 잦아졌다. 젊은 나이에 신혼이어서 늦잠을 좋아하는 연구참여자 14는 시댁 시구와 함께 사는 동안 눈치를 무척 많이 봤다. 전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 외출하려는 연구참여자 14를 막기 위해 시부모는 손으로 잡아 때리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한 지 2달 만에 남편과 같이 집에서 나와 전셋집을 얻어 살았다.

처음에 소개했을 때는 남편은 잘 살고, 아파트 있고, 집 있고, 재산도 많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더니, 여기 시집 오니까 시골에서 살고요. 자기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거짓말 했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또 여기 왔으니까 다시 베트남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또 애 아빠는 잘 해주니까. 그거라도 믿고 같이 사는 거죠...처음에 한 3.4개월 만나고, 다음에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에 왔어요. 9월 달에 만나고, 12월 달에 제가 한국에 왔어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처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살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갖고, 그래서 집에서 나온 거예요...애 아빠가 제가 베트남에서 공부도 좀 했고, 보건소에서 일자리 시켜줬어요...그래서 애 아빠가 출근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다가, 뭐 해도 마음 안 들어요. 시골 할머니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다투하다가, 말은 안 통하지만 행동 이런 것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옷이도 다 찢었고, 가방도 바닥에 던졌고, 나가라고 하고, 저도 못 잡니다. 나가려고 했어요. 애 아빠가 따라 나왔어요...네, 그래서 따로 사는 거죠. 집을 새로 구해서...옛날 이야기를 하면 좀 안 좋은 기억이긴 한데...애 아빠가 잘해 준 거는 좋은 추억이고, 시댁에는 좋은 추억이 없거든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인천으로 이사 간 후에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된 전 배우자는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아이가 8개월 될 때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행복한 신혼 생활의 추억만 남기고 갑작스런 사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고 한국 생활도 아직 미숙한 연구참여자14는 슬픔도 잠시 아들의 출생을 맞이하여 한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아이를 출산 후 시아주버님 집에서 49일 있다가 시누를 따라 서울로 갔다. 시누가 대신 얻어준 화장실이 없는 방 한 칸짜리 집에서 2-3년 정도 살았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1-2달 정도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또 시골 사람이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서 그래서 분가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애기 아빠도 돌아가서...한국에 와서 10개월 같이 살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일하다가 사고 났어요. 시골에서 공사 같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 친구하고 동업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신혼이라서 안 좋은 기억 같은 것도 없고, 좋은 추억만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안다깝지만, 딱 정이 제일 좋을 때였어요. 애도 태어나기 직전이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구한 집은 애 아빠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방 한 칸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을 얻어줬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살다가 공팡이 생기고, 화장실 목욕탕도 없고, 그냥 주방이랑 목욕이랑 같이 있는 집이에요. 아주 옛날 집, 오래 된 집, 집 안에 화장실 없어요. 밖에 있는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는 화장실이고, 좀 그럴더라고요...애는 그때 너무 어리니까 기저귀 같은 것만 하지. 한 번 목욕하면 수돗물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와요. 2년 동안 살면서 목욕을 하려면 물을 끓여서 목욕을 해야 하고, 그런 집을 얻어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배우자가 사망한 후로 배우자의 통장을 포함한 일부의 재산과 전셋집 소재 지역의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은 모두 시댁에 들어갔다. 연구참여자 14에게 준 것은 전 배우자가 다녔던 회사에서 준 배상금 5,000만 원이 전부였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남편이 남겨준 유산 상속을 시도해 보았으나,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서울과 지방에 오가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다.

서류 신고 다 하고 나서, 남편이 일하는 회사 사장이 보상을 줬잖아요. 애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보상을 얼마 줘야 된다. 사장은 저 애도 어리고, 저도 외국인이고 그래서 보상을 한 5천 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 아빠는 보험이나 통장에 있는 재산 이런 것, 차 이런 것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 시댁에 다 나중에 나한테 준다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처음에 좀 있는데, 애 아빠...시댁이랑 뭐 재산 이런 것, 보상 이런 것 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 근데 그 뒤에는 내가 안 받겠다고 그 마음 내려놓고, 애만 잘 키우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 하는 것.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재산 분쟁으로 시댁과 관계가 악화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시누를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와의 연락을 단절했다. 재산을 포기하고 착하게 살면 복이 들어온다는 연구참여자 14의 신념에 응답해 준 듯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무척 많

았다. 사망한 남편의 동창과 동료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친절한 한국인 언니도 만나게 되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동네 한국인 언니가 연구참여자 14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집으로 후원 품을 보내주거나 직접 집으로 찾아와 가사에 육아에도 도움을 주었다.

애 아빠 돌아갔을 때 애 아빠 친구들...그 언니들도 많이 도와주고...그 다음에 근처 사는 한국 언니 있어요...그 언니는 시댁에 맛있는 것 가져오면 저한테도 나누주고, 그때 옷이나, 애 키우면서 필요한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갖다 주고 그랬어요...주변에 아는...같이...같은 또래 엄마...애 키우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 엄마들한테 걸어서 저한테...그 언니는 홈페이지에 글 같은 것 올려주시고, 컴퓨터에다가 올리고, 사연을. 그 엄마들은 찾아와서 도와주는 거예요...옷이도 없는데, 업었던 옷도 갖다 주고, 신발도 갖다 주고,...**스터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생각해주고...(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이렇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연구참여자 14는 전 배우자와의 사별 및 시댁과의 갈등에서 받은 스트레스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벗어나게 되었다. 5개월이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쯤 안정된 회사를 다니게 되어 고정 수입이 있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수입 증명으로 제출해 2015년에 한국 국적 신청을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위하여 노력했다.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한 칸 자리 집에서 나와 비교적 나은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가 7년 정도 살았다. 국적 취득 후 임대주택을 신청해 2018년에 신축빌라에 이사해 20년 정도 살 수 있어 주거 문제도 안정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때는 어린이집에 가고, 말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말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어차피 한국말을 좀 알지만, 발음이 안 좋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이도 발음이 너무 엄마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서 애 계속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내가 배우는 것만 최선 다 해서 배우고, 말하는 것도 최선 다 하는데, 그런데 애는 다 저 때문에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따른 애들보다 너무 안 좋다고 그래요...언어 상담 선생님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속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자기는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부족하겠지,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한부모로서의 삶이 매우 바쁘고 힘든데도 아이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바쁜 일상에 아이 양육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 아이가 언어문제 및 ADHD 증상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엄마인 연구참여자 14의 부정확한 발음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회복지사의 말에 매우 충격적이고 깊이 자책하고 반성을 했다. 그 후 모든 일을 그만둬 수급자로 아이의 양육에만 집념했다. **스터디에서 아이의 상담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다. 향후 20년 정도 살 수 있는 안정된 주거 환경이 확보된 연구참여자 14는 한부모이주여성으로 사춘기 자녀 교육의 어려움, 아이가 집이 가난해서 싫어하는 등의 자녀 양육 고민을 하지만, 주변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감동적 경험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고 있다.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을 탐색하다 가이드와 통·번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하여, 사이버 대학 진학의 꿈을 안고 있다. 다문화 센터 및 한부모 모임에서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통역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14명의 연구참여자의 성장배경, 결혼 및 해체 경험, 가정해체 후의 한부모로서의 경험 및 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생애 경험을 기술적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 살아온 삶과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1차 직접적 경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성장배경 및 이주 경로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13 및 연구참여자 14처럼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언급한 결혼 중개나 지인 소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구참여자 1과 연구참여자 11처럼 근로 이주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경우도 있다. 연구참여자 3과 연구참여자 6처럼 저학력자가 있는가 하면, 연구참여자 5와 연구참여자 8처럼 대학교나 대학원 학력을 보유한 고학력자도 있다. 연구참여자 7과 연구참여자 14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 출신도 있지만, 연구참여자 12와 연구참여자 13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단 하나, 본국에서 알려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부터 생긴 한국인에 대한 믿음과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로 결국 앞날에 대해 불안하면서도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꿈과 기대는 현실에서 깨지게 된다. 결혼 및 해체 경험에서 4명의 자지주도형 연구참여자들처럼 결혼 생활에서 가족 갈등 및 부부 갈등으로 인해 오래 고민 끝에 이혼 의사를 갖고 주도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거나, 6명의 가정 폭력 등으로 기관에 신고 후 공적 기관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벗어나거나, 연구참여자 10과 연구참여자 11처럼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을 당하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3, 연구참여자 14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맞이해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어 결국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한부모가 되고 싶어 결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주여성들은 또한 그러하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주여성들은 또한 그러하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의 이혼 한부모이주여성의 경우,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그들의 생애 경험 이야기를 통해 주로 거짓 정보에서 오는 실망, 돌변한 남편의 본 모습, 가정 폭력 및 가정에서 느낀 소외감과 시댁 식

구의 무시적인 태도 등이 주된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주도형이든 기관의지형이든, 고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므로, 한 부모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본국에서의 삶, 결혼과 이주, 가정의 해체, 한부모로서의 삶 등의 여러 번의 생활 환경 변화를 경험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생활 속의 문화 차이, 성격 차이, 가정의 불화와 불신, 드러난 기대와 다른 배우자의 본 모습으로 인하여 남보다 더 많은 신체적·심리적 문제 상황 및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남다른 삶의 변화 과정에 적응해 나가면서 남다른 변화와 깨달음도 얻게 돼 남다른 성장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혼과 사별 등의 가정해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연구참여자 4와 연구참여자 7처럼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연구참여자 1과 연구참여자 2처럼 극단적 선택하거나 죽음만큼 힘들어 우울에 깊이 빠지게 될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3과 연구참여자 14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한 초기의 막막함과 함께 신체적 변화를 경험했으며 우울에 빠진 경험이 있었다. 이에 비해, 한부모가 된 후의 경험에는 안정된 환경과 규칙적인 일과에 신체적인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미움과 한과 미련과 기대를 버리고, 충격과 미망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정서적 변화와 성숙해진 모습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삶을 살펴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하여 자기개발 포기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과 평생 직업을 탐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 올해 8번째 자격증을 도전 중이며, 연구참여자 3의 경우 가정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거의 쉴 날이 없이 3잡을 지속해 왔다. 연구참여자 2와 연구참여자 8처럼 외국인주민대표나 명예 동장으로 이주민의 생활 및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을 참여하는 자도 있다. 면담 과정 중 한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많고 적은 봉사활동을 통해 받았던 도움과 지원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의 생애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주도형의 연구참여자 중 첫 번째 공통적 특징으로 언어소통에 어려

움을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4명 중 3명은 조선족 출신 이주여성이며, 이 중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 외 한 명은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며 한국어 구사 능력 또한 고급에 속할 정도였다. 이에 비해,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의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둘째, 자기주도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입국 전에 사회 경험이나 경제 활동 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교사와 무역회사 통·번역 경력이 있었고, 연구참여자 2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근무 10년 및 무역회사 근무 10의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 3은 2000년부터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고향에 부동산 6채를 투자했고, 연구참여자 4는 대학교 졸업 후 보험설계사, 마케팅, 매니저 등으로 5년 가까이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나,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4명의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 모두 결혼 후에도 사회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결혼 후에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했고, 연구참여자 2는 식당을 운영해 가정의 생계를 주로 부담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3은 결혼 전에 부동산 투자까지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연구참여자 4 또한 영어 강사로 사회참여를 지속해 왔다.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의 경우 결혼 후에 가정의 경제는 남편이 주로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결혼 생활 기간을 볼 때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의 경우 7년에서 13년까지의 결혼 기간을 유지했고,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의 경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5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트레스, 우울은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한부모되기 전의 결혼 생활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고, 한부모가 된 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됐지만,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에 우울에 빠진 경우가 많다. 이중에서도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이주여성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상실을 맞이하게 되어 한부모가 된 후에 인간관계의 단절, 슬픔, 당황, 후회와 좌절 등으로 우울에 빠지게 돼, 심리적인 준비가 다소 있는 자기주도형 이혼 한부모이주여성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결혼부터 가정해체를 경험해 한부모가 된 후의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때,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갈등-우울-고민-결심-이혼-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했고, 기관의지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위기-탈출-고민-결심-이혼-우울-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비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사별/이혼-당황/분노-우울-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연구 과정 중,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의 불화 및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내용을 연구참여자 10이나 연구참여자 12의 생애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동훈·이계승(2011)에서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10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음 전 배우자의 연애사 및 결혼 후의 여자 관계의 지속을 알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12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생활 속의 간섭을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뒤에 그것은 가부장적인 남자의 특징임을 알게 되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으면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갈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오히려 가족 불화 및 부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외에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자기주도형의 4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가족 상실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연구참여자 2는 부모님은 모두 50대 초반에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연구참여자 3은 태어난 지 3개월 때 아버지와의 이별을 맞이했고, 연구참여자 4는 언니와 남동생을 잃은 경험이 있다. 이는 비주도형의 배우자와 사별을 한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3, 연구참여자 14의 경험과 유사한 가족 상실의 경험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무엇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길고 짧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실경험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상실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박광민, 2005). 이는 그들의 추후의 이혼을 선택하고 한부모로서의 삶의 결정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별로 생애 경험을 기술적 내러티브한 결과,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속에 문제 상황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직면한 문제 상황과 변화된 삶과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도 찾아볼 수 있었

다.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에서 가정 폭력, 자녀양육, 경제, 진로, 질병, 우울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 상황을 한부모가 되기 전이나 후에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면담 당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 및 성장도 동반되었다는 것이다. 문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죽음을 맞이한 후에 희망을 안고 살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2는 시댁 및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 감정에서 벗어나 용서하고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기대했던 사랑 및 남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더욱 자신있고 떳떳한 삶을 살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4는 결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자아를 되찾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5는 시댁과의 갈등 및 전 배우자와의 잦은 싸움에서 벗어나 사회생활 및 자기계발을 틈틈이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구참여자 6은 남은 미련을 다 버리고 씩씩해져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기로 결심했다. 연구참여자 7은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나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8은 가정 폭력의 두려움이 더이상 없어져 열정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 연구참여자 9는 사람에 대한 실망보다 안 좋은 추억을 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10은 행복하지 못한 한을 같은 이주여성과 공감하고 조언자가 되었고 상담자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1은 첫사랑인 전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차분한 심리 상태로 과거 경험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12는 전 배우자와의 갑작스러운 사별로 슬픔에 빠지다가 평화로움을 되찾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3은 깊은 우울에서 벗어나 자신 있게 살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14는 사별한 전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살고 있다. 이처럼,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이주여성의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한부모의 삶을 당당하게 직면하고, 스스로 문제 상황을 대처하고 성장할 만큼 용기 있고 독립적인 성향이 그들의 생애 경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정해체하고 한부모가 된 경험이 결코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한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아직 많이 다루지 못한 부분이며, 기존연구들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다.

V. 한부모이주여성 성장 변화 경험의 의미

이혼도 사별도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주여성들 또한 그러하다. 앞에 IV장에서 연구참여자와 별 생애 경험에 대한 기술적 내러티브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된 전과 후, 가정 문제, 부부 문제, 폭력 문제,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심리적 문제 신체적 문제 등의 문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에서 꿈을 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상에 모든 일은 양면성이 존재하는 법이다. 이주여성들은 이주 및 결혼을 해, 주도적이던 비주도적이던 가정이 해체되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된 후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이후의 경험을 앞에 [표 III-06]의 자료 분석 절차에 의거하여 한부모이주여성 성장 경험의 의미를 코딩하여 범주화한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 신체적 측면, 지역사회 참여 측면, 미래준비 측면의 5가지 주요 영역에서 성장 및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경제적 측면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돼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기 과정 중 겪을 경제적 문제 상황은 기존연구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가정해체 전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되어 기존연구와 대조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들의 경제적인 변화는 주로 ‘되찾은 경제적 주도권’ 및 ‘부채 및 빈곤에서 벗어난 삶’에서 나타났다.

1.1. 경제적 측면 성장 변화

1.1.1. 되찾은 경제적 주도권

이주여성들이 마치고 돈 때문에 결혼했고, 친정을 돕기 위해 결혼한 것처럼 고 정해버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한주리, 김인영, 2012; 안윤지, 2016). 또한, 국제결혼이 시작한 초장기에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제도 미비로 가정 폭력이나 가족 갈등으로 가출한 일부 이주여성의 사례도 발생했었다. 이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불신이 커 결혼 후 이주여성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김태원, 2014) 경제 수입은 배우자인 이주여성에게 알려 지 않고 시어머가 경제적 독점(이영애, 2012)하는 경우가 많다.

소주...소수...병 있잖아요. 막 지나가는...거기 버리는 것. 신문지. 그거 주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 하니까 술병, 신문지, 박스...너무 창피했어요...내가 2001년부터 시다 일했어요. 미싱...봉제 공장에서 다녔어요...한 2001년에 시작해 가지고 그때는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번 월급은 자기가 다 가져갔고, 나 한 달 용돈은 5만 원만 주고... 남편이...내 통장에도, 통장도 카드도 남편이 다 가져갔고...근데 내가 센터 있을 때는...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랑 살아야 되니까...센터에 있어 뭐 청소하는 것,...그래가지고 하면서 돈 벌었어요. 나가서 뭐 일하고 그렇게 부탁해가지고...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딸이는 고등학생이니까 화장품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뭐 용돈도 달라고 하고...다 내가 돈 벌어야 살아 나가야 되니까.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지금도 솔직히... 나 하루에 이렇게 일을 하면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자가 40을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그래도...나는 내가...너무 심각해서 못 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가급적으로 또 이렇게 막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랬다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내가 숨을 막혔단 말이에요. 참고 살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아니었던 가야. 왜냐면, 남자, 남편 바라기는...뭐든 남자...남편...무조건 내가 결정 짓고,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은 데, 신랑한테 나 용돈 좀 줘 그런 것 너무 치사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것 싫고 그냥 내가 혼자서 벌어서 이렇게 쓰는 자체가 편하고. (연구차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내가 벌어들인 돈이 내가 쓰면 되니까...이제...한국에 와서 원래는...누구는...애기 있을 때부터 누군가 돈이...받아서 조금...쓰는 거는 그렇게 안 해서...내가 문제 인지했고 돈을 벌어서 편하게 쓰는 스타일인데...한국에 와서 남편 주는 거는 시엄마가 싫은 거야. 싫어나 봐. 그래서 그때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뭐뭐 필요했었는데. 돈 달라고 하면 또 싸울 가 봐. 또...돈이 왜 그렇게 많이 쓰나... 또 그런 말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벌어들인 돈은 어디에서 쓰고, 또 생각해서 어...뻑 쓰는 것보다...못해 주는 것도 생각하고... 또 어디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옛날보다는 어...편해졌죠. 편해졌어.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한부모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해체와 동시에,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게 된다. 제시한 연구참여자 7의 경우, 20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 입주 초기에 시어머니와 함께 소주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생계를 꾸렸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해 보지 못한 경험이어서 매우 부끄러웠다. 1년 후 미성 공장을 다니기 시작해 6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있었지만, 통장은 전 배우자가 관리했다. 연구참여자 7에게 돌아온 것은 한 달에 용돈 5만 원에 불과했다. 13년 동안 거의 쉬지 못한 채 일을 했지만, 가정 폭력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딸과 함께 가출을 선택한 당시 연구참여자 7의 손에는 돈 일천 없었다. 이에 비해, 한부모가 된 후에 자녀 양육 및 가정 생계는 혼자 부담해야 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들어간 시설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 한동안 돈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딸에게 용돈을 주고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사주는 등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게 되어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현상은 다른 연구참여자 3의 생애 경험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의 경우 20대 초반에 산업연수생으로 근로 이주해 고향에 부동

산 6채를 투자할 만큼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 그동안 생활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매우 독립적으로 살았다. 아들의 한국 체류 문제를 해결 수단으로 전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 후 독립적인 존재에서 생활비를 얻어 사는 가정의 부속적인 존재가 되어 남에게 손을 벌리는 삶이 매우 치사하고 불편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사는 동안 전 배우자가 사업의 실패로 진 빚도 일부 부담했다. 한부모가 된 후에 투자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 한국에서 자택을 구입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다니며, 네일아트 및 속눈썹 연장 등의 아르바이트와 함께 3가지 일을 겸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무척 편해졌다는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한동안 기대했지만,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는 주도적인 삶이 더욱 자신있고 떳떳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는 연구참여자 5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다. 결혼 생활 과정 중, 가정의 경제 관리는 시어머니가 다 했다.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려고 해 돈을 달라고 하면 항상 싸움으로 이어져 가족 갈등 및 부부갈등도 깊어졌다. 한부모가 된 이후,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게 돼 돈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1.1.2. 부채 및 빈곤에서 벗어난 삶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이주여성이 가정해체를 경험하여 한부모가 된 후에 열악한 상태에 생계부담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실은 경제적 문제는 앞에 [그림 II-17]에서 제시한 듯이 한부모가 된 이후에만 겪을 문제 상황이 아닌, 국제결혼 가정 이혼 별거 사유 및 의사 결정 영향 요인 중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해체를 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을 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 5가 한부모가 된 후의 생애 경험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다가도... 뭐가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상의를 하고, 빗을 짓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다 했갖고, 다 망까까지 만 나한테 와요...접고, 또 벌렸다가 또 망하고 또 접고...그래서 망하면 또 빚덩이 액이 생길 걸, 또 같이 벌

어서 그걸 겨우 갚고 나면 또 일을 하나 저질러버려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돈은 이만큼만 벌어도 그게 갚고 내가 알아서 잘 쓰면 되니까... 또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 안 해도 돼.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자기가 번 것은 자기가 다 쓰고, 내가 번 것은 이제 살림하고, 나도 충족하니까, 나도 어느 정도 벌어가니까, 자기는 이제 그것 하는 거야. 자기가 번 것 다 쓰고 이제 뭐 노름하는 거야. 노름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하는 것 다해, 그런 것 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다 하니까, 자기 돈을 다 쓰다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대출하고, 친구한테 가서 빌리고, 친구가 안 빌려주면 또 대출하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그 전에는 일이 없으니까 알바가 거의, 거의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일이 안 들어오면 엄청 불안하고. 아 어떻게 해. 이렇게 한 달동안 일이 없으면 또 우리 한달동안 어떻게 살지? 싶어서 잠까지 안 오고. 근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수급자비가 100만원이 들어와요. 105만원... 그래서 들어오니까 아 이제 그런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 물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걸 알고 있지만 너무 편해졌다는 얘기에요.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 그리고 지금 저는 수급자예요. 시설에서 살고 있어요. 모자원... 여기 3년 살았어요. 지금 4년 째 있는 거예요... 나가면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가 더 이상 안 돼요. 내가 200만원 벌고, 수급자 40만원 50만 원 지원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나중에... 돈 좀 모아서, 모아서 나중에 작은 가게, 식당, 뭐 칼국수, 만두집 같은 음식점 하나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1은 결혼 초기에 전 배우자가 중국에 투자했던 사업이 망한 상태이며 빚도 있었다. 결혼 후에는 상의 없는 빈번한 사업 투자의 실패로 부채에 쫓돌리게 되었다. 결혼 전·후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 경험이 많아, 언어적 장점을 활용해 한부모가 된 후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 과정 중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채무에서 벗어난 지금의 삶이 더 편하고 하였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이후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아이를 낳기 전까지 식당을 운영해 집안 살림을 했다. 아이를 낳고 가게를 접은 후 전 배우자가 가정의 경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다 쓰고, 도박에 빠져 대출하고 친구한테

빌려 쓰기도 했다. 가족 생계유지 및 그동안 진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감에 부부갈등이 심해졌다. 이혼 후 한부모가 되어,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진 만큼 생활비 지출이 줄어들어,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삶이 매우 편해졌다. 가정해체 전보다 경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임신했을 때 가정해체를 경험해 한부모가 되었다. 한부모가 되기 전에는 의사소통 불가, 가정의 불화, 부부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사회 경험 및 경제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그 경험 이후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여 진정한 자립을 했다. 한부모가 된 이후, 모자원에서 살게 되어, 연구참여자 9처럼 수급자를 신청해 한부모 지원을 받으며 식당에서 일했다. 생활비를 아껴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 자립을 위한 비용을 마련해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취업난 문제와 함께 자녀 양육 및 가정 생계유지 등으로 경제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의 연구참여자 11처럼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의 한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에 와서 가르쳐 줘요. 그거는 *****라고, **지원센터. 한부모...거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그래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거를 지원, 뭐를 하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본인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다 달라요. 만약에 이, 이 학원, 학원 아니고 이런 거 뭐 배우려면 무료로 낼 수 있고 다른 거는 얼마 부담 있을 수 있고. 그냥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 때는 미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지원했더니 한 달에 만 원? 응. 한 달에 만 원...집에 와서 가르쳐 주니까 더 좋아요. 부담도 안 되고..그니까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부천에, 부천에서, 부천에서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아, **에서 여기 자료 있으니까 그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주고 그쪽에서...제가 가 본 적도 없어요.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자녀 교육비 지원이 힘든 가정은 공·사적 지원 체계 외에 시설과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한 편에서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녀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이다.

1.2. 경제적 성장 변화의 의미

이처럼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후 경제적 문제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되찾은 경제적 주도권’과 ‘빈곤 및 채무에서 벗어난 삶’과 더불어,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교육’ 등의 생애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성장 변화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이 문제 및 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을 때 더 이상 삶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고한다. 또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감과 마음의 안정감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성장 변화에서의 작용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사회적 지지에서 비롯된다. 김주섭(2020)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나 취업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이다. Cohen & Syme은 사회적 지지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으로 정의하였고(김미령, 2005), 김선정·윤유식(2019)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순현(2020)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이주자의 적응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Meadows, Kaslow, Thompson & Jurkovic, 2005; Sherraden & Martin, 1994). 가족, 친구와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지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청에서 나라에서도 우리 애들 수업비 뭐 모든 혜택이 선청이 되잖아요. 눈물 나. 왜냐면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그런 것 있을 까. 아마 없을 거야. 만약에 내가 국적이 아니면...내가 제일 마음 아픈(감동한) 거는 주민센터에서 어떤 사람 몰라요. 어떤 젊은 남자가 그랬는데, 계속 ...이 이름으로 한달에 10만원 씩 줘요. 그걸로 병원비도 쓰고, 아니면 생활비 없어서 먹을 것도 사고 그렇게 해요. 누군지 몰라요. 안 알려줘요.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거기서 뭐 하고 있나, 뭐 사주거나, 뭐 필요한 것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것 그거들을 적어서 보내요. 그래서 나도 가끔 넉넉하게 됐을 때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도...아니면 뭐 줄 것 없으면 말이라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

요.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일단 제가, 저도 사실은 전에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이혼하고 나서 다 혼자, 모든 거를 혼자 한부모 자격에 대한 것 이런 거를 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이 잘 안되니까 그 4년 전부터 저도 알게 돼서 한부모 자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아 올해죠, 올해. 올해 봄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7개월 동안 일을 하나도 못하잖아요...그래서 그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되고, 그거 신청해서 신청하고 공부를 했었어요...한부모에 대한 거는 그거는 친구한테서 알게 되었고. 근데 수급 그것도 아마 친구, 어떻게 이제 알게 되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네, 친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사실은 한부모라는 것을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한 번 간 적도.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헤어진 다음에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처음에. 나 지금은 혼자 살고, 또는 내가 일해야 돼. 그 때는 한국말 잘하지 않아서 무슨 일 해야 되지? 또는, 많이 걱정했어요...처음에 혼자 찾았어요. 혼자 찾았고, 그 다음에 친구 소개해 주고...그룹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룹 많이 가입했어요. 서로,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고...(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아무래도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친정엄마입니다. 연세가 90세 넘어도 현재도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버는 돈만으로 라면 조금 불안한데 비상금으로 뭔가 일이 있으면 엄마가 돈을 보냈어요. 생일이다, 축하금이다 뭐뭐뭐. 보통 그 연세라면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려야 하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그런 좀 돈이 여유 있어서. 그래서 정신적인 도움보다 경제적인,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감사하고, 물론 그 어머니를 돌봐 주는 동생들도 감사합니다.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월급이 좀 적어요. 월급 적고, 그리고 뭐. 그거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거기는 고용 센터에서. 고용 센터...네. 취업, 취업, 취업...가서 상담을 받고 나서...그래서 거기는 찾아주더라고요...네,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하고 구청 처음에는 담, 담당하신 선생님 계세요. 그 선생님 알려주셨거든요. 거기 가서 뭔가를 배우고 뭐 물어보고 이런 필요하니까...네, 담당자 선생님이 알려 주셨어요.(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몰랐어요. 전에 엄마 여기 왔을 때는 F1 연장했을 때는 그냥 1년 2년만 연장 했어요. 4년 10개월 끝나면은 또 다시...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에는 3년 정도 와다 가다 했어요. 몇 개월 와다가 가고, 또 와다가 가고, 이렇게 와다 가다했어요. 오래 안 해

요. 그냥 3개월...또 가고, 5개월 있다가 또 가고...동생 있어요. 아빠도 있고, 아빠는 그냥 집에 있어요. 퇴직했어요. 나이 많아요. 옛전에 군인 하는 것. 지금 퇴직했어요. 엄마는 그냥 주부.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가정 단위에서 벗어나 한부모가 된 초기에 연구참여자들이 불안정한 수입 및 주거 환경에 곁에 가족이 없어 혼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주여성들이 가정해체를 경험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되찾았다. 이와 동시에 불안정한 경제 활동에서 오는 불안 및 자신감 부족도 수반된다. 이 시기에는 국가적 측면의 지원, 공·사적 기관의 도움, 타인의 관심 및 가족의 지원 등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경제적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한부모가 이후, 공적 기관의 활동도는 가정해체 전보다 잦아졌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적 기관으로 동사무소와 구청이 있다. 연구참여자 13은 한부모가 된 후에 동사무소에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해 도움을 요청했다. 한부모 자격을 취득해 수급자를 신청해 한부모 지원금을 받아 구청에서 자활근로를 했다. 공적 지원 외에 해당 기관 실무자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5는 구청에서 국가적 차원의 자녀 교육을 받았다.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해당 지역주민센터 실무자가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해 주었다.

공적 지원 외에 타인의 관심이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서의 역할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가 된 이후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참여자 9는 한부모가 된 초기에는 친구들로부터 한부모 지원 관련 정보를 획득해 수급자 지원을 신청했다. 연구참여자 8은 한부모가 된 후에 한국어를 잘 하지 못 해서 경제 활동 어려움이 많아 자신도 없었다. 모국인들의 네트워크에서 취업 정보를 획득해 친구의 소개 등을 통해 군복 회사에 들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친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연구참여자도 있다. 연구참여자 12의 경우 친정 어머님이 90세를 넘었는데도, 필요만 한다면 연구참여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톡톡이 해 주었다. 연구참여자 14의 경우, 고향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 있는 딸이 모두 걱정되어, 연구참여자 14가 한부모가 된 후부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오가는 삶을 몇 년 지속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침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 상황을 대처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인식하게 된 다음부터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경험과 변화로 연구 참여자 9도 있다.

이거 지금 저도 이렇게 이런 도움을 받기 시작하니까 엄청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부작용도 많아요, 사실은...어, 맞아요. 너무 릴렉스 되는 것 같아요. 뭐 안해도 돈이 들어오니깐...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해야되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이렇게 수급자도 신청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큰 도움이지만 받는 이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릴렉스되는 그런 거는 또 안 좋은 점이에요, 사실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열심히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제가 아들이 15개월때부터 또 일 나가가고, 애기 낳기 4월전까지 일하고 그리고 애기 낳아서 15개월 될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일 나가고, 또 둘째도 일주일 전까지 일했어요. 애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하고. 또 애기 낳고 한 한 살도 안 됐을 때부터 또 할 수 없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돈 안 주고 먹을 것 안 사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아랑 제가 하는 거는 제 돈으로 다 했죠...(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초기에 직면한 생활적 경제적 문제들이,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9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수급자 신청을 해 생활적으로 보장을 획득하였다. 주거의 문제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돼 안정된 주거환경까지 확보되었다. 안정된 삶 덕분에 참여참여자 9는 한부모가 되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자녀와의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동시에 일부의 부작용도 초래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노력할 동기와 목표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원받는 삶에 익숙해져 릴렉스되어 원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연구참여자 9도 스스로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 면담했을 때 자기개발 목표를 세워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10 또한 면담 과정 중 ‘누가 해주겠어. 스스로, 나 혼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됨과 동시에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게 돼, 공·사적 지원 체계의 활용, 이웃의 도움, 친구의 관심, 친정의 경제적 지원 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채 및 빈곤에서 벗어나, 엄마로의 책임 및 개인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해 경제적인 긍정적 변화를 성취하게 된 것이다.

2. 심리적 측면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외로움, 무력감과 타격,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방황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결혼으로 인한 이민 여성의 정신건강 상의 위기, 불안과 우울은 삶의 무력감과 의미상실을 동반하여 극단적 선택인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보도된 대중매체 기사를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결혼 이민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강윤경, 2013). 극심한 우울 및 스트레스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뉴스에서 보도한 자살 시도를 포함한 결혼이주여성의 극단적 선택 사례는 앞에 제시한 [표 II-2]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극단적 선택 이후 심리적 측면이 더 강해졌고, 많은 긍정적인 성장 및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심리적 측면 성장 변화

2.1.1.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적게는 8년, 많게는 25년 정도로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 생활 기반은 모두 한국에 있고, 고향보다 한국 생활 및 환경에 더 익숙해졌다. 이에 고향에 돌아갈 때 재적응을 해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이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국 국적 및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이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교육 제도와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된 후에 본국에 돌아가기보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할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이 오랜 생활 끝에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 및 동화되어, 한국에서의 삶이 더 편해져, 스스로 한국에서 한국 국적 아이를 키우는 ‘한국인’으로 생각한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7년 됐어. 한국에서 외국 안 가는 것. 2013년 갔다 와서. 근데 그 동안 내가 한국에서 이혼했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보다 한국이 더 도와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한국은 집까지 해 주고...밥도 해주고, 애들도 키우고 있고...나 가

기 싫어 우즈베키스탄 솔직히...이제는 여기 편하게 됐어. 옛날에 여기 익숙 안 했어. 자꾸 집에 갈라고 생각했는데. 집에도 가서 살아봤어.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결혼 했으니까, 남자 집에 가야 지...그쪽에 살든, 밖에서 살든...불편해 이제...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해줘. 지원 안 해줘. 애들 안 키워줘...또 엄마가 한국 국적이라고 하면 애들도 좋아하잖아...약간...가끔씩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일본 갔다 왔어요. 16년. 6월달 갔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집 안에만 있었어요. 우리 엄마하고...거기 알바 같은 것 했어요. 엄마가 하우스에서 하는 것. 하우스에서 일했는데, 박스에다가 담았는데, 10개씩 10개씩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무줄로 묶었 가지고. 그것 했어요. 알바. 근데 그것 너무 힘들어요. 돈도 조금 줘요. 눈도 아파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우리 엄마가 시골에 있어요. 이것 없어요. 보일러. 나 지금 여기 한국이 엄청(편해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계속 제가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생긴 건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 난 지금 한국이다. 뭐 다른 친구들처럼 뭐 러시아 티비도 보고, 러시아 음식도 만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한국...그냥 아마도 성격 상 이런 것 같아요...원래 제 친구들도 어떻게 년 러시아사람인데 왜 한국 책을 자꾸 읽냐고. 제가 어제 친구랑, 애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서점에 들러서 책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샀어요. 거기 알라딘 중고책인데 안 비싸요. 그래서 친구가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뭐하러 한국말로 봐? 러시아어로 쉽게 보면 되는데? 근데 저는 글썸, 이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지. 저는 러시아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저는 러시아는 뭔가 저한테 외국 같고,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말만 들으니까, 책도 당연히 한국말로 읽어야 되니까, 저는 그냥 한국말이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근데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그래서 교육 쪽으로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앞서가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좋잖아요. 교육이...그래서 또 한국에는 이렇게 지원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또 거기 가면 교육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국에서 공부 해야 되고, 한국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또 아이들은 한국인이고...그래서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고 또 저는 우즈베키스탄 기온보다 한국 기온이 좋아요. 날씨가...몸에 뭐 아토피 있고, 알레르기 있고, 뭐 기관지 안 좋는데 한국이 오면 몸이 좋고, 우즈베키스탄 가면 몸이 아파요...원래 얘기때부터. 그래서 쉽게 아프고 했는데 한국 오면 괜찮아요. 살도 찌고, 밥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한국이 저한테 맞아요. 그리고 애들도 여기 친구도 있고. (연구참여자 10, 개인 전화인터뷰, 2020년 9월 6일, 일)

연구참여자 5는 결혼 이주하고 지난 10년 동안 고향 방문이 단 한 번 뿐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인 고향에 귀환하는 것보다 연구참여자 10처럼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익숙해졌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문화의 영향으로 이혼 후 친정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매우 불편해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적 측면에서도 고향보다 한국에서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국적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자녀 양육에서 불안감을 덜 수 있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언니도 국제결혼을 해 일본에서 살고 있다. 친정엄마도 언니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은 한부모가 된 후의 2016년에 가족이 있는 일본행도 고민해 보았지만, 몇 달 만에 포기를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그 이유도 한국에서의 삶이 더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 했다.

연구참여자 9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국 음식에 더 관심이 많고, 한국어로 된 책,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 등을 즐겨봤다.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과 같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 한국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야 간다고 했다. 이제는 고향인 러시아가 외국 같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0은 한국에서의 교육 제도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고향보다 좋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날씨 및 환경에 적응이 다 돼 고향에 들어가면 아프고, 한국에 오면 괜찮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적게는 8년, 많게는 25년 정도로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 생활 기반은 모두 한국에 있고, 고향보다 한국 생활 및 환경에 더 익숙해졌다. 이에 고향에 돌아갈 때 재적응을 해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이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국 국적 및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이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와 더불어, 교육 제도와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된 후에 본국에 돌아가기보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할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이 연구참여자 10처럼 오랜 생활 끝에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 및 동화되어, 한국에서의 삶이 더 편해져, 한국에서 한국 국적 아이를 키우는 ‘한국인’으로서 생각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했다.

2.1.2.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

이혼이든 사별이든 가정의 해체는 결국 인간에게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역경을 겪은 후 트라우마와 동반한 긍정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와 같은 듀이가 말한 ‘불쾌한 경험’들이 또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은 불행을 겪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이탈리아의 철학자 Pietro Verii(1728-779)가 남긴 말이다. ‘큰 슬픔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흥겨운 삼바춤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브라질의 음악가이자 시인인 Vinicius de Moraes(1913-1980)의 좌우명이다. 이 말들은 모두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난 현재, 한부모가 된 후의 긍정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원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양육비는) 제가 포기했어요. 중간에서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제가 신청했지만, 양육비. 행(법)원...그쪽에서. 근데 자꾸 그럼 자기도 아이를 만날 거다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생각날, 문자 주는 거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스트레스야...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차라리 양육비를 포기하는 게 나아. 해서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옛전에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강해지고 이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화장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녀요. 그냥...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강해지는 것보다 탄탄해진 것 같은... 근데 옛전에 제가 왜 러시아에 안 간 건지. 또 이혼하고 아예 안 갔다가...마음 준비가 안 됐어. 마음 준비가 안 돼서 부끄러웠어요. 이혼했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말도 안 하고. 누구하고도..어디도 가서 나 한부모다 이런 것 안 하고 남편이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글데 지금 나 어디에 가도 나 한부모 가정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이혼하면 뭐.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막 그렇게 다들 그래요. 재혼하라고 아직 젊으니까. 그런 식으로...(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갑자기...저는 아예 마음 준비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마음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입원하고 나서 그다음 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하늘 무너지는 것처럼 막...괜찮아요. 지나던, 지난, 지난 일. 다 지나었어요. 네, 괜찮아요...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우리 부모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키우시

니까 저도 뭐, 원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예, 저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안 되겠다고, 집에서만 있으면 더 외롭고, 또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저 애기 낳았을 때 우울증 걸렸어요. 나중에는 뭐 집에서 그냥...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다고, 너무 잘 나간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더 아래 있는 사람,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지금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런 것만 생각해왔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은 한부모 가정이라서 다문화가정이잖아요. 서로 만나고 교체하고, 좋은 정보하고, 힘든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 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면, 또 이 사람이 좋은 말씀이 하나 이야기 해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집에 있으면 안 좋은 것만 자주 생각해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 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연구참여자 9를 제외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한부모가 되기 전·후 우울과 스트레스 경험이 있었다고 했고, 단 스트레스와 우울을 느끼는 시기의 차이일 뿐이었다. 자기주도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되기 전에 스트레스 및 우울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한부모가 된 후에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14는 배우자의 사고로 사별하게 되어 결혼 생활 10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사고 한 달 후 그는 혼자서 아이의 출산을 맞이했다. 한부모가 된 초기에는 슬픔과 양육 무력감에 빠져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다. 외롭고 좋지 않은 것만 생각하다가 연구참여자 8과 같이 깊은 우울에 잠기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같은 한부모이주여성들과의 만남부터라 하였다. 거기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자신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돼 본인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문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스러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9는 한부모가 된 후 양육비 등으로 전 배우자와 지속적인 연락에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가 많다. 간헐적인 양육비의 지급과 양육비 지급 후의

조건 등이 한부모이주여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양육비 같은 경제적인 지원보다 양육비를 포기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정서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편이다.

연구참여자 13은 아무런 마음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사별을 맞이하게 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11 또한 이혼할 마음이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기 쉽고, 이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당한 쪽이 슬픔 외에도 쇼크, 혼돈, 분노와 원망, 한 등의 더 많은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 된 연구참여자들이 가정해체를 경험한 초기에는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생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동안의 침체를 겪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면담 당시 ‘괜찮아요, 다 지났어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변화가 매우 컸다는 것이다.

2.1.3. 죽음을 맞이한 뒤 탄탄해진 마음

이혼이든 사별이든 가정의 해체는 결국 인간에게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역경 사건을 겪은 후 트라우마와 동반한 긍정적인 변화에 관형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난 현재, 한부모가 된 후 더욱 강해졌다는 긍정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원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과정중, 이주여성들은 가정해체 전에 가정 폭력, 심각한 스트레스 및 질병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배우자나 친정 가족과의 사별 등의 죽음을 맞이한 경험은 절반 정도 있었다. 이와 같은 남다른 경험에서 결국 남다른 성장 및 변화가 일어나게 심리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탄탄해졌다는 결과를 발견됐다.

와서부터 이혼을 생각했었는데, 애기들 때문에 끈을 잡고 살라고 엄청 노력했어요. 애기가 있으니까, 빗을 갖고도 애한테 완전한 가정을 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애들은 애들대로 커 가는데, 사림이 나아진 것이 없고, 아빠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자상한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힘들면 1달 2달씩 어디 시골에 갔갖고. 가족하고 또 연락도 똑 끊고 살아요. 난 어떻게 살아요. 어

헤헤헤... 그래서 이런 책임 없는 사람하고 살면 애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잖고 죽으려고 했어요...죽고 싶어도 안 죽더라고요. 저도 해 봤는데...사람이 목숨이 끈질기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죽지 않아. 눈에 현관이 다 터져서 빨갈게 되는 데 안 죽어.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살아지더라고(어 하하하), 그 순간이야. 그때 죽어버렸으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그렇게 갈아질 수 밖에...내가 살고 싶...내가 살아야 될...살 길이 갈아지는 길이 밖에 없어요. 그 때 당시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아주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는 아주 많은데...그 이야기는 다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힘들었어. 살 수...살...살아야 할 길은 나오는 방법은 그 길 밖에 없어서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 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어요...그 전에 먼저 살아야 열심히, 맞아. 나 그동안 진짜 두 번이나 죽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열심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살고 봐야 돼.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며, 일단은 살아야 돼...그렇지. 열심히는 두 번째 단계야. 첫 단계는 살아야 돼..그때 당시에는 온갖 다 막았어. 어느 한 구멍이 없어. 나가려고 어떻게 살려고 해도 구멍이 없어, 다 막혀서,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이니까 나오는데.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외로움, 무력감과 타격,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방황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결혼으로 인한 이민 여성의 정신건강 상의 위기 즉, 불안과 우울은 삶의 무력감과 의미상실을 동반하여 극단적 선택인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보도된 대중매체 기사를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결혼 이민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강윤경, 2013). 최미경(2015)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자살 경험의 의미로 첫째, 주변인으로 살며 지속적인 내물림을 경험함. 둘째, 사회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됨. 셋째, 환상이 사라진 후 드러난 비참한 현실, 넷째,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함, 다섯째, 존재의 무화, 여섯째, 소통의 경색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 일곱째, 극단적인 자기 드러냄으로 제시하였다.

한부모이주여성 중에 심리적 및 신체적 질병의 증가함이 그 밖의 사회적인 요인과 함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할 생각을 해 본 연구참여자가 적지 않다. 생활 속에서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억압되어 왔으며, 적

당한 시기에 배출해야 하지만,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나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면담 과정 중 연구참여자 1 및 연구참여자 2는 그들의 극단적 선택 시도 경험을 공유해 주었다.

연구참여자 1은 결혼하자마자 이혼할 생각이 있었으나, 임신한 사실에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해주고 싶어 10년 가까이 전 배우자와 함께 살았다. 이 과정 중 전 배우자의 생활능력 저하, 끊임없는 투자의 실패 및 투자 실패 후의 무책임한 가출 행위에 결국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매우 힘들어하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애도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전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이혼을 선택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했다. 연구참여자 2는 시어머니의 질투와 통제에, 시누들의 미움에, 전 배우자의 가정 생계 무책임, 알코올 중독 및 도박까지, ‘온갖 다 막혀 나가려고 어떻게 살려고 해도 구멍이 없어, 다 막힌’ 삶을 살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다. 다행히 면담 당시 연구참여자 2 또한 연구참여자 1와 같이 그 고비를 넘어 모두 웃으면서 용감하게 과거를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이 배우자나 친정 가족과의 사별 경험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별 경험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애가 6살이었거든요.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자꾸 아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같이 울어서.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아, 그래, 보고 싶네. 엄마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딸하고, 딸도 아빠 보고 싶다. 나도 신랑 보고 싶다. 서로 울고. 딸은 엄마가 위로해주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보다 그 슬픔이 사라졌지만...근데 일단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아직 어린이라서 자녀교육인가, 애가 진짜 잘 자라야 한다고 해서 나는 애한테 많이 관심 가졌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간암이잖아요. 간암. 급성 간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에 많이 아픈 거예요. 아, 많이 아파서 한 12월 이틀, 삼일인가? 약간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안 좋은 줄 알고 그 때 큰 대학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서 입원하자마자

자 바로 그다음 날에 돌아가셨어요. 한 아픈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우리 남편...응, 갑자기... 저는 아예 마음 준비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마음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입원하고 나서 그다음 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하늘 무너지는 것처럼 막...괜찮아요. 지나던, 지난, 지난 일. 다 지났어요... 네, 괜찮아요...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우리 부모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키우시니까 저도 뭐, 뭔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연구참여자 13은 아무런 마음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사별을 맞이하게 돼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서적 저조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연구참여자 12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보다 점차 사라지게 돼, 결국 연구참여자 13이 말한 것처럼 ‘다 지난 일’이 되고, 연구참여자 11과 같이 마음도 강해지고 탄탄해지게 된다. 이것은 바로 시간의 힘이라 할 수 있다.

1.1.4. 감사와 용서

가정의 해체는 실제로 삶에 큰 타격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해체로 인해 자신을 더 잘 알고, 더욱 성숙해 지고 강인해지기도 한다. 과거에 대해 담담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사 비용은 3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식구가 기도 제목을 예약을 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한데, 이사를 못 할 것 같아. 집이 되는데, 진짜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한테 3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태갖고 이사를 했갖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300만원을 제가 꾸준히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진짜 조금조금씩, 300만 원의 통장을 가지고 20만 원 씩 2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원씩 3년을 걸쳐서 큰돈으로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쓴 것하고 마찬가지로 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사람...(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그것 처가에 있었을 때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 출입국에 도와주는 그 사람 진짜 고맙죠. 그 사람은 그냥 와서 손님인데,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도와줬죠. 그

나중에 또 저 수련원에 보내서 그래도 결혼까지도 되게 해줬어. 애기도 그래도 낳았잖아. 지금 애기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그래도 애기 아빠한테 애기 하나 주가지고 고맙고...그리고 다음 그러면서 참 고마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수련원에 가서 스승님을 만나서 많은 걸도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 듣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씨 이야기하 듯이 감사함에다가 애들에게 감사의 씨를 심으며 감사함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재산 소송 포기한 것, 지금 뭐 후회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 돈은 우리 애기 것 맞는데, 아빠가 남는 재산이 맞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이 착하면 주고 싶으면 옛날부터 이미 줬잖아요. 이제 10년 다 됐는데, 다 써버렸겠지, 애 아빠가 잘해 준 거는 좋은 추억이고, 시댁에는 좋은 추억이 없거든요...처음에 좀 있는데, 애 아빠... 시댁이랑 뭐 재산 이런 것, 보상 이런 것 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 근데 그 뒤에는 내가 안 받겠다고 그 마음 내려놓고, 애만 잘 키우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 하는 것. 사실 지금까지는...지금 그 임대주택 들어가...집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예. 안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당분간은...예, 뭐 옆에 스트레스하고...맞아. 마음이 편해지니까 살피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그냥 상처 받더라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쉽게 예를 들으면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말 못 한다. 무시당했다.” 근데 당연히 내가 한국말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나는 이제 상처 너무 받아서, 이제 안 받을래...이제 그거, 그거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이제 더 이상 힘든 거, 나한테는 힘든 거 없어요. 다, 다...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받아줄 때까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부터 바뀌어서 그 사람들 다시 바꾸, 바꾸는 게..양보.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연구참여자 1은 임대주택에 이사 가려고 했을 때, 일부 비용의 부족으로 이사를 포기할 뻔했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같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감동적 경험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살펴보면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 상황을 처해 있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소하고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관심이 그 후의 삶에서도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면담 시 매일 매일 감사 일지를 쓰고 있다고 하였고,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 용서할 마음으로 그를 위한 기도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연구참여자 1처럼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주는 관심과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 깊어진 종교적 믿음으로 원망과 미움과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 용서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14는 시댁과의 재산 분쟁에서 재산 상소를 포기하고 나서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손실이 있으면 동시에 한 가지 이익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이득을 얻으려면 손실이 있는 법이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 동시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함을 가슴 깊이 깨닫는다. 연구참여자 14는 얻고 싶은 것은 심리적 평화와 정서적 안정이다. 그래서 지나친 재산 상속의 집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떨치기 위해서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재산이 없어 임대주택 신청할 때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했다.

연구참여자 13은 타인이나 환경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고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상대방을 상대방이 마음을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너그러운 자세로 살고 있다. 생활 속에서 받은 차별과 무시를 무시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적인 생활 태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참된 성품과 항상 한 걸음 양보하는 처세 태도 덕분에 회사에 다녔을 때 인기왕이었다. 퇴사 후에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제시한 예와 같이 연구참여자들과의 만남에서, 한부모이주여성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집한 자료에서 그들이 과거를 직시할 용기, 전 배우자 및 시댁을 용서하려는 마음,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이야기들을 끊임 없이 발견할 수 있었다.

2.2. 심리적 성장 변화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이 심리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종교적 믿음은 그들의 삶의 영적 지지와 힘이 되어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남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적 믿음이 한부모이주여성의 정서 안정에 미치는 역할은 이현주(2013) 및 김장남(2016)에도 언급하였다.

저는 교회에 많이 갔어요. 거기서 기도방이 있어,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 진짜 사랑하면 도와주라고(하하하하)...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으하하하) 응, 너무 편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뭔가 이렇게 훑 떨어내는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울면...하하하...환상을 봤어요...되게 평온한 초원에서 양대들이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되게 평온한 세상...되게 힘들었을 때 교회에 갔는데, 설경 말씀 중에 설교 듣는데 나도모르게 내 눈앞에 이렇게 초원이 쪽 펼쳐지면서, 되게 평온하게 양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평온한 환상을 보면서 나는 되게 편해졌는데...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편안을 주려고, 마음의 평화를 주려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라고...남들은 안 믿어요...하하하하.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그분을 그렇게 용서하고...나는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런 미움을 조금 털어놔서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도 한도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죠...용서는 안 되지만 용서하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더 힘들어... 그렇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못 받아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미움을 이제 최대한 안 미우려고 노력을 해요.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부터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항상...사람 나름대로 힘들겠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들지만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막 엄청 막 행복해서 우리하고 살다가 우리만 힘들게 하고 우리만 이렇게 달아진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안 그러면, 맨날 거의 이혼한 다음에는 밤새 계속 혼자 울었어요. 무슨 이유 모르겠고, 그냥 왜 힘들지? 내가 왜 힘들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많이...네.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성당이요. 카톨릭. 그 때는 많이 기도해가지고... 효과 있어요. 그 때는 제가 많이 울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성당 한번 가라고. 가서 너 마음으로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집에 가서 마음이 조금, 내가 뭐가 있는 거는 다 조금

버려버렸어요. 신기하죠?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때부터는 매주 일요일마다는 성당 갔어요...어, 맞아요. 기도할 때마다는 눈물이 나요. 눈물 난 다음에는 내 마음에는, 마음 속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쌓아진 거는...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예전에는 제가 경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경험하니까 생각 나면 많이 갔어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연구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고, 이슬람교가 그다음이다. 그 외에도 불교와 통일교와 천주교도 있다. 제시한 연구참여자1과 연구참여자 8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에 종교를 많이 의지했다. 연구참여자 1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져 평온을 찾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환상을 보는 등의 신비한 경험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 8은 한부모가 된 후에 밤마다 울었다고 하였다. 성당에 가 기도를 해 쌓인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근심 걱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눈물은 사람들의 연약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와 눈물에서 위안을 얻음으로써 마음속의 불쾌,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켜 편안함과 따뜻함을 되찾아 더욱 탄탄해지게 만들었다.

종교적 믿음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이 더 강화시킨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2처럼 종교 활동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더 깊어져 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운 감정이 자녀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신의 건강과 정서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을 용서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편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의 종교적 믿음도 더욱 깊어졌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결과는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거는 100% 나와요. 기도를 하면... 집이 내가...집이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네네 맞아요...지금 이제 집이 그런 집이...임대 빌라 집이 있잖아요. 새것 집이. 제 것, 건물 제 것 만드는 건물,..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집이. 이제 들어왔어요.(연구참여자 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원래는 교회 안 다녔어요. 애기 위해어 **교회 다녔거든요. 애기 한국어...애기 잘 안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애들 좀 이렇게 잘 놀게끔 다니다가 여기서도 지금 다녀고 있어

요. 지금 안 다니지만...여기 와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맞아요. 누군가... 하나님인지...어떠든 있어요. 누가 옆에 이렇게 계속 길을 알려 주는 것처럼 뭐가 힘이...고민할 때나 뭔가 힘이 되주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지만, 뭔가가 있어...되게 신기해요. 저도 어떨...어쩔 때는 와! 진짜...이런 식으로 생각. 믿어도...(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교회는 한국에 와서 다녔어요...베트남에서는 불교가 좀 많아요...저는 애기가 돌 되기 전에 어린이 집 원장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원장님이랑 같이 교회에 나갔어요...저 사실 기독교를 엄청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근데 제가 힘들 때 집 문제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 집 이사 때문에 또 기도했는데, 이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사하면서 동네 적응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또...좀 괜찮는 직장 가달라 그래서...그래서 바로도 취직하게 됐더라고요...저는...2010년부터 다녔어요. 그냥 저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애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친구도 많고, 외롭지 않고요. 저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말마다 그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 좋아서요.(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연구참여자 14는 처음에는 종교에 대한 믿음이 그리 깊지 않았다. 한부모가 된 후에 집 이사 문제, 취업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도를 하면서 해결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필요할 때 기도를 하면 누군가가 응답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 종교적 믿음이 더 깊어졌다.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연구참여자 4와 연구참여자 11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종교적 믿음의 깊어짐은 연구참여자들의 영적 안녕감을 찾게 됨으로써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곤경과 역경을 극복하는 한 가지의 통로가 되었다. 영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14처럼, 종교 활동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피하고 줄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우울과 슬픔에 빠질 가능성을 감소했다.

극단적 선택, 우울 및 스트레스에서 일어나게 한 계기는 종교적 믿음과 함께 한부모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 즉 모성애의 각성에서도 비롯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재인식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려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애들 아빠가 애들 키울 수 있나. 만약에 키울 수 있으면 내가 죽

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내가 없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살아야 되겠구나...어하하하...예. 책임이자...그래서 뭐... 애들 위해서 살다보니까 좋은 날이 오더라. 옆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이제 나왔는 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어요. 내가 살...살아야 되잖아. 애기도 있고 살아야 되잖아요.그렇지, 애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내가 제일 처음에 알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 가지고, 기도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했어. ..그 다음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 없어. 아이 데리고 살아야 되고, 일 해야 되고, 아무튼 진짜...돌아버리는 것 같아요..그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된다. (연구참여자 4, 2020년 8월 29일, 토)

그래도 내가 만약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애기 어떻게, 그것 제일 걱정했지. 근데 지금 괜찮아. 다 괜찮아. 스트레스...제 생각엔 이런 흠 같은 것 아예 모르고 있었잖아.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밝혀냈으니까, 그냥 이것 제가...언제 이것 생겼냐 그렇더니, 이것 하루만에 생기는 것 1년 안에 생기는 것도 아니래요.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애기랑 산 지 6년 됐잖아요. 13년부터 애기랑 계속 같이 살다가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이혼도 스트레스 받고, 풀릴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로 제가 그냥 계속 쌓여서 키워는 거구나, 키워 놓은 것 같다.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성향을 보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애의 각성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의 사례를 통해 결국 극단적 선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살기 위한 길을 다시 찾기 시작한 계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2도 조금씩 회복되어, 열심히 살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자녀는 연구참여자들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 된다. 자녀는 연구참여자들의 생명이자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곤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의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애가 6살이었거든요.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자꾸 아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같이 울어서.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아, 그래, 보고 싶네. 엄마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딸하고, 딸도 아빠 보고 싶다. 나도 신랑 보고 싶다. 서로 울고. 딸은 엄마가 위로해주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보다 그 슬픔이 사라졌지만...근데 일단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아직 어린이라서 자녀교육인가, 애가 진짜 잘 자라야 한다고 해서 나는 애한테 많이 관심 가졌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네, 우리 애기...강해요 우리 애도, 저처럼...네, 강해요. 강하고 푹푹해요. 공부 되게 잘해요...그래서 모든 거 있으면은 자랑 같이. 다 같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도 저를 믿고, 저도 아이를 뭔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같이 되게 서로 되게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근데 저는 항상, 1년 내내 맨날 맨날 돌이밖에 없으니까...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돌이밖에 없으니까...서로 의지하고...그렇지.딸이지만 친구였구나...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친구예요. 친구...그래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근데 지금 10살, 올해 들어오면 10살이잖아요.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캄보디아. 어, 애기는 캄보디아어...조금...자신감이 있어요...학교에 가서...공부 잘 하니까...네, 가서. 애는 몰라요. 저는 피부 까말는데, 애 저는 안 닳았고 아빠 쪽을 닳아서 피부 되게 하해요. 학교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 애 보고 백인이에요, 백인...되게 학교 가면 친구들이 “넌 미국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래서 친구들 놀릴 때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요리, 요리 잘해. 한국말도 잘한단 말이야. 집안일도 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엄마 자랑만 해요 애는...그래서 저도 아이가 저 나갈 때, 엄마가 자랑하는 거 얘기 들으면은 되게 뭔가, 뿌듯해요...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 아이 아무리 혼자 키우더라도 애가 엄마를 뭔가 좀 이렇게 존경, 존경...존경하니까. 좀 보람 있어요.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요...착하고 위여워요. **이 너무 착하고, 아침에 제가 9시부터 출근...**아 빨리 일어나 엄마 늦었어, 하면 바로 일어나요. 다 말 잘 들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 사랑해도 하고. 저녁에도 늦게 오고, 그 어린이집에 혼자...6살. 딱 귀여울 때예요. 매일 엄마 사랑해, 엄마 뽀뽀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집에 오고 어이고 우리 엄마 힘들어서 내가 집 정리해줄 게, 진짜 잘해요. 정리 진짜...화장대부터 어디 어디 다 정리해 줘요. 어느 날 내가 한의원 침 맞아서 그때도 엄마 아파, 엄마 느낌 어때. 아파, 계속 이렇게 딸이 이렇게 만지고, 엄마 만지고 싶어 어 만져도 돼. 박박박 이렇게 아들이 마사지를...애기는 너무 착해. 내가 지금 애기 데리고 사는 것, 마음이 되게 행복해요. 자유도.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12는 배우자와 사별 후, 시간이 지나 처음보다 그 슬픔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되어 힘든 것을 잊고 밖에서는 캐리어우먼으로, 가정에서는 좋은 엄마가 되도록 더 노력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의 생활은 배로 힘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난의 시련을 겪은 후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모·자녀 간의 유대 관계가 더 깊어졌다. 연구참여자 13 또한 배우자와 사별 후 유일하게 남긴 가족인 딸과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여, 모든 것이 함께 함으로 엄마와 딸은 더 가까워지고 의지하면서 친구같이 지내고 있다.

한부모가 되는 슬픔과 고통에 잠겼을 때는 자녀가 그들이 살아가는 동력이고 삶의 전부가 된다. 가정의 파탄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둘도 없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도록, 아이를 통해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며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할 수 있게 변화된 것이다. 죽음을 맞이한 후, 연구참여자 1의 경우 ‘그 시간을 딱 지나가니까 살아지더라고’라는 표현을 했고, 연구참여자 2는 인생은 ‘열심히가 중요한게 아니며, 일단은 살아야 돼’라고 하였다. 경험자로서 삶에 대해 남보다 다른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정해체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편이 돼 주고 믿을 수 있으며 가장 의지가 되는 지지체계가 누구보다도 가족이라 할 수 있다.

네. 이모 많이 나한테 도와줘니까. 그래서 선생님 방금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싶어요. 돈도 도와주고. 이야기하고 말 상대해주고, 따른 분 없어요. 다문화 그런 것 나는 잘 말 안 해요 여기 친구 없어요. 근데 그냥 친구는 있어요. 필리핀 친구 많아요. 그런데 성격 그런 것 안 맞아서...네, 그런 이야기...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그리고 다문화도 그런 이야기할 거 아니니까. 내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모는...이모는 가족이니까. 이모 이제. 이모 도와주고, 내 마음 이모한테 준 거 같아요. 그랬어요.(연구참여자 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아무래도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친정엄마입니다. 연세가 90세 넘어도 현재도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버는 돈만으로 라면 조금 불안한데 비상금으로 뭔가 일이 있으면 엄마가 돈을 보냈어요. 생일이다, 축하금

이다 뭐뭐뭐. 보통 그 연세라면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려야 하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그런 좀 돈이 여유 있어서. 그래서 정신적인 도움보다 경제적인,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감사하고, 물론 그 어머니를 돌봐주는 동생들도 감사합니다.(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전에 엄마 여기 왔을 때는 F1 연장했을 때는 그냥 1년 2년만 연장 했어요. 4년 10개월 끝나면은 또 다시...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에는 3년 정도 와다 가다 했어요. 몇 개월 와다가 가고, 또 와다가 가고, 이렇게 와다 가다했어요. 오래 안 해요. 그냥 3개월...또 가고, 5개월 있다가 또 가고...동생 있어요. 아빠도 있고, 아빠는 그냥 집에 있어요. 퇴직했어요. 나이 많아요.(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때 친정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가정해체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편이 돼 주고 믿을 수 있으며 가장의 지하고 싶고 사람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본국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친정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4는 한국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이모한테 많이 의지했다. 가정해체 문제도, 생활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지원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할 때 친구보다 이모한테 많이 찾아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친구는 남이고 이모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12의 경우, 친정 어머니가 90세를 넘었는데도 연구참여자 14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경제적인 지원을 톡톡히 해주셨다. 연구참여자 14의 경우, 친정어머니는 한국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딸이 걱정되어, 연구참여자 14가 한부모가 된 후부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오가는 삶을 몇 년 지속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후의 삶을 초기에는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해 힘들고 초라한 면을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싶지 않기에 남보다 친정 식구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 자신의 처지 및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혈연관계가 있는 친정가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 처해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뒷받침을 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친정임을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남에게 퍼뜨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지지는 한부모가 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성장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사적 기관 및 사회에서 오는 각종 사회적지지가 있다.

또 주변 있는 좋은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오래,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통화를 해도 이야기해도...옛날에 일산에서 식당 일을 했던 분도 아직까지 연락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돈도 보내주고,.. 자주 했어요. 너무 더운데, 이사하고 왔는데, 남편 아까 에어컨 안 주잖아요. 우리 직업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살고 있어 해서 연락...부탁해서. 내가 돈이 좀...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 돈 안 갚아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 와다가다 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대한민국은 괜찮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처음에는 마음 부담도 있고, 남편 폭력도 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요. 많이, 네. 많이, 많아요. 그거 과정 있어요. 이혼한 다음에는 그 때는 너무 일도 찾기 힘들고, 계속 우울증처럼, 우울증처럼 걸렸가지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상담은 거기 센터에서. 선생님들이.센터, 쉼터? 선생님들이 상담해줬어요. 처음에 애기들이, 지금 이혼한 다음에는 경제 없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해 가지고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은 저기 선생님들도 물어보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친구들이도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같이 나누시고 서로 도와주고...계속 밤에 울었어요...회사 다 좋은 사람이라서 저한테도 환경, 사정도 이해해주시니까.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저 그 때 남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시어머니,..저보고 ‘고향이, 고향, 고향에 가라, 고향에 가는 게 더 살, 여기 사는 것보다 더 편안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 그 당시는 저도 친정한테, 남편 장례식장 처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아니 그 다음 날에 남편 친구들이 와서 저보고 “지금 당장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애기 둘이서 살다가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국적 취득한 다음에 가라.” 그래야 애기도 여기 언젠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잖아요. 애기, 이렇게 애기, 말씀하셨어. 남편 친구의 친구가...네. 그래서, ‘그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다시 생각 바꿨죠. 아, 여기 뭐 좀 힘들어도 참다가 그 때...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 때는...우리 남편 착한 친구 되게 많았었어요.(연구참여자 13)

두 번은 애 아빠 친구요. 그 언니 있어요. 그 언니는 제 상황이 이렇다니까, 인터넷에 제 사연을 올려 줬어요. 어떤 사이트에, 같은 엄마들, 애 키우는 엄마들 자기 애들 입

던 옷이나 이렇게 갖다 주고, 감자 그런 것도 갖다 주고, 애 분유, 기저귀 그런 것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네, 그래서 그 엄마들 덕분에 지금까지 애하고 같이 살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들하고 가끔 연락하긴 해요. 다 한국 엄마들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어리고, 또 말도 안 통하고, **이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많이들 좀 도와줬었어요...1년에 한 두 번은 만나하고요. 전화는 가끔해요. 다들 직장 다니고, 생활 바쁘니까. 자주는 많이 못 하고, 대신 만날 때는 제게 밥을 사주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 너무 감사하죠.(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연구참여자 5는 전 배우자와 헤어진 이후,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로부터도 지원을 많이 받았다. 힘들 때 말상대도 돼 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 주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5도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버리게 돼, ‘대한민국은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8은 3년의 결혼 생활이 있었으나 2년 넘게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 본인의 의사소통 및 기본적인 생활 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날이 캄캄해 막 태어난 아이를 끌어안고 밤마다 울었다고 했다. 엄마가 전업주부이고 아빠가 군인인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랐다가 혼자서 모든 것을 직면해 책임을 져야 할 국면을 맞이하게 돼 스스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나 관련 시설에 입소한 이후 시설의 담당자의 도움, 같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우울을 극복해 어겨낼 수 있었다. 우자와의 사별로, 다른 연구참여자 와 다르게 시댁과의 경제적 분쟁으로 갈등이 좀 생겼다. 연구참여자 13은 전 배우자가 가고 나서, 시댁 측에서는 연구참여자 13의 모국 귀환을 강요했다. 연구참여자 14는 배우자가 남겨준 유산을 시댁이 빼어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일전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다행히 주변에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 아이를 키우며 잘 버텨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연구참여자 13은 사별한 배우자의 친구로부터 한국에서의 체류, 생활적 지원 외에 자녀 긴급 돌봄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4는 남편의 친구 외에 이웃으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같은 동네 사는 한국 엄마 한 명이 연구참여자 14의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림으로 시작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이에게 옷과 분유를 선물 보내주고, 직접 집으로 찾아 아이 양육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매우 감동을 받아,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종교적 믿음, 모성애의 각성(覺醒), 친정 가족의 지지 및 친구의 관심과 함께 각종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우울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생활 속의 사소한 일에도 항상 감사하고 남도 스스로도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신체적 측면

연구참여자 중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과 연구참여자 4는 갑상선 암 경험이 있고, 연구참여자 4는 암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연구참여자 5는 담낭제거 수술을 하였고, 연구참여자 13은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 간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적 건강 측면의 문제는 한부모가 된 이후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신체적 측면 성장 변화

3.1.1. 건강해진 몸

한부모이주여성들이 이주 결혼-가정해체-한부모로 되기라는 환경 변화 과정에서 생긴 건강문제에 대해, 최나영, 이병숙(2018)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시간, 돈, 사람 등과 같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건강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있어 취약계층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미양 외(2012)는 171명의 결혼이주여성 출신 나라별 분석한 결과, 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신체적 질병으로 위장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요동 및 B형 감염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유형의 질병 경험을 확인되었다.

무릎이 아파서 잘 걸지를 못 해요...딱, 이제 이혼 서류 정리 다 하고.. 하고 나니까 지금은 딱 와서 한 일 년 안 되니까 무릎이 안 아파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무릎이 안 아파, 걸을 수 있어요...허리...일을 좀 많이 하니까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도 하고 했는데...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몸은 이제...이제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눈이 백내장이 심했는데...안과에 가서 백내장이...약을 먹어야 할지 말지 고민이야...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나아지더라고...올해는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2년 전에 그때 건강검진했을 때는 신체 나이는 60으로 나왔어. 10년이나 더 나왔어요. 그때는 40대인데 6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 해. 그래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해 어디 가서. 그런데 올해 검사를 하니까 53세로 나왔더라고...그것을 많이 풀리면 되게 아팠던 것도...(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저 애기 낳고 나서. 애기 낳고 나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건지 습진이 올라와서 한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약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피까지 나요. 병원 다녀도 병원 약이 안 들더라고요. 연고, 병원 약 먹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효과 없어서...한의원 그 약 먹었더니 쪽 나아졌어요. 지금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한약 먹기 전에 애가 너무 망가졌어요. 피부가. 근데 그 영향을 잘 안 받기 위해서 안 받으니까 손톱이 또 이렇게 망가지는 거. 근데 한약 먹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괜찮아지고 손톱은 이렇게 되고...거기 있었을 때는 제가 계속 사정이 있었어요...그 다음에 수술도 했고,..네, 갑상선...암이 아닌데 수술하는 게 낫다고, 여기 되게 큰 것 흠. 흠 되게...4CM, 4CM 엄청 큰 것 여기...(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연구참여자 2는 입국 전에 10년 가까이 일한 경험이 있었고, 입국 후에도 직접 식당을 운영했다. 주방이라는 협소하고 습기 찬 환경의 영향으로 손목 및 팔, 무릎 문제가 생겼고, 허리 디스크도 심했었다. 임신 3개월 때 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려 신혼여행 가는 길에, 전 배우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연구참여자 2의 임신 및 피곤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부부관계를 강행함으로 첫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힘든 시집살이와 함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원래 좋은 양은 몸 상태가 더더욱 나빠졌다. 무릎에 문제가 생겨 걸을 수 없을 정도뿐만 아니라, 불면증, 항진증, 백내장에 갑상선 암까지, 50대도 되기 전의 건강 검진을 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더 나왔다. 하지만, 한부모가 된 2년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실제 나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무릎 치료와 함께 갑상선 암 수술도 받았다.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한 백내장도 사라지는 등 이제 날아갈 정도로 좋아져 신체적인 변화가 매우 컸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1은 연구자가 2018년에 처음 만났을 때 이혼을 당해 극심한 우울과 함께, 피부병, 갑상선 문제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시설에 입소한 다음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아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며, 갑상선 수술도 받았다. 2020년 9월 연구를 위해 다시 만났을 때는 화장도 하지 않고 무척 자신 있고 건강한 모습이였다.

3.1.2. 암 수술과 치료

연구 과정 중 건강상 암 문제를 앓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참여자 사이 갑상선 암 경험자가 특히 많았다. 이와 같은 건강 문제는 한부모가 된 후에 긴급 지원이나 의료 지원등을 받아 암 수술과 치료를 해 점차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여자들이 지금 여기(가슴 유방암) 여기(목) 많이 아프잖아요. 그것다 이제 다 쌓여서 그런 것 거든요. 여자들이 인맥이 여기가 많아 아파요. 화...화병이라고...여기서... 그래서 많이 암 걸린 것 거든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저도 옛날에 갑상선...우리 애기 요만했을 때, 그 때 갑상선 수술 했어요...(연구참여자 3,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무서워 나 지금. 귀하고 여기 목 안 좋아요. 예. (검사를) 했는데 여기(갑상선)이 안 좋아요. 근데 검사 다시 안 했어요. 그래요. 거기 한부모 가정의 회장님이랑 같이 가서 아산병원에 갔어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진짜 무섭겠어요. 저도 갑상선 암이에요. 나도 암 있어요...아직 수술 안 했어요...진짜요? 어땠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어, 1년 넘었어요...지금 아이들 때문에 막내 때문에 조금...나이가 좀 어리가지고, 왜냐면 수술하면은 애들 먹을 것도 그런 것...돈이 있든 없든 문제가 아니에요...아니, 그것보다 돈은 부족하죠. 근데 돈 문제 아니에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본인이 제가 마음이 제가 수술할 마음이 수술 준비 아직 안 되니까. 수술 괜는 지 안 괜는 지. 그리고 애들도 돌봄 해야 되잖아요. 3명, 또 스트레스 받으면 저 몸에도 안 좋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생각 이런 것도 머리로 가끔 아프고, 다리도 예부터 아팠기 때문에...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 6학년...내년이면 졸업하고 중학생 들어가면은,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년엔 수술 들어간다...사이즈 지금 한 10mm인가 1cm. (연구참여자 4, 2020년 8월 29일, 토)

연구참여자 2의 말에 따르면, 한부모이주여자들이 갑상선 암과 유방암을 많이 걸리는 이유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없어 화병으로 이어져 결국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와 연구참여자 3은 한부모가 된 후 갑상선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고, 연구참여자 4와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암 수술 및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4는 암 판정을 받은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데 신경을 써야 할 일도 많고,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위급한 상황도 발생할까 걱정되어 아파도 쉽게 마음을 먹고 치료받을 수 없었다. 집단면담에서 다른 연구참여자의 암 수술 경험을 듣고 나서,

수술을 받을 때 아이 돌봄 문제 등 모두 도와주겠다는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내년 초에 수술을 받겠다고 결심을 했다. 연구참여자 7은 면담 직전에 ***한부모 센터 담당자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같이 가 신체 검사를 받아 갑상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면담 당시 추후 치료 과정을 협의 중이었다.

이처럼 치료를 제대로 받아 건강을 되찾은 연구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을 걱정해 암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한 연구참여자 4의 예도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한부모가 된 이후 암 수술을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하는 등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2. 신체적 성장 변화의 의미

가정 폭력이나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이 연구참여자들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피부병, 감상선, 암으로 이어져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어 본인의 건강 여부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됨을 더욱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먼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할하게 자랄 수 있어 엄마로서 져야 할 책임을 깨닫게 되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남편도 가고, 우리 엄마도 가고. 되게...네, 되게...네, 충격 받아서 우울증 걸렸죠. 우울증...한 2년 동안 병원 다니다가, 응급실 실려 갔다가, 혼자서 쓰러졌다가. 2년 동안 되게 지옥..네, 지옥처럼 살았었어요 저...응, 그 2년 동안에. 되게 맨날 맨날 밤이 되면은 응급실 실려 갔어. 전 그때, 그 당시에 응급실 한 3번 실려 갔었어요. 그럼 응급실 실려 가는데 애...데리고 갔죠. 무조건...새벽까지 같이 엄마 옆에 있다가 잠 못 자고, 애가. 근데 우리 애는 되게, 그때부터 저도,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도 건강하는구나...(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20일, 일)

한국에 되게 많대요. 그래서 갑상선 암수술도 제일 쉬운 거래요. 여기서...그래도 내가 만약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런 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애기 어떻게, 그것 제일 걱정했지. 그래서...(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그래도 애와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가 문제입니다.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연구참여자 13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 후 1년 후에 친정엄마도 암으로 사망했다.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연속적인 상실로 그 충격은 누구보다도 컸다. 우울증에 몸 상태도 약해져 쓰러지기까지도 했다. 응급실에 가는 일도 있었으나, 자녀를 대신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갈 때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껴지게 됐다.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12도 ‘애와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가 문제’라 했고, 연구참여자 13 또한 ‘만약에 이 나이에 암 걸리면 내 애기, 내 애

기 어떡하냐고...저도 엄청 열심히, 건강 검진 엄청 열심히 받아요.'라고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1도 만일의 경우 자신이 병으로 사망하게 될 경우 애가 가장 걱정된다고 했고, 연구참여자 11 또한 애와 함께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이 제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 변화는 그들의 심리·정서적 변화와도 매우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그 정도 무릎이 아파서 못 걸었고, 우울증도 너무 심했고, 허리...일을 좀 많이 하니깐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도 하고 했는데, 이제 팔이 아파서 이제 일을 거의 못 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몸은 이제... 일을 많이 했어. 옛날에 일을 많이 했어, 계속 일을 했으니까, 몸은 계속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제 몸은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한 절반은 없어졌잖아, 정신적으로, 절반,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했가지고 반반이라고 하면 절반은 버렸잖아요. 이제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 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2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백내장도 호전되었고, 몸은 조금씩 회복이 되었다. 그 이유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신체적 건강 문제 또한 절반 정도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보고 보고 있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건전한 사회 생활 적응의 물질적 기초이며,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심리적, 사회적 상호 작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 환경이 건강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은 그들의 심리·정서적 건강 및 생활 환경의 안정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지역사회참여 측면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세 번째 변화로는 지역사회활동의 활발한 참여이다. 한부모가 된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동, 공감하며 몸으로 봉사활동 외에도 이주민을 위한 지역활동가로서의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4.1. 지역사회참여 측면 성장 변화

4.1.1.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동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여성 해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연구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 이주여성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로 사회적 약자이며 지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연구참여자 8처럼 한부모가 된 후에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일을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깐 일을 하는 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행 가이드였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문화나, 여러 일본에 대한 거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냐고 물었을 때, 아직 일본어에 가능성 있다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학생에게 일본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이었는데 점점 경험 쌓이면서 학원이나, 지금 문화원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일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다문화이해 강사... 요즘 방학이라서 일이 없어요...네, 가끔 하는 데 지금은 없어요. 저는 2019년부터 양성과정도 몇 번 하고, 계속 해왔었어요. 작년부터 활동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소개하는거죠. 우즈베키스탄 문화 이야기도 하고...언어는 요청하면 간단하게 인사 같은것만 재밌게 해요. 최대 목표는 이제 그 나라소개니까. 우즈베키스탄 소개라서...주로 학교에서 많이 해요...학교도 있고 예전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많았었어요. (연구참여자 10, 전화 인터뷰, 2020년 9월 5일, 토)

그 자활 근로라고 했갖고,..내가 구청에서 일했어요. 그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서 한 달에 90 몇 만원 받고, 공무원하고 똑 같이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들 챙겨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했어요...제가 수급자예요. 수급비가 120만원인데, 개한테 80만원이나...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과외도 좀 하고, 3작업이에요. 세금이 안 드는 그..그런데...옛전에는 뭐 통역 그런 것 일거리가 좀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그리고 어쩌든 나를 계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일...여러가지 일을 하면서...지금 회사 다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네일아트하고 속눈썹 알바도 연장하고...시간 없다. 진짜 시간 없어요. 진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만 잘 잘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한국, 복지관 다니면서 한국말 조금씩, 조금씩 배우니까,..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얘기하고 나서. 남편도 조금 이해하니까 ‘어, 그랬구나.’ 하고, ‘다니고 싶구나.’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얘기 가져서 뭐 멀리도 못 가고, 그냥 가까운 곳에만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 때...그 때, 한국 시집 오자마자부터 남편 가고 나서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지금...지금 직장 다녔어요...네, 직장...그렇죠. 7년 동안 다녔죠. 그 전에는 그냥 화장품 무역 회사예요...그냥 거기는 뭐, 예, 되게 회사 커요. 만드는 사람도 있고,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처리 뭐...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검사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게, 작성해서,..응,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저 7월 달부터 다녔어요. 저 그 전에는 회사 다녔어요...네, 저 회사 길게 다녔어요. 한 6년 정도 다녔고, 또 다른 회사도 2년 다녔고, 뭐 이렇게 다녔었는데, 애가 학교 들어가니까, 좀 적응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알바만 하고 있어요. 저 애기 4,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서 회사 다녔어요...저요. 계속 다녔어요. 2010년도부터 계속 회사 다녔어요. 그런데 애기 학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잠깐 쉬었어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연구참여자들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갖고 있는 언어적인 장점을 발휘해 다문화 이해 강사나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한부모이주여성들은 혼자 가정의 생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직업보다 여러 가지 직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은 구청 자활근로와 함께 중국어 과외, 한·중 통·번역 아르바이트로 병행하고 있다. 연구참여

자 3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네일아트와 속눈썹 연구 일도 주말에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테리어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배까지 배우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보다 몇 배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참여자 13은 배우자와 사별 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 지금까지 7년 동안 꾸준히 경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연구참여자 14는 입국 후 10개월 되었을 때 배우자와 사별한 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5개월 되었을 때부터 일반 회사와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다. 2년 전에 아이가 입학후 발견한 언어 발달 문제로 일시 중단했으나, 7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회사와 식당 같은 단순 노무를 하는 자도 많지만, 연구참여자 11과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치과와 피부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부모이주여성도 있다.

여기 계약은 3년 남았어요. 3년 남아가지고 돈을 더 모아서 제가 월세든지 전세, 전세, 전세도 얼마나 벌어도 모을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만, 자기 집을 만들고 임대 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죠. 앞으로, 알바. 치과. 네, 자격증 아니고, 그것 예전에 제가...제작년에 제가 일했어요. 경력...원래 이번 주부터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 예문에 못 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부터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제가 못 한다고 했어요.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해결되면 간다고 했어요. 마치 오늘 선생님이 학교 돌봄이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저는 다음 주부터 일을 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연구참여자 11이 말한 것처럼 이주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자녀들의 돌봄 문제이다. 이 문제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자립을 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생기고 나라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1.2. 공감하며 몸으로 봉사활동 실천

연구 과정 중 연구참여자들이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봉사활동으로는 자신의 언어적 장점을 활용한 공·사적 통·번역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저는 그 전에 다문화 센터에서 봉사를 좀 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 교회에서 다른 분하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거기 모임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 통역도 해 주고, 아니며 저 노숙자들을 위한 음식 나누기...그런 것 하고 있어요.거기에는 다문화 하는 공간이 있어요...저 거기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유학생 그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다 한국분들이라서, 도움이 되면 제가 통역을 해 주고, 뭐 알려주고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저는 봉사 많이 했어. 이번 주에 자격증 받았었어. 봉사 자격증...제가 오래동안 봉사 했잖아요. 경찰...어디어디...해 보니까. 원래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은 잘 안 해요...외사과에 가서도 도와줬지만, 또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 못 받고 그러면... 친구들은 한부모들도 있지만, 또 언어, 언어 많이 못 배우는 것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돈은...치료비를 많이 주고 했을 때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어렵게라도 되는 거 보면 자기가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남편이 이혼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이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여러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지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언니 어떻게 했어요?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했어요? 집은 어떻게 얻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은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정말 안 되면 이렇게 좋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보고 안 되면 센터가서 상담도 많이 해보고, 안되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연구참여자 10, 전화 인터뷰, 2020년 9월 5일, 토)

아무래도 교회 다니니까 거기서 참가정운동라고 해서 좋은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이랑 얘기 듣거나 나도 마사지 해주거나. 좀 호박죽이나 그런 거 만들어서 가끔 가거나 그런 거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지만.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제가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해 봤 가지고 그 쪽에 봉사를 좀 했어요...네. 인테리어...단체에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허적하시는 분들, 집 수리 못하는 분들...그런 때 가서 단열재라든가, 등, 화장실 교체라든가, 번기 교체 뭐 이런 것,..시간 날 때 가면, 공사 안 끝나면 한 3일씩 해요. 그렇게 하고...가끔씩 자격 같은 것...네일아트 봉사 있거든요. 가끔씩 거기도 봉사 하고,..시간 되면.(연구참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제시한 연구참여자 14의 경우 교회에서 통역 봉사를, 연구참여자 5는 외사과 및 법원, 경찰서에서 러시아서 통역을, 그 외의 중국 및 캄보디아 출신 한부모이주여성 또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주민을 위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제작 봉사에 참여해 해당 기관에서 봉사자 자격증까지 발급해 주었다.

한부모이주여성 중 연구참여자 10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이주여성들과 공유를 해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다. 연구참여자 12는 기관을 통해 노인정과 유치원 같은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한다. 그 외에 전문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다음 연구참여자 3의 예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돈을 안 받더라고. 목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헌금을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그러니까 돈을 안 받더라...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작년까지 한 달에 만원씩 거기 한 10년 했더라고. 한 달에 만원이면 일년에 12만원이야. 10년 이면 12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 시간이 내가 어떻게 지나는 지. 너무 고마우니까 밥이라고 한 끼 산다고 했는데... 이 연결해주는 사람이 한 달에 만원씩이라도 헌금을 하라 그렇더라고...그래서 그렇게 했어요...일단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것 한 것 하나 있고. 그 사람한테 고마운 것도 있지만, 나도 나 자신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지...영등포에서 살면서 영등포에... 그...이렇게... 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 어디에 가고, 사천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그런 것 있어요. 거기 단체도 자원봉사단체도 가입됐갖고, 계속했어요....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에 이게...동사무소에서 통역으로도 일을 했는데, 올해는 좀 아파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쉽지 않은 것처럼,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연구참여자 2처럼 경제적으로 봉사를 하는 한부모이주여성도 있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입주 후 결혼 전에 식당운업을 했다. 체류 자격은 사업자 비자가 아니었지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비자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사업자 비자 문제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급한 상황에서 가게에 식사하러 온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손님이 또 다른 교회 목사에게 연락을 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틀 후

연구참여자 2를 유치장에서 빼냈다. 감사하는 표시로 사레나 식사대접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손님도 목사도 모두 받지 않았다. 이로부터 시작해 감사함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월 만 원씩 교회에 헌금을 해 10년이나 지속해 왔다.

연구 과정 중,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로, 언어 장점을 활용한 통·번역, 어르신 돌봄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 가 재능 기부나, 봉사 단체 활동 지원, 전문 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 등이 있다. 과거에 자신들이 문제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 받았던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4.1.3. 이주민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역 활동 참여

IV장 연구참여자들의 가정해체 경험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한부모가 되기 전에는 가정이나 경제 활동이 바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관련 정보도 전혀 다 모르고 살았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된 이후 살아가기 위해 주변에 정보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 사회활동도 참여하게 되었다,

왜냐면 같이 살 때는 진짜 옆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들. 집, 직장, 이렇 게만 있으니까...정보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그런 여유도 없고 결여도 없어요,...그런데 이렇게 갈아지고 나서는 옆에...주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갖고...이 렇게 가면...동사무소에 가면 이런 정책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한부모 가정 보호 정책 이라는 것이 있었갖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으면...그 전에는 다 몰랐어요. 애 들 챙기고도 시간이 모잘란데...내가 주변에 뭐가 있고 정보 찾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혼자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 년 8월 8일, 토)

그리고 여기 단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 봉사도 봉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와서 총무로 있지만은, 올해는 별로 많이 못했지만은요, 작년에는...봉사를 하는 단체이까. 뭐...모든 것이 봉사로 돌아가는 것...그런 단체이니까...여름에는...그 게...코로나 때문에...그러니까...닥치된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그...저기...외국인 주민 대표 6기로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활약이 못 하지만은, 어떻게 활동하다나니까 우리 단체의 추천해서 우리 단체에서 3명이나 들어갔어요. 다들 참 잘 들어갔는데...하다나면...또 좋아지겠쥬. 시간이 지나면 또 결과가 나오겠쥬. ...그쪽에 단체에도...그쪽은 단체가 아니지만은, 모임이라고 해야 되냐. 제6기 외국인대표 그쪽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저는 예전에 사회활동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마사지, 애들한테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은 여기 센터에 애들한테도 베트남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저기 명예동장, 용산구. 용산구 명예동장으로 하고 있어요. 명예동장은 용산구 외국인...여기 용산구 정보, 명예동장..네, 명예동장...그, 저기 구로구에도 명예동장이라고 해서. 명예 주는 거예요. 명예시장처럼.여기 **구에 정보가 있으면은 베트남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한테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정보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아, 그거는 2, 3개월 됐어요. 근데 괜찮아요. 활동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한부모가 된 이후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1처럼 이런 저런 정보를 찾기 시작해 점점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활동 빈도의 증가로 점차 지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연구참여자 2처럼 외국인주민대표나, 연구참여자 8처럼 용산구 외국인 명예동장으로 지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부모이주여성도 많이 있다. 그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주민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이주민 생활 관련 정책 제안 및 건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2. 지역사회 참여 성장 변화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은 봉사활동 지역 사회활동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돼 결국 강력한 사회적 흐름으로 수렴될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도 확대되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어 자아 성장 및 발전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다. 베품과 동시에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감 강화 및 자존감 향상과 함께 리더로서의 조직 대처 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다.

전혀 몰랐는데, 저는 좀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알잖아요. 또 2009년부터 다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도 또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경찰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었어요...통번역은 알바로 했고 다문화센터 상담 이런 거는 뭐 봉사료. (연구참여자 10, 전화 인터뷰, 2020년 9월 5일, 토)

자조 모임이. 거기에서...다 비슷하잖아요. 한부모들은. 혼자 애들 양유하면서, 만나 갖고, 아이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어떻게 케어야 할 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류하고... 예, 서로 그렇게 교류하고...고민 같은 것...해결이 안 되지만, 털어 노는 자체가...그거가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그래서 너무 좋아요. 뭐 만들었갖고 어르신한테 드리는 이런 사회봉사를 가끔씩 조금씩 하면서...봉사하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힘도 들고하지만...나한테...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아하하하하 모두 큰 웃음) 보람 느낄 때가 많아요. 어,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었구나. 다들 이렇게 한 가지 아픔을 안고 사는 건데, 이제는 이겨낼 수 있겠다..(하하하하)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실제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베풀다고 했지만은,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얻는 게. 나는 그런것 너무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 진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진짜 조금 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는데,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여기 계신 분들은 저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살았는데도...나는...진짜...이런 것에 비해서 나는...어떤 면 좀 더 힘들지만, 어떤 면은 훨씬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에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나는 이제부터 이제...많은 걸 받았으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봉사니까 돈이 없죠. 원래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뭐 저도 거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알게 된 것도 많고, 그런 정보 같은 것 나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한 시간에 얼마 씩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런 것 받고 뭐 하냐고. 대신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었죠. **이도 교회 다니는 것 좋아해요. 예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 좋아해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간 것이 아닌데, 계속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고,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교회에 가면 많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웃고, 인사하고, 또 뭐 많은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 좋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연구참여자 10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탐색과 동시에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본인의 한부모되기 과정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활용했으며, 한부모가 된 후의 적응 및 자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초기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한부모 모임의 리더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남과의 소통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이를 통해 자아가치의 구현과 제고를 이룩했다. 연구참여자 2는 봉사활동은 베풀다기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했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살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을 대표로 하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은 스스로 많은 문제 상황에 처해 있어, 자립을 위해 분주하면서도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를 해,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마치 지원만 기다리는 고정적이고 주정적인 한부모이주여성의 이미지와 대조된다. 이와 같은 사회 활동의 참가는 자신의 삶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보여줌을 통해, 그동안 고정된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전체를 위한 복지 지원 및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미래대비 측면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가정의 해체를 겪었기 때문에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및 문제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계발 및 노후 준비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5.1. 미래대비 측면 성장 변화

5.1.1. 틈틈이 딴 자격증들

이주여성들이 한부모가 된 이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매일 매일 정신 없이 바쁜 일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기계발을 해 각종 자격증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쉬고만 있냐고. 언제까지 쉬고만 있냐고. 그래서...동사무소라는 때 찾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또 뭐 배우는 것도 있더라. 컴퓨터도 있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막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막 자격증도 따고 또 따고, 뭐 하고 뭐 하고 막 했죠. 너무 재미있더라고...네, 자격증이 좀 많아요...옛날에...피부관리는 옛날에 가게를 하면서 피부관리 자격증을 딴 거고...운전은 작년에 딴 거고, 한글 파워포인트 다 했어요. 그래서 쉬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공부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의료 쪽에, 옛날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라는 것 들은 적이 있는데, 따로 또 피부과에서도 일해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치과에서도 일해보고...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땀어요. 네. 있어요. 네. 컴퓨터 자격증, ITQ. 무슨 통역 자격증도.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그런데 그것..나라에서 배우는 것, 내일 배움 카드...5개월 하고 있어요. 학교에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줘요. 아니면 그냥 배운 거야. 여기 자격증 아니야. 그냥 배우는 거야. 기술...기술...배우면 내 기술이 되는 거지.히히히히...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는 데...저 꿈이 한국 와서 이루었어요...한국 와서 귀화가 돼서 내일배움카드로 패션디자인 학교에서 주로 했어요. 자격증 땀어요...총 7개. 또 지금 보육교사 공부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2는 그동안 컴퓨터 관련 한글, 파워포인트 시험을 보았고, 운전 및 피부 관리 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참가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연구참여자 11은 ITQ 정보기술 자격 외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통번역 관련 민간자격증 공부를 했다. 연구참여자 5는 그동안 한식조리사, 한지 공예, 패션디자인 등의 공부를 하였으며, 평생 직업 탐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취직하기 위해 8번째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금 미싱을 배우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것((가방, 옷) 내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북구청에서 신청해가지고 일이 없다고 어려워서 월급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하면 일이 없어...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 그 시간에 내일배움 카드로...근데 되게 편해요. 교통비도 나오고, 밥 값도 나오고. 지금 우리 수입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7,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외에도 전문 분야 기술 습득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다. 연구참여자 7은 결혼 후 미싱 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미싱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노동부 지원 내일배움카드 패션디자인 학원을 다녔다. 면담 당시 입고 온 옷과 들고 온 가방도 모두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이주여성 모임 행사에서, 한부모이주여성과 자녀를 데리고 패션쇼를 해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의상 제작 관련 공부는 연구참여자 7 외에도 앞에 언급한 연구참여자 5, 그리고 연구참여자 9도 하고 있다.

일단 옷 제작을 배웠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저도 몰랐어요. 물론 옷 만드는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 그쪽으로 그전에 제가 통역사로 일했었어요. 통역사로 일했고, 사업을 또 해 본 적도 있고, 뭐 러시아 쪽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4년? 아마도 4년 전에 이렇게 달려가 두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러시아는 한국하고 교류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도 일이 없어지고 뭐 통역도, 통역 일거리도 점점 없어지자 ‘아, 이거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건 미래도 안 보니까, 그래서 뭐라도 배워야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옷 만드는거니까 그쪽으로 가서 배워볼까 해서...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그 학원, 거기 과정이 제일 길었으니까, 과정이 기니까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금액도 되게 거의 700만원. 비쌌어요. 비쌌어요 금액이. (연구참여자 9, 전화 인터뷰, 2019년 12월 17일, 화)

연구참여자 9는 입국 후 통역사로 일을 했었고, 직접 국제무역을 해 본 경험도 있었다. 한부모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만, 평생 직업으로 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미래를 위하여 통번역 전문성을 더 높여 한국어능력시험과 사법 통역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부터 좋아하는 의상 제작 기술도 배우기 시작했다.

근데 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 했어요...그런데 처음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펙을 이야기하면 우리 그것 막 쳐져 있어요. 뒤편에 있었가지고, 못 배운 것 이게 한이거든...저 여기서 검정고시 봤어요. 초등학교는 다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진로를 찾다 보니까, 검정고시는 이렇게 시간마다 내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초등학교 검정고시는 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종류별로 해야 되는데,...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고재는 다 받아왔어요. 하려고 책까지 다 마련했어요. (연구참여자 3,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그냥 애들을 돌봄하고. 숙제는 알려주고. 네. 저는 여기 사회복지사 학과. 지금, 현재는 저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어요. 2급을 땀어요. 그래서 대학교만 졸업하고...그리고 이번에 제가 편입으로 해서 3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3학년 2학기...네. 1년 더 있으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아들을 잘 키우고. 저 그 때 학교 졸업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경제적 있으면 대학원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노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전문 기술 및 자격증 공부와 더불어, 대학교를 진학해 공부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연구참여자 8의 경우,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으로 들어가 졸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공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대학원에 들어가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기계발로 ITQ 정보기술자격 등 컴퓨터 관련 공부 외에, 패션디자인, 피부관리,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와 모국어 교육 관련 교육이나 통·번역 전공 학습 등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기계발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

5.1.2. 미래를 생각해 평생 직업 탐색

한부모의 삶이 점차 안정되고, 생활 문화에 적응하고 통합이 돼, 사회적 경험도 어느 정도 쌓이고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점차 노후까지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에 대한 탐색도 하게 됐다. 출신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의 한부모이주여성들은 특히 그러하다.

저는 컴퓨터 되게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 목적은 영어하고 컴퓨터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 가서 상담했더니 외국어는 전혀 안 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뭐 컴퓨터나 바리스타, 네일 아트 이런 것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제일 하, 공부하고 싶어요, 저. 인터넷 뭐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회사에서 들어가서 편하게 일할 수 그런 사무직 그런, 그런 거 배우려고.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네, 지금 우리 다문화 있잖아요. 다문화 필리핀이나 같은 것, 다문화센터 그런 때 온라인을 하고 있어요.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것 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뭐 해 볼까요. 할까요 이런 것.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계속하고 싶어요. 계속하고 싶었죠. 계속 그 전에 계속해 왔으니까. (연구참여자 4, 2020년 8월 29일, 토)

애기 키우며 살려면 나한테 안 맞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니깐 나한테 맞는 것을 찾다 시행착오가 있다가 이제 지금...보육교사...에. 보육교사 이번 학교 실습만 하면 끝나요. 보육 교사 공부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온라인...아동학사하고, 그것 이미 다 공부해 냈고, 보육교사자격증을 따면 어린이 집에 취직 할 수 있어요. 시간제로 일을 했갖고 하면 내가 이렇게 애들 키워 가면서 내게 맞는 시간 일을 골랐갖고, 편한 일을 골랐갖고 하면 되니까...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그때는 거기...구청...자활근로...구청에 3년 이라고, 복지관에 2년인가 3년인가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정부 보조금 타 막고 살아야 돼...애들 어느 정도 컸 갖고, 그래서 내가 늦게까지 노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1, 1회 집단 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연구참여자 13은 그동안 회사를 다닌 경험이 많아, 컴퓨터 관련 전문적인 공부를 한 다음, 본인의 언어적 장점을 살려 무역회사 사무직을 해 편하고 안정적인

인 직업을 원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 강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연구참여자 1은 평생 직업 탐색하는데 실행 착오가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며 노후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을 최종적으로 보육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보육교사 공부를 새로 시작했다. 이처럼 평생 직업을 탐색하여 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참여자도 있는가 하면, 현실 앞에서 그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서류들이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7년 됐어. 한국에서 외국 안 가는 것. 2013년 갔다 와서. 근데 그 동안 내가 한국에서 이혼했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보다 한국이 더 도와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한국은 집까지 해 주고... 밥도 해주고, 애들도 키우고 있고,.. 이제 나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나도 이제 한국에서 뭐 경찰서 일 그런 것 하려고 했는데, 국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뭐 하려고... 많이 작업(경험)이 있어도, 어쩌든 외국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도... 애들 위해서 나도 이제 든든한... 일 좀 하려고 했어... 국적만이야. 국적만 해결되면 나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에서 튼튼한 사무실 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 5,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연구참여자 5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원까지 다녔고, 고향에서 경찰서 검사 관련 직업 경험도 있다. 한부모가 된 후에도 경찰서, 법원 및 국회 통·번역 일과 봉사를 지속해 왔다. 건강을 되찾게 돼 관련 경험도 많아 경찰서 관련 안정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했지만, 전 배우자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5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아서 국적 취득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어쩔수 없이 공적 기관에서 안정적인 직업 갖기라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5.1.3. 이루어지고 싶은 진학의 꿈

자격증 공부와 평생 직업 탐색과 함께, 연구 과정 중,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로 대학 학력 취득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교적 젊은 30대의 연구참여자 사이에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 배우고 싶어요. 우선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기술도 배우고 싶고. 진짜 마음 깊은 곳에 나중에... 돈 좀 모아서 모아서 나중에 작은 가게, 식당, 뭐 칼국수, 만두집

그런 가게 하나 하고 싶어요...저는요 중국에서 중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대학교 들어가고 싶으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등학교 학력을 받을 수 있을까...저 고등학교 학력 받고 대학교 가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여기 모자원 나가면, 주거도 안정되고, 애는 다 크고 학교 들어가고, 저는 생활비만 벌면 돼요. 그래서 애한테 집중할 것 같은데, 학교 공부도 지도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중학교만...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 학교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고...지금 그냥 고등학교 학력을 받고 싶어요. 위로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만 할 수 없잖아요...중국어 교육이나, 사회복지 쪽 공부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6, 2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9일, 일)

저도 선생님처럼 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교 정말 가고 싶어요...대학교 졸업했어요. 5년이요.그런데 저는 엔지니어. 남자들이 하는 집 같은 것 짓는 것 있잖아요. 그걸 안 가고 싶어요...저는 통·번역이에요. 저 지금 서울 경찰서에서 러시아어 한국어 통역 등록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있어 어떨 때는 없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1, 개인 면담, 2020년 9월 17일, 목)

캄보디아에서 대학, 저는 대학교 다닌 지 1년 되고, 남편 만나서 바로 한국 시집왔어요...와서 애기 바로 가져서 학교 못 갔어요. 그냥,..다문화 센터나 뭐, 기관이나 학원 같은 거만 다녔었어요...대학 중, 이렇게...대학교 갈 생각이...갈 생각 많, 엄청...가고 싶었죠. 근데 지금.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이제는 힘으로 하는 일은 이미 몸이 너무 지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고...뭐 배워야 될 까. 뭐 좀 안정적으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지금 혼자 준비는 원지도 모르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 지고 생각하고 있어요...저요. 저는 통번역 쪽에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학교에...사이버 대학교라도...사회복지...당장 대학교 다니면 생활비도 걱정이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계속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4, 3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29일, 토)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적으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로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어도 꿈을 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중 8명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다. 이들은 대학교 진학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3, 6은 중학교 학력만 가지고 있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한 다음, 대학교 진학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1은 모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한국 대학교에 편입해, 한·러 통·번역 관련 공

부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3은 캄보디아에서 대학교를 중퇴해서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계획이 있었으나, 임신 후 배우자와의 사별함으로 그 계획이 결국 무산이 되었다. 지금은 생활이 안정이 되어 대학교 진학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4는 당장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도 문제가 되지만, 힘으로 하는 일은 지쳐서 사이버 대학교 진학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5.2. 미래대비 성장 변화의 의미

이주여성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에 및 자녀의 교육 및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 등으로 매일 매일 정신 없이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노후에 대해 세세히 계획하거나 준비할 여력이 되지 못하더라도 갑작스런 가정의 해체를 경험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대비에 나름의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연금이죠, 계속 붙고 있죠. 연금 붙고 있고요.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뭐해야 되지? 한 것 없는데, 정신없이 지금 살다가 노후준비는 아직은...아직까지 노후 준비는 뭐 해 놓은 것 없어요. 준비는 해 놓은 것 없고, 그다음에는 그...잘 살고 싶은 마음은...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평안한 생활...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 했냐? 저기 저 푸른 초원에 양대들이 있다는 데...저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동경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하하하. (연구참여자 2, 1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8일, 토)

적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들어가요...그런 거 당연하죠. 힘들지만 그래도 운동해야 돼...네, 운동하고 잘 먹어요. (연구참여자 8,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나의 건강, 앞으로도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애한테 뭔가 남겨야 하니까 나도 보험 들어가서, 지금은 적금처럼 매달에 하고 있는데. 제가 사망하면 모아둔 것은 애기한테 가려고. 근데 그것도 10년 이상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내는 돈이 크니까 지금 나는 법정 한부모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융? 금융?라고 해요. 그 체크하잖아요, 재산, 재산이나 그런 거. 금융 오버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법정 한부모가 되면 좀 안심하는데 지금은 그거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인 책임, 내가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애와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가 문제입니다. (연구참여자 12, 4회 집단면담, 2020년, 8월 30일, 일)

네, 건강하게만 이렇게...저도 엄청 열심히, 건강 검진 엄청 열심히 받아요, 선생님. 피검사, 또 피검사, 또 피검사. 자꾸. 걱정 많아서 또 가서 검사. 근데 별 이런, 뭐 병이 없대요. 피는 깨끗하고. 그래도 아파. (연구참여자 13, 개인 면담, 2020년 9월 13일, 일)

연구참여자 2와 연구참여자 8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연금에 가입하거나 저금,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고 및 사망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검토후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적인 고려 외에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되는 부분 바로 건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중 사고나 질병 관련 직·간접적 경험으로 가족 사별 경험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3 및 연구참여자 14는 전 배우자와의 사별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 12와 연구참여자 13의 전 배우자는 간암으로, 그리고 연구참여자 14는 전 배우자의 사고로 가족 상실경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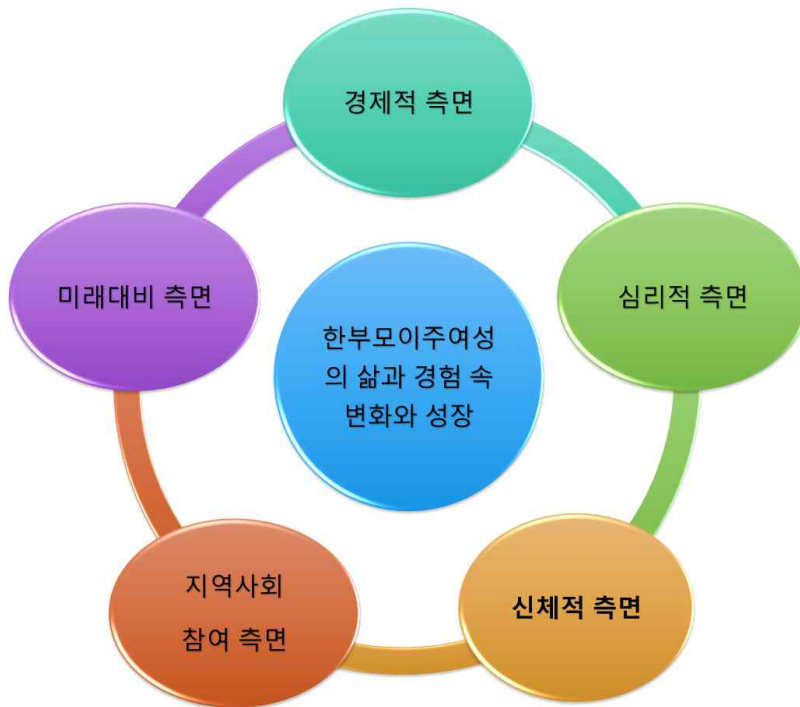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중 부모님과의 사별을 경험한 자가 가장 많았다. 연구참여자 1은 아버지가 간암으로, 연구참여자 2는 부모님은 모두 고혈압으로,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12도 모두 아버지와의 사별 경험이 있으며, 연구참여자 13은 배우자의 간암으로 헤어진 후에 친정엄마 또한 유방암으로 사망하여 연이어 2번의 가족 상실경험을 했다. 이중에서 연구참여자 2와 연구참여자 6은 임신 3개월 때 아이를 유산한 경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미래에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확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건강은 그들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이 되었다. 제시한 연구참여자 13은 건강 검진을 꾸준히 받아 왔고, 연구참여자 8은 힘들더라도 운동을 지속해 왔다. 연구참여자 12도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도 귀하고 갑상선 문제로 무섭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이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 외에도 노후 대비에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대비하기 평생 직업을 탐색해 자기계발도 꾸준히 하고 있다. 사고나 위기에 처해도 한부모가 되기 초기와 같이 당황과 미망의 경험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튼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소결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2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삶의 성장 변화 경험을 살펴보았다. 수집한 원자료를 활용해 연구참여자들의 설명적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속의 성장 변화 경험을 유형화하여 범주화해 보았다. 그동안의 문제 상황을 만나면서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구체적인 성장 변화 모습을 탐색해 보았고, 연구참여자들이 성장 및 변화할 수 있도록 한 작용용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먼저 한부모이주여성의 삶과 경험속 성장 변화로는 다음 [그림 V-01]과 같이 경제, 심리, 신체, 지역사회 참여 측면 및 미래대비 등 측면에서 변화 및 성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01]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속 변화와 성장

먼저 경제적 측면의 변화로 남편 바라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아 부채 및 빈곤에서 벗어난 삶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의 자녀교육 등이 다른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이주여성이 가정해체를 경험하여 한부모가 된 후에 열악한 상태에 생계부담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는 앞에 제시한 [그림 II-17]에서 제시한 듯이 국제결혼 가정 이혼 별거 사유 및 의사 결정 영향 요인 중 성격 차이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 되기 전과 비교할 때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측면의 변화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이한 뒤의 깨달음, 감사와 용서 등의 키워드를 도출하게 되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외로움, 무력감과 타격,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방황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부모이주여성 중에 심리적 및 신체적 질병의 증가함 두드러게 드러났고,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할 생각을 해 본 자가 적지 않다. 생활 속에서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억압되어 왔으며, 적당한 시기에 배출해야 하지만,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나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다행히 시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이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가정해체로 인해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강인해지고, 과거에 대해 담담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체적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 과정 중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들의 건강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어 본인이 먼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할 수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 문제는 주로 갑상선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 수가 있다. 연구참여자 2의 말을 따르면, 한부모 이주여자들이 갑상선암과 유방암을 많이 걸리는 이유는 쌓인 스트레스가 풀 수 없어 화병으로 이어져 결국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부모가 된 후에 정서적 안정을 되찾음과 동시에, 수술과 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되었다 건강을 되찾게 된 만큼 신체적인 변화도 매우 컸

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참여 측면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 활동’, ‘공감하면서 몸으로 봉사활동실천’ 및 ‘이주민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역 활동 참여’ 등의 하위주제를 도출하게 되어 한부모가 된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여성 해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연구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한부모이주여성들은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나, 여러가지 노동을 해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자녀들의 돌봄 문제이다. 이 문제만 적절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사회 봉사활동의 실천 또한 그들이 지역 사회 활동 참여의 다르 한 가지 방법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이후 연구참여자 10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이주여성들과 공유를 해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나 모임 활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돼 결국 강력한 사회적 흐름으로 수렴될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도 확대되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어 자아 성장 및 발전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다. 배움과 동시에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감 강화 및 자존감 향상과 함께 리더로서의 조직 대처 능력 제고시키는 효과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강한 독립심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각종 정보 획득으로 인해 점점 지역 사회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활동 빈도의 증가로 점차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한부모이주여성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의 생활과 복지 제안이나 건의를 해 외국인주민대포나 명예동장 같은 지역 활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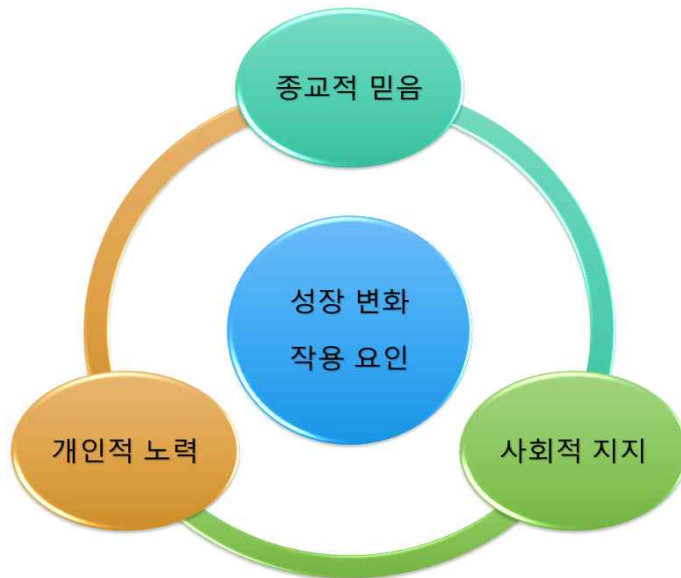
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이를 통해 자아 가치의 구현과 제고를 이룩했다.

미래대비 측면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바쁜 일상에서 틈틈이 자격증을 따, 평생 직업을 탐색해, 언젠가 이루고 싶은 진학의 꿈을 안고 운동을 열심히 해 나름의 노후 및 위기 상황 대처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계발로 ITQ 정보기술자격 등 컴퓨터 관련 공부 외에, 패션디자인, 피부관리,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모국어 교육 관련 전공 학습 등이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기계발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

평생 직업탐색으로 안정된 회사 사무직, 언어 장점을 활용한 통·번역, 모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 강사, 및 보육교사 등이 가장 인기 많은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30대의 이주여성들이 진학의 요구를 특히 많이 보였으며, 사회복지사, 모국어 강사, 통·번역 전공 공부 등을 통해 추후에 안정된 직업을 확보하는 것이 젊은 한부모이주여성 대부분의 꿈이라 했다.

노후 준비로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금, 연금 및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고나 위기 상황을 대비하면서,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생애 경험 속 성장 변화 작용 요인으로 다음 [그림 V-02]와 같이 크게 종교적 믿음, 사회적 지지, 개인적 노력 등 3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다.



[그림 V-02] 한부모이주여성 경험 속 변화와 성장 작용요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인 변화와 성장은 주로 종교적 활동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됨과 동시에 영적으로 변화가 보여 종교적 믿음도 깊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 요인에서는 공·사적 기관 및 시설에서 제공한 복지 정책적 지원 외에 친구, 그리고 이웃 등 지역 사회구성원들로부터의 따뜻한 지원과 진심 어린 도움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혼란스럽고 막막한 문제 상황에서 어지럽힌 생각을 차차 정리하고, 눈앞에 닥치는 일과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지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가정해체를 경험하여 한부모가 되었지만, 혼자자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친정의 든든한 지원과 위로를 받아 고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로서의 삶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앞에서의 두 가지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앞의 지지요소가 아무리 튼튼하게 구성돼 있어도 결국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여, 스스로나 혼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엄마로서의 아이에 대한 책임이라는 모성애가 각성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확산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다문화가정의 해체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다문화가정해체 수가 해마다 만 건을 넘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제결혼 해체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이다. 가정해체 후 이주여성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이주여성 모·자녀 가정의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94.9%에 달했다(여성가족부, 2019). 이에 비해 2020년까지 한부모이주여성 모·자녀 가정에 관한 연구가 20여 편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이주여성 관련 연구는 그동안 ‘어려움, 문제, 폭력, 우울, 스트레스, 차별’ 등의 문제 상황 탐색에만 머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발견하여 문제 대처 방안 수립, 한부모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부모이주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경제 활동, 지역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삶을 꾸려가는 데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대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한부모’ ‘이주’ 그리고 ‘여성’이라는 3가지 타이틀 아래 ‘사회적 약자’, ‘지원의 대상’ ‘문제 덩어리’ ‘연약하고도 불행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무의미한 경험이 없을 만큼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설령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또한 현세적인 고뇌의 근원이 되는 인생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인생의 소중한 배움과 깨달음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정인석, 2018).

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곧 문제 상황의 연속이다.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유기체로서의 인간

은 환경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직면하게 될 문제 상황을 대처해 나가며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부모이주여성들이 결혼, 이주, 해체 후 한부모로서의 살아온 삶에서 환경의 변화에 문제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성장도 동반될 것 또한 의심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애 경험, 그리고 경험 속 성장 변화에는 많은 지혜와 노하우도 숨어 있다. 이와 같은 지혜와 노하우는 ‘후배’ 한부모이주여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을 대처하고 성장하는데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경험은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해체 현상 예방 및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제의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향후 한부모이주여성의 적응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을 두고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성장 관점에서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그리고 그러한 생애 경험에서의 성장 변화한 모습 및 과정을 살펴봄은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장을 위한 방안 제시함과 동시에, 추후의 연구 방향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9년 12월에 승인을 받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전에 먼저 결혼이주여성과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연구주제를 선정한 다음, ‘성장’과 관련하여 적응과 자립, 역경 후 성장, 경험 이론을 소개하였다. 최종적으로 듀이의 경험 성장이론이 한부모이주여성의 경험 속 변화와 성장 연구에 가장 적합하여 이를 중심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에 맞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까지 문헌고찰과 함께 자료수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 순서지를 구성했다. 지인 소개 및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들의 소개로 눈덩이 수집방법과 함께 25명의 연구참여자를 섭외해, 집단면담, 개인 면담 및 전화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했다. 수집한 녹음 자료를 전사 및 정리하여 현장 기록 관찰 일지와 함께 연구에 사용할 자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화로 추가 자료수집 단계도 거쳤다. 최종적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14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애 경험을 분석했다.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그리고 생애 경험 속 성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했다.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는 생애사 연구를 토대로 하며 핵심은 ‘내러티브’(Rosenthal, 2006)에 있다. 한부모 이주여성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이며 한국 사회에서 힘 없는 소외 계층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이주여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그들의 경험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을 통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능한 많은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적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생애 경험 속 성장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재구성해 연구참여자별 기술적 내러티브로 분석하였고, 반복비교적 분석법 아래 김영천(2017) 제시한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설명적 내러티브를 통해 한부모가 된 이후의 성장 변화 및 작용요인에 대해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변화하는 1차 직접적 경험의 대한 연구참여자별 내러티브 기술하였다. Cloninger(1994)의 개인의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기초월의 측면을 반영하는 세 가지 성품 중의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과 한부모 되기 과정에서 개인이 주도적 행동 (Crant, 2000; 2007)을 했느냐에 따라, 본 연구에서 14명의 연구참여자를 자기주도형 및 비주도형, 그리고 그 중간에 속하는 기관의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참여자별 내러티브 기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결혼부터 가정해체를 경험해 한부모가 됨의 전체적인 생애 경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때,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갈등-우울-고민-결심-이혼-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했고, 기관의지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위기-탈출-고민-결심-이혼-우울-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비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적응-사별/이혼-당황/분노-우울-적응-회복-자립-성장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트레스 및 우울, 슬픔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시기는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한부모되기 전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기관의지형 및 비주도형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에 우울에 빠진 경우가 많다.

둘째, 한부모 되기 과정에서 개인이 주도적 행동함의 작용요인으로 언어소통 능력, 입국 전·후의 사회 경험의 유무, 결혼 전·후의 경제 활동 경험의 유무, 가

정 경제 공동부담 여부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높은 언어소통 능력이 있으며, 입국 전·후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을 지속한 경험이 많고 결혼 후에도 가정 생계를 전 배우자와 함께 부담한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기관의지형과 비주도형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거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 경험 없이 학교 다녔을 때나 졸업하자마자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 이주하여, 결혼 후에도 가정의 생계는 전 배우자가 주로 부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당시 모두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 한부모가 된 후의 구체적인 성장 변화 경험으로 경제적 측면, 정체성과 심리적 측면, 신체적 측면, 지역 사회 참여적 측면, 그리고 미래대비 측면에서 변화 및 성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가지 영역별 성장 변화의 의미는 다음 [표 VI-0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VI-01] 한부모이주여성 경험 속 성장 변화의 의미

영역	주제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성장 변화	되찾은 경제적 주도권
		부채 및 빈곤에서 벗어난 삶
경제적 측면 성장 변화의 의미		
심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성장 변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
		죽음을 맞이한 뒤 탄탄해진 마음
		감사하고 용서하며 삶
심리적 측면 성장 변화의 의미		
신체적 측면	신체적 측면 성장 변화	건강해진 몸
		암 수술과 치료
신체적 측면 성장 변화의 의미		
지역사회참여 측면	지역사회참여적 성장 변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동
		공감하며 몸으로 봉사활동 실천
		이주민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역 활동 참여
지역사회 참여적 측면 성장 변화의 의미		
미래대비 측면	미래대비적 측면 성장 변화	틈틈이 딴 자격증들
		미래를 생각해 평생 직업 탐색
		이루어지고 싶은 진학의 꿈
미래대비적 측면 성장 변화의 의미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후의 성장 변화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믿음, 사회적 지지, 개인적 노력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생애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첫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편견의 문제이다.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는 이현주(2013), 김희주(2018) 및 이승순(2018)에서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9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수리 문제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연구참여자 11은 관련 보호 시설 담당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 10은 학교 교사로부터, 연구참여자 14는 유치원 선생님께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한부모이주여성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감정에 대해 더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다문화 교육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차별적인 행동과 말에 크게 반응하게 돼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둘째, 관련 정보 획득의 신속성 문제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된 전·후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최승인(2014)에서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모자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갑상선 암, 백내장, 항진증, 무릎 문제 등 매우 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도 수급도 지원도 모르고 살았다고 했다. 한부모 지원은 모자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알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이 가정해체를 경험하여 지원 및 도움이 가정 필요한 한부모가 된 초기에 관련 정보의 미비로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장기간 동안 혼자서 문제를 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직업 교육 미 자기계발 후의 취업 연계 문제이다. 직업 교육 및 치료는 한부모이주여성의 경제적 문제 해결과 큰 관련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연구에서 다루었던 문제이다. 최승인(2014), 장명선(2015)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희주(2018)에서는 한부모이주여성들은 교육의 기회와 참여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학원 학습 및 진학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오히려 습득한 기술이나 취득한 전문 자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안정한 경제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현재로서 직업 교육 및 자

기계발 교육 지원보다 취업 진로 관련 교육보다 안정된 취업을 가능하도록 추 후 연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넷째, 가사 및 가정 돌봄 시간 부족의 문제이다. 한부모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데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사 및 가정 돌봄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를 많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을 마음 깊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위기 및 사고 후 자녀의 생존 문제이다.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건강 문제를 앓고 있거나 가족 사별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건강 및 사고에 대해 우려가 매우 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생존의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이며 기존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14명의 한부모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삶을 살펴봄으로써 생애 경험 속 성장 변화한 과정과 모습을 탐색하였다. 도출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부모이주여성의 바른 성장 및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추후 연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이주여성들의 경제, 봉사, 지역 활동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전환하기 위해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공·사적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의 실시 및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이주여성들이 가정해체를 경험 후, 시기적절한 정보의 제공해 주는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가정해체 후 행정서류 처리 과정에서 필히 활용하는 동사무소에서 해당 한부모이주여성의 실제 상황 파악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가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 방문을 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사회에서 배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보건 교육 및 심리상담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원 등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또한 가정 방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직업 교육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후의 직업 연계 서비스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매우 다양한 자기계발을 통해 다종 전문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후기의 관련 직업 연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부모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 활동으로 가정에 돌볼 정신이 없는 이주여성 한부모 가정에게 정기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은 긴박한 생활 리듬에서 잠시의 휴식을 얻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부모이주여성 및 일반 국제결혼 가정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

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가 된 직후 가정 환경의 변화로 우울 및 스트레스에 빠지기 쉬운 시기에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위기 상황이나 사고 대비로 자녀 생존 문제를 관련하여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위기 상황 및 사고 후 자녀의 생존 문제는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관련 지원 체계나 대처 방안 및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여덟째, 한부모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짐으로 연구 분야에서 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종교, 이야기, 문학 등을 활용한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아홉째,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국적 취득 요건의 완화 및 특별 귀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될 것이다. 한부모이주여성들은 결혼 이주를 하여,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한부모가 된 전과 후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 고통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희망을 안고 한국에서 오랜 동안 살아왔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이주여성들은 현행하는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국적 취득 불가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부모이주여성의 긍정적인 성장 및 자립을 위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이론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이주여성 결혼과 해체 현황, 한부모이주여성의 현황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수집한 다중 실제 사례를 통해,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및 그러한 경험 속의 긍정적인 변화 및 성장한 모습을 탐색해 보았다. 이는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그들의 생애 경험 속의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몇몇 한부모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일반인이며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의 한부모이주여성들이 문제 상황을 직면할 때의 상태 및 변화,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본 모습과 경험이 한부모이주여성을 포함한 모든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부모

이주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 및 기여도 인정해주시기를 바라며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오늘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라도 보정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과 함께, 연구자는 한부모이주여성과 관련 하여 자녀 양육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심리적 변화,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제로 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추후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희(2019). 여성영웅소설을 활용한 결혼 이주 여성의 문식성 증진 교육 방안 연구: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1), 443-472.
- 강영미(2015).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 복원' 생애사-로젠탈의 내러티브 분석 접근.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9(1), 108-136.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학위논문.
- 강윤경(2013).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18, 75-96.
- 강진숙(201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강진희(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미숙(2019). 이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경험 및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401-414.
- 고수정·김순양(2017).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배제 실태와 영향요인. 지역발전연구, 26(2), 33-70.
- 고원식(2019). 출신국가별 합계출산율이 결혼이민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 21(3), 41-68.
- 고은미(2009). 학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독해 자료 구성 방안 연구. 국어문학, 46, 93-116.
- 공수연·양성은(2015).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171-184.
- 권석만(2017). 인간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수경·김주연(2019).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어린이 체험공간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1), 249-258.
- 권윤경·이찬(2015). 어린이 놀이 공간에 대한 듀이의 경험론적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0권 5호 151-163.
- 권이정(2018). 다문화 결혼 이민자 어머니의 부모참여에 대한 인식과 실제에 대한 연구. 어린이미디어 연구, 17(1), 379-404.
- 권정숙(201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학습 방향탐색. 교육연구논총, 33(1), 49-72.
- 권화숙(201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언 어미 연구. 언어학연구, (43), 123-136.
- 금민아(2017).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준성·김민수·최민지. (2019). 결혼이민자 소재의 TV 프로그램 담화 속 차별적 요소 분석: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3), 1-27.
- 김강남(2016).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 10(3), 54-84.
- 김경원(2010)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4(2), 133-144.
- 김경원·백성희·정금희(2014). 이주여성의 임신적응증진을 위한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평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4), 235-245.
- 김경원·정금희(2013).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산후 적응 요구 측정도구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4), 242-253.
- 김경학·윤밀달(2017). 국내 내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에 대한 초국적 돌봄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514-528.

- 김광수·장사형(2016). 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선택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4(3), 5-25.
- 김금아(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가족이데올로기.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 7-22.
- 김기홍(2017). 삶의 궤적으로서 아이덴티티 형성 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진로교육에의 시사점 탐색.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화·김영순(2018).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여성학연구, 28(1), 155-184.
- 김남욱(2012).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법적과제. 국가법연구, 8(2), 1-21.
- 김도희(2010).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5-25.
- 김두년(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49), 325-347. 1-11.
- 김두섭(2018). 거주지역의 인종 구성이 혼인이주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주변효과. 한국인구학, 41(2), 151-177.
- 김서형(2015).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연구 및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청람어문교육, (55), 151-175.
- 김석란(2007).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 동기에 관한 연구. 日本語教育, 42, 241-258.
- 김선정(2018).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4), 33-54.
- 김선정·윤유식(2019). 관광·MICE 전공 대학생의 직업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8(3), 89-107.
- 김선희(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기 건강관리 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2), 325-343.
- 김성락(2019). John Dewey의 교육사상에서 경험론이 통합교육 실행에 주는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호(2019).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경험 연구. 생명연구, 52, 57-84.
- 김소영·최소영(2010). 결혼이민여성의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참여행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55-265.
- 김소화·노윤구(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영향. 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 24(2), 174-184.
- 김순남(2014). 이주여성들의 결혼,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본 삶의 불확실성과 생애 지도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30(4), 189-231.
- 김아영 외(2016). 혼자 쓰는 연구논문: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연수(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9-90.
- 김연수·박지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30), 269-298.
- 김영숙·이근무·윤제영(2012). 화교노인의 생애사 재구성을 통해 본 화교의 정체성. 사회복지연구, 43(1), 179-202.
- 김영순 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 외(2019).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 삶에 관한 생애담 연구. 성남: 북코리아.
- 김영순·이미정·최승은. (2013).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4), 239-271.
- 김영주(2009). 음식으로 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 전략. 農村社會, 19(1), 121-160.
- 김영천(2017).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옥연(2009).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대학과 복음*, 14, 93-121.
- 김우석·한광령(2010). 결혼이주 여성의 스포츠를 통한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4), 41-57.
- 김윤경·이부미(2019).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어린이교육비평*, 9(1), 5-35.
- 김이선(2015). 미등록체류 아동과 미혼모 이주여성의 인권,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ISSUE PAPER*, 2015(1), 1-11.
- 김재건(1992). 教育課程 內容 選定에 대한 K. Marx와 J. Dewey 知識論의 含意 分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건(2002). 듀이의 경험론의 재고찰: 구성주의 관점에 관련하여. *교육과정연구*, 20(1), 75-95.
- 김재은(201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무용 참여와 문화변용. *한국무용학회지*, 19(2), 75-85.
- 김재일·조윤희. (1990). 集團經驗이 貧困·缺損家庭 靑少年의 社會心理의 特性에 미치는 影響. *社會福祉研究*, 18, 3-24.
- 김재학·박진경(2014). 주제분석을 이용한 결혼이민자여성의관광결정 및 관광행동에 관한 탐색. *호텔경영학연구*, 23(2), 259-274.
- 김재훈(2007).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행동특성과 인생태도 유형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 :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1-39.
- 김정선(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 205-246.
- 김정선·김재원(20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6), 305-344.
- 김정순(201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2019). 부모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51, 45-84.
- 김주섭(2020).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1021-1040.
- 김주연(2019). 자화상을 활용한 미술집단상담이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육문화연구*, 25(5), 991-1005.
- 김지옥·전미경(2014). 가정교과를 적용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26(4), 51-73.
- 김지현(2011). 민요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 *통합치료연구*, 3(2), 21-32.
- 김진미(2006).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1(1), 105-124.
- 김진욱(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분석: 홍성군의 베트남 출신 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보*, 12(1), 1-17.
- 김진희(2011).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노동자의 교육 참여 현실과 평생교육의 방향성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17(1), 25-51.
- 김진희·김영순·김지영(2015). 질적연구 여행. 성남: 북코리아.
- 김진희·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農村社會*, 18(1), 127-160.
- 김춘미·박명숙·김은만(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보건의료이용실태와 보건의료요구도 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2(3), 333-341.

- 김태량(2019).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0), 5-38.
- 김태원(2014). 생애구술사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 경험 분석 -내팔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1), 143-171.
- 김태임 외(2012). 결혼 이주여성의 피임 지식과 실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4), 290-301.
- 김태임·김지영·정계현·최선미(2012). 결혼 이주여성의 피임 지식과 실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4), 290-301.
- 김하영(2019). 사별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홀로서기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한근(2009).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農村社會, 19(1), 83-120.
- 김현미(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젠더와 문화, 5(2), 113-145.
- 김현숙(2015).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영향 요인과 민족적 차이. 한국사회정책, 22(2), 163-193.
- 김현진·정경아·정혜원(2009). 동아시아 국내 이주 여성의 월경과 골밀도에 관한 연구. 대한폐경학회지, 15(2), 116-123.
- 김혜선(201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계적 사회자본. 가족과 문화, 31(3), 139-178.
- 김혜원·김민화·김지명(2018). 동두천시 일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6(4), 205-219.
- 김혜자·심미정·오효숙(2012). 결혼 이주여성의 월경 지식, 월경 태도 및 피임 지식. 디지털융복합연구, 10(5), 307-314.
- 김효선(2015).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모색. 미래교육연구, 5(2), 1-15.
- 김희주(2018).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30(2), 129-170.
- 나영이·홍용희(2016). 한국 내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유아교육연구, 36(2), 213-241.
- 남부현·김옥남(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수도권 지역의 고큰력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13-142.
- 남인숙·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남혜경·이미정(2014).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지역과문화, 1(2), 53-74.
- 노진호(1994). 듀이의 反省적 思考와 教育論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당징야·진미정(2018).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의사결정 공정성인식과 성역할태도가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1), 121-137.
- 류경혜(2018). 한국의 다문화 - 국제결혼여성들의 현실적 어려움. 比較法學, 29, 3-23.
- 류다형·이순형(201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일반가정과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07-131.
- 류명길(2002). Dewey의 실용주의에 있어서 경험과 교육. 논문집, 17, 17-32.
- 리휘문·최재민(2017). 결혼이민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95-423.
- 마미정·윤서연(2010). 결혼이민자 가정 외국인 부모의 개인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한국가족복지학, 15(4), 5-22.
- 문가을 외(2015). 탈북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건강 실태 조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1), 103-109.
- 문경연(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2), 71-112.
- 문석우(2010).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실태조사: 광주, 전라도지역의 러시아 및 CIS 국가 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34(1), 233-265.

- 문선숙·김창희·심미경(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및 도움요구. 韓國保健看護學會誌, 23(1), 101-112.
- 문소현·김미옥·나현(2019).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 유형별 모성이데올로기 및 양육 스트레스.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4), 449-460.
- 문정화(2017).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단독으로 상담에 참여한 중국출신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5), 91-128.
- 민가영(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83-104.
- 박광민(2005). 사별 및 이혼을 통한 유년시절 상실경험과 신앙적 극복.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남·최소영(201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식건강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3), 248-258.
- 박명숙(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23.
- 박미숙(2019). 학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5(2), 833-855.
- 박미숙·김영순·이진영(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불취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9(2), 138-159.
-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269-302.
- 박미은·신희정·이미림(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
- 박미정·엄명용(2015).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33-60.
- 박미정(2015).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행위의 주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거듭나기’. 한국가족복지학, 20(2), 273-294.
- 박봉수·김영순(2018)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5(1), 93-120.
- 박소은·이채원(201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359-384.
- 박신규(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 박영신(2014).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사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규(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75-105.
- 박재규(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5(1), 5-3.
- 박종수(2016). 몽골출신 이주여성의 ‘국민 되기’ 과정 속 종교의 역할. 다문화와 인간, 5(1), 123-133.
- 박주희·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박지경(201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 491-500.
- 박지영·이창식(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디지털정책연구, 10(11), 665-672.
- 박진경(2019).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새로운 다문화 기독교교육 모형 연구. 신학과 실천, (63), 483-514.
- 박철민(2012).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413-436.
- 박행모·문승태(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실태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2), 69-91.
- 박현식·최미영·이옥진(201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4), 61-74.
- 박현주·정윤나(2013).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위한 2013년 초등학교 개정교과서 어휘 분석: 1, 2학년 1학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5, 249-267.

- 박홍순(2008).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현존과 대안적 성서해석. 시민사회와 NGO, 6(2), 101-134.
- 박희숙(2015).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3), 359-370.
- 반즈락츠 난딩췌그(2010). 한국사회와 몽골사회의 사이존재로서 몽골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학, 11(2), 31-62.
- 방기혁(2013). 한국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2), 47-72.
- 방기혁(2013). 한국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2), 47-72.
- 배지현·박정숙(2018).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 278-290.
- 백인중(2009). John Dewey의 사상에 있어서 지성과 교육.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부티짱(2017). 한·베 다문화가족의 귀환여성과 그 자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숙(2015).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요리를 이용한 한국어 교재 연구. 돈암어문학, 28, 143-180.
- 서덕희(2011). 세 여성의 삶, 세 차원의 다문화교육: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한 한 질적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4(1), 1-42.
- 서선숙·백진아(2017).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301-310.
- 서승현(2019). 러시아 · CIS국가, 몽골 출신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 및 인권 실태에 관한 질적연구.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66, 181-217.
- 서운석(2009). 국제결혼이주자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분석: 중국지역 출신 여성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7(2), 175-200.
- 서재복·임명희(2018).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교육종합연구, 16(1), 173-193.
- 서종남(2010).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103-126.
- 석영미·이병준(2016).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의 생애사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2), 147-171.
- 석창훈(2018).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과 결혼적응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193-203.
- 설동훈·이계승(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성태제·시기자(201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성향숙(2010).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316-327.
- 성향숙(20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25-43.
- 성향숙(2011).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307-316.
- 소라미(2009).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16(2), 43-74.
- 손기영(2010).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의 특성 및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1), 19-36.
- 송도선(1998). John Dewey의 經驗中心教育論.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도선(2009). 듀이 철학에서 경험 연속성의 교육적 함의. 教育思想研究, 23(3), 291-313.
- 송도선(2014). 듀이의 성장이론에 담긴 평생교육의 이념. 교육사상연구, 28(1), 187-206.
- 송도선(2018). 듀이의 전통적 경험관 비판과 새로운 경험 이론의 전개. 현대교육연구, 30(2), 71-87.

- 송민애(2008).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몸 경험 : 유목적 체현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신학논단, 54, 237-277.
- 송성자(1974). 國際結婚에 있어서의 夫婦葛藤 : 美八軍 精神 衛生科에 依賴해온 美國軍人 配偶者를 가진 韓國女性을 中心으로 한 調査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외(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송재현(2018).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379-391.
- 송채수(2018).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 245-280.
- 송형주(2014).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유형화와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行政論叢, 52(4), 191-231.
- 신난희(2019). 탈북이주민 구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탈북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4), 195-210.
- 신민자(2006). 집단미술치료가 필리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6(2), 21-39.
- 신영지(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한국어 문학교육의 가능성 모색. 泮橋語文研究, (35), 379-408.
- 심인선(2013). 경남 한부모 다문화가정 실태와 과제. 경남발전, (129), 103-111.
- 심혜령·조옥이(2017).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1, 97-117.
- 안나원·한영란(2018).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행위 영향요인: 계획된행위이론의 적용.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2(3), 468-481.
- 안옥희 외(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6), 3137 - 3151.
- 안윤지(2016).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국(2009).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韓國 中東 學會 論叢, 30(1), 217-256.
- 양민정(2010).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야담 활용의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4(3), 283-302.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농촌사회, 16(2), 151-182.
- 양순미(2014).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4), 1061-1091.
- 양영자(2013).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1), 271-298.
- 양인숙 외(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73.
- 양점도·김춘택(2006).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복지행정논총 16(1), 1-20.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1-861.
- 오덕열(2018). 종교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통일교 일본여성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12(3), 57-79.
- 오미경(2012). 부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접촉,갈등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구조에 관한 연구: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제스처. 日本語教育, 60, 27-49.
- 오세경·김영순(2019).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여가경험과 의미. 문화교류연구, 8(2), 169-191.
- 오은정·오미경(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2), 96-105.
- 오종진(2014). 한국 이주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 65-104.
- 오테곤(2018). 결혼이주여성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법사회학적 기초 연구: 정치참여변수 간의 관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6), 711-722.
- 오혜정(2016). 한부모이주여성의 삶과 자녀양육 경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정(2017).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7), 39-67.

- 우창현(2011). 방언(한국어) 교육 방향: 결혼여성이민자 대상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2), 103-124.
- 유기쁨(2011).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 결혼이주여성과 종교. 종교문화비평, 19(19), 86-132.
- 유기웅 외(2016).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매·강영순(2014). 목표지향성과 직무수행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동의 매개효과 :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업교육연구, 28(3), 307-330.
- 유수연(2010). 국제결혼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독어교육, 49, 423-452.
- 유정균(2014). 혼인이주여성의 아들선호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7(3), 79-105.
- 유향선·봉진영·윤재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지도 경험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5(2), 109-133.
- 윤경희·박상주(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2), 197-218.
- 윤대석(2014).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201-229.
- 윤승주·원재연(2016). 몽골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경험: 가부장제, 차별주의, 낙인의 다중적 결합. 동서연구, 28(4), 5-34.
- 윤영옥·문인옥(2010). PRECEDE 진단 요인을 이용한 베트남 여성이주자 생식보건교육 관련 요인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4), 61-72.
- 윤정윤(2014). 참여디자인 방식을 통한 공익캠페인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향희·서은숙(201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혼의 원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倫理研究, 1(99), 91-121.
- 윤혜옥(2015). 결혼이주여성 대상 시에 나타난 다문화 상상: 하종오 시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70), 451-479.
- 윙티탄프엉·김영순(2018).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접촉 경험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7), 861-871.
- 이경은·장덕희·김도희(2010). 결혼이민여성의 직업활동과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7(2), 113-153.
- 이경혜·김경원(2011).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서 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2), 121-131.
- 이경희(2012).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7(4), 295-318.
- 이금순(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5(1), 191-234.
- 이금연(2006).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여성연구논총, 5(2), 181-206.
- 이동섭·최용득·조예슬(2017). 주도적 성격과 주도적 행동: 윤리적 리더십의 역할. 윤리경영연구, 17(2), 63-84.
- 이마민·이채원(2017). 지역사회참여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5, 237-263.
- 이미경·방기혁(2018). 우울 증세가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심리극에 나타난 정서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379-401.
- 이민아(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이민영·김현경(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 체험: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525-554.
- 이선이(2017). 듀이에서 경험의 의미 - 듀이의 『경험으로서 예술』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15, 193-215.
- 이성순(2006).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69-85.
- 이성순(2018).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7), 49-89.

- 이소영(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가 다문화시민권리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7(1), 1-28.
- 이숙경·김민(2018). 색채심리치료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7(4), 121-151.
- 이승숙(2019). 중국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초기 이중언어 경험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9(2), 153-178.
- 이승순(2018).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7), 49-89.
- 이승우(2008).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법학*, 16(1), 125-158.
- 이승현(2004). 존 듀이의 經驗理論에 비추어 본 探究學習.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연(2005). 이혼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옥·박병현·장덕현(201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 주요 일간신문 사실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2), 33-69.
- 이연옥·장덕현(2015).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171-199.
- 이영희·심영미·강갑원(20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129-148.
- 이용승·이용재(2013). 이주민 정치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53, 110-130.
- 이은실(2007). '인간-공간'간 상호관계성 증진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써 경험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이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18(1), 219-249.
- 이용택(2016).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과 심리·사회적 적응 :성장적 반추의 조절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경(2005). 이주 여성의 인권. *부산발전포럼*, (96), 52-60.
- 이재실(2011). 일터경험학습을 통한 명장의 성장과정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홍·박영주·김원진(201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애로요인 분석. *政策分析評價學會報*, 22(3), 231-258.
- 이정·김홍범(201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 만족이 생활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87, 463-484.
- 이정숙(201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음식문화 적응 경험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2(2), 103-114.
- 이정은(2013). 이주여성 모자가족의 자녀 돌봄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 A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석 외(2002).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에서 발생한 경부임파선염을 동반한 원발성 비인강결핵 1예. *대한내과학회지*, 63(6), 716-719.
- 이지선·천혜정(2008). 한국남성과 연애 결혼한 일본여성의 한국결혼생활적응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57-76.
- 이지은 외(2014). 커뮤니티 통역 교육 사례 연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3), 155-180.
- 이진규(2010). 이주여성의 재산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法學論叢*, 17(2), 215-244.
- 이춘양·김영순(2020).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학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28(2), 19-46.
- 이춘양·조지형(2019).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381-388.
- 이혜경(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29-54.
- 이해웅(2014). 결혼이주여성의 본국/한국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6(2), 1-24.

- 이향은(2013).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이너의 맥락적 경험과 통찰력의 구성 요인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 431-445.
- 이현수(2009). 역경 속의 성장. 서울: 학지사.
- 이현주(2013).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171-214.
- 이현주·여영훈(2017). 결혼이주여성 근로자의 직무적, 문화적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4), 415-423.
- 이형하(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219-245.
- 이혜경·전혜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이혜경 외(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이혜자·김병록(2018).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인문사회 21, 9(1), 695-704.
- 이효민·구효송(2012). 다문화시대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법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인종갈등과 가정해체로 인한 다문화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4), 289-320.
- 이희용(2015). 성장을 위한 경험 교육으로서의 독서 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선영(2013).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양준(2017). 한국 거주 외국인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1), 79-114.
- 임은미·정성진·이수진(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3), 957-973.
- 임재란·한양금·김한홍(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구강관리능력의 관련성.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6), 109-119.
- 임춘희(2014). 한부모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3(6), 1049 - 1069.
- 임현지(2007). 북한이주여성의 건강권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 8(2), 151-177.
- 임혜정(2018).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실천 경험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3), 77-97.
- 장명선(2015).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공공사회연구, 5(4), 72-106.
- 장승심(2009).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사용 실태와 그 함의. 교육과학연구, 11(2), 241-268.
- 장은정·박정운(2010).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의 경험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221 - 234.
- 전대근(2015). 동양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한국 여성 패션에 대한 가치평가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27, 286-306.
- 전미양 외(2012). 충북 지역 결혼이주 여성 출신국가별 건강행태,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실태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8). 3500-3512.
- 전영옥(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오류 분석. 한말연구, (27), 213-243.
- 전오열·이희중(2017).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정보 커뮤니케이션 연구: 충남 금산군 거주자들의 미디어와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 지역과 세계, 41(2), 91-128.
- 정경운(2007).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97-139.
- 정금화·김경남·백성희(2019).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산후적응 요구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5(1). 19-30.
- 정상우·최보선(201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7(3), 101-124.
- 정선영(2013). 듀이의 교육론을 적용한 활동 중심 교육방법 개발: 6학년 사회과 정치단원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애·최우길(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리터러시 현황과 과제. 평화학연구, 13(3), 293-213.

- 정의용·문지영(2019).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167-196.
- 정인석(2018). 역경이 있어 삶은 의미가 있다. 서울: 나노미디어.
- 정지윤(2011). 국제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정에 관한 고찰, 한국한부모 가정학, 4(1), 21-36.
- 정희정(2003).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정·강재민·송근배(2016).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위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10), 319-326.
- 조상현·정의롭(2015). 지역사회환경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7(3), 299-320.
- 조수연(2012).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2015).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자녀 출산 의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4(5), 631-644.
- 조윤주·최연실(2016). 워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해결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가족과 가족치료, 24(2), 187-206.
- 조혜경·임현숙(2019).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 456-467.
- 조화성(2010).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 한국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모델의 검토 -쌍방향 통합모형의 적용. 민족연구, (44), 4-26.
- 조희원(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와 사회통합. 분쟁해결연구, 14(3), 163-189.
- 주미연(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 결정요인 분석. 湖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주소희·이경은(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 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45-64.
- 주월랑(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어휘 사용 연구: 복잡성 측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3), 221-246.
- 주은선·조병주·이현정(2012).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1(1), 45-76.
- 주정(2015). 탈가정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사례를 통한 실태와 문제점의 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2(2), 125-142.
- 채옥희·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63-88.
- 최나연·이병숙(2015). 여성 결혼이민자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6), 326-336, 2015.
- 최미경(2013). 베트남 해체가족 이주여성의 ‘어머니 됨’의 체험연구 : 해석학적 연구방법론 적용.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살정황(情況)에 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61-87.
- 최미숙(2013). 결혼이주여성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구강상태의 변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 306-313.
- 최송식·김현숙(2009).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수준, 정보유용성, 정보욕구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34, 455-494.
- 최승은(2019).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관계에 관한 상호문화적 해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2), 143-168.
- 최승은(2019).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1(2), 77-109.
- 최승은(2020).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정체성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언어와 문화, 16(3), 369-390.

- 최승인(2014). 다문화 한부모 가정 발생 전후의 삶의 과정 연구. 한국한부모 가정학, 7(1), 1-24.
- 최은경(2003). Dewey와 Hirst의 교육내용 성격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경·이정애·감미옥(2019). 한국어 학습을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국어문학, 71, 621-656.
- 최현미·고미경·윤명숙(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9(3), 119-142.
-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45.
- 표명환(2009).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公法學研究, 10(3), 97-120.
- 하태호(2012). 존 듀이의 경험주의에서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한 체육론 탐색.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염(2008). 한국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경남발전, (94), 36-48.
- 한미현(2005). 가정해체의 실태 및 해체가정아동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3(1), 87-102.
- 한윤화·신원선·김지나(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식생활 적응요인 및 식행동 연구. 비교한국학, 19(1), 115-160.
- 한지현(2013).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을 위한 전남방언 어휘의 선정- 초급 어휘를 중심으로. 南道文化研究, (25), 429-491.
- 함옥·김주영(2011). 이야기 표현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22(2), 351-373.
-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1-92.
- 홍영숙(2019).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두 명의 언어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언어학연, 24(1), 299-325.
- 홍종명(2013).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어학습 요구분석 연구. 동남아연구, 23(1), 199-222.
- 황건화·임선화·김주연(2019). 어린이 뮤지엄의 경험론적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7), 99-110.
- 황민철·장익현(2017). 결혼이민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영향요인 연구: Andersen 모델을 이용한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1), 31-56.
- 황정미(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1-37.
- 황정미(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황정미(2015).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피해에 대한 재고찰: '취약성' 프레임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점으로. 한국여성학, 31(4), 1-39.
- 황혜영(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혜영·김영순(2019).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01-120.
- 황혜영·김영순(2019).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01-120.
- 황혜영·김영순·이춘양(2018).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909-927.
- 황혜영·이미정(2015).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4), 415-425.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loninger, C. R.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O: Centre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 Crant, J. M. (2000), Proactive behavior 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6, 435-462.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A, Los Angeles: Sage.

- D. Jean Clandinin & F. Michael Connelly, (2016). 내러티브 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소경희 외 역.
- Denzin, N. K. (1989). Interpretive biography. CA: Sage.
-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 K. & Lincoln, Y. S. (2005).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troduction.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eed) 1-32. Thousand Oaks, CA: Sage.
- Dewey, John. (1983). 아동과 교육 과정 경험과 교육. 경기: 문음사.
- Fazio, R. J. & Fazio, L. M. (2005). Growth through loss: promoting healing and growth in the face of trauma, crisis, and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0, 221-252.
- Frese, M., Kring, W., Soose, A. & Zempel, J. (1996). Personal Initiative at Work: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 37-63.
- Grant, A. M. (2007), Relational job design and the motivation to make a prosocial differ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 393-417.
- Grant, A. M. & Ashford, S. J. (2008), The dynamics of proactivity at work.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8, 3-34.
- Huang Jianhua. (2020). 존 듀이의 경험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뮤지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ohn Dewey. (2020).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업태동 역. 서울: 박영스토리.
- Joseph, S. & Linley, P. A. (2006). Growth following adversit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1041-1053.
- Leonard Webste & Patricie Mertova. (2017).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서울: 학지사. 박순용 역.
- Linley & Joseph.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artin Seligman. (2014).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경기: 도서출판 물푸레. 김인자, 우문식 역.
- Meadows, L. A., Kaslow, N. J., Thompson, M. P., & Jurkovic, G. J. (2005). Protective factors against suicide attempt risk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2), 109-121.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iranda De Dios Ines & 이춘호. (2017). 스페인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인문사회 21, 8(6), 291-306.
- Rosenthal, G. (2006) The narrated life stor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experience, memory and narration. University of Huddersfield.
- Rosenthal, G. (2008).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hrung(2). Weinheim und Munchen: Juventa.
- Sherraden, M. S. & Martin, J. J. (1994). Social work with immigrants: International issues in service delivery. International Social Work, 37(4), 369-384.
- Stephen Joseph. (2018). 외상 후 성장의 과학. 임선영, 김지영 역, 서울: 학지사.
- Tedeschi, R.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ABSTRACT

A Life-historical Narrative Study on the Growth Experiences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Chunyang, Li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 Myungsoun Shin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21

By examining the life and experience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Dewey's experience growth, and the changes in their growth in those lives and experien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n single-parent migrant women while at the same time presenting measures for successful self-reliance and growth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To achieve this goal, the network was formed from 2018 and began on November 2019 with research approval from Inha University's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in December 2019. Prior to that, earlier studies related to marriage migrant women and single-parent migrant women were reviewed, and the study of 'adaptation and self-reliance', 'growth after adversity' and 'experience theory' were studied focusing on 'growth' and 'change' related to research topics. Finally, Dewey's theory of experience growth was best suited to the study of changes and growth in the experience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thus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it.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for data collection was organized by June 2020 with a literature review to collect data for research. With the introduction of acquaintances and the introduction of a group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25 research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long with snowball collection method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group interviews, personal interviews, and telephone interviews. Collected recordings and recording materials were transcribed and compiled to establish a database for use in research with field records observation journals. Additional data collection steps were also carried out over the phone for the necessary parts of the process. In the final study, a typical 14 of 25 cases of borax were used.

In order to examine the life experiences of immigrant single-parent women and their growth changes in those experiences, a life-historical narrative technique was use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Life-historical narrative research is based on the study of life history, and the core is in 'narrative' (Rosenthal, 2006). Immigrant single-parent women are a group that is difficult to access at this point,

and they need to communicate their voices to society as an underprivileged class in Korean society. To the extent that research on single-parent migrant women is not actively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deeply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through overall explanation and analysis and to analyze the meaning and growth of such experiences through the narratives of as many research participants as possible. And through the life experience narrative of as many research participants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this study, technical nar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research participant through story restructuring based on the collected data. Under the iter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analysis procedure based on pragmatic eclecticism suggested by Kim Young-cheon (2017), the experiences of growth change through explanatory narrative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life experience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fter becoming single parent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tents were derived.

First, in the technical narrative of the first direct experiences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hear, see, feel, and change, Cloninger (1994) suggested individual self-management and self-direction, one of the three characteristics that reflect the aspects of interpersonal self-transcendence (directedness) and the individual's initiative in the process of becoming single parents (Orant, 2000; 2007), the 14 research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self-directed, non-directed, and the institutional dependent type. As a result of the technical narrative for each research participant, first, when looking at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overall life experience from marriage to family breakup and becoming a single parent, self-directed research participants were 'marriage - adaptation - conflict - depression - distress - decision - divorce'. They experienced the process of adaptation - recovery - independence - growth, and the participants of the institutional terrain study experienced the process of 'marriage - adaptation - crisis - escape - distress - decision - divorce - depression - adaptation - recovery - independent - growth'. And it was found that the non-directed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process of 'marriage - adaptation - bereavement / divorce - embarrassment / anger - depression - adaptation - recovery - independent - growth'. As such, the times when negative emotions such as stress, depression, sadness and anger appear frequently in the process of marriage before becoming a single parent in the case of self-directed research participants, while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dependent type and non-directed research participants, they fell into depression after becoming a single parent.

Second, it was found that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single parent, individuals are related to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s the main factors for leading actions, whether they have experience in private conversation before and after entering the country, whether they have economic activities before and after marriage, and whether they share a burden on the family economy after marri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elf-directed research participants have a relatively high level of verbal communication, have a lot of experience in socializing and economic activities before and after entering the country, and tend to pay for family living with their ex-spouse after marriage. On the contrary, institutional geography and non-led research participants mostly had difficulties communicating even after they became single parents, or moved to school at a relatively young age without experience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r upon graduation, and the family's

livelihood after marriage was largely borne entirely by the spouse.

Third, all research participants seem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so they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ll social activities at the same time, while continuing to develop themselves by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 and tomorrow learning card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but there has been a huge change i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ince becoming a single parent.

Through explanatory narrative about the specific experiences of growth and change after the research participants became single parents,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re were changes and growth in 'economic side', 'psychological side', 'physical side', 'community participatory side',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First, topics such as 'returning economic initiative', 'life free from debt', 'childrearing with support', 'cancer surgery and treatment', and 'healthy body' were derived from economic and physical changes and growth.

Next, the identity and psychological changes were based on sub-topics such as 'Korean Identity', 'Out of Depression and Stress', 'Discovered Mind', 'Awareness after Death', and 'Audience and forgiveness', which led to changes in identity and psychological growth.

In addition, research participants such as 'economic activities to get out of poverty', 'practicing volunteer work' and 'local activists for immigrant life and welfare' confirmed that single-parent migrant women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community activities as members of the Han-gu Community, along with exploring their own values.

In addition, to prepare for self-improvement and retirement, research participants prepared for their 'old age' by 'getting a certificate in spare time' and 'searching for a lifelong job' whenever they had time, subscribing to savings, pensions and insurance, and maintaining their health through continuous health checkups to prepare for crises and accidents.

And we could see that religious beliefs, social support, and personal efforts play a major role in the process of change and growth in life and experience after becoming a single parent. At the same time, several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it is a matter of social prejudice that still exists. Second, it is a matter of speed in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Third, vocational education is a matter of employment linkage after self-development. Fourth, it is a problem of lack of housework and home care time. Fifth, it is about the survival of children after crises and accidents.

Based on the findings and the implications derived, this study seeks to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and research suggestions for the right growth and self-reliance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the use of media and others in order to recognize the social contribution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such as economy, service, and local activities and make positive image calls around it. At the same time, continuou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inforcement will be necessary for all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working-level officials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Second, it will be necessary for single-parent migrant women to provide timely information after experiencing family disintegration. It should be mandatory for the office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ingle-parent migrant women and provide them with relev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administrative documents after the disbandment of the family.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that single-parent migrant women feel a sense of decency in society by providing home-visiting services when necessary.

Third, research shows that there were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with the participants. It is necessary to ease it by expanding health and health education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for single-parent migrant women.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need for home-visiting education.

Fourth, practice of job-linked services will be necessary after particip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d self-development programs. Research shows that in fact, research participants are not engaged in related professions, even though they hold multiple professional technical certificates through a wide variety of self-development. This would require a later related job linkage system, even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in the country.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regular home support services to single-parent immigrant women families. The provision of regular household support services to single-parent families of migrant women who are too busy caring for their families due to economic activities will benefit from a brief respite from the tense life rhythm, which will bring about harmony between the body and mind.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organize and implement a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migrant women including single-parent migrant women.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in relation to the issue of child survival in case of crisis or accident. Crisis situations and post-accident survival of children are actually the most worrisome par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o far, however, few related support systems, countermeasures and research have been found.

Eighth there will be a need for continued professional research in relation to single-parent migrant women. In particular, there will be a need to shift the negative image in the field of research, with the positive aspects of research being done together. In addition, expanding and developing psychological counseling treatment programs using religion, story, literature, etc. will be urgently needed.

Ninth, there will be an urgent need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nationality and special naturalization policies for single-parent migrant women.

Based on Dewey's theory of experience growth,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migrant women's marriage and dissolution, and the status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and explored the positive changes in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through various real-life cases collected at the site. This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e lives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and in their attempts to discover positive changes in their lives and experiences. However, this is never intended to encourage migrant women to break up their homes by highlighting their strengths and dominance. Through the examples of several single-parent migrant women, we hope that the status and changes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as ordinary people and members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ir real lives and experiences as people, will be a model of Korean life for all migrant women, including single-parent migrant women, and hope that more people in society will pay attention to

single-parent migrant women and conduct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addition, we hope that single-parent migrant women will recognize their efforts and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that they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e positive and bright energy they have shown us, and that they will preserve any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against them in today's society. Along with this wish, the researcher plans to continue to carry out in-depth research on single-parent migrant women even after the doctor's degree, with themes such as changes in child rearing,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of counseling treatment programs.

Keywords Single-parent migrant women, problem situations, experiences, growth, change, life history narratives

연구 참여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

1. 연구 제목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경험 속 성장 사례연구

2. 연구 기관 / 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304B)

3. 연구원

연구책임자_이준양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010-4595-3903/lcy070926@naver.com)
공동연구자_김영순 (사회교육과 교수/010-2807-7471/ kimysoon@in.ha.ac.kr)

연구 참여 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경험 속 성장 사례연구'에 참여해 주시길 경중하게 요청합니다.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실 지 않으실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설명문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위험(불편감)이나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불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셔 주십시오.

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시작한 국제결혼 열풍이 2005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해체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해체 가정 중의 10% 정도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별, 별거, 미혼모 등 해체 가정 이주여성들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 해체를 경험한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사회문화 적응의 생활적 어려움, 특별히 시달렸던 경험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체류 자격으로 인해 취업난 및 양육비 받지 못하므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사회적 편견 지적하고 등 다방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많은 유형의 문제 상황을 경험함에 비해,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극복하며 적응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국내 거주 중의 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 해체 경험을 경험한 25명의 한부모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삶과 경험을 살펴보고, 문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장 경험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5.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은 IRB 승인 이후부터 시작하여 1년 정도 소요합니다.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경험 속 성장 변화를 탐색하며 한부모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하여 25명의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면담 시간은 약 90-180분 정도 소요합니다. 귀하의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면담내용을 녹취하고,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며 녹취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하며 귀하에게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6.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실 경우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 할애를 통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면담을 진행하는 장소와 시간은 연구 참여자 편의에 맞추어 근무

하고 계시는 근무지로 방문할 예정이며, 최대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담 때마다 소정의 사은품(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7. 연구참여와 중지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연구 참여를 시작하며 진행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연구 참여 동의서 또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또는 연구도중에 연구 참여를 중단하시더라도 그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구자 측의 사정으로 연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본 연구를 위해서 귀하의 면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되고,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9. 연구 관련 문의

본 기관에 연락하실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 권익에 관한 내용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32-860-7154 / e-mail : irbedu@inha.ac.kr

연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동의서 1부는 연구자가, 1부는 연구 참여자께서 수령합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합니다.

● 연구 참여자: 성 명: _____(서명)

서명일: _____

● 연구자: 성 명: _____(서명)

서명일: _____

부록 2

사회 인구학적 연구 참여자 정보				
이 름		나 이		
출 신 국		한부모 가정 된 시기		
연 락 처		학 령	<input type="checkbox"/> 입학 전 _____ <input type="checkbox"/> 입학 후 _____	
입국시기		종 보	<input type="checkbox"/> 입학 전 _____ <input type="checkbox"/> 입학 후 _____	
월 소 투		주 소	_____시 _____구	
희 미		지 원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자 격 증		양 육 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별거,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 사우 _____			
가 족 관 계	관 계	나 이	성 별	직 업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입력하신 정보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참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름 : ▪ 연락처 :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면접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름 : 이 준양 ▪ 연락처 : lcy070926@naver.com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 (서명)</p>	

[서식 22]

심의결과통지서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우)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전화: 032) 860-9158 email: irbedu@inha.ac.kr

연구과제명	(국문) 해체 가정 이주여성의 역경 속 성장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영문) A Case Study on post-traumatic growth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Broken families					
심의유형	<input type="checkbox"/> 정규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초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기보완 <input type="checkbox"/> 재심의 <input type="checkbox"/> 재심의보완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지속					
승인번호	191119-1A					
연구자	연구 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연구자	이춘양	다문화교육학과	대학원생	01045953903	lcy070926@naver.com
		김영순	사회교육과	교수	01028077471	kimysoon@inha.ac.kr
연구기간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연구승인기간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연구대상자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함: 아래 사항에 모두 표시하고 다음 항목으로 가시오. <input type="checkbox"/> 영/소아/청소년(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말기 환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동의능력이 손상된 사람 <input type="checkbox"/> 시설수용자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뢰자의 피고용인(학생, 연구원 등) <input type="checkbox"/> 수감자 <input type="checkbox"/> 군인 또는 유사 조직의 구성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해체 가정 이주여성)					
연구형태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사연구: 비중재적 관찰, 설문, 면담 연구 <input type="checkbox"/> 실험연구: 중재 개입 연구 (운동, 체력, X-ray 투시,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이용					
연구협약기관(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견	※연구 수행 시 자료수집기관 혹은 부서의 자료수집 관련 절차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심의 수행해야 하며, 연구 종료 후 6개월 내에 최종결과 보고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수행 시 IRB 직인이 있는 동의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동의서면제 제외). 먼저 032-860-9158 로 연락주시고 IRB 사무실(5 남관 346호)로 제출하시어 직인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수량이 많은 경우,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승인(시정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연구 중지 및 보류					